부 록

草溪卞氏良田門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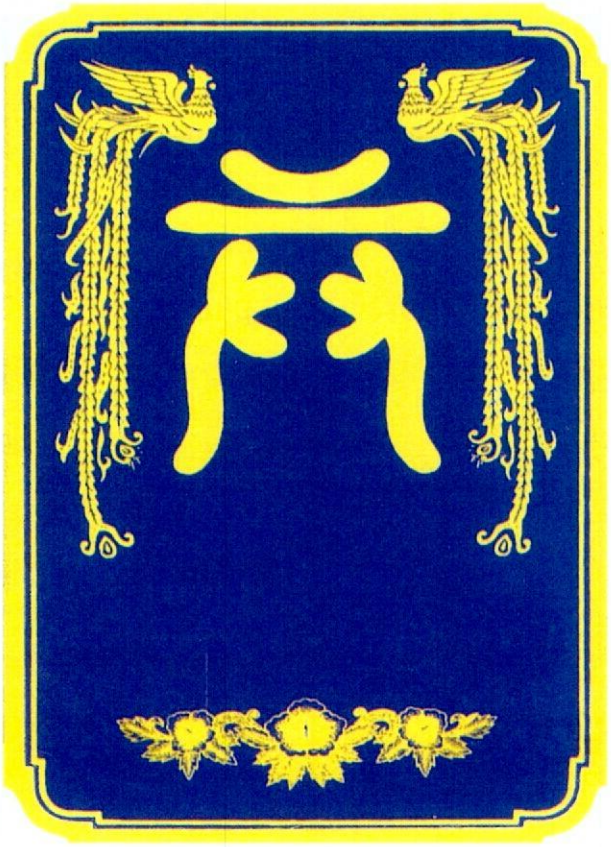
초계변씨 대종회

변 재 영 이사님 께 올

2023. 9. 4

변 동 식 드림

宗旗・宗標



草溪卞氏良田門中

宗標 · 宗旗 설명

卞字의 古字로 象形文字입니다.

姓卞 또는 法卞으로 辭典하고 있습니다.

두 臣下가 임금 앞에서 揖하고 아뢰어 임금이 同意하면

그것이 곧 法이었다는 形象이 文字로 표시된 것입니다.

圖案者 31世孫 奎 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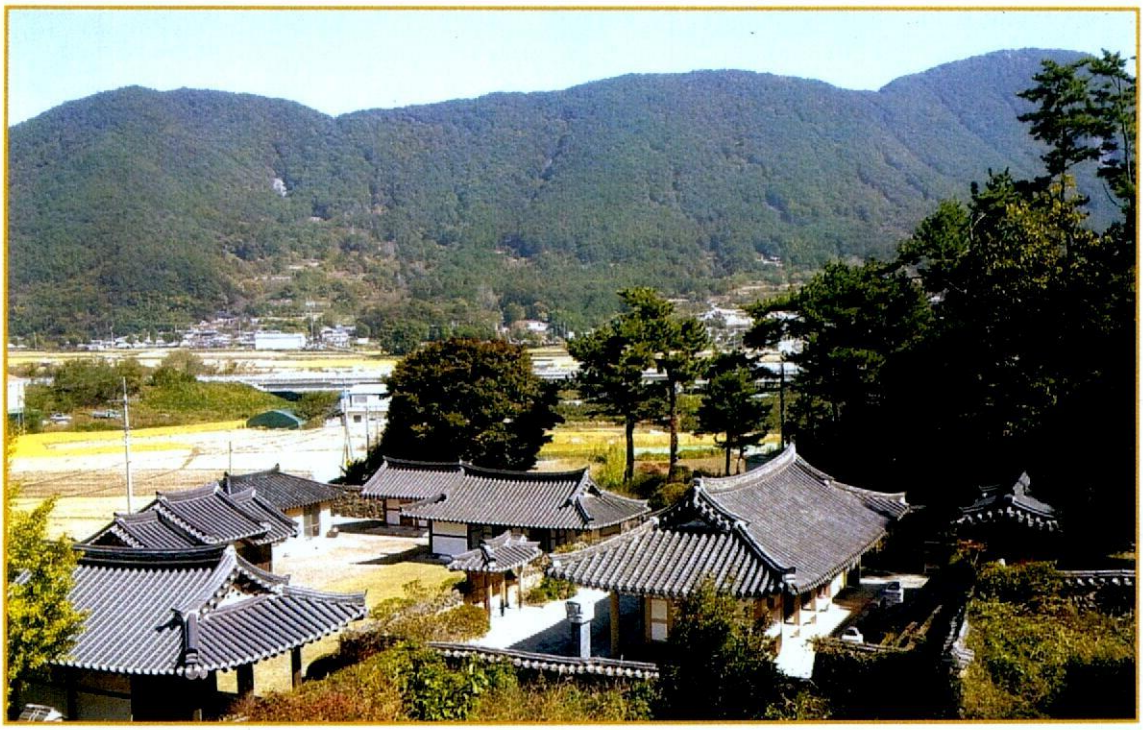
始祖 八溪君文烈公 (諱 庭實) 묘소와 영모재
경남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 3구 1040번지



고려충신 문하평리공(諱 贇) 묘소 (配 貞夫人 李氏와 招魂合葬)
충남 청원군 직산면 남산리 산 37-1번지



良田入鄕 시조 진사공(諱 國秀) 묘소, 묘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암리 산29번지



초계변씨 양전문중 재실 전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암리 38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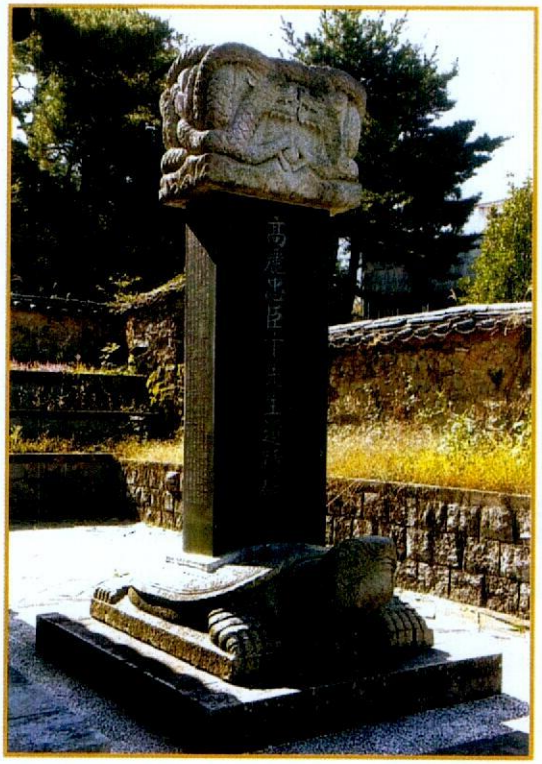
성 구 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암리 389번지



성구사 朝庭碑銘

(성구사 경내)



고려충신 문하평리공 (諱 贇) 유적비

(성구사 경내)



도산서원과 현판
(성구사 경내)



존양재와 현판
(성구사 경내)



일신재와 현판
(성구사 경내)



장병동 사지(변연수 장군 의병훈련장, 국수봉과 문도산이 연접하고 있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암리 적석산 산중



성구사 안내문



문화재 표시판



삼강려 전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233번지



삼강려와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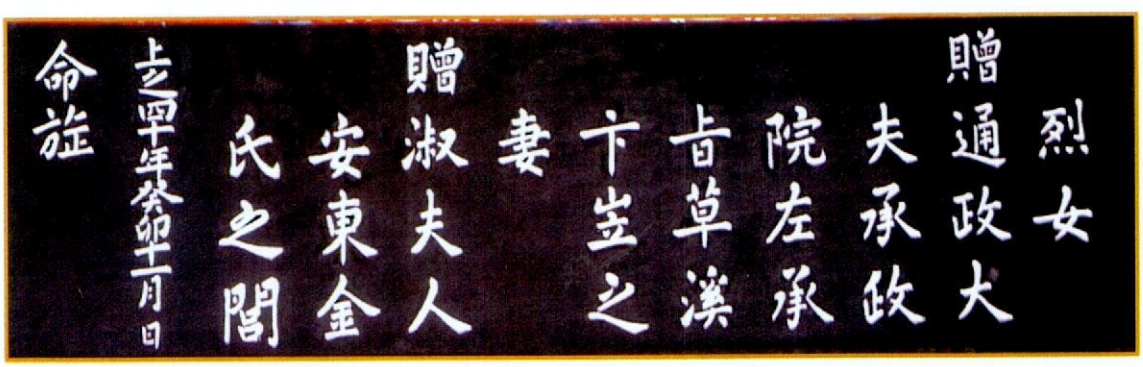
삼강려 神道碑銘



忠臣 변연수 명정
(삼강려각 내)



孝子 변립 명정
(삼강려각 내)



烈女 숙부인 안동김씨 명정
(삼강려각 내)

春秋大讀君臣義

天地長存父子恩

同時貞烈光千古

扶世綱常華一門

삼강려 주련



삼강려 안내문



忠臣 변연수 장군 묘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동산리 산55-1번지



孝子 변립 烈女 안동김씨 묘소(합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산리 산55-1번지



4.3삼진독립의거 8의사 묘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삼진독립의거기념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宗 訓

爲 先 조상을 위하고

爲 宗 종중을 위하고

爲 孫 자손 만대를 위하여

草溪 · 密陽卞氏大宗會

目　次

畵 報 …… 3
序 '뿌리'를 편찬하면서…… 19
草溪卞氏의 先世系…… 20
草溪卞氏 良田門中…… 22
良田入鄕始祖 進士公 諱 國秀 系譜…… 24
附記
姓氏, 族譜에 對하여…… 25
誠久祠誌 原本 (全)…… 31
敎 旨
卞延壽 敎旨…… 139
卞岦 敎旨…… 140
淑夫人金氏 敎旨…… 141
誠久祠誌 國譯…… 143
附 記
27世 龜淵…… 249
27世 應洙…… 251
三綱閭重修記…… 254
三鎭義擧史
도문화재 지정서…… 259
三鎭義擧 槪要…… 260
附記 28世 相泰 …… 274
4.3삼진의거발생지 사적지정계획(일부발췌)…… 279
三鎭獨立運動史(일부발췌)…… 315

序

'뿌리'를 편찬하면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자신의 뿌리(根本)에 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알고 있는 것이 없어 당황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 姓氏가 이 곳 良田마을(지금의 良村里와 日岩里)에 터 잡아 世居한 지 500餘年이 되었지만 良田門中의 來歷에 대하여 國譯으로 정리되어 있는 서책이나 기록이 없고, 또한 문화재지정에 따른 자료도 정리된 것이 없어서 아쉬워 하던 차에 가지고 있는 資料와 遺跡을 토대로 후세대를 위한 '뿌리'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門中이 名門氏族으로 인정받으면서 이 곳 良田마을이 忠孝의 고장으로 名聲을 얻게 되고, 1919년 3.1항일운동 당시 三鎭(진전, 진북, 진동)의거 만세운동의 발원지였던 성구사(誠久祠) 경내가 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한 것은 오직 우리 烈祖께서 仁義로 一身을 세웠고 나라를 위한 愛國忠節에 목숨을 바친 곧은 忠誠과 높은 節義에 많은 세상사람들이 敬慕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史蹟에 관하여 오늘날 門中 宗史에 많은 史證을 남겨 주신 27世 諱 應洙 正言先祖께 큰 절을 올립니다.

우리 後孫들은 이 '뿌리'가 求心力이 되어 先祖들의 崇高한 精神과 충절을 기리고 이어받아 代代孫孫 우리卞門의 繁盛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2016년 7월 일

뿌리編纂人 31世孫 奎 錫 拜上

草溪卞氏의 先世系

周나라 文王[1]의 第六子[2] 諱 淑鮮이 처음 曺나라에 封해[3] 졌다가 후에 魯나라[4] 卞邑에 分封되어 지역 이름을 따서 卞이라 姓하였다.

그 후 累代가 失傳되어 繼代를 못하였다가 後孫 諱 源이 唐나라[5] 玄宗 때 禮部尙書[6]에 오르고, 新羅 景德王[7] 二年(서기 743년) 新羅 使臣이 되어 浙江을 거쳐 成都(長安)에 왔을 때 현종이 唐의 學士 八人에게 孝經[8] 一帙을 下賜하고 신라에 가서 孝經을 가르치고 詩를 崇尙하라는 命을 내렸다.

公은 中郎將 魯忠國, 大司徒 呂元奉, 翰林 盧撝, 大將軍 閔叔, 尙書令 洪悅, 中部將 董燁, 河南太守 李翼과 함께 신라에 와서 정착하였으나 文獻이 없어 정확한 昭穆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高麗 成宗 때(서기 985년) 文科에 登第하여 門下侍中[9]을 지내고 八溪(草溪의 古號)君에 封해진 諱 庭實(諡號 文烈公)을 始祖로 하여 繼世하고 本貫을 草溪라 하였다.

그리고 草溪卞氏에서 分籍하여 고려 때 國子進士가 되고 密陽에서 世居한 諱 高迪(四世祖)을 一世로 한 密陽卞氏도 또한 같은 諱 庭實의 後孫으로 大宗會를 같이 하고 있다.

※ 역주(譯註)

① **주(周)나라** : 중국의 옛날 왕조. 섬서성에서 일어나 文王 때에 번성했음. 아들 武王이 동방의 은나라를 쳐부수고 나라를 세워 鎬京에 도읍, 전국에 일족공신의 식민국가를 세워 지배했음. 이른바 周나라의 봉건제도임. 秦나라에 亡했음. (기원전 1100?~256년)

② **제육자(第六子)** : 여섯 째 아들.

③ **봉(封)** : 토지를 제후에게 나누어 주어 領有시키던 봉건제도.

④ **노(魯)나라** : 중국 周나라 때 列國의 하나. 武王의 아우인 周公 旦을 시조로 함. 旦은 武王을 도운 功으로 曲阜에 封함을 받아 뒤에 그의 아들 백금에게 물러 주었음. 지금의 山東 曲阜에 도읍했음. 기원전 249년 楚나라에 망함.

⑤ **당(唐)나라** : 중국 왕조의 이름. 李淵(高祖)이 隋나라 恭帝에게서 임금자리를 물러 받아 즉위한 때부터 哀帝가 朱全忠에게 亡하기까지 20세 290년간에 이름. 남북을 통일하여 정치, 문화의 대발전을 이룬 시대. 정치, 외교, 문화상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관계가 밀접했음. 長安에 도읍. (서기610년~907년)

⑥ **예부상서(禮部尙書)** : 의례를 맡아보던 부서의 책임자. 지금의 장관급.

⑦ **경덕왕(景德王)** : 신라 35대왕. 성덕왕의 아들. 모든 제도와 관직을 당나라 식으로 고치고 당나라와 교역을 활발히 하여 산업발전에 크게 힘써 신라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재위 서기 742~765년)

⑧ **효경(孝經)** : 공자와 그의 제자 증자가 효도에 대하여 논한 것을 증자의 문인들이 기록을 한 책.

⑨ **문하시중(門下侍中)** : 고려 門下省의 으뜸벼슬. 종1품. 나라의 모든 정치를 도맡아 살피던 대신.

草溪卞氏 良田門中

1520년경 草溪卞氏 시조 諱 庭實(八溪君, 文烈公)의 16세손인 諱 國秀 進士公이 이 곳 馬山의 名山 積石山이 서남쪽에 연접하고, 東으로 넓은 벌판을 가로질러 鎭田川이 흐르는 良田마을(지금의 日岩里와 良村里)에 두 아들 栢과 竹이 함께 入鄕한 것이 이 지역 卞門의 始祖이시다.

이 곳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암리 389번지에는 卞門의 宗室과 誠久祠가 있다. 고려말 충신 卞贇과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卞延壽 將軍과 그의 아들 卞岦의 忠節을 기리는 사당으로 1천여평의 경내에는 正堂인 道山書院과 日新齋, 存養齋가 있다.

8세조 卞贇선생은 고려 恭愍王朝(1351~1374년) 門下評理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判書 成萬庸, 博士 鄭夢周, 提學 洪載, 大司成 李穡, 典書 金成牧, 典書 趙悅, 進士 李午 등 많은 충신들과 함께 망국의 恨으로 슬퍼하다가 기약없이 스스로의 뜻에 따라 행동키로 결의하고 선생은 杜門洞(개성 서쪽 15리)에 들어가 고려에 대한 不事二君의 忠節을 다하고 죽으니 두문동 72賢의 한 분이시다.

卞延壽 장군은 이 지역의 入鄕始祖이신 諱 國秀 進士公의 親孫으로 조선 中宗 33년(1538년) 이 곳에서 태어나 武科에 及第하고 訓鍊院 主簿의 벼슬에 올랐으나 休官으로 향리에서 쉬고 있을 때 임진왜란(1952년)을 당하자 아들 卞岦에게 "나라에 목숨을 바칠 때"라 이르고

즉각 檄文을 내어 원근에서 義兵을 모아 인근 장병골에서 훈련하여 沿海의 출몰 왜적을 격퇴하고, 李舜臣 장군 휘하에 합류하여 唐浦와 玉浦海戰에서 敵을 크게 무찔러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란(1597년) 때 唐浦海戰에서 아들 卞岦과 함께 死力을 다해 적과 싸우며 勇戰하다 殉國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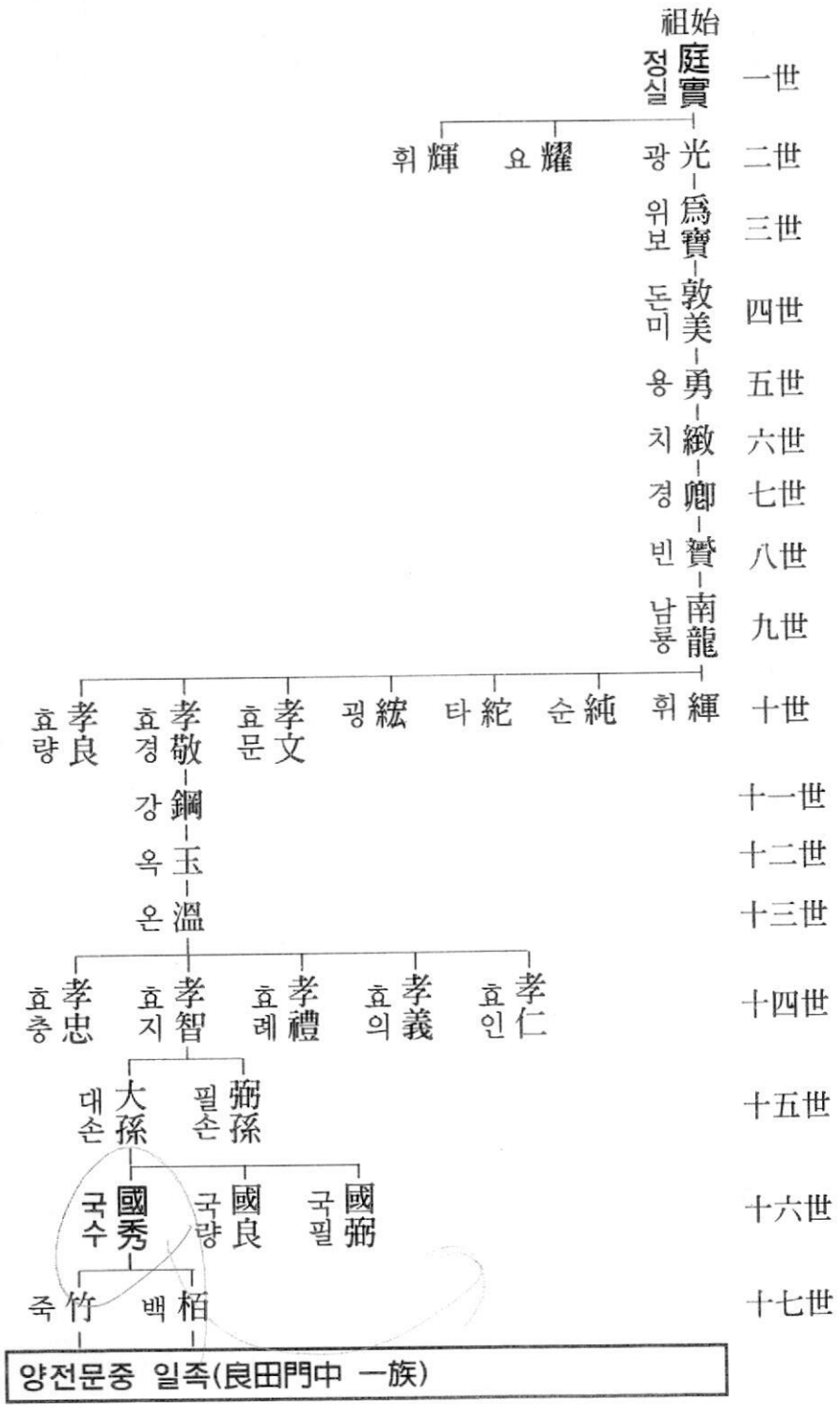
당시 장군이 義兵을 모아 훈련하였던 장소로 積石山 능선인 國守峯, 藏兵谷, 問道山 地名은 지금까지도 불러 사용되고 있다.

아들 卞岦은 戰死한 아버지의 시신을 안고 통곡하며, 父命에 따라 마지막까지 奮戰하다 그도 또한 아버지의 뒤를 따라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나라에서 忠臣 卞延壽 장군에게 贈 兵曹判書를, 아들 孝子 卞岦에게는 贈 承政院 左承旨 첩지를, 그리고 고향에서 義烈로 8일 동안 식음을 끊고 자절한 卞岦 부인 烈婦 安東金氏에게는 贈 淑夫人의 첩지를 내리고 고향에 一家三綱(忠·孝·烈)을 기리는 旌閭 三綱閭(정려 삼강려)를 내려 후세 龜鑑(귀감)으로 삼게 하였다, 세상에서는 변빈, 변연수, 변립 세 분을 기려 卞氏三賢 또는 三忠이라 일컫는다.

또한 1919년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전국 4대 만세운동인 제안리의거, 선천읍의거, 수안의거, 그리고 순수민중봉기로 국내 최대규모인 三鎭(진전, 진북, 진동)義擧 발원지인 誠久祠 경내가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제244호로 지정되어 있다.

良田入鄕始祖 進士公 諱 國秀 系譜



附記

姓氏의 기원

성은 혈족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인류사회가 시작되는 원시시대부터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원시사회는 혈연을 기초로 하여 모여 살았고, 따라서 조상이 같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모여 살았을 것이며, 이때를 우리는 씨족사회(氏族社會)라고 한다. 씨족사회는 씨족 전원이 힘을 합하여 사냥, 고기잡이, 농사짓기를 하고 외적의 침입도 공동으로 방어했다. 그러다 보니 그 집단을 통솔하기 위하여 씨족회의를 열어 씨족원 가운데 경험이 많고 덕심이 있는 사람을 씨족장으로 삼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씨족회의를 열어서 씨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등한 자격으로 민주적인 결정을 하였다.

씨족사회도 시대가 흐르고 인구가 증가하고 代가 멀어짐에 자연히 같은 씨족 중에도 혈통이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 살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개의 씨족집단이 서로간에 생산물을 교환하고 같이 연대하여 외적을 방어하는 부족사회(部族社會)로 발전하였으며, 부족사회는 다시 씨족장(氏族長)이 모여서 부족장(部族長)을 선출하고, 부족국가(部族國家)를 형성하였으며 부족국가는 다시 부족연맹체(部族聯盟體)를 조직하고 부족연맹이 王을 선출하여 국가생활을 영위(營爲)하게 된 것은 오늘날 사회(社會), 역사(歷史)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인류사회는 혈연에서 출발하고, 혈연중심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원시시대부터 씨족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했다. 자기 조상을 숭배하고 동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씨족의 명예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각 씨족은 다른 씨족과 구별하기 위하여 각기 명칭이 있었을 것이며, 그 명칭은 문자를 사용한 뒤에 姓으로 표현되었으며 동양에서는 한자를 발명한 중국이 제일 먼저 사용했다.

한국姓氏의 특성

우리나라 성씨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나 성명(姓名)의 구성과 개념이 서로 특이하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의 人名을 살펴보면 姓과 본관(本貫)은 가문(家門)을, 이름(名)은 가문의 대수(代數)를 나타내는 항렬(行列)과 개인을 구별하는 字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인의 성은 남계(男系)의 혈족을 표시하는 칭호로써 말하자면 한국의 성은 가족전체를 표시하는 공칭이 아니라 원래의 가계(家系) 그 자체를 본위로 한 호칭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된 가정이 변동되더라도 즉 어떤 사람이 혼인을 하여 갑의 가족에서 을의 가족에 입적을 하는 경우에도 姓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성씨 제도의 하나인 사성(賜姓)은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귀화인(歸化人)에게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인 제도로 나타난 성을 볼 때 거기에는 대체로 세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유덕자(有德者)를 표창하는 일종의 영전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둘째, 봉건시대 제후(諸侯) 대우의 표준으로 사용되었고

셋째, 혼인을 정한 하나의 표준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지난 날의 姓에는 과연 여러 가지 존비(尊婢)의 계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족보(族譜)의 필요성

족보는 일족의 혈통과 가계(家系)를 알고, 동족(同族)의 단결과 보다 나은 활동추진을 위한 값진 씨족의 보감(寶鑑)이다. 따라서 족보는 가족의 계통을 기록하고 선조의 사적(史蹟), 공적(功績)을 수록한 책이다.

그리고 족보를 만드는 목적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시조가 동일하다는 종족(宗族)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2. 깊은 혈연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을 높이기 위해서.
3. 혈연집단의 한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깊게 하기 위해서.
4. 일족(一族) 상호간에 상부상조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5. 가족이 사회적 명성을 높여 선조의 이름을 선양하기 위해서.
6. 종족의 구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7. 종족의 교화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8. 족인(族人)으로서 역사적 자각을 환기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 등을 들 수 있다.

족보연혁(沿革)에 관하여

족보는 원래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姓과 같은 姓이 많이 있기는 하나 250姓 정도의 우리나라에 비해 2,500姓이 넘는다고 하니 엄청난 숫자이다.

보학(譜學) 연구의 선구자는 중국 제(齊)나라 사람인 가희경(賈希鏡)으로서 그는 중국의 모든 토족(土族)의 족보를 총망라하여 100질(帙) 700권(卷)에 달하는 족보를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왕실계(王室系)만을 기록 보존하여 오다가 고려시대에 이르러 개인 문중의 족보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고려 제11대 왕인 문종(文宗, 1046~1083년) 때부터는 성씨가 없는 사람은 과거시험에도 응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때부터 많은 성씨가 생겨 났으며, 족보로서의 체계가 갖추어 졌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맨 처음 완성된 문화류씨(文化柳氏)의 가정보(嘉靖譜, 1522~1566, 중종 16~명종 21년)와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성화보(成化譜, 1476년 성종 때)는 모든 족보의 표본이 되었다고 한다. 고려 숙종(肅宗, 1095~1105년) 때에는 족보가 없으면 상민(常民)으로 떨어져 사회적인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뇌물까지 써가면서 명문대가의 남의 족보에 한 몫 끼인 일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 시조(始祖)와 본관(本貫)의 유래

우리 시조의 선세계(先世系)는 주(周)나라 문왕(文王, 기원전 690~705년)의 여섯째 아들로서 노(魯)나라(周나라의 列國)의 변읍(卞邑)에 봉토(封土)를 받아 살았으므로 姓을 卞이라 하였다.

그 후 누대(累代)가 실전되어 계대(繼代)를 못하였고, 그의 후손 원(源)이 당나라에서 벼슬하여 예부상서에 오르고 팔학사(八學士)의 한 사람으로 효경(孝經) 한 질(秩)을 가지고 신라 경덕왕 때 사신으로 와서 정착하였다.

고증(考證)과 문헌(文獻)이 없어 소목(昭穆)을 밝히지 못하여 고려 성종(成宗 6대임금, 982~997년) 때 문하시중을 지내고 팔계(八溪, 草溪의 古號)君에 봉(封)하여진 휘 정실(庭實 시호 文烈) 할아버지를 시조(始祖)로 하여 계세(繼世)하고 본관을 초계(草溪)라 하였다. 생졸연대(生卒年代)는 미상(未詳)이며 서기 985년 등과(登科)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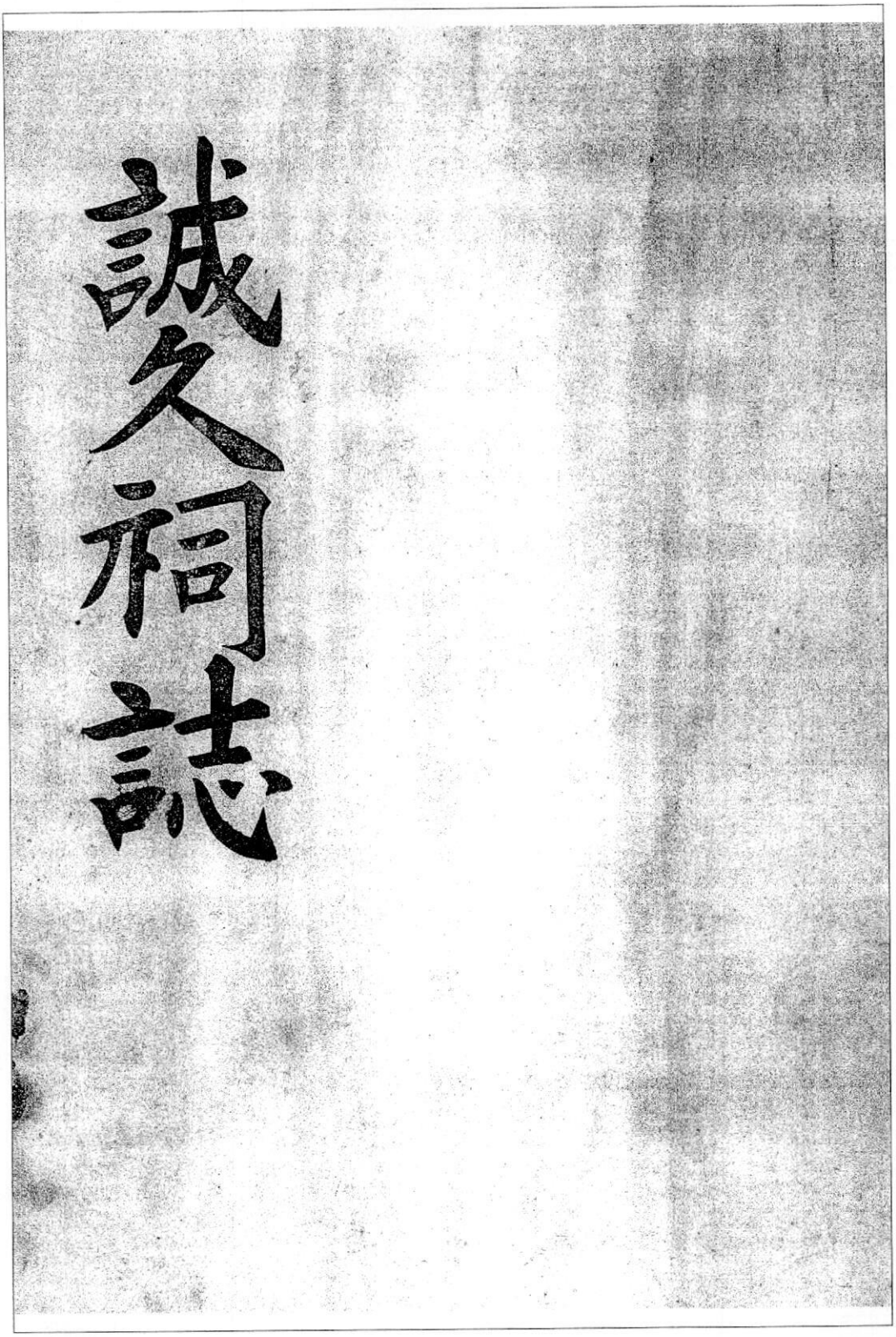
그리고 초계변씨에서 분적(分籍)하신 휘 고적(高迪, 시조 휘 정실(庭實)의 증손자. 고려 때 國子進士가 되고 밀양에서 世居하였음) 할아버지를 一世로 하는 밀양변씨(密陽卞氏)도 대종회(大宗會)는 같이 하고 있다.

우리 시조의 묘소는 경남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에 있다.

매년 음력 10월 1일 영모재(永慕齋)에서 歲一祭를 지낸다.

誠久祠誌 原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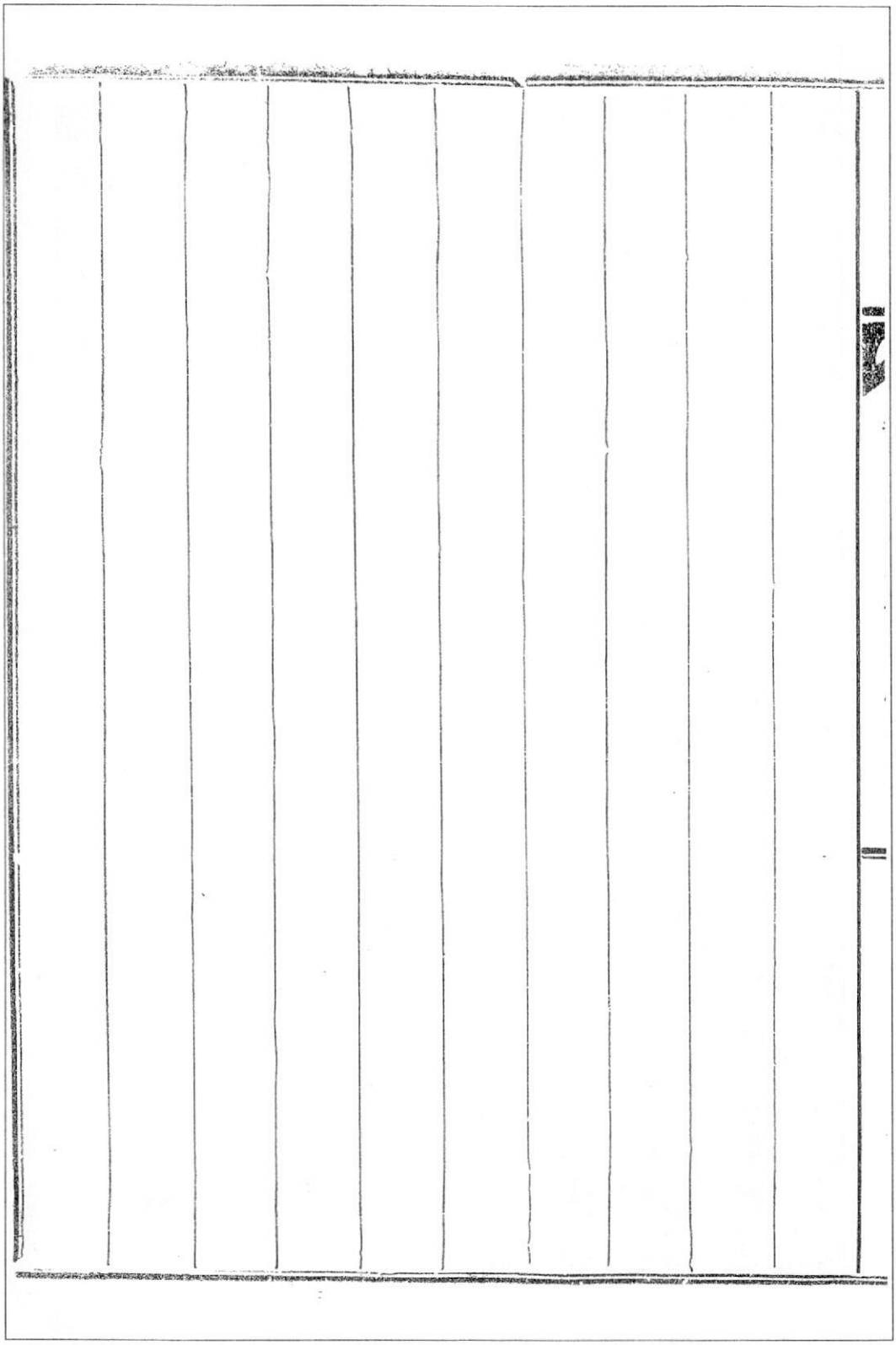
성 구 사 지　원 본


誠久祠誌

有雲仍之能若是乎哉嗚呼評理之高節可與三隱齊光而不少槩見於史籍所傳只燃藜錄寂寥數語而至今五百有餘禩人鮮得知其非氣數之適然者耶主簿公父子雖　蒙褒贈而易名之典尚有感焉烏在天道之果福善而善果有名乎幸於己未章甫之同有是誠者奮發公議創建祠宇奉三公而秉筆君子前後相繼撰述之讚揚之此或可謂得孟子與昌黎也哉於是乎所謂天定者益可驗矣蓋屈者伸之道也故屈於五百年之久而其伸之也將見千萬年之久矣名其祠以誠久固宜乎李直鉉鄭閒敎鄭煥喆諸章甫採摭立祠顚末合成一号送卞容燮

誠久祠誌序

天果福善乎夷齊餓死於首陽何也善果有名乎巡遠之事有闕於李翰傳何哉然則善之福不福名不名皆因一時氣數之適然而非天理之當然也故夷齊得孟子而名益彰巡遠得昌黎而名益著是非所謂天定者歟以吾所觀草溪卞氏之先殆亦類是乎評理卞先生以麗朝忠臣當革命之際罔僕自靖于杜門洞天此豈非夷齊之流亞歟其后孫主簿公當　穆陵龍蛇之變與其子承旨公倡義從李忠武屢立奇功及唐浦之戰父子同殉玆豈非巡遠之儔匹歟於乎盛矣不有賢祖之扶植綱常於前又安



請余弁其首羊皮裹琬其可乎辭不獲略擧其大槩而叙之云爾時昭陽大淵獻斁之重陽日德殷宋哲憲序

誠久祠記
口新齋記
存養齋記
贊
詩 八
卷二
附錄
詩
孟簪聯句
摭錄

誠久祠誌總目

卷一

書 十八

誠久祠上樑文
道山書堂上樑文
日新齋上樑文
奉安文
常享祝文
享祀儀節
廟庭碑銘 並序

總目

上言二
謚狀
主簿　贈判書卞公神道碑銘 並序
三綱閭上樑文
三綱閭記
三綱閭柱聯詩
跋

燃藜實錄
晩隱證狀
茅隱實記
杜門洞遺蹟
奉安文
常享祝文
卷三
附錄
藏兵洞誌
後識

家而已恐不可不盡爲釐正然既無釐正　朝令則其子孫之賢者只當自爲之而百拜告辭之前又當先爲具由以告矣　答楊應秀

河西先生道德節義固爲百世所宗而此則已有士林俎豆之享至於家廟親盡而猶永奉者在禮無徵於法不可雖遷於墓所而終覺未安矣　答金承祖

二　吳震泳

尊先祠事命辭惻怛存義深遠此眞孝子慈孫之心而有匪風下泉之思者苟不失仁義之心者寧不油然而感奮然而作乎但說者之以無所關由而謂之汰哉似迫而未

書

答卞持平 應洙 田愚

尊先祠事始認爲鄉賢俎豆之例今因令孫細聞之乃本孫之行私不祧也此於禮律俱無所據陶菴先生答楊應秀金承祖二書令令孫錄去一覽可以知其所處矣

附陶菴李文正公書

文廟從祠之大賢 太廟配食之功 臣皆當不遷此外則皆僭也眉菴固是碩儒而於斯二者俱無所當爲子孫者安敢以私情而擅行耶湖南此弊最多不獨眉菴

之施之先王者後儒獨不可施之先賢乎村翁之行之異代者國儒獨不可行之同國乎若曰尊先諸公忠義節烈不足爲後人慕望則已今既不然則迨此君臣道喪之日相與爲表忠獎義之擧以寓歌麥詠柏之思恐亦是一道也故近年浦中之享崔勉菴鄙生不敢如說者之非嶺外之享李大山也淺見似此未知知道者以爲如何大抵此事士林響應而一二人不合則亦須具禮義之可否而爛商妥當以歸於盡善之地乃爲眞尊祖先也眞慕忠義也尊賢俟時叫閽乞不祧義恐未然蓋不祧是子孫之百世奉祀者與鄉儒之祠院報祠又自別自廟堂稟處則可也

也夫祠院也者士林自奉之謂鄉祠君上命名之謂賜額賜額之院亦始不之關由而下自爲之從而上請而蒙賜也故豐德之德水書院連山之遯巖書院皆章甫創設而俎豆之經五六十年或二三十年然後因儒疏賜額也則其先雖有所關由而不能關由也明矣夫以栗谷沙溪之道宗學統雖即日經由　朝命而爲之院享固無所不可而乃士林之尊奉先賢上請　朝廷自有先後次序之不可以亂也若其無所關由者亦終於鄉祠已矣昔楚之遺民一間茅屋祭昭王則是楚人無所關由而爲之也蜀之村翁祭祠武侯祠屋則是蜀人無所關由而爲之也遺民

集以顯累百年幽潛之德豈不盛哉

五　　愼炳曒

尊先誠久祠事蹟秉彝之衷人所固有不覺欽艷盥手擎讀則全部三綱錄在於是一室卓節何如是壯哉欽仰萬萬

六　　鄭九鎔

先先生貞忠卓節炳如日星而五百年泯然之蹟見於今日設爲妥靈之所子孫有報本之誠士林修享禮之義紛紜此世表崇善行斯文有幸世教可扶風動遠邇人孰不景仰

子孫自爲疏請未之前聞也若有後賢作請額廟祠如朱子之於忠節祠則庶幾可爲而俟河之清亦復幾何時也悲夫悲夫

三

李直鉉

至愚猶有秉彝儻性之一點不昧故其於誠久祠心悅誠服乃敢滋筆於齋扁之左半死之身如上誠久祠歸老亭呼吸唯諾受賜多矣

四

李準九

尊先評理先生罔僕之節判書公舍生之義其在今日義諦尤當闡揚之尊慕之以警世之無恥者而竟致多士會

蒙旌表之典士林之觀感寓慕孰不欲尊奉而祀之耶且以古蹟論之楚之遺民祭昭王於一間茅屋蜀之村翁祭武候於一體柏祠異代臣民之慕異代君王異代後生之慕異代賢人猶尚如此況同國士人之於同國名賢乎豐德之德水書院連山之遯巖書院蓋當時章甫所議建而經幾許年得蒙　賜額且有援近一證勉菴先師之祠因儒論而設於瀾南大山先生之祠從士論而設於嶠左者爲其忠義學述而然也見今義理都喪倫綱幾斁尤當尚忠獎烈竚待天日復明也言念及此徒發風泉之感愚衷如此未知知道者以爲何如也周爰諮諏恐好恐好

七　成璣運

尊先祖享祠儀節又承惠械謹細審前後事實悅若趨走祠前而參拜於灌甕之地矣景慕欽仰非直慰雲仍之繼志述事且賀公議之猶有不泯者也

八　崔秉心

尊先妥靈以賢祠公議出自士林甚盛甚盛

答誠久祠儒林　鄭閭教

竊念麗末罔僕諸臣中有評理卞先生諱贊見麗運將訖誓從殷末微箕之節歸隱于杜門洞以終其世世所稱杜門七十二隱是也　贈兵判　贈承旨父子踵有卓節並

前輩之卓節懿行後生之所瞻仰依歸而況一門三忠並萃多士薦禋則所謂受天之中者豈不欲趍走爭先

五　河宗鎬

經殘敎弛日暮道遠當驅人入獸之時行慕賢存羊之禮此何等美擧耶非僉尊尊道好賢之實孰能辦此於今日乎臨風傾仰不啻若泰山北斗也

六　李鉉甲

誠久祠享禮極是斯世盛擧凡在儒紳孰不敬慕

七　李鉉鶴

誠久祠俎豆之儀實是盛擧在於縫掖者孰不欽仰

二　鄭煥喆

評理卞先生貞忠卓節炳朗乎日月與圃老相上下而不幸崇奬之恩有所闕焉俎豆之擧尚今寥寥朝家之欠典士林之齎欝爲如何耶當此蔑貞之時慕仰節義以厲頹俗亦扶世教之一端關鍵伏望僉尊合力敦事以報先生當日矢心之萬一幸甚

三　安有商

評理先生罔僕大義曾所欽仰而猥蒙祭官之列揆諸私分侈且幸焉

四　李壽壹

十　宋哲憲

竊惟僉尊於卞氏三賢忠義大節尊奉之事無不極力此如非有得於朱子褒揚忠義之遺訓烏能如是哉令人起敬

上樑文　李直鉉

靖一心而流三綱鞏乎泰山昭乎日月屹兩樑而興百世怵以履露享以春秋多士躋蹌其靈妥侑恭惟評理卞先生罔僕貞節墨胎清風與圃冶而同時易地皆是一體載燃藜以實記極天罔墜昭垂　贈兵判公爲臣克忠敵王所愾奮干戈而有勇死於龍蛇之年作楨幹而無儔生此

八　閔用爀

誠者實而已矣自然而實者天也必期於實者人也斯皆實理之所由而隱之見微之顯亦實之存而不可揜者也評理卞先生貞忠大義判書承旨兩公之忠孝全節聞之於士友傳誦而艷仰熟矣自聞此擧誠欲趍謁而但衰年疾病無日不侵辜負素志而替送家督跡涉猥越玆庸仰達伏惟照亮

九　張錫英

誠久祠事可知羣公衛道之誠而吾人躬逢此世所以扶植殘陽烏可已耶

不朝宗水滔滔萬折必東兒郎偉拋樑西薇歌何日登西首陽與齊萬仞積石峨峨在西兒郎偉拋樑南藏兵谷在山南廓溝龍蛇風雨怪爾海氛自南兒郎偉拋樑北衆星環繞拱北有是父有是子冒白刃肯首北兒郎偉拋樑上天在泰山頂上三賢節義峻極嵬嵬乎無其上兒郎偉拋樑下形上祇在形下若昧天理倫常不學民斯爲下伏願上樑之後天地回泰日月昭臨人務淳質美風用先進之禮樂士篤忠孝善行爲後學之模楷

講堂上梁文

后孫應洙

奉先思孝方占同人于宗門築室告成聿覩大壯之棟宇

鳳凰之國　贈承旨公戰陣一死忠孝雙全是父焉是子焉是同綿竹之壯烈有君也有臣也有光檀箕之舊邦然行蹟流傳於簡編惟行殷末箕微之節功名埋沒於竹帛永嘆域中忠義之人何幸國家加　贈而　兼旌閭里改色儒賢銘碑而揮筆泉塗增光周旋規矩之功爰契玄龜吉日齊發章甫之議肇祀黃羊季秋尚未祠宇之別修曾已經營之匪懈不遠卜於爽塏之地屹乎問道書峯又協吉於清明之天嵬然妥靈丹閣士釋經而敦匠宛如鹿洞之規人盡力而効忠不勞鳩財之道奕奕棟宇肅肅扃除既勤郢斤隨騰張頷兒郎偉抛樑東先生出海之東水無

迨我龜既正倏如翬斯飛與與黍稷孔惠孔時詠楚茨之
祀事丸丸松柏是斷是斲歌魯頌之宮功有人有財信衆
論之克協爰居爰處卜爾福之無疆是所謂有志竟成孰
不曰無遠不届斯歌斯哭儼陟降之英靈如茂如苞翬輪
奐之制度俾爾昌熾見祭儀之蹌蹌綏我思成仰廟貌之
翼翼停爾都料之斧聽我善頌之歆兒郎偉拋梁東千年
淑氣晉陽東諸峯萬疊周圍裏問道佳山是宅中兒郎偉
拋梁南積石巍巍特鎮南磊落元因天地氣此間明是有
其男兒梁偉拋梁西夕陽度盡月生西循環天理終而復
風雨猶聞不已鷄兒郎偉拋梁北白石清灘來自北問渠

曾孫是若君子攸躋恭惟我烈祖仁義成身忠孝傳世罔僕獻而著節千秋有光於殷山敵王愾而立功兩世並命於唐浦三綱旌之　聖恩罔極而徧覆之象猶有憾焉一惠節之廟議恢公而實施之欠是所恨也念先休允文允武之德欠後人我將我享之誠歲一之祭未免羊存本支慨齋庖之無所奮百之風尚遲象設襜紳歎腶食之靡遑經營莫成亶由無地起者顯晦不同抑亦有時存乎睠茲篤洞松田之間實維道山菊峰之下方丈名山蜿然東出積厚發崇巴陵勝水逶迤南來源遠流大雲仍之駿奔均路于于焉曰有先後邱壟之螭頭相望洋洋乎如在左右

鹿洞講論之席罔專美于古人北海西河教授之鄉何莫學夫小子言念師道所存之緒最貴蒙養以正之方山下出泉育德之吉象可監昏中秉燭牖迷之教範惟嚴學不亦悅乎喫緊其復初務本道非可離也究竟是明善誠身歷覽人文之成材亦關地靈之擅勝淡院首創之舉屋仍舊殘仙坪腏享之誠事與時異三洞藏身之計非不可人一門團體之歸尤宜睦族睠茲積石元氣之會迺在問道控抱之奇菊峰爲籬靖節之醉興可掬飯顆正案謫仙之詩話如聞先靈之廟貌肅清慕仰地邇後生之絃歌洋溢趣向路均迨我暇而經營不日成而輪奐斯歌斯聚張老

放海緣何得晝夜眞工流不息兒郎偉拋梁上惟有靑天
臨在上星辰日月昭昭多萬象森羅無盡藏兒郎偉拋梁
下器能體道形而下義路無偏仁宅安由居方是述先者
伏願上梁之後地維鍾靈民德歸厚先靈宜乎祭社臨之
上質之傍衆心可以成城覺其楹丱其正家絃戶誦俗多
講禮敦詩冠章衣縫士皆課忠責孝

日新齋上梁文

后孫應洙

書室謀築方欣輯花樹之同情堪輿按圖聿見育英材之
得地我龜曰止斯翬如飛恭惟出幽遷喬行遠自邇忠孝
世篤烈祖之象設儼臨詩禮日新賢士之筆訓昭揭鵝湖

伏願上梁之後懋學爲己基命用伸立四述四教之方明
夫禮樂講六行六德之義治厥心身出門如見大賓開卷
如對上帝

奉安文　　吳震泳

恭維評理運値麗訖天傾莫拄煩寃壹鬱睠彼善竹達可
己死吾誰與歸孤竹二子新貴鼎至敦迫相隨噫乎道質
柰何民彝微去箕奴一體爲君杜門自靖是惟吾分其義
無愧追隨九原亦越尚書是惟賢孫在昔龍蛇島氛犯邦
奮義敵愾赤血滿腔孝子從陣鑿哉承宣父功子成積勞
有年遂至丁酉天不助順大戰唐浦父子同殉旌　贈錄

之善頌宜興苟美苟完衛人之居室可法澡身浴德克勤撞鍾琢玉之眞工棐几明窻毋忘繩樞甕牖之舊制是所謂成之者誠矣孰不曰築之也樂乎兒郎偉抛梁東天地冲和正自東復性丁寧由學至人從果確一誠中兒郎偉抛梁南氣毋豐孕大嶺南會見文昌天府裏江山無數產英男兒郎偉抛梁西積石三峯立立西正直寬平兼畜象應非虛了與天齊兒郎偉抛梁北勝水佳山來自北至理推看知斂錫無偏無黨保其極兒郎偉抛梁上翼翼精靈臨在上千古無窮忠孝義羹墻於此一心仰兒郎偉抛梁下上達元來學自下祇信人天無二致川流不可暫時捨

瓣香冀蒙歆格啓佑無疆　評理先生位

奮忠敵愾成仁取義未捷身先百歲多事玆値春秋丁憤涕

薦香冀蒙歆格啓佑無疆　判書公位

從父爲孝殉國是忠仁義之報百世其隆玆値春秋丁敬薦

瓣香冀蒙歆格啓佑無疆　承旨公位

享祀儀節

時日

每歲季春季秋中丁日

齋戒

祭前三日祭員俱會散齋二日不縱酒不茹葷不與穢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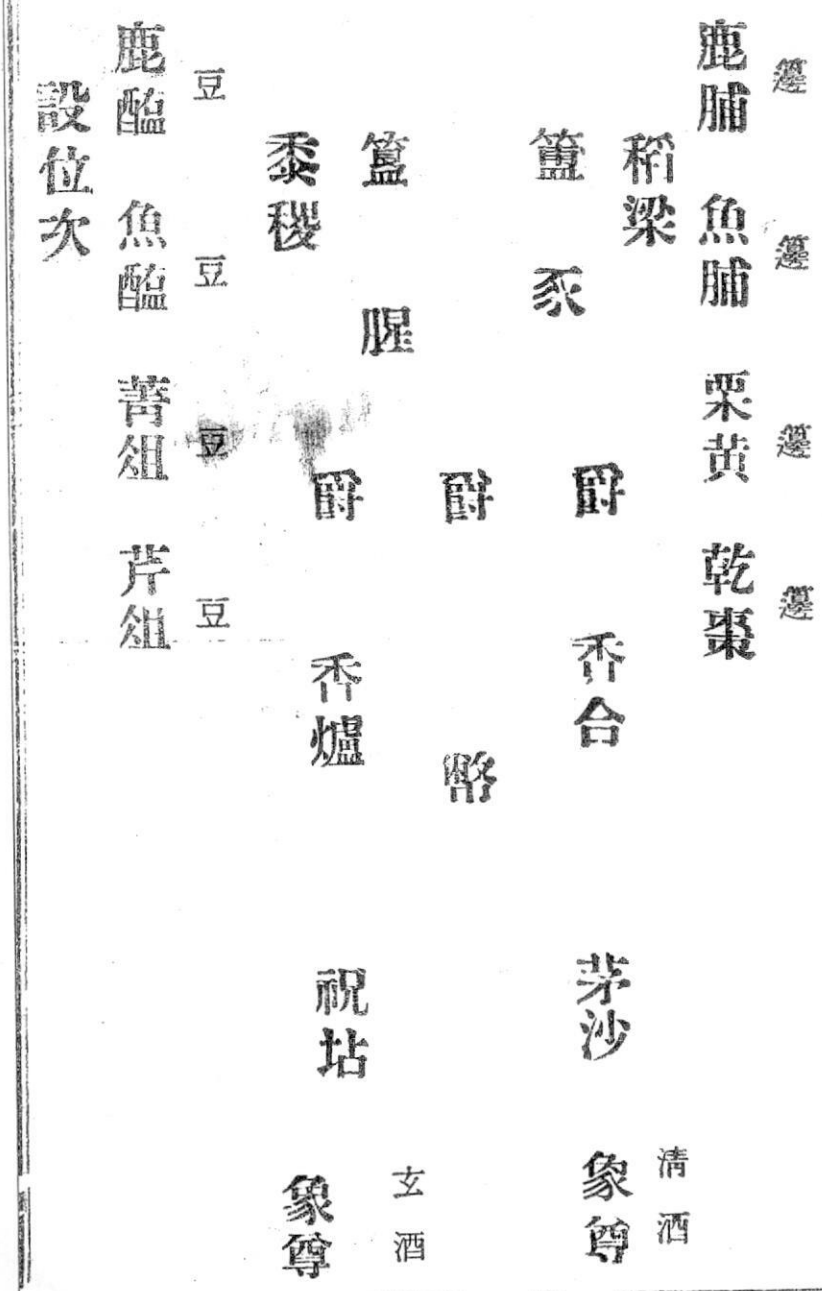
勳炳然有光邦國之榮揭此綱常緬憶當年直欲擣穴遺恨千古而止死節噫玆三世同一大義立我人極功莫與比合施俎豆昭示人臣公議久孚有識壁羣矧玆遺仍生丁陽九寥廓天地跼高踏厚追慕誠切歸依無所有儼新宮位次其序孫繼祖享子從父食沔漢祀萬二世同德惟東知川亦有六位事證于前禮則可義穀朝虔奚牲酒肥香胙繼悽愴如見莫靈一門義理齊芳匹休精氣流行於千萬秋庶幾啓休窈宙享止即事之初敢告厥以

春秋常享祝文

炳幾杜門義重罔僕遺風凜然百世如作玆值春秋丁敬薦

三獻官位於庭中北向西上諸生次之重行

陳設圖



設位次

事祭前二日沐浴更衣致齋一日

省牲儀

香牲至門謁者引初獻官以下祗迎于門外　香及祭物先入奉香隨之　以受牲則置于壇上　謁者引初獻官巡牲三匝祝隨之　初獻官立於牲南北向　祝立於牲東西向　祝注水三滴　進初獻官之左白充　獻官答曰腯　掌牲領牲詣庖所

習儀

祭前一日有司掃除祠之內外洗滌祭器牽牲詣祠門外祭官俱以常服省牲詣厨視滌溉各還齋所習儀有司設

爵巾東爵西○司洗立其東○燎於庭中

行禮

祭日丑前五刻掌饌者入實饌具畢○贊者引初獻官升自東階點視陳設○祝開櫝○訖○降詣門外位○亞獻以下俱就門外位立定○贊者引祝及諸執事入就階間位北向西上再拜○俱詣盥洗各就位○贊者引初獻官以下立就位○贊者進初獻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退復位○獻官以下皆再拜

行初獻禮

贊者引初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帨手○引詣評

設初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北上○亞終獻官次之○執禮位於東階下少西○贊者位二於東階下稍南西階下東南○諸生位於庭中北向西上○望瘞位於瘞坎之南○獻官在南北向祝執禮在東西向北上○飲福位於堂上楹外少東西向○陳器○設祭器於每位卓上○別置卓二於正位左右○置祝板於右○幣篚於左○香案於正位前○置香爐盒於其上爐西盒東○燭臺於每位卓上○尊所於東階上東南○置尊於其上加勺冪○別設卓於尊所之傍○置爵坫各一於其上飲福受胙所用○洗二於東階下之東盥洗在東爵洗在西○箱二於洗東卓上實以巾一以拭手一以拭爵

○獻官俛伏興少退再拜○贊引々詣爵洗位北向立○洗爵拭爵以授執事者○贊引々詣尊所西向立○執事者以爵授獻官○司尊舉冪爵酒○獻官以爵授執事者○引詣評理先生神位前北向跪○執事者跪以爵授獻官○獻官執爵三祭酒獻爵○執事者受爵奠于神位前○獻官俛伏興少退北向跪○祝進詣獻官之左東向跪讀祝○訖○祝復位○獻官俛伏興再拜○贊引々詣爵洗位北向立○洗爵拭爵以授執事者○贊引々詣尊所西向立○執事者以爵授獻官○司尊舉冪爵酒○獻官以爵授執事者○引詣判書公神位前北向跪○執事者

理先生神位前北向跪○執事者各奉香合香爐跪進○初獻官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祝以幣篚授獻官○獻官執幣獻幣授祝○祝受幣奠于神位前○初獻俛伏興少退再拜○贊引引詣判書公神位前北向跪○執事者各奉香合香爐跪進○獻官三上合○執事者奠爐于神位前○祝以幣篚授獻官○獻官執幣獻幣授祝○祝受幣奠于神位前○獻官俛伏興小退再拜○贊引引詣承旨公神位前北向跪○執事者各奉香合香爐跪進○獻官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祝以幣篚授獻官○獻官執幣獻幣授祝○祝受幣奠于神位前

行亞獻禮

亞獻○依初獻儀但不讀祝

行終獻禮

終獻○依亞獻禮

飲福受胙禮

贊者引初獻官升詣飲福位西向立○執事者一人以爵爵初獻酒○詣初獻官之左北向立○初獻官再拜跪受爵○祭酒啐酒奠爵○祝以俎進減評理先生神位前胙肉○詣初獻官之左北向跪○以胙授初獻官○初獻官受胙授祝○初獻官取爵飲卒爵○執事者受虛爵復於

跪以爵授獻官○獻官執爵三祭酒獻爵○執事者受爵奠于神位前○獻官俛伏興少退北向跪○祝進詣獻官之左東向跪讀祝○訖○祝復位○獻官俛伏興再拜○贊引々詣爵洗位北向立○洗爵拭爵以授執事者○贊引々詣尊所西向立○執事者以爵授獻官○司尊舉冪酌酒○獻官以爵授執事者○引詣承旨公神位前北向跪○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三祭酒獻爵○執事者受爵奠于神位前○獻官俛伏興少退北向跪○祝進詣獻官之左東向跪讀祝○訖○祝復位○獻官俛伏興再拜○引降復位

晋州道山之下有祠曰誠久卞氏三賢俎豆之所也高麗門下評理諱贊當國運之訖與判書成萬庸博士鄭夢周提學洪載大司成李穡典書金成牧典書趙悅進士李午不期而會于一堂相與把酒吟詩傷時慨惋灑淚而言曰殷有三仁或死或去或爲奴今吾輩亦可隨意行之僉曰諾遂各歸其所先生歸于杜門洞岡僕自靖累傳至訓鍊主簿　贈兵曹判書諱延壽與其子　贈左承旨崖　宣廟壬癸之亂倡義討賊多立奇功丁酉唐浦之役父子同時立殞崖妻金氏亦從殉焉朝廷褒旌此所謂三賢也後孫諸彦謀於南方多士建祠妥享請不佞以

坫○祝以胙降自東階出○初獻官俛伏興再拜○引降復位○祝詣神位前取胙幣少許就望瘞位○贊引引初獻官詣望瘞位○祝焚祝文○初獻官再拜降復位

徹籩豆禮

祝升詣神位前○奉籩豆各一少移故處○降復位○初獻官以下皆再拜○贊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遂引初獻官以下出○贊者還入與祝及諸執事俱復階間位○再拜出○祝闔櫝○掌饌率其屬徹饌○祝闔戶以降乃退

廟庭碑銘 並序

衰峨峨道山特立一祠同堂合豚潔其蒸嘗嗚呼休哉千古流芳

通政大夫秘書院承金寧漢撰

記

吳震泳

維嶠右汾東之道山下曰岩里有祠顏誠久草溪卞氏三忠妥靈之所也門下評理諱贇爲麗氏隱訓鍊主簿贈兵曹判書諱延壽嶽島夷殉贈承政院左承旨諱岦從父戰殉判書評理十世孫承旨判書子也嗚呼盛哉要皆軒揭綱常喚醒人既死之心而後先萃于一門禮曰視法臣子則祀能禦大菑則祀此卞氏三世同享君子不謂之

牲石之銘嗚乎三賢之貞忠卓節足以風動百歲合於勤事法施之典今日之舉孰敢曰不可而作事謀始乃克有終既慕先哲矣又舉縟儀矣當一此心而不懈春秋芬蕊無或不勤暇則講明三賢之道義颺于四方然後乃可謂尊賢而慕道也若始勤而終忘有其名而無其實烏在其尊慕也傳曰至誠無息不息則久此之謂歟銘曰

粵在麗季評理全節歸歟杜門殷天日月桓桓尚書是惟肖孫時際　穆陵島夷犯闕奮忠敵愾義旗斯揭卓哉承宣從軍烈烈大戰唐浦衆寡不較父死於忠子死於孝一門三忠爲邦之杰炳如日星凜若霜雪矜紳景慕久而不

周王而其或遠方下邑子孫無板聯之力處覆盆之下者日月之明容有所不照此有司之不明不公非天地之大猶有可憾也雖然自盡其義無愧乎吾心之所安則人知不知蓋無加損其爲先生也后孫前持憲應泩感時慕先思所表揭瞻依遠近章甫之同有是性而興感者咸曰義理非一家私公諸鄉社則可乃共爲歌詩以發其義就子孫所居後立祠以祀評理判書承旨皆如禮從食焉又於大門之內左別有齋以爲鄉子弟講習所於是卞氏得從事士林之後以仲其揚先之誠而輔世之義亦將爲久大之業矣誠者天之道也誠之者人之道也至誠無息不息

汰而許其合祀典評理麗運將訖與判書成萬庸博士鄭夢周提學洪載大司成李穡典書金成牧典書趙悅進士李午不期而會把酒哦詩傷時慨惋垂泣而言曰殷有三仁比干死微子去箕子爲奴各自隨意行之皆曰諸洪載歸三嘉李午趙悅歸咸安公遂歸隱于杜門洞以終其世

判書　穆陵龍蛇之變父子倡義旅從忠武李公舜臣屢立功至丁酉唐浦之戰父子同日死錄宣武二等勳特與子加　贈是職並　命旌表炳朗乎其有光矣獨評理先生苦忠卓節湮鬱不彰餘五百歲緘縢觀夫麗朝罔僕諸賢我　朝莫不奬褒以爲人臣勸列　聖盛德固已匹休

諸君子云

日新齋記

宋秉珣

汾陽之東峙然疊翠者問道山也其下有一書舍瀟灑可喜者卞氏家塾也塾之搬舊矣幾十年之間自淡院而移于仙坪自仙而重移于日村其間架制度視舊稍增聚徒肄業庶無不能容之歎卞君相華過余而請名乃以日新顏其楣是歲秋又以其大人之命來謂余曰子既錫扁盍演其義而識之自顧衰慵謭於毫格而講磨相長之言庶可已乎夫人之所以爲人而參天地贊化育者以其有明德也德之本明猶身之本潔物欲蔽之則本明者昏塵垢

則久忠孝之道出於天而具於人道之在天下固未嘗亾也有時而人欲害之則禍至於弒父販君而天下亂亾疑若不可復救然力有誠至而伸勢必久而後反知必反之理持至誠之心務祛人欲之害而盡夫忠孝之道焉則天下其將庶幾矣此祠所以名也嗚呼一誠久祠而天下之爲臣子者可以鑑矣應洙氏以諸章甫志遣其孫德燮四從姪種權命爲之記余方以先祖貞武公祀事在陽城天德山之退全堂先祖亦宣武鐵卷中人余又遺民之謬者聞其事惻怛感慨有嗚呼不盡之恨則不忍有終辭者焉

章甫爲誰柳華永李直鉉鄭閏教李準九河宗鎬鄭煥喆

明而不復爲利欲之昏吁湯聖人也不邇聲色不殖貨利居上克明宜無事於自警而其用功猶如是況初學之士乎學而不以聖人爲標準則其志因循昏惰只做邯鄲舊步而已可不戒哉況且世級日降俗趨日卑滔滔者利也汩汩者欲也能勇猛奮躍邁迪向上去者今幾希矣惟卞氏以忠孝世家藏經史子集于塾收族黨子弟而教之互修相勉見善從之聞義則服韙哉其述先趾美之規敦睦正誼之風足以勵俗而勸後也然則凡居是塾者苟顧名思義日從事於聖賢之學進進不已無日而不新可庶幾爲而仁里之美眞相符乎名豈偶然哉遂書此以復之爲

染之則本潔者汗明之之端潔之之功其致一也若有所
怠而忽忘焉則所謂參贊者惡在是以古之聖賢兢兢業
業固無時而不戒謹恐懼必於常用之器因其事而刻銘
以致警焉湯之盤銘是也其曰苟日新者爲學入頭處也
曰日新又日新者要常常無間斷也蓋爲學之道必從存
養省察上做去存養省察之功卽所以去其身之昏蔽而
如疏淪澡雪以去其身之塵垢也然既新矣而所以新之
之功不繼則利欲之交復有如前日之昏猶身既潔矣而
所以潔之之功不繼則塵垢之集復如舊染之汗也必因
其已新而日々新之又日新之無所間斷則心之明德常

工猶尚如此況其下者而若無養之功道之浩浩於何所從而下手也然則新齋之命名其偶爾哉噫學之之道在乎存養之如何苟不究諸於二字之義而徒以記誦詞章之習爲能事則烏可謂學問爲哉凡吾黨之入是齋而學焉者顧名思義從事於斯而孜孜無怠惓惓以進則爲聖爲賢亦不外乎此而又能奉承而不違於天之所以與我之大德直養得仁義之性體先生立命之至意也盍相勉旃哉

河東鄭煥謹記

贊

李直鉉

日新齋記

存養齋記

汾江之東日岩里有祠曰誠久卞氏三忠公侑之所也堂曰道山堂堂之下有齋曰日新曰存養日新則心石先師發揮其實而存養則記事尚闕焉掌議宋鍾喆李家鎬屬余爲記辭不獲強毫而言曰夫存養之義其志大矣孟子不云乎存其心養其性蓋心統性情者也若不操存涵養則瞬息之頃出入無時莫知所嚮豈不可悼哉是以惟湯之盛德其常恐懼刻其盤而銘之曰苟日新又日新蓋操存而不捨也省察而做工也以若聖人之睿智其戰兢之

馨香悠久地秋霜春露達深情

三　　鄭泰鉉

板蕩爲臣可識誠三綱一室殺身成千戈八載腥塵暗竹帛千秋義血明杜洞荒凉那忍說汾流嗚咽尚悲聲吟燈彈罷龍蛇淚匣耐餘生曠感情

宇宙之棟樑曰三綱非此冠裳而禽犢是故三者有一焉則　朝家褒之邦人尊之子孫慕之以垂不朽況三者並萃於一門乎卞氏之先曰延壽死於忠曰豈死於孝曰安東金氏死於烈可謂是父是子是婦也上面

上皇特命旌三綱閭贈延壽兵曹判書贈豈左承　旨

岡僕自精孤竹清風松栢歲寒杜門天通 右評理先生

有光烈祖危忠貫日敵愾王事不顧家室 右判書公

喬嶽降靈篤生公賢戰陣有勇忠孝雙全 右承旨公

詩 后孫玉洙

屢世經營未盡誠正當今日一心成無文豈信存中蘊臨事皆同著外明去去那忘眞實意承承必有自然聲吾門所望常何在苗裔千年久慕情

二 后孫應洙

五常元本一於誠繼述方能志事成奮百清風多起立綱三高節克推明逝者川流終不息純乎天載至無聲黍稷

於無窮矣麗季有圃隱鄭先生諱夢周以門下評理見麗社爲屋遂掛冠于檀樹枝著蔽陽笠而隱于杜門洞察以終其世至諱延壽訓錄主簿與子思仁義龍蛇夏立奇功丁酉再罷父子同殉錄勳二等特贈都監中軍加贈兵曹判書思左承旨還葬後承旨公配安東金氏絕食下從道義旌恩一室三綱備矣猗與盛哉後孫正言應洙彈誠於繼述而詢于儒苑竟成斯刻豈特輪奐之美哉於戲有作於前善述於後誠之不可掩如此夫

五

奠間教

贈金氏淑夫人下而淵齋宋先生勉菴崔先生銘焉記焉以美之耿耿者尤以炳炳后孫前正言應洙同士林立祠于道山以妥靈時又會友講道禮飲以爲寫慕扁曰誠久走子相沃問序於余余方淹病不能役焉按狀起敬有感於冠裳者多遂強述又步韻以貽之

四　　李直鉉

積石相符積累誠新祠增舊此新成杜門靖節綱常立松柏精靈日月明萬歲千年流道氣三綱一室繼風聲檻前活水回巴字不息天機詎世情

誠者不貳不息而不息則久々則徵觀於誠久祠可徵

事仇賊餓死事極小之訓寥寥無聞空使仁人志士獨抱窮山讀兵之歎徒激萬川朝東之恨荐下黍離風泉之感涕卞君相沃相基奉其本祠事蹟及志齋翁命示之以儒論齊發營建祠宇雖此疲癃之物自不覺卄發生氣爲誦永錫嘏類勿替引之詩以勗之

六　李準九

世篤倫綱各盡誠々祠不是偶然成杜門守節蒼松凜唐浦揮戈赤日明警俗應多歌事筆承先豈在讀書聲設將一掬興亾淚寫出無窮感慨情

汾之東有山曰問道山下有祠曰誠久卞氏三忠妥侑之

人生所貴在於誠何物乾坤患不成一室三綱其道大千
秋萬口是銘明聖朝崇報應無憾肯齋嘉承遹有聲芬苾
薰悽悠久地讀書尤見聿修情

君臣之義父子之倫夫婦之道卽天之經地之緯而窮
宇宙不易之彝性也苟或有一毫未盡分則三綱淪九
法斁中華而爲夷狄人類而爲禽獸豈不可畏也哉評
理卞先生諱贊以高麗忠臣圃隱於我朝 贈兵判諱
延壽及其子 贈承旨諱豈父子同日殉節於丁酉唐
浦之戰承旨公配安東金氏亦殉烈 朝家旌以三綱
兼以 賜榮鄉邦有光矣噫今人間何世朝背君父暮

離臾叛乎世衰道微異說肆行叛君背父之徒踵相接而臂相揚矣雖然實理之流行不息者則有天地不可易之道豈一時殄滅得也然則誠久二字實三忠之眞像而亦爲警世之一鍾也於乎盛哉

七　　宋鎬坤

悠久之方貴在誠宜乎此世此祠成吾人無地存秋讀爾室有天日月明子姓相傳知義理王　朝特典樹風聲憑君三復星亭贊嗣守爲難實慨情

誠久祠是卞氏三忠妥靈之所也評理先生諱鼎守閣僕義於我　朝至判書諱延壽承旨諱岦同殉節於丁

所也麗季門下評理諱贊以高麗忠臣見麗社將屋罔
僕自靖于杜門洞天以終其世　贈兵判諱延壽　贈
承旨諱崙　穆陵龍蛇之變父子倡義旅從李忠武公
麾下至丁酉同死于唐浦之役嚮三君子之行不同而
盡忠所事一也豈不偉歟宜合於以死謹事能禦大菑
之祀典而俎豆之學尚今闕焉是年暮春士論峻發謀
及後裔而合力同事掇建祠宇額以誠久命名者誰其
深有得乎思傳天人一理之旨哉天地之道自誠實悠
久而人生兩間非特圓顱方趾之形惟曾也所賦之性
卽天之理而彝倫上當行之路則寧有一毫假飾而須

家山郭夕陽明縱然後世頹綱紀合把當時感義聲獨倚
南樓勞望眼歲寒松栢萬年情

凡天下之物至於山岳有時而崩江海有時而變惟至
誠不息不息則久々則徵今可徵於誠久祠夫評理卞
先生諱贇以麗朝忠臣當社屋之時歸隱于杜門洞罔
僕自靖以終其世自　上有書碑命建閣又有　御製
致祭之命焉判書諱延壽與子承旨豈倡義於壬辰至
丁酉唐浦之役父子同殉何其壯也忠孝節義盡在卞
氏一門此則非至誠不能也其旌褒錄勳已備於諸賢
之讚述而后孫應洙遵良翁議而周旋於左右建祠於

酉之亂承旨公配金氏亦以烈從　朝家旌之當時又有一門十忠之稱嗚呼休哉卞氏何其多賢也見今綱常弁髦背君父而事仇讎者滔滔皆是考卞氏之世聞卞氏之風而不瞿然自失者非人類也崔勉菴所謂宜將續編於小學三綱之錄者眞知言哉鍋坤抱病靖山歎禾黍泣滄桑久矣卞君相沃相基奉誠久祠事踐一通來示之感古傷今遂樂爲之序以贈兩君且冀卞氏之世踶其美以聚星亭贊尾及之

八　鄭友民

一區祠屋耀丹誠悠久方知述事成百戰關河秋草沒數

誠久祠誌卷一

道山下以享祀之誠於前者既久故徵於後而悠遠者如是夫

酒哦詩傷時慨惋垂泣而言曰殷有三仁比干死微子去箕子爲奴各自隨意行之皆曰諾洪載寘三嘉李午趙悅歸咸安先生遂歸隱于杜門洞

晩隱證狀

孟文貞公思誠所錄洪晩隱載之證狀曰一夜判書成萬庸評理事卞贊博士鄭夢周典書令成牧大司成李穡等不期而會把酒論協牧隱曰殷有三仁比干死微子去箕子爲奴各自隨意行之皆曰諾

茅隱實記

李午趙茅隱載寧人進士典判書成萬庸評理事卞贊博

附錄

詩

盍簪聯句

喬木如存可假花王春惟到暮山家悲歌哀詠相隨地恥向長安再着紗

撫錄

燃藜實錄

麗運將訖先生與判書成萬庸博士鄭夢周提學洪載大司成李穡典書金成牧典書趙悅進士李午不期而會把

人今民間蔽陽之制創於是時蓋取不見天日之義也

英宗御筆碑

勝國忠臣今焉在特竪其洞表其節

御製碑陰記

崇禎紀元後百二十四年辛未季秋追感前朝忠臣七十二人節義特命錄用其子孫竪碑洞中寔予即祚二十七年也

致祭文

維崇禎紀元後百二十四年辛未十月二十一日甲寅朝鮮國王遣臣開城府留守徐宗伋侑祭于杜門洞高麗忠

士鄭夢周大司成李穡典書趙悅相友善一夜不期而會把酒論懷李穡曰比干死微子去箕子爲奴各自隨意行之皆曰諾

附杜門洞遺蹟

中京誌

杜門洞在開城府西十五里壬申鼎遷後林先味甫義生等七十二人聚入洞中不肯從化因名焉　英宗辛未以御筆書碑命建閣是年又以　御製遺留守徐宗伋致祭

麗史補遺

當時殉節之士莫盛於杜門洞或稱百餘人或稱七十二

不朝峴在敬德宮前我　太祖親臨設科麗士無一人入場擧皆踰峴而去故名焉庚申　英宗幸行時以御筆書高麗忠臣不朝峴七字竪碑仍製詩一句曰勝國忠臣勉繼世命諸臣進聯句

不朝峴碑陰記

我聖上即祚之十六年秋九月戒鑾輿謁　厚陵歷幸松都訪故事父老對曰敬德宮之前麓即不朝峴昔我　太祖大王即定鼎御是宮試諸生麗之臣庶不朝走踰于峴々以是名其詳有府誌在上　駐蹕路次顧瞻咨嗟曰有標乎俞曰無上　曰此忠臣遺址也宜旌而褒

臣之靈守節不貳臣道之常顯忠褒烈著在禮章我朝受
命應天順人聖化攸及率普皆臣爰有麗賢七十有二罔
臣罔僕自靖其志有洞曰何有門斯扃閉而不出晦跡匿
形其身雖廢其節不沫抱忠守貞矢死靡悔後有不朝前
有掛冠顧名雖殊取義則班惟曺惟林惟姓之孟傳者有
三餘莫記省予昔歷玆顧詢遺址躊躇興感予懷曷已事
蹟漸遠文獻無徵欲勸于後豈無褒稱特書大書有十四
字庸竪貞珉庸表予意想像遺烈搜訪后裔相方視位以
壇以祭牲酒蠲潔黍稷維馨百世何遠永樹風聲

附不朝峴遺蹟

掛冠峴在不朝峴北麗士踰不朝峴者掛冠于此云

峴在閭里中高阜而其上有兩老樹一檀一槐歷五百餘年檀則尚醫翠槐則枯槎折朽傍枝叢生故老相傳謂當日掛冠樹而今竪碑識之

杜門洞奉安文 幷實蹟

先生諱誥草溪人大護軍卿之子官門下評理正二品麗運將亡先生與判書成萬庸博士鄭夢周提學洪載大司成李穡典書金成牧典書趙悅進士李行不期而會把酒俄詩傷時慨惋垂泣而言曰殷有三仁比干死微子去箕子爲奴各自隨意行之皆曰諾洪載趙三嘉趙

爾守臣刻高麗忠臣不朝峴七字于峴 臣若魯 承命訖
伏而思之惟我 聖上遵先朝故事光臨故都撫興亡
之蹟而官王氏之裔奬文忠之節而碑善竹之橋聞勝
國之忠義而又思所以永樹風聲是誠歷代帝王之所
未能有者而 我聖上有之表章節於千百代之上扶
世教於千百代之下於乎休哉 臣忝守玆土獲覩盛事
不勝欽誦謹既成謹附小誌以詔于後崇禎紀元後再
庚申冬奉敎建嘉善大夫開城留守兼管理使 臣 金若
魯謹撰

附

掛冠峴遺蹟

誠久祠誌卷之二

悅李午歸咸安而先生歸隱于杜門洞

嗚呼先生草溪古家高麗評理皇天不吊國事已矣公堂一夜招我同志曰成曰洪曰鄭曰李殷有三仁比干則死微去箕奴各自隨意言志旣罷見幾而起杜門洞泉可以潔已南望痛哭哀我宗社允矣先生罔僕之義洞舊廟新難誣天理躋享靖班淸風千禩牲肥酒香庶歆禋祀

杜門洞春秋丁享祝文

伏以殉抗靖節寔出性天跡殊義一易地皆然況同杜門千秋舊緣謹以表節遺典式陳明薦

書贈子岦左承旨因並命旌此是藏兵洞由來而于今三百有餘禩尚有訓鍊場（負東向西）號令岩（在花田嶺負西向東）大將小將峯（現稱大嶺小嶺）內倉（此谷最深處兵器所藏處）問道山（在谷外左便而時敵兵過問洞川行路而泗川實在西方哨兵詰謂向南去敵信而南去遂當邀擊僅僅奪走故因名焉）等名稱而惟無文獻之徵故自不禁追遠之感不揆僭越叙述此谷形狀及遺跡之大概以名藏兵洞誌而後之覽者或不其罪歟

十一世孫吉燮謹識

書藏兵洞誌後

卞君吉燮以其所錄藏兵洞誌示余而要一言其後盖藏

附錄

藏兵洞誌

方丈山脈南馳數百里而起積石三峯穹石餘脈周匝作谷谷內不見外山其中可容萬人惟我先祖主簿公諱延壽當 穆陵龍蛇之變聞 鑾輿蒙塵敵愾之義衝天遂草檄募兵訓鍊于此谷待其步趁整齊勇氣增強因赴李忠武公幕下累立奇功至丁酉唐浦之戰衆寡不敵父子同殉于鋒鏑之間 朝家錄公勳二等 特贈都監中軍其後五回甲之年壬辰因鄉儒之籲請加 贈公兵曹判

稱其功勞義烈而不知其本之有在則烏乎可也然則是洞者實爲公忠義之心之所本而豈可以無誌耶公之父子幷躋享於誠久之祠而是洞實在於祠後之山谷後之登是祠而有事者必指點是洞而想像當日之跡則尤切景仰之思而是祠是洞將並傳於無窮矣然則是誌之述亦豈爲無補哉故感歎而書之

花山權龍鉉書

上言 太皇帝壬辰 鄭杞錫等

伏以誠績必紀於太常　恩典復及于身後者實是　國家之盛典也臣等雖有千恩之罪煩瀆之懼是乎乃其於

兵洞者在晋之良田之東積石山麓外包中寬可容萬餘人昔　穆陵龍蛇之亂君之先祖主簿公延壽倡起義旅鍊兵習武於此洞故洞以名焉而訓鍊場號令砦等號至今尚傳云公既鍊兵于此因以赴李忠武陣多殲賊之功而至丁酉唐浦之戰以衆寡不敵與其子岦俱立殞幷蒙錄勳旌贈之典以義烈著夫天下之事有本末內外之分必其本立而後末擧內之充而後外之著公當搶攘之日懷忠義之心鍊兵習武爲禦賊之計則鍊兵爲禦賊之本而忠義又爲鍊兵之本也惟其有是本於內也故能成討賊之功而卒致義烈之著者未始不由此而基之也若徒

爲義士死爲義魂云云衆皆感泣相勉以忠義輒沮遏沿
海之賊受忠武公節制屢捕永證之後屢立奇功又與金
孝誠等大破賊船於玉浦賊莫敢攖鋒及忠武公丁酉重
來之際如京隨至天安詳論謀策徑還義寨時其弟從叔
前奉事臣弘迪與其昆季聚從舊義討賊亦爲忠武公後
援延壽與之聲勢相應誓以同死王事賊方搶攘於唐浦
之間延壽與弘迪飛文相報期日齊麾及期先往弘迪未
及來會賊悉衆大至延壽益奮氣爲獨當計令曰今日得
吾死地只有進無退衆皆唯命致死力戰斬殺甚衆而賊
詗知我兵矢盡遂暴至帳下士皆空拳冒刃視死如歸豈

公議所在終不能泯默玆敢呼籲於　清蹕之下爲白齊
故　贈都監中軍宣武原從功臣行訓鍊主簿臣卞延壽
即故勝國忠臣贊十代孫故翰林佐翊功臣孝敬八代孫
蚤有氣節贍略學專義理武絕弓馬以武出身官至訓鍊
主簿爲故忠武功臣李舜臣所深知焉粤在宣　廟壬辰
島夷之亂適歸在晋州鄉第乃招其子岦而慟哭諭之曰
廟社不守　鑾輿蒙塵臣子捐軀此其會也仍奮不顧身
揮涕諭衆其文略曰今日　君父安在舍生取義人所當
然捧頭竄身縱或得全無義無君人之極罪生何顏於人
類死何顏於先隷誓與諸君戴義赴難斷不與賊俱生生

當之職臣無任屏營祈懇之至

上言癸巳河尙鎬等

伏以忠孝爲人道所當先者也苟有其人士林必尊慕之朝廷必褒揚之培植之　盛典自在綽楔之恩例有據本道普州故　贈兵判宣武原從功臣卞延壽及其子　贈左承旨臣忠孝　旌表事冒萬死齊聲仰籲于　殿陛之下是白齊盡延壽故勝國忠臣贊十世孫忠孝翰林侍朝功臣孝敬八世孫也學專義理武絶弓馬爲忠武公臣李舜臣所深知焉以武出身官至訓鍊主簿而實無意於進取休官家居自長興移寓普州奄當壬辰亂乃招其子忠

手抱父屍口不絶叱賊之聲隨又被害弘迪適至縱擊勦
殄賊遂大潰而散弘迪撫屍而哭曰吾每戒君之輕賊竟
至於斯可勝痛哉事　聞自上軫念其忠義之卓越卞延
壽　特贈以鄂監中軍錄勳至二等　頒賜鐵卷其子竝
贈以通政階忠臣之節玆可著矣　聖朝之　恩亦已深
矣而其在朝家激勵之義及今歲　示異之擧合有加
贈之典是白乎故臣矣身等謹摭舊聞博詢輿情卞延壽
之忠節卓異及其子岦忠孝雙全之實略陳如右爲白去
乎伏乞　天地父母　特垂聽卑之義克　察格上之誠
承命該曹之臣　贈卞延壽以兵判之啣　贈卞岦以相

以同死王事賊之搶攘於唐浦也延壽與弘迪飛文相報期日齊舉及期先往弘迪兵未及來會賊悉衆大至延壽益勵氣爲獨當計令曰今日得吾死地只有進無退衆皆唯命致死力戰斬殺甚衆而賊詗知我兵矢盡遂暴至帳下士皆空拳冒刃其子崟手抱父屍口不絕叱賊之聲隨又被害弘迪兵適至而縱擊之賊大潰而散其碣文曰父死於忠子死於孝求之古人實罕其儔事聞卞延壽特贈以都監中軍錄勳二等頒賜鐵券其子崟贈以通政階昨春又因壬辰五回甲之歲公議齊發撫實呼籲至蒙加贈以兵判之卿其子崟贈以左令之職忠

慟哭諭之曰　廟社不守　鑾輿蒙塵臣子捐軀此其會也仍奮不顧身矢心殉國倡起義旅揮涕諭衆其文略曰今日　君父安在舍生取義人所當然捧頭竄身終或得全無義無君人之極罪生何齒於人類死何顏於先靈誓與諸君戮義赴難斷不與賊俱生生爲義士死爲義魂云云衆皆感泣相勉以忠義輒沮遏沿海之賊受忠武公節制唐浦永嶝之役屢立奇功又與金孝誠等大破賊船於玉浦賊莫敢攖鋒及丁酉再亂忠武公復承　命隨至天安詳論籌畫遂徑還義寨時其再從叔前奉事臣弘迪與其昆季羣從奮義討賊亦爲忠武公後援延壽與之誓

晃歷八世有諱贊官至門下評理及麗運將訖入杜門罔
僕自靖諱孝敬吏曹參判錄佐翊勳生諱綱文科都守生
諱玉忠順衛生諱溫懸監生諱孝智寔公高祖也曾祖諱
大孫進士祖諱國秀進士考諱竹灺晋陽姜氏父熙績公
以 中宗戊戌生少有氣絶讀書專講義理兼習弓馬武
藝絶人深爲忠武李公所知選武舉調散職而不屑々於
進取休官家居自長興移寓晋州及壬辰倭寇聞 乘輿
播越慟哭謂其子岦曰此臣子捐軀之秋乃倡義旅揮涕
諭衆曰今日 君父安在誓與諸君戴義赴難斷不與賊
俱生衆皆感泣思奮遂遏沿海之賊受節制於李公唐浦

臣之節炳朗於千載　聖朝之恩覃及於九原而其在樹
風聲之義尚遲綽楔之典是白乎旀臣矣身等不避屑越
之罪玆敢冒死申暴爲白去乎伏乞　天地父母　特念
旌淑德勸忠孝之義　亟令該曹並　施以卞延壽卞崑
旌閭之典臣無任屛營祈懇之至

宣武功臣訓鍊主簿　贈兵曹判書卞公諡狀

昔晉卞忠貞父子同殉於蘇峻之難天下稱其節我東有
卞訓鍊父子則其節又過之焉噫天之鍾生義烈何偏多
於卞氏也謹按故訓鍊主簿卞公諱延壽字五元系出草

溪高麗門下侍中八溪君文烈公諱庭實之後也代襲冠

于晋之良田而大松田丑坐之原岂繼窓于下事　聞
贈公都監中軍岂通政階錄宣武原從勳二等　賜鐵卷
公配全州李氏世煥女甚有婦德先公卒肯四男長卽通
政娶安東金氏士人瑞之女淑哲有懿行及通政還葬後
水醬不入口八日以歿次崤次山次岩通　政　郎男曰興宗
亂已特　除沙斤察訪崤二男曰興林興岳山一男曰興
淇皆無后曾玄以下多不　盡　錄嗚呼公以魁偉卓犖之姿
抱慷慨激厲之志義氣弸中　膽　畧絶人而等視富貴於勢
利芬華泊如也益其天賦既異而又有學問之力也祭酒
宋公之銘公　隧　碑曰不有素養焉能遂志誠知公矣適値

永登之役屢立奇功又與金孝誠等大破賊船於玉浦敵莫敢攖鋒及李公遭讒罷軍民解體敵勢益熾公如京陳其狀丁酉李公復授鉞南來公隨之天安備陳籌策徑還義寨時公之再從叔前奉事弘迪與其昆季群從亦起義討敵與公聲勢相應賊方搶攘於唐浦公飛文相報約日齊討及期公先往奉事公未及來敵悉衆大至公勵氣獨前曰今日得吾死地有進無退衆皆唯命殊死戰殺敵甚衆賊知我軍矢盡奄至帳下士皆張拳冒刃公遂殞焉立抱公屍罵敵不絶口敵又刃之奉事兵適至縱擊勦殲敵大潰奉事公撫公屍哭曰每戒君輕賊竟至於斯耶返葬

緦親之內同時立殣著勳者並公父子爲十二人嗚呼世
安得有是耶垂之簡册其光榮輝耀當十倍晋忠貞矣今
上壬辰因道儒上言加　贈公兵曹判書豈左承旨並
旌其閭崇奬之典至是而無餘憾矣公之九世孫前正言
應洙將請易名于朝屬篤善爲狀謹撰次如右以俟太常
氏採擇焉

光武五年辛丑陽月上浣前行弘文館學士崇祿
大夫議政府贊政法部大臣東陽申篤善撰

主簿　贈判書卞公神道碑銘　並序　宋秉璿

龍蛇島夷之變故訓鍊主簿卞公延壽痛哭謂其子豈曰

倭寇矢心討敵雖其功未就而身先殉爲千古之恨然其摧陷撐柱之節足以有辭於後世視忠貞之敗績清溪一戰而死不其更偉哉一門之內父死於忠子死於孝婦死於烈此固前史之所罕見也抑又有曠百世而不一有者奉事公弘迪僉使公弘建僕正公弘選通政公弘源主簿公弘亮及諱弘洲皆公之再從叔也俱爲李忠武後援丁酉鳴梁之戰同日幷殉兵使公弘達亦公之再從叔也與其姪德章爲權忠烈前鋒殺賊以萬計賊相戒曰行行且避黑面將軍公面黑故也判官公々毅及諱德璜皆公之三從兄弟也判官戰輒有功錄勳一等德璜戰亡于郭山

誠其輕賊竟至於斯返葬于晉州良田里金岡山下丑坐
原豈亦從宦於階下事固特　贈公都監中軍崇通政階
錄宣武原從勳後值五回甲之年又因章甫疏加　贈兵
曹判書豈亦　贈左承旨並旌其閭朝家之崇報至是而
無復遺憾矣公字五元草溪人以高麗侍中文烈公庭實
爲鼻祖歷七世而評理事贊見麗社將屋入杜門自靖閱
僕於　我朝傳至進士大孫是公曾大父大父諱國秀亦
進士考諱竹妣晉陽姜氏熙緝女公生於　嘉靖戊戌少
有氣節學明義理武絕弓馬深爲李忠武所知以武登科
無意進取休官家居自長興移寓晉州壬辰奮不顧身揮

廟社不守　　變興蒙塵臣子捐軀此其會也乃倡起義旅諭以忠義沮遏沿海之賊從忠武李公舜臣受其節制屢立奇功於唐浦永登地又與金孝誠等大破賊船於玉浦賊莫敢攖鋒及李公罷歸義士解體賊勢益熾公如京懇陳軍民渴望之情丁酉李公復承　命下來公隨至天安詳論籌策遂還義寨與再從叔奉事公弘逈聲勢相應時賊搶攘於唐浦相約以期日齊舉公兵先往賊衆大至公勵氣獨當曰今日得吾死地也乃力戰斬殺甚多矢盡而賊詗知不退士皆空拳冒刃公遂殞其命竝手抱父屍極口罵賊又被害奉事公適至縱擊破賊撫屍而哭曰吾每

姓亦相符而烈則昜陽之所無也一家三節將稗於民彝者無窮矣卞氏之門古今卓行何其盛乎見今夷夏渾處倫常斁絕正如殷冬隆寒陽道眇綿如公所立尤不可以不著故略叙如右系以銘曰

金岡之原有屹堂封云誰之葬卓犖卞公忘軀殉國成仁就義不有素養焉能遂志繼以孝烈亦公化範克扶天經濟美無忝　聖朝褒崇三節益彰令名不湮山高水長徵我銘辭昭示一方

三綱閣上樑文　后孫應洙

偉蹟闕徵顯闡幽之章久矣儒林齎醫　盛代著崇德報

淚諭衆以爲捧頭竄身縱或得全何齒於人類乎誓與諸君戴義赴亂不欲與敵俱生當初立心不可以一時慷慨就死者比也公配全州李氏世煥女甚有婦德先公卒墓川魯禮生四男岦即其長也娶慶州金氏亦有懿行喪其夫水漿不入口竟下從蓋公之義有所授而立爲三綱之重於不休哉曰峙山當三人其次也岦男興宗察訪峙男興林興鼎山男興淇皆無后曾玄多不盡記公墓舊有表石剝落而失傳雲仍是悼遍採於近壟正窆尋得而殘缺文不可讀更謀伐石而新之後裔相璇相喆謁銘於余念昔卞成陽父子同死忠孝正與公家事相類

趁玉浦之上撲滅大船挺身射賊而賊應弦必倒永嵊之間屢立奇功要後援而同從叔諸公之親接聲勢於長興海外從民望而得元戎再莅之會講籌策於天安路中靡下氣倍增而方見賊莫攖鋒海濱倚爲重而咸稱戎有良翰頑醜入唐浦之日雖彼衆我寡而大功將收援兵失齊舉之期柰有進無退而雙拳相搏嗚呼無乃天不助順將星遽隕於山師未捷之時允矣有是子而效忠烈日爭光於焉敵不屈之地幸奉事公繼至而敵遂大挫伊節度使以聞而綴乃孔彰二等勳鐵卷俾後人足徵實不死於萬古七邑民輓歌如今日耳聞咸願作於九原蒙　聖祖特

功之典煥焉綽楔增光表兩世門閭新一時耳目恭惟我宣武原從勳贈判書公宣武原從勳贈承旨公評理先生后佐翊功臣孫世篤忠孝家聲純剛之蘊莫可使丹青狀夙講春秋大義邪正之辨不啻如白黑分所取審熊魚深托於忠武公知己之遇餘事閱弓馬薄試於訓鍊院主簿之衙粵龍蛇有寇之年值天地無前之變驚聞鑾輿蒙塵於西塞痛哭抓忠之未及勤王忍看凶鋒流毒於東華深欵敵愾之無一義士天不可與賊共戴雖忘溝壑喪元之心人孰無報君貞忱宜守江淮保障之志乃與胄胤矢心殉國又使義旅捐軀從戎揮涕誓士而士冒刃爭

之斧驅我兒郎之謳兒郎偉拋樑東海晏天晴浪不風立
殫只爲民國計至今傳說舊時功兒郎偉拋樑南層纍積
石與天參崇々正直應如許想得當年氣像若兒郎偉拋
樑西何處鳴樑日已低諸父實全天所與湖南野史後人
稽兒郎偉拋樑北迢迢星斗拱天極一心愛愛如水悠不
息幽芳人不識兒郎偉拋樑上白日青天昭且曠千載英
靈如在彼時時瞻慕更懷愴兒郎偉拋梁下孝烈增新石
面寫白是三綱同一門知多百世聞風者伏願上梁之後
風俗敦厚雲仍熾昌率乃祖敷乃貽瞻望題而寓羹墻之
慕忠于君孝于父述家風而懋綱常之謀

施之恩超亜將通政洎當宁示異之擧加尚書承宣猗歟
事君親雙全之休況乃振古今罕聞之蹟嗟瞻仰無地多
士之顒望既深倘顯晦有時孱孫之追慕彌切高節誠有
裨於世教見輿論之排雲叫　闔盛烈寧可至於終泯承
渙音之偕風旌淑睠玆松田餘麓實由楸壟近區南畤三
峯極天驗申伯降神之迹東馳百川歸海認子美奉君之
忠背一圌之壽藏精靈陟降在上圜三面之村落子姓居
處其中曰時經營之隙農爰得奢儉之中制揭二旌於西
上尚可寛竪貞珉之方餘一架於東邊第有待表烈婦之
典　烈聖恩渥煥乎若新諸郡縫章翕然胥悅停爾郡料

大任者類審於利害巧爲趍避而越視秦瘠者踵相接也卞公獨以草野韎韋能倡率義旅囚屬李忠武管下永嶝唐浦之戰屢立奇功末乃衆寡不敵鄰援四絕委身於蛇豕鋒鏑之衝而至死無悔者其事已偉矣況在脚下爲子而罵敵致命爲婦而絕粒殉身皆言足聽聞槩而論之夫豈有所爲而爲哉特以君臣父子夫婦之大經大義獨有得於天分之多而不爲私智計較所搖奪耳倘有好古君子攷世尚論則其將讀編於小學三綱之錄而垂諸無窮不亦壯歟旌在晉州良田里若其事實顚末詳載宋淵齋所述神道碑銘茲不贅庚寅特書其感于中者如右又識文

三綱問記

崔益鉉

天叙有倫其綱三臣爲君曰忠子爲父曰孝妻爲夫曰烈乃天地之常經古今之通義從違順逆一身之吉凶善惡家國天下之盛衰治亂關焉此先王所以兢兢業業樹風教厲世俗者然也今　上壬辰以　宣武去豳之五周甲於當時死事諸臣各有示意之典又因晋州儒生河尚鎬等上言加　贈故忠臣卞延壽爲兵曹判書孝子卞豈爲左承旨申　命綽楔承旨配烈婦金氏以次及焉一閭三旌鄉邦增色蓋在壬辰之役　乘輿蒙塵　廟社失守安危存亡迫在呼吸當是時雖位公卿談道義自許以軍國

誠久祠誌卷二

者後孫義洙相璇其名

三綱閭柱聯詩　徐相祖

春秋大讀君臣義天地長存父子恩同時貞烈光千古扶

世綱常萃一門

罕其儔而洎于十世孫延壽當龍蛇之變倡起義旅殉節於鋒鏑之下其子岦亦爲父而死其婦金氏從夫而死一門三節亦是公家傳授之心法而無愧於爲人臣爲人子爲人婦之道而俟百世不惑者也於不盛哉其於事實顚末備述於淵勉諸先生與縉紳章甫筆詳且盡焉何待陳腐之贅說哉余雖不文所不墜者性於彝者也觀公實蹟自不覺感古傷今之悲而略付數行使今與後之天下無君無父無夫之人毋得爲卞門罪人焉

癸亥復月下澣德殷宋祖憲謹識

綱紀人事之頭腦也君臣父子夫婦之義無所逃於天地之間而無天地則已有天地則不可一日廢也明矣此理不明則國不可以爲國家不可以爲家人不可以爲人者章章昭昭矣現今時異世變倫綱斁敗人類化爲禽獸而臣焉而不知其君子焉而不知其父婦焉而不知其夫學皆爲倫綱之得罪可不懼歟嗚呼當此之時能明斯道扶植綱常者天下凡幾人麗末許理卞先生篤行堅志不爲威武富貴之屈而惟知吾君不知他君及其麗社將屋遂掛冠着蔽陽子隱于杜門白靖其貞忠卓節考諸史牒亦

教　旨

교　지


敎旨
贈嘉善大夫訓鍊都監
中軍卞延壽贈資憲大
夫兵曹判書兼知義禁
府訓鍊院事者
光緒十八年十二月 日
忠節卓異加贈事承
傳

교 지

증 가선대부 훈련도감 중군 변연수
증 자헌대부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훈련원사



敎 旨

折衝將軍行龍驤衛
副護軍卞生贈通政
大夫承政院左承旨
兼經筵侍賛官者

光緒十八年十一月 日

忠節卓異 贈職事承

傳

절충장군 행 용양위부호군 변립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교 지

숙인김씨 증 숙부인

誠久祠誌 國譯

성 구 사 지 국 역

(譯 : 29世 志 燮)

誠久祠誌 序
성 구 사 지　서

하늘의 과보(果報)는 복되고 선한 것인가? 백이(伯夷) 숙제(叔齊)[1]가 수양산(首陽山)에서 굶어 죽은 것은 무엇인가? 선(善)한 과보는 이름이 있는 것인가? 장순(張巡) 허원(許遠)[2]의 일이 이한전(李翰傳)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선의 복되고 복되지 않음과 이름의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음은 모두 한 때의 운수의 그러함에 말미암은 것이지 하늘의 이치가 마땅히 그러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백이 숙제는 맹자(孟子)가 있었기에 이름이 더욱 나타났고 장순 허원은 창려(昌黎)[3]가 있었기에 이름이 더욱 드러났으니 이는 이른바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내가 보는 바 초계변씨(草溪卞氏) 선조도 거의 이러한 유(類)라고 할까!

문하평리(門下評理) 변선생(卞先生)은 고려조(高麗朝)의 충신으로서 나라가 바뀌는 때를 당하여 신자(臣子)로서 절의를 두문동(杜門洞)에서 스스로 맑히니 이는 어찌 백의 숙제와 같은 부류가 아니겠는가?

그 후손 주부공(主簿公)이 선조(宣祖) 때 임진왜란을 당함에 그 아들 승지공(承旨公)과 함께 의병(義兵)을 일으켰다. 이충무공(李忠武公)을 따라 여러 번 뛰어난 공(功)을 세우고 당포(唐浦)의 싸움에서 부자(父子)가 함께 의(義)에 죽으니 이는 어찌 장순 허원의 무리가 아니겠는가?

어허! 크도다. 어진 선조(先祖)가 삼강오륜을 전에 뿌리 박아 심지 않

았으면 또한 어찌 후손의 뛰어남이 이와 같았으랴!

오호라! 평리공(評公理)의 높은 절의는 가히 삼은(三隱)[4]과 더불어 가지런히 빛나며 역사책에 전하는 바 적지 않음을 본다. 다만 연려록(燃藜錄)에는 쓸쓸하게도 몇 마디 말만 실려 있을 뿐이지만 지금까지 오백여 년에 그 운수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주부공 부자가 비록 벼슬을 추서(追敍)하고 시호를 내리는 은전(恩典)을 입었으니 더욱이 감은(感恩)함이 있으리니 어찌 천도(天道)의 과보가 복되고 선하며, 선의 과보는 일음에 있으리요.

다행히 기미(己未)에 정성을 함께 하는 유생들이 분연히 공론(公論)을 일으켜 사우(祠宇)를 창건하여 삼공(三公)을 편안히 받들고 붓을 잡은 군자들이 전후로 서로 이어 글을 지어 찬양하니 이는 가히 맹자와 창려를 얻었다 할 것이다. 이제야 이른바 과보를 정한다는 것은 더욱 증험(證驗)스럽다.

대저 굽은 것은 펴는 것이 도리이다. 그러므로 오백 년의 오랜 동안 굽었던 것을 펴는 것이요 그리하여 천만 년의 장구(長久)함을 보는 것이다. 그 사우(祠宇)를 이름하여 성구(誠久)라 하니 진실로 마땅하다.

이직현(李直鉉), 정은교(鄭誾敎), 정환철(鄭煥喆)의 여러 유림이 사우를 세운 절말을 채취하여 책 한 권을 만들고 변용섭(卞容燮)을 보내어 나에게 그 책 머리의 글을 청하거늘 아름다운 일이로되 사양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그 대략을 들어 서술한다.

계해(癸亥 1923) 9월 9일

덕은(德隱) 송 철 헌(宋哲憲) 서함

※ 역주(譯註)

① **백이(伯夷) · 숙제(叔齊)** : 周(주)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멸망시키자 주나라의 곡식을 먹을 수 없다 하여 수양산에 숨어서 고사리를 캐어 먹다가 죽었다. 충절(忠節)의 대표적인 예로 후세에서 추앙을 받는다.

② **장순(張巡) · 허원(許遠)** :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의 충신. 안록산(安祿山) 난(亂) 때 죽음.

③ **창려(昌黎)** : 당나라 현종 때 문신이자 대문장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

④ **삼은(三隱)** : 고려 말의 충신이며 학자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목은 이색(牧隱 李穡), 야은 이길재(冶隱 李吉再) 세 사람을 말함.

⑤ **삼공(三公)** : 문하평리 변빈(卞賛), 증 병조판서 변연수(卞延壽), 증 좌승지 변립(卞岦)의 세분을 말함

誠久祠誌 總目
성 구 사 지 총 목

卷一(권1)

서(書)

성구사 상량문(誠久祠 上樑文)

도산서당 상량문(道山書堂 上樑文)

일신재 상량문(日新齋 上樑文)

봉안문(奉安文)

춘추향사축문(春秋享祀祝文)

향사의절(享祀儀節) (※ 국역없음)

묘정비명(廟庭碑銘)병서(幷序)

성구사기(誠久祠記)

일신재기(日新齋記)

존양재기(存養齋記)

찬(贊)

시(詩 八)

卷二(권2)

부록(附錄)

시(詩)

합잠연구(盍簪聯句)

무록(撫錄)

연려실록(燃藜實錄)

만은시장(晩隱諡狀)

모은실기(茅隱實記)

두문동유적(杜門洞遺蹟)

봉안문(奉安文)

卷三(권3)

부록(附錄)

장병동지(藏兵洞誌)

서 장병동지 후(書 藏兵洞誌 後)

상언. 태황제 임진 정기석 등(上言. 太黃帝 壬辰 鄭杞錫 等)

상언. 계사 하상호 등(上言. 癸巳 河尙鎬 等)

시장(諡狀)

주부 증판서 변공 신도비명(主簿 贈判書 卞公 神道碑銘)병서(並序)

삼강려 상량문(三綱閭 上樑文)

삼강려기(三綱閭記)

삼강려 주련시(三綱閭 柱聯詩)

발(跋)

書
서

答卞持平應洙
지평[1] 변응수에게 답하다

전 우(田 愚)[2]

존선사(尊先祠)의 일은 비로소 향리의 선현(先賢)을 위하여 제사 올리는 예를 알았습니다.

이제 영손(令孫)에게서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본손(本孫)이 사사로이 부조(不祧)[3]를 행하는 것은 이는 예(禮)와 율(律)[4]에 모두 근거하는 바가 없습니다. 도암선생(陶菴先生)이 양응수(楊應秀)와 김승조(金承祖)에게 답한 두 편지를 영손(令孫)으로 하여금 기록케 하여 보내니 한 번 보시면 가히 그 분별할 바를 알 것입니다.

附 陶菴 李文貞公書
'부' 도암 이문정공이 양응수에게 답한 글

문묘(文廟)[5]는 대현(大賢)을 배향(配享)[6]하고 종묘(宗廟)를 하나니 모두가 불천(不遷)[7]에 해당한다. 이 외는 모두가 외람된 것이다.

미암(眉菴)은 본시 큰 유학자(儒學者)이지만 문묘나 종묘에 배향되는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바 없으니 자손되어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써 마음대로 행하랴.

호남(湖南)은 이 폐단이 가장 많았는데 홀로 미암의 집안만이 그렇지 않았으니 고쳐 바루는 것을 다하지 못함을 두려워 함인데 그러나 이미 고쳐 바룰 것이 없었다.

조정의 법도로는 그 자손의 어진 자가 마땅히 스스로 이를 행하되 백배 고사(告辭)⑧하기 전에 또한 마땅히 먼저 사유를 갖추어 조정에 고해야 할 것이다.

김승조에게 답한 글

하서선생(河西先生)은 도덕과 절의가 진실로 백세(百世)의 스승으로 이미 사림(士林)에서 제향(祭享)이 있었는데 가묘(家廟)에 이르러서는 친히 예를 다할 것이로되 오히려 불천(不遷)으로 영구(永久)히 받드는 것은 예법에 있어 징험할 바가 없음이라. 비록 묘소에 옮겨 행한다 해도 옳지 아니 함이라 끝내 편안하지 아니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 역주(譯註)

① **지평(持平)** : 사헌부(司憲府)에 속하는 정오품관(正五品官)

② **전우(田愚)** : 구한말의 유학자. 호는 간재(艮齋). 임헌회(林憲晦) 문하에서 20년간 성리학을 닦았다. 이이(李珥), 송시열(宋時烈)의 사상을 신봉하였다. 장령(掌令), 순흥부사(順興府使), 중추원 참의(中樞院 參議)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전라도 계화도(繼華島)에서 후진을 가르쳤다.

③ **부조(不祧)** : 나라에 큰 공훈이 있는 사람의 신주(神主)를 사당에 영구히 제사 지내게 하는 일

④ **예와 율(禮 律)** : 예법과 율법

⑤ **문묘(文廟)** : 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

⑥ **배향(配享)** : 문묘, 종묘, 서원에 학덕이 있는 사람을 따라 모심

⑦ **불천(不遷)** : 불천위(不遷位). 큰 공훈이 있어 영구히 사당에 모시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神位)

⑧ **고사(告辭)** : 의식 때 글을 써서 권고 훈유하는 말

二 오 진 영(吳震泳)

귀문(貴門) 선조의 사원(祠院)에 관계된 일은 말씀이 간결하고 담긴 뜻이 심원(深遠)하니 이는 참으로 효자 자손(孝子 慈孫)의 마음이라. 우국(憂國)의 생각을 지닌 이와 인의(仁義)의 마음을 잃지 않은 이는 어찌 유연(油然)히 감격하고 분연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단지 어떤 자가 관(官)의 지시가 없는 것으로써 이를 지나치다고 이른 것은 그럴 듯 하지만 잘못되었습니다.

대저 사원(祠院)은 사림(士林)이 스스로 받드는 것을 향사(鄕祠)라 하고, 임금이 명명(命名)한 것을 사액(賜額)이라 하나니 사액서원(賜額書院)도 또한 처음에는 관의 지시 없이 아래에서 스스로 행하다가 이어 조정에 청하여 사액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덕(豊德)의 덕수서원(德水書院)[1]과 연산(連山)의 돈암서원(遯巖書院)[2]은 모두 선비들이 창설하여 향사(享祀)하다가 5, 60년 혹은 2, 30년을 경과한 연후에 선비들의 상소로 인하여 사액한 것이니 그 전에는 비록 관에서 지시할 바가 있어도 지시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대저 율곡(栗谷)[3]과 사계(沙溪)[4]의 道宗과 학통(學統)은 비록 당일에 조명(朝命)을 경유하여 서원 향사를 드려도 참으로 불가함이 없었을 것이로되 이에 사림이 선현(先賢)을 존봉(尊奉)하고서야 위로 조정에 청했으니 스스로 선후차서(先後次序)를 어지럽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관의 지시가 없는 것은 또한 향사(鄕祠)에서 끝날 뿐입니다.

옛날 초(楚)나라 유민(遺民)의 한 칸 띠집(茅屋)에서 소왕(昭王)에게 제사했으니 이는 초나라 사람이 관의 지시없이 행한 것이며, 촉(蜀)나라 촌옹(村翁)이 무후사옥(武侯祠屋)에서 제사했으니 이는 촉나라 사람이 관의 지시없이 행한 것입니다. 유민이 선왕(先王)에게 베푼 것을 후유(後儒)가 유독 선현(先賢)에게 베풀 수 없겠으며, 촌옹이 다른 시대에 행한 것을 국유(國儒)가 유독 같은 나라에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귀문 선조 제공(諸公)의 충의절렬(忠義節烈)이 후인들의 존모(尊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만이거니와 이제 이미 그렇지 않다면 군신(君臣)의 도(道)가 상실된 이 때를 당하여 서로 더불어 충(忠)을 선양하고 의(義)를 장려하는 일을 행하여 망국(亡國)의 슬픔에 부치는 것도 생각건대 하나의 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년에 포중(浦中)에서 최면암(崔勉菴)[5]을 향사(享祀)할 때에도 저는 감히 어떤 사람처럼 비난하지 않았고 영외(嶺外)에서 이대산(李大山)[6]을 향사하는 것도 저같은 천견(淺見)은 알 수 없지만 도(道)를 아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저 이 일은 사림이 향응(饗應)해야 하니 한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또한 모름지기 예의의 가부(可否)를 갖추고 타당함을 잘 의논하여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 되어야 만이 이에 참으로 조선(祖先)을 존숭(尊崇)하고 충의(忠義)를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때를 기다려 조정에 상소하여 부조묘(不祧廟)를 청하겠다는 뜻은 생각건대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대개 부조묘는 자손들이 백세(百世)토록 제사를 받드는 것이니 향유(鄕儒)들의 사원(祠院) 향사와 또한 서로 다른 것입니다.

스스로 묘당(廟堂)에 아뢰는 것은 가하겠지마는 자손이 소(疏)를 올려 청한다는 것은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후현(後賢)이 나타나 묘사(廟祠)에 사액 청하기를 주자(朱子)의 충절사(忠節祠)같이 한다면 거의 가능하겠지만 백년하청(百年河淸)을 기다리는 격이라 또한 다시 언제나 되겠습니까! 슬프고 슬플 뿐입니다.

※ 역주(譯註)

① **덕수서원(德水書院)** :

② **돈암서원(遯巖書院)** :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임리에 있다.사적 제383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사계 김장생 선생의 덕을 기리기 위해 1634년 건립되었고, 1660년 현종이 돈암이라는 현판을 내려 사액서원이 되었다.

③ **이이(李珥)** : (1536~1584) 조선중기의 대학자, 문신(文臣). 자는 숙헌(淑獻), 호는 율곡(栗谷), 석담(石潭), 우재(愚齋). 본관은 덕수(德水), 아버지는 찰방(察訪) 원수(元秀). 어머니는 신사임당(申師任堂). 강릉(江陵) 출생.

어릴 적에 학문을 어머니에게서 배워 13세에 진사 초시(進士 初試)에 합격했다. 생원시(生員試), 문과(文科)에 아홉 번 장원급제(壯元及第)하여 구도장원(九度壯元)으로 일컫는다. 23세 때 이황(李滉)을 찾아가 유학에 전념했다.

벼슬은 승지(承旨), 제학(提學), 대제학(大提學), 판서(判書)에 이르렀다.

이황과 쌍벽을 이루어 기호학파(畿湖學派)를 형성했고, 성리학(性理學)에서는 이황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에 대하여 기발이승설(氣發理乘說)을 폈다.

동서당쟁(東西黨爭)의 조절을 위하여 무한이 애썼으며 대동법(大同法)과 사창(社倉)의 실시에 노력하였다.

저서는 율곡전서(栗谷全書), 성학집요(聖學輯要) 등이 있다.

④ **사계(沙溪)** : (1548~1631) 조선조 선조(宣祖) 때의 유학자. 성은 김씨 이름은 장생(長生). 자는 희원(希元). 사계는 호다

宋翼弼, 이이(李珥)의 문인. 현감(縣監), 정랑(正郎), 군수(郡守)를 거쳐 청백리(靑白吏)에 선정됨. 정묘호란(丁卯胡亂) 때는 군량 조달에 힘썼다. 1628년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향리에서 훈학에 힘썼다. 조선 예학의 주류를 이룸.

⑤ **최면암(崔勉菴)** : 시호는 문원공(文元公) 문묘에 배향(配享)됨. 뒤에 보임.

⑥ **이대산(李大山)** : 뒤에 보임.

三 이 직 현 (李直鉉)①

지극히 어리석으나 오히려 떳떳함을 잡아 천성이 한 점 어둡지 아니하였기에 성구사로 나아가니 마음은 즐겁고 지성으로 감복하여 이에 감히 재실(齋室)의 말석(末席)에서 흐린 붓을 놀립니다.

늙어 죽어가는 몸이 성구사와 귀로정(歸老亭)에 올라서 호흡하는 것만 해도 오직 은혜를 받음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 역주(譯註)

① **이직현(李直鉉)** : 호는 시암(是菴). 유학자. 합천(陜川) 초계(草溪)사람.

四 이 준 구(李準九)

귀문(貴門)의 선조이신 문하평리(門下評理) 선생의 나라 잃은 신하로서의 절의(節義)와 판서공(判書公)의 목숨을 던진 의로움은 오늘날에 있어 만물의 근원이라. 더욱이 이를 천양(闡揚)하고 이를 존모하여 세상의 염치없는 자들을 회집(會集)하여 누백년(累百年) 동안 깊이 잠기어 있던 덕(德)을 밝히니 어찌 거룩하지 않으리요!

五 신 병 교(愼炳暾)

귀문 선조의 성구사 사적을 대하건대 인륜을 지키려는 마음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바 나도 모르게 아름다움을 흠모하여 손을 씻고 받들어 읽어보니 전부 삼강록(三綱錄)이 이 한 집안에 있음이라. 뛰어난 절의(節義)가 어찌 이렇게도 장하다 말입니까! 흠앙 만만이로소이다.

六 정 구 용(鄭九鎔)

선대 선생의 절개 곧은 충성과 뛰어난 절의는 해와 별처럼 빛나 500년 동안 잊혀진 행적을 오늘에 보도다. 신위(神位)를 받들 사당을 지으니 자손들의 보본(報本)의 정성이요, 사림이 향례(享禮)의 의식(儀式)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에 착한 행동을 밝혀 숭상함이니 유림의 다행이요, 세상 가르침이 가히 힘입을 만합니다.

그 바람 원근의 사람에게 미치니 뉘라서 우러러 덕(德)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七 성 기 운(成璣運)

귀문(貴門) 선조를 향사하는 의식절차와 또한 혜함(惠函)을 받자옵고 삼가 전후 사실을 정성스레 살펴보고 황망히 사당 앞에 달려가 향제(享祭)에 참배하였습니다.

우러러 사모하고 공경함은 바로 후손들의 뜻을 잇고 사실을 밝히는 것을 기뻐함이 아니고 공의(公議)가 오히려 살아 있음을 축하하기 위함입니다.

八 최 병 심(崔秉心)

귀문 선조의 신주(神主)를 훌륭한 사당으로써 모시는 공의(公議)가 사림으로부터 나왔으니 참으로 거룩합니다. 참으로 거룩합니다.

答 誠久祠 儒林
성구사 유림에게 답함

정 은 교 (鄭誾教)

가만히 생각하여 보건대 고려 말에 절의를 지킨 여러 신하 가운데 문하평리(門下評理) 변(卞)선생이 계셨으니 휘는 빈(贇)입니다.

고려의 운수가 다함을 보고 중국 은(殷)나라 말의 미자(微子), 기자(箕子)[①]의 절의에 따를 것을 맹서하고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세상과 인연을 끊고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세상에서 일컫는 바 두문동 72은(隱)이 이것입니다.

증 병조판서(贈 兵曹判書), 증 승지(贈 承旨) 부자(父子)도 이어 높은 절의가 있어서 나란히 정려(旌閭)로 포상하는 은전(恩典)을 입었고 사림이 보고 느껴 사모하니 누구라 높이 받들어 제사를 올리고자 아니하리요.

또한 옛 사적으로써 이를 논할진대 중국 초(楚)나라의 유민(遺民)은 소왕(昭王)[②]을 한 칸 초가에서 제사 지냈고 촉(蜀)나라의 시골 늙은이는 무후(武侯)[③]를 측백나무가 있는 조그만 사당에서 제사 지냈습니다.

다른 시대의 백성이 다른 시대의 군왕을 사모하고 다른 연대(年代)의 후생이 다른 연대의 현인(賢人)을 사모함이 오히려 이와 같았거늘 하물며 한 나라의 선비의 한 나라 명현에 있어서랴.

풍덕(豊德)의 덕수서원(德水書院)과 연산(連山)의 돈암서원(遯巖書院)은 그 당시의 유생들이 의논하여 세운 바 몇 년을 경과한 뒤에 사액(賜額)[④]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있었던 한 증좌로는 면암선

사(勉菴先師)⑤의 사당은 유림의 논의로 호남(湖南)에 세워졌고 대산선생(大山先生)⑥의 사당이 선비들의 논의를 좇아 교좌(경북)에 세워진 것은 그 충의와 학문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건대 의리는 모두 없어지고 삼강오륜(三綱五倫)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으니 더욱 마땅히 충성을 숭상하고 정렬(貞烈)을 장려하여 천일(天日)이 다시 밝기를 우두커니 기다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매 헛되이 선조를 생각하는 마음만 일어납니다. 어리석은 나의 마음도 이와 같거늘 아직 도리(道理)를 아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두루 의견을 물으시는데 두렵고 두렵습니다.

※ 역주(譯註)

① **미자(微子) · 기자(箕子)** : 은(殷)나라 말의 충신.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紂王)의 방탕함을 간하다가 주왕 곁을 떠남

② **소왕(昭王)** : 초(楚)나라의 왕

③ **무후(武侯)** : 촉(蜀)나라의 군사(軍師) 제갈공명(諸葛孔明). 이름은 양(亮)

④ **사액(賜額)** : 임금이 이름지어 내리는 현판

⑤ **면암선사(勉菴先師)** : 최익현 선생

④ **대산선생(大山先生)** : (1710~1781) 조선조 정조(正祖) 때의 문신(文臣), 학자. 자는 경문(景文). 호는 대산(大山). 본관은 한산(韓山)

영조(英祖) 11년에 문과에 급제. 벼슬이 형조참의에 이름. 그의 학문은 퇴계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 안동(安東)에서 강의하여 많은 학자를 가르쳤다.

저서로는 약중편제(約中編制), 양경재집(養敬齋集), 해이기류편(解理氣類編), 주자절요사칠설(朱子節要四七說) 등이 있다. 제자들에 의해 편찬된 대산실기(大山實記)가 있다.

二 정 환 철(鄭煥喆)

문하평리(門下評理) 변(卞)선생의 곧은 충성과 높은 절의는 일월(日月)처럼 밝은 것이 포은노상(圃隱老相)①과 막상막하(莫上莫下)였으나 불행하게도 널리 세상에 알려서 권장하는 은전(恩典)에 빠지는 바 있었습니다.

제사를 올리는 일도 오늘날에 오히려 적막한 것은 조정(朝廷)의 은전이 빠짐에서 인지라 사림의 품은 원한이 어떠하였으리요.

정렬(貞烈)을 업신여기는 이때를 당하여 절의를 우러러 사모하며 허물어져 가는 풍속을 엄하게 다스리고 또한 세상을 교화(敎化)하는 일단 요체를 잡아 세워시와, 업드려 바라옵건대 여러분들께서는 뜻있는 일에 힘을 합쳐 선생의 그 날의 충성스런 마음의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신다면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 역주(譯註)

① **포은노상(圃隱老相)** : (1337~1392) 늙은 재상 포은이라는 뜻. 포은(圃隱)은 정몽주의 호. 고려 말엽의 문신(文臣), 학자. 동방이학(東邦理學)의 시조로 추앙됨. 이성계(李成桂)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일당을 숙청하려다가 이방원(李芳遠)이 시킨 조영규(趙英珪)에게 선죽교(善竹橋)에서 격살(擊殺)됨. 시문(詩文)에 능하여 많은 시를 남겼는데 단심가(丹心歌)는 많은 사람에게 불리어지고 있다.

三 안 유 상(安有商)

문하평리 변(卞)선생의 나라 잃은 신하로서의 대의(大義)를 일찍이 우러러 공경하는 바로써 외람되이 제관(祭官)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니 헤아려 보건대 분수에 넘치는 일이며 또한 다행한 일입니다.

四 이 수 일(李壽壹)

선인(先人)들의 높은 절의와 아름다운 행실을 후세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의지하여 경복하는 바 하물며 일문(一門)에 삼충(三忠)이 아울러 모였음에랴.

많은 선비들이 정결히 제사를 올리니 이른 바 하늘의 바른 덕(德)을 받는 것이라 어찌 앞 다투어 달려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五 하 종 호(河宗鎬)

경전(經典)은 남아 있어도 가르침은 무너졌으며 날은 저물고 길은 아득하니 곧 사람은 몰아내고 짐승을 들이는 때인지라 어진 이를 사모하고 착한 성품을 있게 하는 예(禮)를 올리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 어른들이 아니었더라면 도(道)를 존중하고 어진 이를 좋아하는 실상을 누가 능히 오늘에 판단하겠습니까. 거룩한 풍습에 임하여 우러르니 태산(泰山) 북두칠성보다도 더 높습니다.

六 이 현 갑(李鉉甲)

성구사의 향례는 이 세상의 지극히 거룩한 행사라 무릇 유림 선비라면 그 누가 경모(景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七 이 현 학(李鉉鶴)

성구사 제례의 법도는 실로 성스러운 행사라 선비된 자 그 누가 우러러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八 민 용 혁(閔用爀)

정성스러운 것은 참된 것입니다. 자연으로 참된 것은 하늘(天)이며 반드시 참됨을 기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는 모두 참된 이치에 말미암은 바 감추어도 보이고 아주 작아도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참되게 있음을 손으로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리(評理) 변선생의 정충대의(貞忠大義)와 판서(判書) 승지(承旨) 양공(兩公)의 충효전절(忠孝全節)은 사림 사이에 들리어 전송(傳誦)되니 곱게 우러러 봄이 오래 입니다.

스스로 이 행사를 듣고 달려가 뵙고자 하였으나 다만 늙은 몸에 질병이 침노 아니하는 날이 없어 본디 품은 뜻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큰 자식을 대신 보내어 외람되게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용렬하게 우러러 아뢰오니 바라옵건대 양해하옵소서.

九　　장 석 영 (張錫英)

성구사의 일은 여러분의 도를 지키는 정성을 가히 알겠으며 우리들이 몸소 이 세상을 만난 것도 남은 빛을 부식(扶植)하는 까닭이라 어찌 가히 그만 두겠습니까.

十　　송 철 헌 (宋哲憲)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여러 어른들께서 변씨삼현(卞氏三賢)의 충의대절(忠義大節)을 높이 받드는 일에 있어서 힘을 다하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이는 주자(朱子)①의 충의를 포양(褒揚)하는 유훈(遺訓)에서 얻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 역주(譯註)

① **주자(朱子)** : (1130~1200) 중국 남송(南宋)의 유학자. 이름은 희(熹). 호는 회암(晦庵). 후세사람들은 그를 주자(朱子)라 존칭하고 그의 학문을 주자학(朱子學)이라 하였다. 그는 오경(五經)에는 비판적이고 사서(四書)를 중요시하여 이를 중심으로 학문체계를 세웠다. 그의 우주관(宇宙觀), 인성론(人性論)은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太極圖)와 장횡거(張橫渠)의 서명(西銘)을 정호(程顥)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으로 설명한 것이다. 우리나라 성리학(性理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誠久祠上樑文
성 구 사 상 량 문

이 직 현 (李直鉉)

한 마음 다스려 삼강(三綱)을 전하니 태산같이 높으며 일월처럼 빛나고, 두 들보 우뚝 솟아 백세토록 건재하니 상로(霜露)에 추념하며 춘추로 향사(享祀)한다. 많은 선비들 줄지어 늘어섰고 영령은 편안히 흠향한다.

공손히 생각건대 평리(評理) 변선생(卞先生)은 망복(罔僕)의 정절(貞節)을 지켰고 이제(夷齊)[1]의 청풍(淸風)을 지녔다. 포은(圃隱)[2] 야은(冶隱)[3]으로 더불어 동시(同時)이니 처지를 바꿔 보면 모두가 일체(一體)이고,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4]에 사실이 실렸으니 무궁토록 끝없이 밝게 드리웠다.

증 병판공(贈 兵判公)은 신하되어 충성을 다했고 왕을 위해 적개심(敵愾心)을 품었다. 간과(干戈)를 떨쳐서 용감했으며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순사(殉死)했고 대임(大任)을 자처하여 봉황(鳳凰)의 나라에서 삶을 아니 도모했다.

증 승지공(贈 承旨公)은 전진(戰陣)에서 함께 죽어 충과 효를 모두 온전히 했다.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 저 면죽(綿竹)의 장렬함과 동일하여 임금 있고 신하 있으니 단군(檀君) 기자(箕子)의 옛 나라를 빛냈다.

그러나 행적(行蹟)은 서책에 유전(流傳)하니 오직 은(殷)나라 말기의 기자(箕子) 미자(微子)[5]의 지절(志節)을 행했으되 공명(功名)은 사서(史書)에 매몰되니 고을의 충직하고 의로운 이들이 길이 탄식했다. 다행스

럽게도 국가가 증직(贈職)하고 정표(旌表)하니 마을은 경관이 바뀌었으며 유현(儒賢)이 비명 지어 기록하니 묘도(墓道)엔 광채가 더해졌다.

주선한 재사(齋舍)의 건립은 이에 현구(玄龜) 택한 길일(吉日)에 맞았고, 제창한 선비들의 의논 따라 비로소 기미년(己未年) 계추(季秋)에 향사(享祀)했다. 여태까지 사우(祠宇)를 달리 짓지 못했으나 일찍이 경영(經營)이 태만하지는 않았다. 좋은 자리 멀리서 찾을 필요 없으니 문도산(問道山) 푸른 봉우리 우뚝하고 길한 날이 이 또한 청명절(淸明節)에 합치되니 타령(妥靈)한 단각(丹閣)이 솟았다. 선비들 책을 놓고 목수 일 다스리니 완연한 녹동(鹿洞)의 규범이요 사람들 힘을 다해 충정(衷情)을 바치니 경비(經費) 마련 어렵지 않았다. 집채는 아름답고 섬돌은 정연하다. 정인(郢人)의 도끼 이미 힘썼으니 장로(張老) 노랫소리 이어 드높아라.

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던져라. 선생이 해동(海東)에서 나셨구나. 바다로 돌아가지 않는 물은 없으니 도도히 굽이치며 동쪽으로 향해 흐른다.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던져라. 채미가(採薇歌) 부르면서 언제 서산 올랐는가. 만 길 높은 수양산(首陽山)과 더불어 나란히 적석봉(積石峯) 우뚝 솟아 서쪽에 있구나. 임진년(壬辰年) 풍우를 말끔히 씻었거늘 괴상한 바다 기운 남쪽에서 불어온다.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던져라. 뭇 별이 에워싸 북두성(北斗星)을 받든다. 그 아비에 그 아들 있으니 칼날을 무릅쓰고 북쪽 향해 절했네.

어영차 들보를 위로 던져라. 하늘이 태산(泰山)의 정상(頂上)에 있지만 삼현(三賢)의 절의는 지극히 우뚝 솟아 이보다 높은 것이 없다네

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던져라. 도학(道學)도 단지 실학(實學)에 근본

한다. 만약에 천리(天理)와 윤상(倫常)에 어둡다면 배우지 아니한 하등(下等) 백성이 될 뿐이로세.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上樑)한 뒤로는 천지(天地) 다시 태평(太平)하고 일월(日月) 밝게 비치리. 사람들 순질(淳質) 미풍(美風)에 힘써서 선진(先進)의 예악(禮樂)을 따르고 선비들 충효(忠孝) 선행(善行)에 돈독하여 후학(後學)의 모범이 되소서.

※ 역주(譯註)

① **이제(夷齊)** :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중국 고대의 은(殷)나라 말에서 주(周)나라 초기에 있었다는 전설적인 형제 성인. 고죽국(孤竹國)의 왕자. 주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주왕(紂王)을 치려 하자 이를 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함에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꺾어 먹다가 아사했다고 한다. 충절의 귀감으로 칭송된다.

② **포은(圃隱)** : (1337~1392) 성은 정씨. 자는 달가(達可). 이름은 몽주(夢周)이고 포은은 호다. 고려 말의 충신 학자. 1372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1376년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이 되었으며 이듬해 일본 구주(九州)의 영주 이마가와(今川)에게 가서 왜구의 단속을 요청하여 승낙을 얻고 왜구에게 잡혀 간 고려 백성 수백 명을 귀국시켰다. 남은(南誾), 정도전(鄭道傳) 등이 이성계(李成桂)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음모를 알고 이성계를 저지하려다가 오히려 이방원(李芳遠) 문객(門客) 조영규(趙英珪)에 의하여 선죽교(善竹橋)에서 격살(擊殺)되었다. 지방관(地方官)의 비행을 근절시키고 의창(義倉)을 세워 빈민 구제에 힘썼다. 성리학(性理學)에 뛰어나 동방이학(東邦理學)의 조(祖)로 일컬어진다. 시호는 문충공(文忠公). 저서는 포은집(圃隱集)이 있다.

③ **야은(冶隱)** : (1353~1419)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학자. 성은 길씨(吉氏). 이름은 재(再) 야은은 호다.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의 제자로 성리학

을 연구 1387년 성균관 학정(成均館 學正)이 되었고 박사(博士)에 이르러 국자감(國子監)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조선조에 들어와 방원(芳遠)이 태상박사(太常博士)로 불렀으나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 하여 거절하였다. 시호는 충절공(忠節公) 여말(麗末) 삼은(三隱)의 한 분이다.

④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뒤에 보임

⑤ **기자(箕子) · 미자(微子)** : 중국 은(殷)나라 말기의 대 충신

講堂上樑文
강당(도산서원)상량문

후손 응 수(應洙)

조선(祖先)을 받들어 효사(孝思)하니 바야흐로 종문(宗門)의 화합함을 알겠고 집을 지어서 고성(告成)하니 드디어 웅장한 동우(棟宇)를 보겠다. 일찍이 후손이 이를 이루매 군자가 오를 곳이로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열조(烈祖)께서 인의(仁義)로 일신(一身)을 세웠고 충효(忠孝)를 대대로 전했다. 나라 잃은 신하의 뜻을 바치어 절의(節義)를 드러내니 천추(千秋)로 은산(殷山)에 광채 나고 왕을 위해 적과 싸워 전공(戰功)을 세우니 부자(父子)가 함께 당포(唐浦)에서 전사했다. 삼강(三綱)을 정표(旌表)하니 성은(聖恩)이 망극(罔極)하나 보편적 사례라 오히려 유감스럽고 하나의 은혜로 선양하니 조정 의론이 공정하나 시행이 미흡하여 이 또한 한스럽다.

선조의 훌륭한 문무(文武) 성덕(盛德)을 추념건대 후인들 자발적인 향사(享祀)는 정성이 모자랐다. 한해 한 번 제사가 형식만 남았으니 본손(本孫)들 재사(齋舍) 없음을 개탄하고 중인(衆人) 권할 풍범(風範)에도 신위(神位) 봉안 더디니 선비들 제향(祭享) 못함을 탄식했다.

경영(經營)을 못함은 참으로 인연 없기 때문이요, 시작은 성쇠(盛衰)에 따라 다르니 그렇다 하더라도 또한 때가 있는 것이로다.

저 독좌동(篤佐洞) 송전(松田) 사이를 돌아보니 실로 도산(道山) 국봉(菊峯) 아래에 있구나. 방장(方丈) 명산(名山)이 동쪽으로 굽이쳐 뻗어 나서 두텁게 쌓이어 봉우리 우뚝하고 파릉(巴陵)의 고운 물이 굽이쳐서

남쪽으로 흘러 드니 근원(根源)이 깊어 흐름이 장대하다.

후손들 큰 길을 달리며 즐겁게 앞뒤 다투어 얘기하고 선산(先山)의 묘비(墓碑) 서로 마주 바라보니 선연하게 좌우에 계신 듯! 우리 거북이미 길일(吉日)을 점쳐 정하니 홀연 꿩이 이에 날듯 하구나.

풍성한 제물(祭物)이 매우 좋고 알맞으니 초자(楚茨)의 제사하는 시구(詩句)를 읊었고 곱게 자란 송백(松柏)을 이에 자르고 이에 깎아서 노송(魯頌)의 집 짓는 노래를 부른다. 사람 있고 재물 있으니 중론(衆論)의 일치함을 알겠고, 이에 살고 이에 지내니 복록(福祿)이 끝 없음을 점치겠다. 이는 이른 바 뜻이 있어 마침내 이루어진 일이니 어찌 멀어도 반드시 도달하는 것이라 아니하랴!

이에 노래하고 이에 곡(哭)하니 척강(陟降)하는 영령(英靈)이 장엄하고 무성하고 다복하여 아름다운 제도(制度)가 굳건하다. 너희 후손이 창성함은 늘어선 제사 범절에서 보겠고, 나의 생각 이룸에 날아갈 듯한 묘당(廟堂)을 우러른다.

목수(木手)들은 도끼질 멈추고 나의 송축(頌祝) 노래 들어라!

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던져라. 천년의 맑은 기운 진양(晋陽) 동쪽에 어렸구나. 뭇 봉우리 겹겹으로 에워싼 가운데 아름다운 문도산에 이 집 여기 자리했네.

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던져라. 적석산(積石山) 우뚝 솟아 남쪽 눌러 앉았구나. 웅장함은 원래부터 천지(天地) 기운 인(因)함이니 이 가운데 분명히 영웅(英雄) 남아(男兒) 있으리라.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던져라. 석양(夕陽)이 다 넘어가고 달이 서쪽에 떴다. 순환(循環)하는 하늘 이치 소진(消盡)하면 돌아오니 풍우에도 그침 없는 닭소리 듣겠구나.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던져라. 백석(白石)의 맑은 여울 북쪽에서 흘러 온다. 너가 바다 이름은 무슨 인연(因緣)때문이냐. 참다운 공력(功力)은 주야로 쉬지 않고 흐름일세.

어영차 들보를 위로 던져라. 오직 푸른 하늘이 머리 위에 임하였다. 일월(日月)과 성진(星辰)이 밝게 밝게 비추니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무진장 존재하네.

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던져라. 도(道)를 담는 그릇은 실학(實學)의 공부로다. 의로운 길은 탄탄하고 인택(人宅)은 편안하니 이에 거처함이 선인(先人)의 뜻 이음일세.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上樑)한 후로는 자리는 오직 신령(神靈)함을 모으고 백성의 덕(德)은 순후(淳厚)하게 돌아가리! 선령(先靈)은 제사(祭社)에서 편안하시어 위에 임하고 곁에 계시며 사람들의 마음은 성(城)을 이루어 기둥 우뚝하고 마루 시원하다. 집집마다 현송(絃誦)하고 풍속이 시례(詩禮)를 강독(講讀)하니 의관(衣冠)을 차려 입은 선비들 모두 충효(忠孝)를 자임(自任)하리.

日新齋上樑文
일 신 재 상 량 문

후 손 응 수(應洙)

서실(書室)의 건립을 도모하니 일가끼리 모인 정(情)이 기쁘고 풍수가 지형(地形)을 살피니 드디어 영재를 기를 자리를 보겠다. 나의 거북 길일을 정하니 이에 꿩이 나는 듯 하구나.

공손히 생각건대 골(谷)에서 벗어나 높은 데로 옮겨가고 먼 길도 가까운 곳부터 시작한다. 충효(忠孝)가 세세(世世)로 두터우니 열조(烈祖)의 신위(神位)가 엄연히 임하였고 시례(詩禮)가 날로 새로우니 현사(賢士)들의 글귀가 밝게 걸렸다. 아호(鵝湖)와 녹동(鹿洞)에서 주자(朱子)와 육상산(陸象山)이 강론(講論)하던 자리는 고인(古人)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북해(北海)와 서하(西河)에서 공융(孔融)과 자하(子夏)가 교수(敎授)하던 마을에 어찌 소자(小子)들의 배움이 없겠는가? 사도(師道)의 유래(由來)를 생각하고 젊은이를 가르치는 바른 방법을 가장 귀히 여긴다.

산 아래에 샘이 솟으니 덕(德)을 기를 길상(吉象)이요, 어둠 속에 촛불 잡으니 계몽(啓蒙)의 교범(敎範)이 엄숙하다. 배움은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요긴한 것은 처음을 돌아보고 근본(根本)을 힘씀이요, 도(道)는 가히 떨어질 수 없으니 궁구(窮究)할 일은 선(善)을 밝혀 한 몸을 닦음일세.

두루 윤리도덕(倫理道德)의 재목됨을 보니 또한 지령(地靈)의 형승(形勝)과 유관하다. 담원(淡院)에 창건할 때에도 집은 옛날 것에 말미암았

고 선평(仙平)에 제향(祭享)한 정성도 일과 때가 달랐다. 삼동(三洞)에 몸을 감춘 계착은 달인(達人)이 한 일이었고 일문(一門)이 뭉쳐서 충효에 돌아갔음은 더욱 목족(睦族)에 마땅하다.

저 적석봉(積石峯) 원기(元氣) 모인 자리를 돌아보니 이에 문도산(問道山)이 끌어안은 기이함이 있구나. 국봉(菊峯)이 울타리되니 도연명(陶淵明)의 취흥(醉興)이 잡힐 듯하고 반과(飯顆)는 안산(案山)이라 이태백(李太白)의 시화(詩話)가 들리 듯하다. 선령(先靈)의 묘당(廟堂)이 엄숙하고 맑으니 앙모(仰慕)하는 곳이 가깝고 후생들 현가(絃歌)가 넘치니 취향(趣向)의 길이 동일하다. 내 여가 내어 경영하니 이내 완공(完工)되어 찬연하다.

이에 노래하고 이에 모이니 장로(張老)의 칭송이 흥겨웁고 실로 아름답고 실로 완벽하니 위인(衛人)의 거실(居室)을 본받을 만하구나. 몸을 씻고 덕(德)을 닦아 종을 치듯 옥을 쪼듯 참 공부 힘쓰며, 책상 좋고 창(窓) 밝으니 새끼 지도리 옹기 봉창의 옛 모습 잊지 말라!

이는 이른바 이룬 이의 정성이니 누구라 재실(齋室) 짓는 것을 즐겁다 아니하랴!

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던져라. 천지(天地) 사이 충화(冲和) 기운 동쪽에 어렸구나. 본성(本性) 회복은 정녕 학문으로 이르나니 사람 갈 길 확실히 일성(一誠) 중에 있다네.

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던져라. 기운(氣運)이 풍성하여 영남(嶺南)을 품었다. 때마침 천상(天上)에 문창성(文昌星)이 보이니 강산(江山)은 무수한 영웅(英雄) 남아(男兒) 낳았구나.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던져라. 적석산 세 봉우리 서쪽에 솟았구나. 곧고도 평평하여 축괘상(丑卦象)을 겸했으니 헛되이 하늘 높이 솟은 것

이 아니로다.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던져라. 아름다운 산수(山水)가 북쪽에서 흘러 왔다. 이치를 추구(追究)하면 만민(萬民) 혜택(惠澤) 알리니 편벽(偏僻) 없고 붕당(朋黨) 없는 지극함을 보전하리.

어영차 들보를 위로 던져라. 훌륭하신 정령(精靈)이 머리 위에 임하였다. 천고(千古)토록 무궁한 충효(忠孝)의 빛난 뜻을 여기서 향사(享祀)하여 일심(一心)으로 우러리라!

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던져라. 상달(上達)한 공부는 원래 아래에서부터 시작된다. 확신건대 인도(人道)와 천도(天道)는 다름이 없나니, 시냇물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르네.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上樑)한 뒤로는 위기(危己)의 학문에 힘써 천부(天賦)의 본성(本性)을 신장하라. 사술(四術)① 사교(四敎)②의 떳떳함을 정리하여 예악(禮樂)을 밝히고 육행(六行)③ 육덕(六德)④의 뜻을 강론(講論)하여 심신(心身)을 다스려라. 문(門)을 나서면 큰 손님 보는 듯이 몸을 단정히 가지고, 책을 펼치면 상제(上帝)를 대하듯 경건(敬虔)히 하라.

※ 역주(譯註)

① **사술(四術)** : 선왕의 시·서·예·악(詩 書 禮 樂)의 네 가지 도(道). 술(術)은 도(道)를 일음.

② **사교(四敎)** : 남자의 네 가지 가르침. 문·행·충·신(文 行 忠 信)

③ 육행(六行) : 사람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행위.
효·우·목·인·임·휼(孝 友 睦 婣 任 恤)

④ **육덕(六德)** : 사람의 마음에 지켜야 할 여섯 가지의 덕.
지·인·성·의·충·화(智 仁 聖 義 忠 和)

奉安文
봉 안 문

오 진 영 (吳震泳)

생각건대 평리(評理公)은 고려 말운(末運) 당하여
기우는 하늘 지탱 못해 원통하고 울적해라
선죽교(善竹橋) 돌아봄에 포은(圃隱) 이미 죽었으니
뉘와 함께 돌아가랴 백이(伯夷) 숙제(叔齊) 뿐이로다
조선(朝鮮)이 개국(開國)하자 핍박이 서로 따르니
오호라! 이 도(道)의 바탕으로 백성 윤상(倫常) 어찌하랴
떠난 미자(微子) 종 된 기자(箕子) 임금 위한 마음일세
두문동(杜門洞)에 자정(自靖)하니 이가 오직 분수(分數)이라
그 의리(義理) 떳떳하여 구천(九泉)까지 따르리!

또한 뒷날 상서공(尙書公)은 오직 어진 자손(子孫)일레
그 옛날 임진년(壬辰年)에 섬 오랑캐 침범하니
의분(義奮)하고 적개(敵愾)하여 붉은 피 들끓었네
효자(孝子) 따라 출전하니 아름답다 승선공(承宣公)
아비 공(功)을 자식 이어 몇 년을 쌓은 노고(勞苦)
하늘 아니 도우시어 당포대전(唐浦大戰)에서 부자(父子)가 순국(殉國)했다
정표(旌表) 녹훈(錄勳) 추증(追贈)하여 찬연하게 빛나거니
나라의 영광이요 강상(綱常) 높이 걸었구나
그 당시를 추념(追念)하면 무덤을 치고 싶다

천추(千秋)에 남긴 한(恨)이 사절신(死節臣)에 그쳤구나!
오호라! 이 삼세(三世)는 대의(大義)가 동일하니
사람 도리(道理) 다 함이라 그 공로(功勞) 뉘랴 견주랴
세 분 향사(享祀) 베풀어서 인신(人臣) 밝게 보이려도
공의(公議) 오래 울적하니 아는 이들 탄식했다
하물며 후손(後孫)들이 어려움을 겪었어도
적막한 천지간(天地間)에 몸 둘 곳 전혀 없어
추모(追慕) 정성 간절해도 귀의(歸依)할 곳 없더니
장엄한 신궁(神宮)에 위차(位次)따라 배열했다
조손(祖孫) 이어 향사(享祀)하고 부자 좇아 흠향(歆饗)하니
한수(漢水)의 무후(武侯) 제사 이세(二世)가 동덕(同德)일세
우리 동방(東邦) 지천(知川)에도 또한 육위(六位) 있으니
전사(前事)가 증명하고 예법(禮法) 또한 합당하다

길일(吉日) 가려 안치하니 제물(祭物)이 향기롭고
마음 구슬피 제(祭) 올리니 영령(英靈)을 뵈옵는 듯
일문(一門)의 의리(義理)가 아름답고 넉넉하니
정기(精氣)가 흘러가 듯 천만년(千萬年)을 전해지리
바라옵기는 계고(啓告)하여 무궁(無窮)토록 받드리다
봉안(奉安)하는 처음에 감히 사유(事由) 아룁니다

春秋享祀祝文
춘 추 향 사 축 문

기미(機微) 밝아 두문(杜門) 드니 망복(罔僕) 절의(節義) 막중하고
유풍(遺風)이 늠름하니 백세(百世)가 어제 같다
춘정(春丁 또는 秋丁)日 맞이하여 경건히 천향(遷享)하오니
바라옵건대 흠향(歆饗)하사 무궁(無窮) 명복(冥福) 누리소서

평리선생 위(評理先生 位)

떨친 충성(忠誠) 적개(敵愾)하여 인의(仁義) 위해 몸 바쳤네
승전(勝戰) 앞서 몸 먼저 가니 백세(百世)토록 이름 높다.
춘정(春丁 또는 秋丁)을 맞이하여 분루(憤淚)로 천향(遷享)하오니
바라옵건대 흠향(歆饗)하사 무궁(無窮) 명복(冥福) 누리소서

판서공 위(判書公 位)

부친(父親) 좇아 효도(孝道)하고 순국(殉國)으로 충성(忠誠)했네
인의(仁義)의 보답은 백세(百世)토록 이름 높다
춘정(春丁 또는 秋丁)日 맞이하여 경건히 천향(遷享)하오니
바라옵건대 흠향(歆饗)하사 무궁(無窮) 명복(冥福) 누리소서

승지공 위(承旨公 位)

廟庭碑銘
묘 정 비 명

진주(晋州) 도산(道山) 아래에 사당(祠堂)이 있어 성구(誠久)라 하니 변씨삼현(卞氏三賢)을 향사(享祀) 올리는 곳이다.

고려의 문하평리(門下評理) 빈(贇)은 국운이 다함을 당하여 판서(判書) 성만용(成萬庸), 박사(博士) 정몽주(鄭夢周), 제학(提學) 홍재(洪載), 대사성(大司成) 이색(李穡), 전서(典書) 김성목(金成牧), 전서(典書) 조열(趙悅), 진사(進士) 이오(李午)와 더불어 기약하지 아니하고 일당(一堂)에 모여 서로 술을 들고 시를 읊으며 시대를 상심하고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여 이르기를 "은(殷)나라에 세 어진 이가 있어 혹은 죽고 혹은 떠나고 혹은 종(奴)이 되었으니 지금 우리들도 또한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니 모두가 "좋다" 고 하였다. 마침내 각자가 그 갈 곳으로 돌아 갔는데 선생은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 나라 잃은 신하의 절의(節義)를 깨끗이 하였다.

여러 대(代)를 내려와 훈련주부(訓鍊主簿)에 이르러니 증 병조판서(贈兵曹判書)요, 휘(諱)는 연수(延壽)이다. 그 아들 증 좌승지(贈 左承旨) 입(岦)과 함께 선조(宣祖) 때의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창의(倡義)하여 적(賊)을 무찔러 뛰어난 많은 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당포(唐浦)의 싸움에서 부자(父子)가 동시에 돌아 가시었고 입(岦)의 처 김씨(金氏) 또한 남편의 뒤를 따랐다.

벼슬을 추증(追贈)하고 정문(旌門)을 내려 임금의 포상함이 융중(隆重)하니 이가 이른 바 삼현(三賢)이다. 후손의 여러 선비들이 영남(嶺南)의 많은 선비들과 꾀하여 사당(祠堂)을 세우고 제향(祭享)을 받들면서 변변치 못한 나에게 비(碑)의 명(銘)을 청하였다.

아아! 삼현의 곧은 충성과 높은 절의는 족히 풍성(風聲)으로써 백세(百歲)를 움직일 것이요, 임금을 섬기고 세상을 깨우치는 전고(典故)에 함치되는 것으로 오늘의 거사(擧事)를 누가 감히 옳지 않다 할 것이며 일을 비로소 꾀하여 이에 능히 끝맺음이 있으니 이미 선철(先哲)을 사모함이요 또한 아름다운 의례(儀禮)를 거행함이로다.

마땅히 이 한 마음으로 봄 가을의 향사(享祀)를 게을리 아니하고 틈틈이 부지런히 삼현(三賢)의 도의(道義)를 강론하고 밝혀 사방에 드높인 후에야 이에 가히 선조를 존경하고 그 도(道)를 사모한다 할 것이다. 만약에 처음에 부지런하고 끝에 게으르면 그 이름은 있고 그 실(實)은 없음이라 어찌 존경하고 사모한다 하랴!

경서(經書)에 이르기를 "지성은 쉼이 없고 쉬지 아니하면 오래라" 하였으니 이를 말함인가. 명하여 이르기를,

생각건대 고려 말에 절의 높은 평리공(評理公)이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니 넓은 하늘의 일월(日月)일레
굳세도다 판서공(判書公)은 그 어른의 후손일세
선조왕(宣祖王) 때 즈음하여 섬 오랑캐 침범하니
충성 떨쳐 적(賊)을 쳤네 의기(義旗) 높이 걸었거니
뛰어나다 승지공(承旨公)은 열렬하게 종군(從軍)하여
당포(唐浦)의 대전(大戰)에서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아비는 충(忠)에 죽고 아들은 효(孝)에 죽으니
일문(一門)에 삼충(三忠)일세 나라 위한 준걸(俊傑)이라
해와 별처럼 빛이 있고 눈 서리처럼 위엄(威嚴)있네
선비들 경모(景慕)함이 오랜 세월 여전하다
높고 높은 도산(道山) 아래 한 사당(祠堂)이 우뚝하다
그 당(堂)에 제(祭)함께 올리니 제물(祭物)도 정결해라
얼시고 고울시고 천고(千古)에 유방(流芳)이로세

통정대부(通政大夫) 비서원승(秘書院承) 김 영 한(金甯漢) 지음

誠久祠記
성 구 사 기

오 진 영 (吳震泳)

영남우도(嶺南右道) 진주(晋州)의 동쪽 도산(道山) 아래 일암리(日岩里)에 사우(祠宇)가 있으니 성구(誠久)로 초계변씨(草溪卞氏) 삼충(三忠)을 제향(祭享)하는 곳이다.

문하평리(門下評理) 휘 빈(諱 贇)은 고려조(高麗朝)를 위해서 몸을 숨겼으며 훈련주부(訓鍊主簿) 증 병조판서(贈 兵曹判書) 휘 연수(諱 延壽)는 임진왜란 시 왜적(倭賊)을 막다가 순의(殉義)하였으며 증 승정원 좌승지(贈 承政院 左承旨) 휘 입(諱 岦)은 아비를 따라가서 싸우다가 순국(殉國)하였다. 판서는 평리의 十世孫이고 승지는 판서의 아들이다.

아아, 거룩하여라. 살피건대 모두가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높이 내걸어 사람의 이미 죽은 마음까지 불러 깨우나니 선후 조손(祖孫)이 일문(一門)에 모였도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떳떳함을 본받게 한 신하는 제(祭) 지내고, 능히 큰 재앙을 막으면 제(祭) 지낸다" 하였으니 이는 변씨 三世를 함께 제향(祭享)함이라. 군자는 이를 일러 "가려서 그 합사(合祀)하는 제전(祭典)을 허락한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평리는 고려의 운(運)이 다함에 판서(判書) 성만용(成萬庸), 박사(博士) 정몽주(鄭夢周), 제학(提學) 홍재(洪載), 대사성(大司成) 이색(李穡), 전서(典書) 김성목(金成牧), 전서(典書) 조열(趙悅), 진사(進士) 이오(李午)와 더불어 기약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술을 들고 시를 읊으며 시대를

상심하고 탄식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르기를 "은(殷)나라에 세 어진 이가 있으니 비간(比干)은 죽고, 미자(微子)는 떠나고, 기자(箕子)는 종이 되었다 하니 우리도 각자가 뜻에 따라 행할 지로다" 하니 모두가 이르기를 "좋다" 라고 하였다. 홍재는 삼가(三嘉)로 돌아가고 이오와 조열은 함안(咸安)으로 돌아갔는데 공(公)은 마침내 두문동으로 들어가 숨어서 그 삶을 끝마쳤다.

판서(判書)는 선조(宣祖) 임진왜란에 부자(父子)가 의병을 일으켜 충무(忠武) 이공 순신(李公 舜臣) 휘하에서 여러 번 공을 세우고 정유년(丁酉年 1597)에 이르러 당포(唐浦) 싸움에서 부자가 한 날에 전사하니 선무이등훈(宣武二等勳)에 기록하고 특히 아들과 함께 이 직함을 더하여 추증(追贈)하고 아울러 정려(旌閭)를 명하니 그 빛남이 찬연하였다.

홀로 평리 선생의 어려웠던 충성과 높은 절의는 파묻혀 오백 여 년을 드러나지 않았다. 가만히 일찍이 본 바로는 대저 고려의 나라를 잃은 여러 어진 이를 우리 조선조(朝鮮朝)에서 모두 신하가 되도록 권장하고 포상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여러 성군(聖君)의 높은 덕(德)이 주(周)나라 임금만 못지 않았지마는 간혹 먼 지방의 구석진 고을에 사는 자손은 연계(聯係)의 힘이 없고 엎어진 독 속에 있는 자는 일월의 밝음도 비치지 아니하는 수도 있으니 이는 일을 관장(管掌)하는 자의 밝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탓으로 천지의 크기(天地之大)가 아니라도 오히려 유감스러움이 있는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스스로 그 의(義)를 다하여 나의 마음의 편안한 바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곧 남이 알고 모르는 것이 그 선생을 위하여 하등의 손익(損益)이 있겠는가?

후손 전 지헌 (前 持憲) 응수(應洙)가 때로 느끼고 선조를 추모하여

뜻을 같이 하는 원근 선비들의 문자(文字)를 게시(揭示)함에 흥감(興感)한 이가 모두 이르기를 "의리(義理)는 한 집안이 사유(私有)할 것이 아니라 여러 향리사회(鄕里社會)가 공유(公有)함이 옳다" 하여 이에 함께 시가(詩歌)로써 그 의(義)를 나타내고 나아가서는 자손이 살고 있는 마을 뒤에 사당(祠堂)을 세워 평리, 판서, 승지를 모셔 모두 예(禮)를 갖추어 향사(享祀)하였다.

또한 대문 안 왼편에 별도로 재사(齋舍)가 있어 향리 자제(子弟)의 학문을 강론하고 익히는 곳으로 삼으니 이에 변씨(卞氏)가 사림(士林)의 뒤에서 그 선조를 선양(宣揚)하는 정신과 세상을 도우는 의(義)를 펴는데 종사함을 얻어 또한 장차 오래고 큰 사업을 위하게 되었다.

정성은 하늘의 도(道)이고 정성스러운 것은 사람의 도(道)이다. 지성(至誠)은 쉼이 없고 쉬지 아니하면 오래이다. 충효의 도(道)는 하늘에서 나서 사람에서 갖추어 지나니 도(道)가 천하에 있으면 진실로 아직껏 망하는 일이 없었다. 때로는 사람이 이를 해(害)코자 하면 곧 화(禍)가 아비를 죽이고 임금을 배반하여 천하가 어지럽고 망하기에 이르나니 다시 구제(救濟)할 수 없을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힘써 정성껏 세(勢)를 펴서 오래 지속하면 결국은 반드시 이를 돌이킬 수 있다는 이치를 오히려 알게 되는 것이니 지성스런 마음을 가지고 인욕(人慾)의 해(害)를 물리치는데 힘쓰고, 충효의 도를 다하면 천하가 장차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당(祠堂)의 이름을 정하는 까닭이다. 아아, 하나의 성구사(誠久祠)가 천하의 신하된 자의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응수(應洙)氏가 여러 선비의 뜻으로서 그 손자 덕섭(德燮)과 사종질(四從姪) 종권(種權)을 보내어 기문(記文)을 부촉(付囑)하였다. 나는 바

야흐로 선조 정무공(貞武公)의 제향(祭享) 일로써 양성(陽城) 천덕산(天德山)의 퇴전당(退全堂)에 있었는데 선조(先祖) 또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으로 철권(鐵卷)①에 실려 있는 분이라 나 또한 후손 중의 욕된 자로 그 일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이 있었다. 아아, 다하지 못한 한(恨)이라 끝내 사양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선비는 누구냐 하면 류화영(柳華永), 이직현(李直鉉), 정은교(鄭誾敎), 이준구(李準九), 하종호(河宗鎬), 정환철(鄭煥喆)의 여러 군자라 한다.

※역주(譯註)

① **철권(鐵卷)** : 공신에게 나누어 주던 공훈을 기록한 책

日新齋記
일 신 재 기

송 병 순(宋秉珣)[1]

진주의 동쪽에 푸르게 우뚝 솟은 것은 문도산(聞道山)이다. 그 아래 하나의 사서가 있어 산뜻하고 깨끗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변씨(卞氏) 집안의 글방이다. 글방이 처음 세워진 것은 오래이다. 몇 십 년의 사이에 담원(淡院)에서 선평(仙平)으로 옮겼고 선평에서 거듭 일암촌(日岩村)으로 옮기니 그 집의 얽음새가 옛보다 조금 늘어서 모이는 무리가 배우고 익히는데 거의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

변군(卞君) 상화(相華)가 나에게 와서 이름을 청하기로 이에 일신(日新)으로써 그 중방(中枋)에 걸게 하였다. 이 해 가을에 또한 그의 어른의 명령으로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어른께서 이미 현판(懸板)을 주셨으니 대저 그 뜻을 풀이하여 이를 알게 하소서" 하였다.

스스로를 돌아 보건대 몸이 쇠약하여 게을러서 지필(紙筆)에 서툰지라 학문을 강구하고 연마하여 서로 나아가게 하는 말이 가히 떳떳할 수 있을까?

대저 사람의 사람되는 까닭은 천지로 하여금 화육(化育)을 도우는데 그 밝은 덕(德)이 있으므로 이다. 덕의 근본은 밝으며, 몸의 근본은 깨끗하나니 물욕(物慾)으로 이를 가리면 밝은 덕이 어두워지며, 티끌과 때가 이를 물들이면 근본이 깨끗한 것도 더러워진다. 이를 밝히는 실마리와 이를 깨끗이 하는 공은 그 이치가 하나이다.

만약에 게을러서 문득 잊어버리면 이른 바 천지에 참여하여 화육(化

育)을 돕는 것이 어찌 이에 있어서 옛 성현(聖賢)으로도 항상 조심하고 공경하고 삼가하여 어느 때고 근신하지 않으랴.

두려워하여 항상 사용하는 그릇에 그 일로 인해서 명(銘)을 새겨 경계를 하나니 은(殷)나라 탕왕(湯王)의 반명(盤銘)이 이것이다. 그에서 이르기를 "진실로 날로 새로운 것은 학문을 위하여 처음 드는 것이다. 나날이 새롭고 또 날로 새로운 것은 잠시동안이라도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 하였다.

대저 학문을 위한 길이란 반드시 착한 성품(性品)을 기르고 선악시비(善惡是非)를 가리는 것에 좇아야 하나니 존양성찰(存養省察)의 공(功)을 실천해 나가면 그 몸의 어둡게 가려진 것을 제거하는 소이가 되는 것이며 마음과 정신을 씻는 것과 같이 그 몸의 티끌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하니 이미 새로운 것으로 이를 새롭게 하는 공(功)을 이어 가지 아니하면 이욕(利慾)이 섞이어 다시 전일(前日)의 혼미(昏迷)함과 같은 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몸이 이미 깨끗하여도 이를 깨끗이 하는 공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티끌과 때가 쌓여 옛날의 더러움에 물들게 된다.

반드시 그 이미 새로움으로 말미암아서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끊어지는 바 없으면 마음의 밝은 덕은 항상 밝아서 이욕(利慾) 때문에 다시 어두워지지 않는다.

아아, 탕(湯)은 성인(聖人)이다. 노래와 여색(女色)을 가까이 아니하고 재물과 이식(利息)을 불리지 아니하고 윗 자리에 있으면서도 몸가짐이 아주 밝아 모름지기 일 없음을 스스로 경계하여 그 공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와 같았거늘 하물며 처음 배우는 선비에 있어서야. 배우되 성인(聖人)으로서 표준(標準)을 삼지 아니하면 그 뜻(志)이 기력없이 어둡

고 게을러져서 단지 한단(邯鄲)의 걸음걸이[2]를 본받는데 그칠 것이니 가히 경계하지 않으랴! 하물며 세상이 달라지고 날이 지날수록 풍속은 날로 비루(鄙陋)하게 되어 물 흐르듯 도도(滔滔)한 것은 이익이요, 물 솟아오르듯 골골(汨汨)한 것은 욕심이다. 능히 용맹분약(勇猛奮躍)하여 잇달아 위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자 지금은 몇이나 되는고.

오직 변씨(卞氏)는 충효세가(忠孝世家)로써 경사(經史)와 성현의 문집(文集)을 학당에 모아두고 집안 자제를 거두어 이를 가르치매 서로가 닦고 힘써 착함(善)을 좇아 의(義)를 배우니 아름답도다. 그 선조의 자취의 아름다운 법을 기술(記述)하고 올바른 기풍(氣風)을 두터이 하는 것은 족히 풍속을 바로잡아 후손에게 권장(勸奬)하는 것이라. 그러한즉 무릇 이 학당에 거처하는 자는 진실로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의(義)를 생각하며 날로 성현의 학문에 종사하여 앞으로 나아가 멈추지 아니할 것이니 가히 새롭지 아니하고 어쩌리요. 어진 마을의 아름다움과 참으로 이름이 상부(相符)할 것이라 어찌 우연이리요.

마침내 이 글을 써서 일신재기(日新齋記)로 삼아 이를 갚는다.

역주(譯註)

① **송병순** : (1839~1912) 조선조 말의 우국지사. 유학자. 송병선(宋秉璿)의 아우. 본관은 은진(恩津). 호는 심석(心石)이다. 고종 25년(1888)에 義禁府 도사(都事)가 되었으나 사퇴하였다. 광무 9년(1905)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항일토왜(抗日討倭)의 격문(檄文)을 지어 전국에 배포하였고, 융희 4년(1910)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하자 여러 번 자결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망국의 한을 시로써 달래고 일제의 소위 은사금(恩賜金)을 거절하였다. 결국 1912년 자결하여 절개를 지켰다.

② **한단의 걸음걸이(邯鄲之步)** : 옛날 연(燕)나라의 소년이 조(趙)나라의 서울 한단에 가서 그 곳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본받다가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연(燕)나라에 돌아와 보니 한단의 걸음걸이도 안되고 자기의 걸음걸이도 잊어버렸다 함.

자기의 본분을 버리고 남의 행위를 본 받는 것은 어느 것이나 실패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存養齋記
존 양 재 기

정 환 철(鄭煥喆)

南江의 동편 일암리(日岩里)에 사우(祠宇)가 있어 이르기를 성구(誠久)라 하니 변씨 삼현(卞氏三賢)을 제향(祭享)하는 곳이며 서원은 일러서 도산서원(道山書院)이라 하고, 院의 아래에 재사(齋舍)가 있으니 일신(日新), 존양(存養)이다.

일신재는 곧 심석선사(心石先師)께서 그 실상을 떨쳐 나타내었고 존양재(存養齋)는 사실을 적은 글이 아직도 없었다.

장의(掌議) 송종철(宋鍾喆) 이가호(李家鎬)가 나에게 기문(記文)을 청촉(請囑)하거늘 사양하였으나 되지 않아서 구태여 글을 적어 말하기를 대저 존양(存養)의 뜻은 그 뜻하는 것이 크다. 맹자가 말하지 않았던가.

"그 본심(本心)을 잃지 아니하고 그 착한 성품(性品)을 기른다." 고 하였는데 대개 마음은 성정(性情)을 거느리는 것이다.

만약에 마음을 잡고 성품을 기르지 않으면 눈 깜박할 사이에 마음은 드나듦이 때가 없어 그 향하는 바를 알지 못하게 되니 가히 조심하지 않을까 보냐! 이 때문에 오직 탕왕(湯王)의 거룩한 덕으로도 그 항상 마음가짐을 두려워하여 그 소반에 이를 새겨 이르기를 "진실로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롭도다" 하였으니 대개 그 본 마음을 잡아서 버리지 않음이요 마음에 반성하고 살펴 그 마음을 본받음이다.

이와 같이 성인의 밝은 지혜로도 그 전전긍긍하는 공력(功力)이 오히려 이와 같았거늘 하물며 그 보잘 것 없는 사람에 있어서랴!

만약에 존양(存養)의 공덕이 없으면 도(道)의 넓고 넓음으로 해서 어느 곳으로부터 손을 대야 할 것인가! 그러한즉 새 재사(齋舍)의 명명(命名)도 그것이 우연이랴!

아아, 이를 배우는 길은 존양(存養)의 어떠한가에 있다. 만약에 여러모로 두 글자(存과 養)의 뜻을 궁구(窮究)하지 아니하고 헛되어 문장과 시가(詩歌)만 기억하여 암송하는 습관으로서 능사로 삼는다면 어찌 가히 학문한다 하겠는가.

무릇 우리 무리가 이 재사(齋舍)에 들어가 배우는 자는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의로움을 생각하며 배움에 종사하여 부지런히 힘써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나아가면 성현(聖賢)을 배움이 이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능히 조선(祖先)을 이어 받들어 하늘이 나에게 준 큰 덕(大德)에 어긋나지 아니할 소의(所依)라 바로 인의지성(仁義之誠)을 양득(養得)하여 선생의 입명지지의(立命之至意)를 체득할 것이니 모름지기 서로 힘써 노력할 지로다.

하동(河東) 정 환 철(鄭煥喆) 기록하다

贊
찬①

이 직 현 (李直鉉)

나라 잃고 몸 맑게 가져 백이 숙제의 청풍이로다
세한에 꺾이지 않는 송백 두문동은 하늘도 감격하였네

위 평리선생

빛나도다 조상의 절의 그 충성 해를 꿰뚫었다
나라 지켜 적을 치니 집안 일을 몰랐었네

위 판서공

높은 산 내린 정기 어진 공(公)이 나셨다네
싸움터에서 용맹 떨쳐 충효를 겸전(兼全)했네

위 승지공

역주(譯註)

① **찬(贊)** : 칭송하는 글

詩
시

一　　후손 강 수(玒洙)

여러 세대 경영하여 다 못한 정성
진정 오늘에사 뜻한 것을 이루었네
글 아니면 어찌 아랴 깊고 깊은 그 뜻을
일에 다달아 한 마음되니 더욱 세상 밝아라
지난 일들 참된 뜻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세세(世世)로 이어 받아 절로 우러나는 소리있어
우리 문중 소망이 항상 어디 있더뇨
후손들 천년토록 사모의 정 깊어라

二　　후손 응 수(應洙)

오륜은 원래 정성에서 근본하니
조상의 業 이어받아 뜻한 일 이루었네
많은 자손 청풍을 떨쳐 일어나니
삼강(三綱)의 높은 절의(節義) 나아갈수록 밝아라
냇물이 쉬지 않고 흐르듯
순후(純厚)해라 하늘도 아니 어찌 세상이 모를손가
제사 음식 향기로워 유구(悠久)한 곳이거니
봄 가을 제향(祭享)에 사무치는 깊은 정

三 정 태 현(鄭泰鉉)

나라 어지러움에 충신을 알겠노라
한 집안 삼강(三綱)을 살신(殺身)으로 이루었네
팔 년 왜란의 피비린내 나는 어두운 세상
천추(千秋) 의로운 피는 역사 책에 밝아라
두문동 황량한 자취 어찌 차마 말하랴
흐르는 남강(南江) 물도 흐느껴 우는구나
희미한 등불 아래 읊조리는 임란(壬亂) 눈물
여생을 감내하니 느끼운 정 끝없어라

세상의 대들보를 일러 삼강(三綱)이라 하나니 이것이 없으면 의관(衣冠)을 하여도 새나 송아지(금수)와 다름없다. 이런 때문에 삼강의 세 가지에서 하나만 있어도 곧 조정(朝廷)에서는 이를 포상하고 나라 사람들은 이를 존중하고 자손들은 이를 사모하는 것으로 후세(後世)에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 하물며 삼강(三綱)의 세 가지가 모두 일문(一門)에 모였음이랴!

변씨의 선조에 연수(延壽)는 충(忠)에 죽고, 입(岦)은 효(孝)에 죽고, 안동김씨(安東金氏)는 열(烈)에 죽었으니 가히 일러서 이 아비요, 이 아들이요, 이 지어미라 할 것이다.

위로 조정에서는 상황(上皇)께서 특별히 정려(旌閭)를 명하니 삼강려(三綱閭)이고 연수(延壽)에게는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입(岦)에게는 좌승지(左承旨)를 김씨(金氏)에게는 숙부인(淑夫人)을 추증(追贈)하였고 아래로 연재 송선생(淵齋 宋先生)과 면암 최선생(勉菴 崔先生)은 명(銘)과

기(記)를 지었으며 그 아름다움의 빛나는 것이 더욱 찬연하였다.

후손 전 정언(前 正言) 응수(應洙)가 사림(士林)과 함께 사당(祠堂)을 도산(道山)에 세우고 향사(享祀)를 올렸다. 때에 또한 벗들이 모여 도(道)를 강(講)하고 예(禮)로써 술을 들고 사모(思慕)의 뜻을 담아 현판(懸板)하여 성구(誠久)라 하였다.

아들 상옥(相沃)을 급히 보내어 나에게 서문(序文)을 지어 달라 하거늘 내 오랜 병으로 글을 짓지 못하였는데 장문(狀文)을 살펴보고 경의(敬意)를 표하며 선비의 많음에 감동하여 서문(序文)을 짓고 또 차운(次韻)도 하여 돌려 보낸다.

四 이 직 현(李直鉉)

쌓은 정성은 적석산(積石山)만큼이나 높아
새 사당은 규모 더하여 새롭게 이루었네
두문동 맑은 절의(節義) 삼강오륜 세웠고
송백(松柏)같은 혼백(魂魄)은 일월(日月)처럼 밝아라
천만년을 흐르는 도(道)의 기운
한 집안 삼강(三綱)으로 그 명성(名聲)을 이었네
난간(檻干) 앞 활기(活氣) 찬 물 구비 쳐 흐르거니
쉼 없는 천기(天機)가 세정(世情)과 같을 손가

정성은 두 마음이 아니고 쉬지 않으며 쉬지 않으면 오래이고 오래이면 보람이 있나니 성구사(誠久祠)를 보건데 그 보람이 가히 무궁하리라.

고려 말에 망복(罔僕)의 신(臣) 변선생(卞先生)은 휘(諱)가 빈(贇)이니 문하평리(門下評理)로 고려가 망함을 보고 향나무① 가지에 벼슬의 관을 걸어 놓고 폐양립(蔽陽笠)②을 쓰고 두문동(杜門洞) 골짜기에 숨어 그 삶을 끝마쳤다.

휘 연수(諱 延壽)는 훈련주부(訓鍊主簿)니 아들 입(岦)과 더불어 의병(義兵)을 일으켜 여러 번 큰 공(功)을 세우고 정유재란(丁酉再亂)에 부자(父子)가 함께 순국(殉國)하였다. 훈이등(勳二等)에 올리고 특별히 도감중군(都監中軍)을 추증(追贈)하였으나 병조판서(兵曹判書)를 가증(加贈)하고 입(岦)은 좌승지(左承旨)를 추증하였다

고향으로 반장(返葬)한 후 승지공(承旨公)의 부인 안동김씨(安東金氏)는 절식(絶食)으로 부군(夫君)의 뒤를 좇으니 아울러 정려(旌閭)의 은(恩)을 입었으며 한 집에 삼강(三綱)③이 갖추어지니 아름답고 거룩하다.

후손 정언(正言) 응수(應洙)가 조상의 공적을 서술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서는 유림(儒林)에게 물어서 끝내 이 사당(祠堂)을 이루니 어찌 건물이 이렇듯 장대(莊大)하고 아름다우랴!

아아, 먼저 집을 짓고 뒤에 글을 지으니 정성은 가히 덮을 수 없음이 이와 같아라.

역주(譯註)

① **향나무** : 괘관현(掛冠峴) 항을 볼 것.

② **폐양립(蔽陽笠)** : 하늘의 해를 가리는 삿갓. 패랭이

③ **삼강(三綱)** : 충 · 의 · 열(忠 義 烈)

五 정 은 교(鄭誾敎)

인생에 귀한 것은 정성이니
정성이면 세상에 못 이룰 것 있으랴
한 집안 삼강(三綱)은 그 길 크나니
천추(千秋)로 사람마다 마음에 새길 것이
조정의 거룩한 보답 응당 유감 없으니
후손들 그 뜻 이어 받아 뒤를 좇아 힘쓰네
제향(祭享)은 향기롭고 엄숙해라 영원한 이 곳에
책 읽는 소리 드높아 스스로 덕을 닦네

군신(君臣)의 의(義)와 부자(父子)의 윤리(倫理)와 부부(夫婦)의 도(道)는 곧 천지(天地)의 떳떳한 법이며 우주(宇宙) 궁극의 바뀌지 않는 떳떳한 도덕이다. 참으로 혹은 조금이라도 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삼강(三綱)은 묻히고 구법(九法)[1]은 무너져 문화(文化)에 빛나는 나라[2]는 미개(未開)한 오랑캐가 되고 사람의 무리는 금수(禽獸)가 될 것이니 가히 두렵지 아니한가.

평리(評理) 변선생(卞先生)의 휘(諱)는 빈(贇)이니 고려의 충신으로서 나라 잃은 신하의 절의(節義)를 다하였고 조선조(朝鮮朝)에서 증 병조판서(贈 兵曹判書) 휘 연수(諱 延壽)와 그 아들 증 승지(贈 承旨) 휘 입(諱 岦)의 부자(父子)는 같은 날에 정유년(丁酉年) 당포(唐浦)의 싸움에서 순절(殉節)하였고 승지공(承旨公)의 부인 안동김씨(安東金氏) 또한 순열(殉烈)하니 조정에서는 삼강(三綱)으로써 정표(旌表)하고 아울러 영직(榮職)으로써 포상하니 향리(鄕里)에 빛이 났다.

아아, 지금 인간들은 무슨 세상이기에 아침에는 임금을 배반하고 저녁에는 원수를 섬긴다. 절조(節操)를 지켜 굶어 죽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가르침은 아주 드물어 듣는 일이 없었으나 공연히 어진 사람이나 뜻있는 선비로 하여금 홀로 이 깊은 산에서 병서(兵書)를 읽는 탄식(嘆息)을 갖게하고, 헛되이 모든 사람들이 권세(權勢)에 달려드는 한탄(恨歎)을 갖게 하며, 풀 우거진 옛 궁전(宮殿) 터는 수수밭이나 밀밭이 되어 비바람에 씻기우는 감회에 눈물겹다.

변군(卞君) 상옥(相沃), 상기(相基)가 본 사당(本祠)의 사적(事蹟)과 지재 옹(志齋 翁)의 명령을 받들어 와서 유림(儒林)이 의논한 일이나 사우(祠宇)를 건립한 연유로써 보여 주거늘 내 비록 늙고 병든 몸으로 스스로 기운은 없으되 생기(生氣)를 돋구어 영석이류(永錫爾類)[3]의 시를 읊으면서 이를 격려한다.

역주(譯註)

① **구법(九法)** :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말한다. 한유(韓愈)가 맹간(孟簡)에게 준 글에서 '성현지도불명칙삼강륜이구법두(聖賢之道不明則三綱淪而九法斁)' 이라 했다.

② **문화에 빛나는 나라** : 중국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세계의 중심에서 빛난다는 뜻으로 사용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달리 기술하였다

③ **영석이류(永錫爾類)** : 시경 (詩經) 기취장(旣醉章)에 '효자불궤 영석이류(孝子不匱 永錫爾類)' 라 하였는데 '효자는 끊이지 않으니 길이 복(福) 누리리라' 라는 뜻이다.

六 이 준 구 (李準九)

세세(世世)로 삼강오륜(三綱五倫)에 각기 정성 다했으니
성구사(誠久祠)는 우연으로 이룩됨이 아니로다
두문동(杜門洞) 푸른 솔은 선생의 절의이고
당포(唐浦)의 붉은 해는 장군의 충성일세
세속(世俗)이 경박하게 시가 농(弄)함 경계하나니
조선(祖先)을 이어 받음은 독실한 학문에 있도다
나라의 흥망(興亡) 생각하며 흐르는 눈물은
무궁한 슬픈 회포를 자아내는구나

진주(晋州) 동쪽에 山이 있어 문도(問道)라 하고 산 아래 사당이 있어 성구(誠久)라 하니 변씨 삼충(卞氏 三忠)의 제향(祭享)을 받드는 곳이다.

고려 말에 문하평리(門下評理) 휘 빈(諱 贇)은 고려의 충신으로서 고려 사직이 기우는 것을 보고 두문동천(杜門洞天)에서 나라 잃은 신하의 절의(節義)를 다하고 그 삶을 끝마쳤다.

증 병조판서(贈 兵曹判書) 휘(諱)는 연수(延壽), 증 승지(贈 承旨) 휘(諱)는 입(岦)이니 선조(宣祖) 임진왜란(壬辰倭亂)에 부자(父子)가 의병(義兵)을 일으켜 이충무공(李忠武公) 휘하(麾下)로 달려가 정유년(丁酉年)에 이르러 당포(唐浦)의 싸움에서 죽었다.

아아, 세 군자의 행동은 같지 않으나 충성(忠誠)의 일은 한 가지이니 어찌 위대(偉大)하지 않으랴!

모름지기 죽음에 합당하는 공경하는 행사와 능히 큰 재앙(災殃)을 막은 제례(祭禮)로써 해야 마땅하거늘 제례의 행사는 오늘에 이르도록 없

었다.

이 해 늦은 봄에 사림(士林)의 의논(議論)이 크게 일어나고 꾀하는 일이 후손에게까지 미치어 힘을 합하고 일을 함께 하여 사우(祠宇)를 창건(刱建)하고 성구(誠久)로써 현판(懸板)하니 이름을 지은 이는 누구이던가? 그 깊은 생각이 하늘과 사람이 한 이치(理致)의 뜻임을 전함이로다.

천지(天地)의 도(道)는 스스로 성실(誠實)하고 유구(悠久)하며 사람은 그 사이에서 나서 특히 둥근 머리뼈와 모난 발꿈치의 형상(形狀)이 오직 같을 뿐만 아니라 부여된 바 성품(性品)이 곧 하늘의 이치라 이륜(彝倫) 상으로 마땅히 행(行)해야 할 길이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가식(假飾)이 있어 잠시라도 떨어지고 배반(背反)하겠는가. 세상이 쇠잔(衰殘)하고 도(道)가 미약(微弱)하여 이설(異說)이 방자하게 행(行)하므로 임금과 아비를 배반하는 무리가 발뒤꿈치를 서로 잇듯이 팔뚝을 서로 들듯이 많다.

비록 그러하나 참다운 이치(理致)가 유행(流行)하여 쉬지 않으면 즉 천지(天地)의 바꿀 수 없는 도(道)가 어찌 일시에 전멸(全滅)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곧 성구(誠久)의 두 글자는 진실로 삼충(三忠)의 진상(眞像)이요, 세상을 깨우치는 경종(警鍾)이 될 것이라. 아아, 거룩하도다.

七

송 호 곤 (宋鎬坤)

오랜 세월 떳떳한 도리 정성에서 귀하나니
아름다워라 이 세상에 이 사당 이루었네
우리들 춘추대의(春秋大義) 배울 곳 없더니
하늘 아래 이 집 있어 일월(日月)이 밝아라
자손들 서로 전하여 의리(義理)를 알았고
조정의 특전(特典)은 명성(名聲)을 세웠네
그대여, 성정찬(星亭贊)을 세 번 읊게 하노니
이에서 지키는 일의 어려움을 탄식한다

성구사(誠久祠)는 변씨 삼충(卞氏 三忠)의 제례(祭禮)를 받드는 곳이다. 평리선생(評理先生)은 휘(諱)가 빈(贇)이니 나라 잃은 신하(臣下)의 의(義)를 지켰고, 조선조에 이르러 판서(判書) 휘 연수(諱 延壽)와 승지(承旨) 휘 입(諱 岦)은 정유재란(丁酉再亂)에 함께 절의(節義)에 죽었고, 승지의 부인(夫人) 김씨(金氏) 또한 정렬(貞烈)로써 부군(夫君)의 뒤를 따랐으니 조정에서는 이를 정표(旌表)하였다. 당시에 또한 일문(一門) 십충(十忠)[1]을 일컬으니 아아, 아름다워라 변씨(卞氏)에는 어찌 그렇게도 많은 어진 이가 있었던가! 요즘 보건대 삼강오륜(三綱五倫)이 쓸데없이 되어 임금을 배반하고 원수를 섬기는 자가 큰 물결처럼 넘친다.

이에 모두 변씨의 세대(世代)를 생각해 보고 변씨의 명성(名聲)을 듣고서 놀라 자실(自失)하지 않는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최면암(崔勉菴)이 이른 바 소학삼강(小學三綱)의 속편(續編)을 쓰고자 한 것은 진실로 사리(事理)에 합당한 말인 것이다.

나 호곤(鎬坤)은 병이 있어 산에서 고요히 지내며 세월의 흘러감을 탄식하고 세상의 뒤바뀜에 눈물을 흘린 지 오래인데 변군(卞君) 상옥(相沃)과 상기(相基)가 성구사(誠久祠) 사적(事蹟) 한 통을 받들고 와서 보이거늘 옛을 생각하고 이제 상심하며 끝내는 기꺼이 이를 위하여 서문(序文)을 지어 양군(兩君)에게 주고 또한 변씨의 세대가 그 아름다움을 더할 것을 바라며 성정찬(星亭贊)을 모아 끝에 이를 말한다.

역주(譯註)

① **십충(十忠)** : 명량해전과 당포해전에서 순국한 변씨일문(卞氏一門) 십사충(十四忠)

1. 판서공 연수(判書公 延壽) 2. 승지공 입(承旨公 岦) 3. 봉사공 홍적(奉事公 弘迪) 4. 통정공 홍원(通政公 弘源) 5. 첨사공 홍건(僉使公 弘建)
6. 사복시정공 홍선(司僕寺正公 弘選) 7. 주부공 홍량(主簿公 弘亮)
8. 주부공 홍주(主簿公 弘洲) 9. 병사공 홍달(兵使公 弘達)
10. 판관공 공의(判官公 公毅) 11. 홍제(弘齊) 12. 두남(斗南)
13. 덕장(德章) 14. 덕황(德璜)을 칭함. 모두가 三從 이내임

八 정 우 민(鄭友民)

한 고을에 이 사당 붉은 정성 빛나라
오랜 세월 바야흐로 꾀한 일 이루었네
백전(百戰) 싸움터에는 가을 풀이 우거졌고
몇몇 집 산성(山城)에는 저녁 해가 밝구나
후세에 강기(綱紀) 허물어짐이 어지럽기만 한데

두 손 모아 생각하니 당시의 의로운 소리 들리는 듯
홀로 남루(南樓)에 기대어 먼 곳을 바라보니
차가운 겨울 푸른 송백(松柏) 만년 정(情)을 말하누나

무릇 천하(天下)의 사물(事物)은 산악(山岳)이라도 때가 되면 무너지고 강해(江海)라도 때가 되면 변하지만 오직 지성(至誠)은 그치지 않으면 오래이고, 오래이면 보람이 있나니 이제 가히 성구사(誠久祠)에서 보람을 본다.

대저 평리(評理) 변선생(卞先生)의 휘(諱)는 빈(贇)이니 고려조의 충신(忠臣)으로서 사직이 망할 때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 숨어 나라 잃은 신하로서 절의를 다하고 그 생애(生涯)를 끝마쳤다. 임금께서는 비(碑)에 글을 써서 비각(碑閣)을 세울 것을 명하고 또한 친히 제문(祭文)을 지어 치제(致祭)할 것을 명하였다.

판서(判書) 휘 연수(諱 延壽)는 아들 승지(承旨) 입(岦)과 함께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의병(義兵)을 일으켜 정유재란(丁酉再亂)의 당포(唐浦) 싸움에서 부자(父子)가 같이 순국(殉國)하니 아, 얼마나 장(壯)하더냐! 충(忠)과 효(孝)의 절의(節義)는 변씨(卞氏) 일문(一門)에서 다하였으니 이는 곧 지성(至誠)이 아니면 불능(不能)한 것이다.

그 정포(旌褒)와 훈록(勳錄)은 이미 제현(諸賢)의 찬탄(讚嘆)하는 제술(制述)에서 갖추어졌거니와 후손 응수(應洙)가 간재 옹(艮齋 翁)[1]의 제의에 따라 가까운 인사(人士)들과 더불어 주선하여 도산(道山) 아래 사당(祠堂)을 세우고 앞서 향례(享禮)의 정성을 다함이 이미 오래이기 때문에 뒷날에 징험(徵驗)하여 유원(悠遠)할 것이 이와 같을지니라.

역주(譯註)

① **간재(艮齋)** : 전(田)씨로 이름은 우(愚). 간재는 호다. 근세 호남(湖南)을 대표하는 유학자.

詩
시

盍簪聯句
합 잠 연 구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지은 대구)

교목에 예처럼 꽃이 피었다면
봄날 저문 산골집에도 꽃은 피련마는
슬픈 노랫소리 곳곳에 들리기만 하니
장안에 들어가 다시 비단옷을 입으랴

撫錄
무 록
(문헌(文獻)에서 뽑은 글)

燃藜實錄
연 려 실 록①

고려의 운수가 다하려 함에 선생(卞贇)은 판서 성만용, 박사 정몽주, 제학 홍재, 대사성 이색, 전서 김성목, 전서 조열, 진사 이오가 기약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술을 들고 시를 읊으며 시대를 상심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여 이르기를 "은나라에 세 어진 이가 있어 비간은 죽고 미자는 떠나가고 기자는 종이 되었으니 각자는 스스로 뜻에 따라 행할 지로다" 하니 모두가 이르기를 "좋다" 라고 하였다. 홍재는 삼가(三嘉)로 돌아가고, 이오, 조열은 함안(咸安)으로 돌아가고, 선생은 끝내 두문동으로 들어가 숨었다.

역주(譯註)

① **연려실록(燃藜實錄)** : 조선조 시대의 중요한 사실을 여러 역사책에서 뽑아 사건별로 전말을 엮은 책 59권. 이긍익(李肯翊)이 엮음. 이긍익은 조선조 영조, 정조 시대의 저술가. 자는 장경(長卿), 호는 연려실(燃藜室). 양명학자(陽明學者)이고 서예가인 이광사(李匡師)의 아들.

晩隱諡狀

만 은 시 장

(만은의 시호(諡號)를 청하는 글)

맹(孟) 문정공(文貞公) 사성(思誠)①이 지은 만은 홍재의 시장(諡狀)에 이르기를 "어느 날 밤 판서 성만용, 평리사 변빈, 박사 정몽주, 전서 김성목, 대사성 이색 등이 기약하지 아니하고 모여 술을 들며 회포를 이야기할 제, 목은②이 이르기를 '은나라에 세 어진 이가 있어 비간은 죽고, 미자는 떠나가고, 기자는 종이 되었으니 각자는 스스로 뜻에 따라 행할 지로다' 하였다." 이에 모두가 "좋다" 라고 하였다.

역주(譯註)

① **맹사성(孟思誠)** : 조선 세종 때의 문신. 호는 고불(古佛). 벼슬은 좌의정에 이르렀다. 청백리(靑白吏)

② **목은(牧隱)** : 이색의 호

茅隱實記
모 은 실 기

이오의 호는 모은이니 재령인으로 진사(進士)다. 판서 성만용, 평리사 변빈, 박사 정몽주, 대사성 이색, 전서 조열과 서로 벗이 좋았다. 어느 날 밤에 기약하지 아니하고 모여 술을 들고 회포를 이야기할 제 이색이 이르기를 "비간은 죽고 미자는 떠나가고 기자는 종이 되었으니 각자는 뜻에 따라 갈 것이로다" 하니 모두가 "좋다" 하였다.

杜門洞遺跡
두 문 동 유 적

中京誌
중 경 지①

두문동은 개성부의 서쪽 15리에 있다. 임신년(1392)에 왕조가 바뀐 후 임선미, 조의생, 등 72인이 동(洞) 안으로 모여 들어가 왕의 교화(敎化)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름이 생겼다. 영조 신미년(1751)에 어필로써 비(碑)를 쓰고 명하여 각(閣)을 세웠다. 이 해에 또한 어제(御製)의 제문으로써 유수 서종급을 보내어 제(祭)를 지내게 했다.

역주(譯註)

① **중경지(中京誌)** : 개성부의 읍지(邑誌). 11권 6책

麗史補遺
여 사 보 유

당시 절의(節義)에 죽은 선비는 두문동보다 많음이 없었으니 혹은 100여人이라 하고 혹은 72人이라 하였다. 지금에 민간에서 삿갓을 쓰고 볕을 가리는 제도는 이 때에 비롯하였으니 대개 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을 취함이다.

英祖御筆碑
영 조 어 필 비

전조(前朝)의 충신이여 지금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그 동(洞)에 비를 세워 그 충절을 밝히노라.

御製碑陰記
어 제 비 음 기 (뒷면 글)

숭정 기원① 후 124년 신미 늦가을(10월)에 전조(前朝) 충신 72인의 절의를 추감(追感)하노라. 특별히 그 자손을 임용(任用)할 것을 명하며 동 가운데 비를 세우니 이는 과인(寡人)의 즉위 27년이니라.

역주(譯註)

① **숭정 기원(崇禎 紀元)** : 명(明)나라 황제 의종(毅宗)의 즉위 원년인 1628년 조선조 인조(仁祖) 6년

致祭文
치 제 문

숭정 기원(1628) 후 124년 신미(1751년) 10월 21일 갑인에 조선 국왕은 신하 개성유수 서종급을 보내어 두문동 고려 충신의 영(靈)에게 제(祭)를 지내게 하노니,

절의 지켜 불사이군(不事二君) 떳떳한 신자(臣子)의 길
충렬(忠烈) 밝혀 포창(褒彰)하니 예장(禮章)에 또렷하다
조선조가 천명(天命)받아 천인(天人)이 순응하니
성스런 덕화(德化) 미쳐 하늘아래 신하로다
여기에 고려 현사(賢士) 칠십하고 둘 있으니
나라 잃은 몸이 그 뜻은 더 맑았네
골(洞) 이름이 뭐든가 문 있으되 빗장 걸어
문 닫고 나오지 않으니 형적(形迹)이 어두었네
그 몸 비록 버렸어도 그 절의(節義)는 허무치 않았네
충성(忠誠) 안고 정절(貞節) 지켜 죽어 후회 없었어라
뒤에는 부조현(不朝峴)이요 앞에는 괘관현(掛冠峴)이
이름은 비록 달라도 의로움은 한가지라
무리들아 선비들아 모든 백성들아
전승(傳承)할 것 세 가지니 삼강(三綱) 두고 무엇하랴
옛날 여길 지나칠 제 남은 자취 돌아보고
감동함에 머뭇거려 나의 회포 끝 없었네
사적도 아득해지고 문헌(文獻)도 흩어지니
후세를 위해서도 포상 어찌 없을 건가
특서 대서 열 넉자하여 단단한 돌을 세워
寡人의 뜻 표하노라 남긴 정열(貞烈) 생각하고
그 후손을 두루 찾아 벼슬 주어 대우하라
단(壇)을 모아 제(祭) 지내세 희생(犧牲) 잡고 술 빚으니
수수 기장 향기롭다 백세(百世)를 멀다 하랴 그 명성 영원하라.

不朝峴遺蹟
부 조 현 유 적

부조현 비는 경덕궁 안에 있었다.

태조께서 과거장을 설치하고 친히 임하였는데 고려의 선비는 한 사람도 입장하는 자가 없었으며 거의 모두가 고개를 넘어서 갔기 때문에 이름하였다. 경신년(1740 영조16) 영조가 행차하셨을 때 어필(御筆)로써 '高麗忠臣不朝峴(고려충신부조현)' 의 일곱 자를 써서 비를 세우고 이에 시 한 구절을 지어 이르기를 "전조(前朝) 충신의 절의를 힘써 이을지니라" 하고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대구(對句)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不朝峴碑陰記
부 조 현 비 음 기
(부조현 뒷면 글)

우리 성상(聖上)[①]의 즉위하신지 16년 가을인 9월에 난여(鑾輿)[②]를 삼가하여 후릉(厚陵)[③]을 뵙고 송도에 거동하사 옛 사적을 찾았을 때 그곳의 나이 많은 이가 아뢰기를 "경덕궁의 앞 기슭은 부조현으로 옛날 우리의 태조대왕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이 궁에 납시어 여러 선비들을 시험 보였는데 고려의 신하는 무리로 조회(朝會)에 참석치 아니하고 달아나 고개를 넘었으므로 고개를 이로써 이름하였습니다. 그 상세한 것은 개성부지(開城府誌)에 있습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길 도중에 난여를 머무르게 하고 돌아보며 탄식하여 이르기를 "표식이 있느냐?" 하니 모두 아뢰기를 "없습니다" 하였다. 상감께서 이르기를 "이는 충신의 남긴 자취라 마땅히 정문(旌門)하고 포장(褒奬)

할지니 너 유수(留守)는 '고려충신부조현' 의 일곱 자를 고개에 새겨라" 하였다.

신(臣) 약로(若魯)는 명을 받들고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우리의 성상께서 전조(前朝)의 옛 사적을 좇아 옛 서울에 광림(光臨)하시어 흥망(興亡)을 살피고 왕씨의 후손에게 벼슬을 내리시고 학문과 충성(忠誠)의 절의를 장려하사 선죽교(善竹橋)에 비를 세우시고 전조의 충의(忠義)를 들으셨다.

또한 생각하기를 명성(名聲)을 길이 전하는 까닭이라 이는 역대(歷代)의 제왕이 아직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한 바이나, 우리 성상께서 아름다운 절의를 천, 백대(代)의 위로 밝게 하고 세교(世敎)를 천, 백대(代)의 아래로 도우심이 있으니 아아, 아름다울 지고.

신이 욕되게도 이 고을을 지켜 성대한 일을 보게 되니 우러러 칭송함을 이기지 못하여 비(碑)가 이미 이루어짐에 삼가 작은 글을 조서(詔書)의 뒷면에 붙이어 숭정 기원(1628) 후의 다시 경신년(1740) 겨울에 왕명을 받들어 세우느니라.

가선대부 개성유수 겸 관리사 신 김약로 삼가 지음

역주(譯註)

① **성상(聖上)** : 영조(英祖)를 말함

② **난여(鑾輿)** : 임금의 가마

③ **후릉(厚陵)** : 조선조 제2대 정종(定宗)과 정종비(定宗妃) 정안왕후(定安王后)의 능. 경기도 개풍군 흥교면 흥교리에 있다.

掛冠峴遺蹟
괘 관 현 유 적

괘관현은 부조현의 북쪽에 있으며 고려 선비들의 부조현을 넘은 자관(冠)을 이에 걸었다고 이른다.

고개는 마을 가운데 높은 언덕에 있으며 그 위에는 두 그루의 늙은 나무가 있으니 향나무와 느티나무로 오백 년을 지냈다. 향나무는 아직도 울창하고 푸른데 느티나무는 마른 줄기가 부러지고 썩었으며 옆 가지가 총총히 났다. 마을 노인들이 서로 전하기를 그 날 관을 걸었던 나무라고 이른다.

지금은 비를 세워서 이를 알 수 있다.

杜門洞奉安文幷實蹟
두 문 동 봉 안 문병 실 적
(두문동 봉안문 실적을 아울음)

선생의 휘(諱)는 빈(贇)이니 초계가 관향으로 대호군(大護軍)① 경(卿)의 아들이며 벼슬은 정二품 문하평리다.

고려의 운수가 장차 다함에 선생은 판서 성만용, 박사 정몽주. 제학 홍재, 대사성 이색, 전서 김성목, 전서 조열, 진사 이오와 기약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술을 들고 시를 읊으며 때를 상심하고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르기를 "은(殷)나라에 세 어진 이가 있어서 비간은 죽고 미자는 떠나고 기자는 종이 되었으니 각자 스스로 뜻에 따라 갈지로다" 하니 모두가 "옳다" 하였다. 홍재는 삼가로 돌아가고 조열, 이오는 함안으로 돌아 갔으며 선생은 두문동으로 들어가 숨었다.

오호라 선생은 초계 古家에 태어나 고려의 문하평리라
하늘이 무심하여 나라 일이 글렀도다
공께서 어느 날 밤 동지들을 초청하니
성(成)이요 홍(洪)이요 정(鄭)이요 이(李)로다
은(殷)나라 세 어진 이 비간은 죽었으며
미자는 가고 기자는 종이 되니 각자 뜻을 따를지라
시(詩) 모임이 이미 파함에 기회 보아 일어서다
두문동 동천(洞天)은 내 몸 가히 깨끗이 할지로다
남쪽 바라보고 통곡하니 슬프다 우리 종묘 사직
진실하여라 선생이여 나라 잃은 신하의 의로움이여
두문동은 오래이고 사당은 새로이니 천리(天理)를 어이하랴
정절반(靖節班)에서 제(祭)올리니 청풍이 천년이로다
희생의 소는 살찌고 술은 향기로우니 바라옵건대 흠향하옵소서

역주(譯註)

① **대호군(大護軍)** : 고려 공민왕 때 대장군을 고친 벼슬이름. 무관직의 두 번째 계급으로 종三품

附錄
부 록

藏兵洞誌
장 병 동 지

방장산맥(方丈山脈)[①]이 남으로 수 백리를 달려서 적석산의 세 봉우리가 일어나고 적석의 여맥이 둘러싸서 골을 이루니 골 안에서는 바깥 산을 볼 수 없으며 그 가운데에는 가히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생각건대 우리 선조 주부공 휘 연수(諱 延壽)께서는 선조 때의 임진왜란(1592)을 당하여 임금께서 몽진(蒙塵)[②]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적을 미워하는 의로운 기개가 하늘을 찔렀다. 끝내는 격문을 초하여 병사(兵士)를 모집하고 이 골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 걸음이 빠르고 정제되어 용기가 더욱 굳세어짐을 기다려 李 충무공의 막하(幕下)로 달려가 여러 번 특출한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1597) 때 당포의 싸움에서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부자(父子)가 함께 칼과 화살의 사이에서 순국(殉國)하시었다.

조정에서는 공에게 훈二등의 벼슬에 올리시고 특별히 도감중군(都監中軍)[③]을 추증(追贈)하시었다. 그 후 300년 후의 임진년(1892) 향리 유

림의 간절한 청으로 인하여 공에게 병조판서를 더하여 추증하고 아들 입(岦)에게는 좌승지를 추증하였다. 그리고 나란히 정려(旌閭)를 명하시니 이것이 장병동의 유래이며 삼백 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훈련장(訓鍊場: 東을 지고 西로 향함), 호령바위(號令巖: 꽃밭 등에 있으며 西로 지고 東을 향함), 대장·소장(大將峯·小將峯: 현재는 대령(大嶺)·소령(小嶺)으로 일컫는다), 내창(內倉: 이 골의 가장 깊은 곳으로 병기를 소장하였던 곳), 문도산(問道山: 골 밖의 좌편에 있으며 그 때에 적병이 지나면서 사천(泗川)으로 가는 길을 물으매 사천은 실제로는 서쪽 방향에 있는 것을 순찰하던 병사가 거짓으로 남쪽을 향하여 가라고 일렀다. 적이 의심하지 않고 남으로 가는 것을 이를 요격하였으므로 적은 겨우 몇몇만 도주하였으므로 인하여 이름하였다) 등 명칭이 있으나 생각하건대 문헌의 증빙할 것이 없으므로 추원지감(追遠之感)을 금치 못하여 분수에 넘치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 이 골의 형상과 유적의 대략을 서술하여 장병동지라 이름하였다.

후일에 보는 자 혹은 이를 허물하지나 아니할련지.

十一世孫 길 섭(吉燮) 謹識

역주(譯註)

① **방장산(方丈山)** : 지리산의 딴 이름

② **몽진(蒙塵)** : 임금이 난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감

③ **도감중군(都監中軍)** : 조선조 때의 서반(西班) 벼슬 종二품직

書藏兵洞誌後

서 장 병 동 지 후

(장병동 기록 뒤에 쓰다)

초계변씨 양전문중(良田門中)이 그 기록한 장병동지를 나에게 보이며 그 글 뒤에 한마디 말을 요청하였다.

생각하건대 장병동은 진주(晋州) 양전(良田)의 동쪽 적석산 기슭에 자리하여 바깥으로 둘러싸고 가운데는 넓어 가히 만여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옛날 선조(宣祖) 때의 임진왜란에 변문(卞門)의 선조 주부공(主簿公) 연수(延壽)께서 의병을 일으켜 이 골에서 병사(兵士)를 조련(調練)하고 무예를 익혔으므로 동(洞)을 이름하였으며 훈련장, 호령바위 등의 이름이 지금에 아직도 전한다 하였다.

공(公)이 이미 여기에서 병사를 조련하여서 李 충무공의 진(陳)으로 달려가 적을 섬멸한 공이 많았으며 정유년(1597)에 이르러 당포(唐浦)의 싸움에서 적은 군사로 많은 수효의 적을 대적치 못하여 그 아들 입(岦)과 더불어 함께 의(義)에 돌아가시니 나란히 녹훈(錄勳)과 정려(旌閭)를 내리는 은전(恩典)을 입어 의열(義烈)로 널리 알려졌다.

대저 천하의 일이란 본(本)과 끝(末), 안(內)과 밖(外)의 분별이 있으니 반드시 그 본(根本)이 선 후에야 끝을 일컬으며, 안(속)이 충실한 후에야 밖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공이 몹시 어려운 날을 당하여 충의(忠義)의 마음을 품고 병사를 조련하고 무예를 익혀 적을 막는 계책으로 삼으니, 곧 병사를 조련하는 것은 적을 막는 근본이 되는 것이요, 충의

는 또한 병사를 조련하는 근본이 된다.

생각건대 이 근본이 안에 있기 때문에 능히 적을 치는 공을 이루었으며 죽어서 의열의 두드러짐을 이루었으니 처음에 이에 연유하지 아니하고 이에 기본함은 없었다. 만약에 헛되게 그 공로와 의열만을 칭송하여 그 본(本)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옳으랴. 그러한 즉 이 골(洞)은 실로 공의 충의로운 마음을 위한 본이라 어찌 가히 기록이 없으랴.

공(公)의 부자(父子)가 성구사(誠久祠)의 제향(祭享)에 나란히 올랐다. 그리고 이 골은 실제로 사당 뒤의 산골에 있으니 뒷날 이 사당에 올라 일을 볼 사람은 반드시 이 골을 눈에 익혀 그 날의 자취를 상상하고 더욱 우러러 경모하는 생각이 간절할 것이며, 이 사당과 이 골은 장차 함께 무궁하게 전하여질 것이다. 그러한즉 이 책의 기술(記述) 또한 어찌 도움됨이 없으랴.

여기 감탄하여 이 글을 쓴다.

화산(化山) 권 용 현(權龍鉉) 짓다

上 言
상 언

(太黃帝 壬辰 鄭杞錫 等)
(태황제 임진 정기석 등)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공적이 정성스러우면 반드시 태상시(太常寺)①에 기록되고 은전이 다시 자손에게 미치는 것은 진실로 국가의 성대한 행사라 하겠습니다.

신(臣)들은 비록 전하(殿下)의 은덕을 바라는 죄에 마음이 번거롭고 흐리게 하는 두려움이 있사오나 이는 곧 공의(公議)때문이옵기 끝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에 감히 전하의 수레 아래 호소하여 아뢰는 바입니다.

고(故) 증 도감중군(贈 都監中軍), 선무원종공신, 훈련주부 신 변연수(臣 卞延壽)는 곧 고려조의 충신 빈(贇)의 十代孫이며 한림학사(翰林學士) 좌익공 신(臣) 효경(孝敬)의 八대손으로 일찍이 기절과 담략이 있었으며 학문은 의리(義理)를 오로지 하였고, 무예는 궁마(弓馬)에 뛰어나 무(武)로써 과거에 올라 벼슬이 훈련주부에 이르렀으며 충무공신(忠武功臣) 이순신(李舜臣)과 깊이 아는 바 되었습니다.

선조(宣祖) 임진의 왜란에 있어 때마침 진주의 고향집에 돌아와 있었는데 이에 그 아들 입(岦)을 불러 통곡하여 이를 깨우쳐 이르기를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지키지 못하고 임금께서 몽진하시니 신자(臣

子)[2]는 몸을 던질 기회라" 하고 분연히 일어나 몸을 돌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대중을 깨우치니 그 글에 대략 이르기를 "오늘에 임금님께서 어찌 계시는가. 목숨을 버리고 의(義)를 취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히 해야 할 바라.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숨기는 것은 비록 온전함을 얻을지라도 의(義)가 없고 임금도 없음은 사람으로 지극한 죄(罪)라 살아서 어찌 사람 속에 끼일 것이며 죽어서는 어찌 선조의 영(靈)을 대할 것이냐. 제군과 더불어 맹세하고 의(義)를 받들어 싸움에 나아가되 결단코 적과는 같이 살지 않으리니 살아서는 의로운 병사가 되고 죽어서는 의로운 혼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대중이 모두 감격하여 울며 충의(忠義)로써 서로 힘써 오로지 연해(沿海)의 적을 막고 충무공의 절제(節制)를 받아 당포, 영등포의 싸움에서 여러 번 뛰어난 공을 세웠으며 또한 김효성(金孝誠) 등과 더불어 적선을 옥포에서 크게 무찌르니 적이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충무공이 정유년에 중래(重來)할 즈음에 이르러 한성(漢城)으로 가서 천안(天安)까지 수행하여 상세히 계책(計策)을 의논하는 길로 의병의 진지(陣地)로 돌아왔습니다. 때에 그의 재종숙(再從叔)인 전 봉사(前 奉事)[3] 신(臣) 홍적(弘迪)은 그의 형제와 따르는 무리들로 더불어 의(義)에 분발하여 적을 무찌르고 또한 충무공을 위하여 후방을 도왔는데 연수(延壽)는 이와 더불어 성세(聲勢)로 서로 응하여 나라일에 함께 죽기로 명세하였습니다.

적(賊)이 바야흐로 당포의 사이에서 어수선하니 연수는 홍적과 더불어 급히 글로써 서로 연락하여 날자를 기약하여 일제히 적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기약한 때에 이르러 먼저 갔으나 홍적은 아직 모이지 않았는데 적의 많은 무리가 크게 이르매 연수는 더욱 기운을 돋구어 홀로 당

할 계책을 세우고 명령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내가 죽을 곳을 얻었도다, 다만 나아감이 있을 뿐 물러섬은 없다" 하니 모두가 명령에 복종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워서 적을 죽임이 심히 많았으나 적이 우리 군사들의 화살이 다 떨어진 것을 염탐하여 알고 끝내는 장막 아래까지 난폭하게 밀고 들어옴에 사병들은 모두 맨주먹으로 칼을 헤쳤으며 죽음을 보기를 돌아가듯 하였습니다. 입(岦)은 팔로 아비의 시체를 안고 적을 꾸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다가 또 따라서 해(害)를 입었습니다. 홍적이 때맞추어 이르러 마음껏 치고 무찌르니 적이 끝내는 크게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홍적이 시체를 어루만지고 소리 내어 울며 이르기를 "내 매양 그대에게 적을 가벼이 하지 말 것을 깨우쳤거늘 기어이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 아픔을 이기랴" 하였습니다.

이 일이 조정(朝廷)에 알려지매 위에서는 그 충의의 탁월하였음을 애달프게 여기시고 변연수에게는 특별히 도감중군(都監中軍)을 추증하사 훈이등(勳二等)에 기록하시었고 철권(鐵卷)[4]을 하사하셨으며 그 아들 입(岦)에게는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品階)를 추증하시니 충신의 절의가 이에 드러났으며 성조(聖朝)의 은혜 또한 참으로 깊었으니 그것은 조정의 격려의 뜻에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르러 특별한 조처(措處)를 보이시어 벼슬을 더하시는 은전(恩典)이 있으시니 이는 죽은 신하를 밝히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삼가 옛일을 듣자옵고 널리 여론을 묻자오니 변연수의 충절의 탁이(卓異)함과 그 아들 입(岦)의 충효쌍전(忠孝雙全)의 사실은 대략 앞에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천지 부모(天地 父母)께서는 특히 하잘 것 없는 자들의 뜻을 들으시고 위에 올리는 정성을 살피시어 조속히 해당관서의

신하에게 명하시와 변연수(卞延壽)에게는 병조판서의 직함을 내리시고 변립(卞岦)에게는 마땅한 직위(職位)를 내리시어 신들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역주(譯註)

① **태상시(太常寺)** : 제사와 시호의 일을 맡아보던 고려시대의 관청

② **신자(臣子)** : 신하

③ **봉사(奉事)** : 조선조 초가의 종8품의 동반(문관)에 속하는 벼슬

④ **철권(鐵卷)** : 공신에게 나누어 주던 공훈을 적어 나누어주는 문서를 이르던 말

上 言
상 언

(癸巳 河尙鎬 等)
(계사 하상호 등)
(계사년에 하상호 등이 임금님께 올리는 글)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충효(忠孝)는 사람의 도리에서 마땅히 첫째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사람이 있으면 사림(士林)이 반드시 이를 존경하여 사모하고 조정이 반드시 이를 포상 선양하며 북돋우어 세워 성대한 은전(恩典)으로 정문(旌門)의 은혜가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예건대 본도(경상도) 진주의 증 병서판서(贈 兵書判書) 선무원종공신 변연수(卞延壽)와 그의 아들 증 좌승지(贈 左承旨) 신(臣) 입(岦)의 충효를 정문으로 포상하는 일로,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소리를 같이 하여 우러러 전하(殿下)의 수레 아래에 간절히 아룁니다.

대저 연수는 전조(前朝, 고려)의 충신 빈(贇)의 十세손이며 한림학사(翰林學士) 좌익공신 신(臣) 효경(孝敬)의 八세손입니다. 학문은 의리(義理)를 오로지 하였고 무예는 궁마(弓馬)에 뛰어나 충무공 이순신과 깊이 아는 바 되었습니다. 무과(武科) 출신으로 벼슬은 훈련주부에 이르렀으나 실로 벼슬이 오르는 데에는 뜻이 없어 벼슬을 쉬고 집에 있을 제 장흥으로부터 진주로 집을 옮겼습니다.

문득 임진왜란을 당하여 그 아들 입(岦)을 불러 통곡하며 타일러 이르기를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지키지 못하고 임금께서 몽진하시니 신하된 자는 몸을 던질 기회로다" 하고 이에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을 맹세하고 의병(義兵)을 일으켜 눈물을 흘리며 군중을 타이르니 그 글에 대략 이르기를 "오늘에 임금님께서 어찌 계시는가. 목숨을 버리고 의(義)를 취함은 사람의 당연한 바라 두 손으로 머리를 싸잡고 몸을 숨기는 것은 혹은 온전함을 얻을지라도 의를 생각치 않고 임금도 생각치 않음은 사람의 가장 무거운 죄라 살아서 어찌 사람 속에 끼이며 죽어서 어찌 선조의 영(靈)을 뵈오랴. 제군과 더불어 맹세하고 의를 받들어 전쟁에 나아가되 결단코 적과는 생(生)을 함께 하지 않으리니 살아서는 의로운 병사(兵士)가 되고 죽어서는 의로운 혼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대중이 모두 감격하여 울며 서로 충의로써 힘써 오로지 연해(沿海)의 적을 막고 충무공의 절제(節制)를 받아 당포(唐浦), 영등포(永嶝浦)의 싸움에서 여러 번 뛰어난 공을 세우고 또한 김효성(金孝誠) 등과 더불어 적선을 옥포(玉浦)에서 크게 쳐부수니 적이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정유재란(丁酉再亂)에 이르러 충무공이 다시 수사(水使)를 명(命) 받음에 수행하여 천안(天安)에 이르러 계책을 상세히 의논하고는 바로 의병의 진으로 돌아 왔습니다. 때에 그 재종숙(再從叔) 전 봉사(前 奉事) 신(臣) 홍적(洪迪)이 그의 형제와 따르는 무리들로 더불어 의(義)에 분발하여 적을 무찌르고 또한 충무공을 위하여 후방을 도왔는데 연수는 이와 더불어 임금을 위하여 함께 죽기를 맹세하였습니다.

적이 당포에서 어수선할 때 연수는 홍적과 더불어 급히 글로써 서로

연락하여 날짜를 기약하여 일제히 적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기약한 때에 먼저 가니 홍적의 병사는 아직 와서 모이지 않았는데 적은 무리를 다하여 크게 이르매 연수는 더욱 기운을 돋구어 혼자 적을 당할 계획으로 명령하여 말하기를 '오늘 내 죽을 곳을 얻었도다. 오직 나아감이 있을 뿐 물러섬은 없다' 하니 병사들이 모두 명(命)을 받들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워서 적을 죽임이 심히 많았으나 그러나 적은 우리 군사들의 화살이 떨어진 것을 알고 끝내는 장막 아래까지 난폭하게 밀고 들어옴에 병사들은 맨주먹으로 칼을 막았으며 그의 아들 입(岦)은 손으로 아비의 시체를 안고 적을 끊임없이 꾸짖다가 또한 따라서 해를 입었습니다. 홍적의 군사가 적시(適時)에 이르러 마음껏 이를 무찌르니 적이 크게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그 비문에 이르기를 "아비는 충(忠)에 죽고 아들은 효(孝)에 죽으니 옛 사람(古人)에게 이를 구하여도 실로 그 예(例)가 드물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위로 알려져 변연수(卞延壽)에게는 특별히 도감중군으로 추증하시고 훈二등에 기록하시어 철권(鐵卷)을 내리셨으며 그 아들 입(岦)에게는 통정대부의 품계(品階)를 추증하셨습니다. 지난 해 봄에는 또한 임진왜란 삼백 주년의 해라 공의(公議)가 한결같이 일어나 사실대로 아뢰어 병조판서의 직함을 더하시고 그의 아들 입(岦)에게는 좌승지의 직첩을 내리시는데 이르렀으니 충신의 절의가 천 년토록 밝게 빛날 것이며 성조(聖朝)의 은혜는 저승에까지 넓게 미칠 것이오나 그 인품(人品)의 높은 뜻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문(旌門)의 은전(恩典)이 늦삽기로 옛 신하를 위하여 이에 아뢰는 것입니다. 신 등은 번거롭고 지나침을 피하지 아니한 죄로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숨김없이 아뢰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천지 부모님께서는 맑은 덕을 포상하시고 충효를 권장하시는 뜻에 특히 마음을 두시와, 조속히 해당 관청에 명령하시어 변연수(卞延壽), 변립(卞岦)에게 정려(旌閭)의 은전(恩典)을 나란히 베풀어 주시어 신들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宣武功臣訓鍊主簿 贈兵曹判書卞公諡狀

선 무 공 신 훈 련 주 부　증 병 조 판 서 변 공 시 장

(선무공신 훈련주부 증 병조판서 변공의 시호를 청하는 글)

옛날 중국 진(晋)나라의 변충정(卞忠貞) 부자는 소준(蘇峻)의 싸움에서 함께 의(義)에 죽으니 천하가 그 절의(節義)를 일컫지마는 우리 동방에는 변(卞) 훈련주부 부자가 있어 그 절의는 또한 그들을 앞섭니다. 아아, 하늘이 의열(義烈)을 모아서 낳음이 어찌 변씨(卞氏)에게 치우쳐 많은 것입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훈련주부 변공(卞公) 휘(諱)는 연수(延壽) 자는 오원(五元)이니 관향은 초계(草溪)로 고려의 문하시중(門下侍中) 팔계군(八溪君)[1] 문열공(文烈公) 정실(庭實)의 후손입니다. 대대로 높은 벼슬을 이었는데 八세를 내려와 빈(贇)은 벼슬이 문하평리(門下評理)에 이르러 고려의 운수가 다함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신자(臣子)의 절의를 다하였으며 효경(孝敬)은 이조참판으로 좌익공신(左翊功臣)에 기록되었고 강(鋼)을 낳으니 문과에 올라 군수요, 옥(玉)을 낳으니 충순위(忠順衛)요, 온(溫)을 낳으니 현감이며, 효지(孝智)를 낳으니 이가 공의 고조입니다. 증조는 대손(大孫)이니 진사요, 조는 국수(國秀)니 진사이고, 아비는 죽(竹)이며, 어미는 진양강씨(晋陽姜氏) 희적(熙績)의 딸입니다.

公은 中宗 무술(戊戌)(1538)에 태어 났습니다. 젊어서 기개가 높았고 책을 읽어 오로지 의리(義理)를 익혔으며 아울러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혀 무예(武藝)가 사람에게 뛰어났습니다. 충무이공(忠武李公)과 아는 바

되었고 무과에 뽑혔으나 한가한 직책에서 더 진급하지 않아 벼슬을 쉬고 집에 있었으며 장흥(長興)에서 진주(晋州)로 옮겨 살았습니다.

임진왜란에 상감께서 몽진(蒙塵)하셨다는 것을 듣고는 통곡하며 그의 아들 입(岦)에게 일러 말하기를 "신하된 자 몸을 버릴 때라"하고 이에 의병을 일으켜 눈물을 흘리며 군중을 깨우쳐 이르기를 "오늘에 임금께서는 어찌 계시는지. 제군과 더불어 명세하나니 의(義)를 받들어 싸움에 나아가되 결단코 적과는 함께 살지 않으리라"하니 군중이 모두 감격하여 울며 분발하였고 끝내는 연해의 적을 막았습니다. 이공(李公)의 절제(節制)를 받아 당포(唐浦), 영등포(永嶝浦)의 싸움에서 여러 번 큰 공을 세우고 또한 김효성(金孝誠) 등과 함께 적선을 옥포(玉浦)에서 크게 무찌르니 적이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이공(李公)이 참소(讒訴)를 입어 파직(罷職)되니 군(軍)과 민(民)이 흩어지고 적세(敵勢)가 더욱 치솟았고 공은 서울로 올라가서 그 상황을 진술하였습니다.

정유(丁酉)에 이공(李公)이 다시 장수가 되어 남쪽으로 내려옴에 공이 천안(天安)까지 수행하며 계책을 갖추어 말씀 드리는 길로 의병 진채(陣寨)로 돌아 왔습니다.

때에 공의 재종숙(再從叔)으로 봉사(奉事)[2]를 지냈던 홍적(弘迪)이 그의 형제와 따르는 무리들로 더불어 또한 의병을 일으켜 적을 무찌르는데 공과 함께 성세(聲勢)로 서로 응하였습니다. 적이 바야흐로 당포(唐浦)에서 갈팡질팡하는지라 공이 급히 글을 전하여 함께 적을 칠 날을 약속하였습니다.

약속한 때가 되어 공이 먼저 갔으나 봉사공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적의 많은 무리들이 크게 쳐들어 왔습니다. 공이 씩씩한 기상(氣象)

으로 홀로 앞으로 나아가며 이르기를 "오늘 나의 죽을 곳을 얻었도다. 앞으로 나아감이 있을 뿐 물러서지 말라" 하니 병사들이 모두 오직 명령을 받들어 죽기로 싸워 적을 죽임이 매우 많았으나 적이 우리 군의 화살이 다한 것을 알고 갑자기 장막 아래까지 이르니 사병이 모두 맨주먹으로 칼을 헤치다가 공은 끝내 운명(殞命)하였습니다. 입(岦)은 공의 시체를 안고 끊임없이 적을 크게 꾸짖으니 적은 또한 칼로 해쳤습니다.

봉사(奉事)의 병(兵)이 약속한 때에 이르러 마음껏 적을 쳐서 무찌르니 적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봉사공이 공의 시체를 쓰다듬으며 통곡하여 이르기를 "언제나 그대에게 적을 가벼이 보지 말 것을 경계하였거늘 기어이 이에 이르렀구나" 하였습니다.

진주(晋州)의 양전면(良田面) 大松田 축좌원(丑坐原)에 반장(返葬)하였으며 입(岦)은 이어 그 아래에 장사지냈습니다.

이 사실이 조정(朝廷)에 알려지매 공에게는 도감중군(都監中軍)을 추증(追贈)하고 입(岦)에게는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品階)를 내렸으며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훈이등(勳二等)에 기록하고 철권(鐵卷)[3]을 하사하셨습니다.

공의 배위(配位)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세환(世煥)의 女로 심히 부덕(婦德)이 있었는데 公에 앞서 돌아갔습니다. 일남을 키우니 통정(通政)이며 안동김씨(安東金氏) 사인(士人)[4] 서(瑞)의 여를 취(娶)하니 현숙 명철하고 행동이 아름다웠습니다. 통정(通政)을 고향으로 반장(返葬)한 후 수장(水醬)[5]을 입에 넣지 않은 8일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아, 공은 훤칠하고 뛰어난 모습에 강개(慷慨)하고 분기(憤起)하는 뜻을 안았으며 의로운 기상이 충만하고 담략(膽略)이 사람들에게 뛰어났습니다. 부귀(富貴)를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고 권세와 이권(利權)

에 욕심이 없었으니 그것은 타고난 성품이 이미 다르고 또 학문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주(祭酒)[6] 송공(宋公)[7]이 공의 묘비에 명(銘)하여 이르기를 "평소의 교양이 없었다면 능히 뜻이 이루랴" 하니 참으로 공을 아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왜구의 때를 당하여 적을 칠 것을 마음에 명세하였으나 그 공(功)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몸이 먼저 죽으니 천고(千古)의 한이로되 그러나 적을 함몰(陷沒)시키고 버티어 막아 낸 절의는 후세에 칭송받기에 족하다 하겠습니다.

변충정(卞忠貞)이 청계(淸溪)의 한 싸움에서 패하여 죽은 것을 보건대 그것이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마는 일문(一門) 안에서 아비는 충(忠)에 죽고(死於忠) 자식은 효(孝)에 죽고(死於孝) 지어미는 烈에 죽으니(死於烈) 이는 일찍이 전사(前史)에서 드물게 보는 바이며 또한 아득히 후세에 하나가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봉사공 홍적(奉事公 弘迪), 첨사공 홍건(僉使公 弘建), 사복시정공 홍선(司僕寺正公 弘選), 통정공 홍원(通政公 弘源), 주부공 홍량(主簿公 弘亮)과 홍주(弘洲)는 모두 공의 재종숙(再從叔)으로 함께 이 충무공(李忠武公)를 위하여 후원하다가 정유년(丁酉年)의 명량(鳴梁) 싸움에서 한날에 나란히 의(義)에 죽었으며, 병사공 홍달(兵使公 弘達) 또한 공의 재종숙으로 그 조카 덕장(德章)과 함께 권충렬(權忠烈)[8]의 선봉에서 많은 계책으로써 적을 죽이니 적이 서로 경계하여 이르기를 "가는 길마다 흑면장군(黑面將軍)을 피하라" 하였으니 공의 얼굴이 검었기 때문입니다. 판관공 공의(判官公 公毅)와 덕황(德璜)도 모두 공의 삼종형제(三從兄弟)로 판관은 싸우면 곧 공을 세웠으므로 훈일등(勳一等)이요 덕황은 곽산(郭山)에서 전사하니 삼종(三從) 안에서 절의를 지켜 같은 시기에

목숨을 버린 이와 서훈(敍勳)된 이가 공의 부자와 十二人[9]이나 됩니다.

아아, 세상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책에 이를 올려 기록하니 그 영광이 빛나기는 진(晋)나라 변충정(卞忠貞)의 열 배나 되는 것입니다.

금상(今上)[10] 임진에 도(道) 유생(儒生)들의 상소로 공에게는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입(岦)에게는 좌승지(左承旨)를 더하여 추증하시고 아울러 그 마을에 정문(旌門)을 명하사 널리 숭장(崇奬)하는 법도가 이에 이르니 남은 한이 없습니다.

공의 九세손 전 정언(前 正言)[11] 응수(應洙)가 장차 시호(諡號)를 조정(朝廷)에 청하고자 기선(箕善)에게 시장(諡狀)을 부촉하옵기에 삼가 이와 같이 찬하여 태상씨(太常氏)[12]의 채택함을 기다릴 뿐입니다.

광무 5년 신축(1901) 10월 상순

前 弘文館學士 崇祿大夫 議政府贊政 法務部大臣 東陽 申箕善[13] 撰
전 홍문관학사 숭록대부 의정부찬정 법무부대신 동양 신기선 지음

역주(譯註)

① **팔계(八溪)** : 초계(草溪)의 고호(古號)
② **봉사(奉事)** : 조선 초기 종8품의 문에 속하는 벼슬
③ **철권(鐵卷)** :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던 공훈을 기록한 책
④ **사인(士人)** : 벼슬을 아니한 선비
⑤ **제주(祭酒)** : 성균관의 정3품 당상관
⑥ **송공(宋公)** : 연재 송병선(淵齋 宋秉璿)

⑦ **권충렬(權忠烈)** : 충장공(忠莊公) 권율장군(權慄將軍) 시호 충렬은 충장의 잘못이다.

⑧ **十二人** : 홍적(弘迪) 등과 함께 명량(鳴梁)에서 순절한 홍제(弘濟)와 부친 홍원(弘源)을 따라 순절한 두남(斗南)을 합하여 14충(忠)이라 함이 옳다.

⑨ **금상(今上)** : 지금의 임금. 고종황제

⑩ **정언(正言)** : 조선조 사간원의 정6품의 벼슬

⑪ **태상씨(太常氏)** : 태상시(太常寺)를 말함. 제사(祭祀)와 시호(諡號)를 내리는 일을 맡아보던 고려 때의 관청

⑫ **신기선(申箕璿)** : (1851~1909) 구한말(舊韓末)의 대신. 자는 언여(言汝) 호는 양원(陽園), 동양(東陽)

고종 14년에 문과에 급제. 교리(校理)를 지내고 1886년 갑신정변(甲申政變) 때 김옥균(金玉均)의 일파였다는 죄로 전라도 呂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1894년 김홍집(金弘集) 내각에서 공부대신을 거쳐 내부, 법부, 학부의 각 대신을 역임하고 참정대신(參政大臣)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헌공(文獻公)

主簿 贈判書卞公神道碑銘幷序

주부 증판서변공신도비명병서

송 병 선(宋秉璿)

임진왜란 시에 훈련주부(訓鍊主簿) 변공(卞公) 연수(延壽)는 통곡하며 그 아들 입(岦)에게 일러 말하기를 "종묘와 사직을 지키지 못하고 임금께서 몽진(蒙塵)하시니 신하된 자로 나라에 몸을 바칠 기회로다" 하고 이에 의병을 일으켜 충의로서 타이르고 연해(沿海)의 적을 막았다. 충무(忠武) 이공순신(李公舜臣)을 따라 그 지휘를 받아서 여러 차례 당포(唐浦), 영등포(永嶝浦) 등에서 뛰어난 공(功)을 세우고 또한 김효성(金孝誠) 등과 더불어 적선을 옥포(玉浦)에서 크게 깨부수니 적이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였다.

이공(李公)이 파직되어 돌아가니 의로운 군사들은 흩어지고 적세(敵勢)는 더욱 치열하였다. 공(公)은 서울에 올라가 군민(軍民)이 갈망하는 정상(情狀)을 간절히 고하였다.

정유재란(丁酉再亂)에 다시 왕명을 받들어 내려올 제 이공(李公)을 수행하여 천안에 이르러 좋은 계책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의병의 진지로 돌아와서는 재종숙(再從叔) 봉사공(奉事公) 홍적(弘迪)과 성세(聲勢)로서로 호응하였다. 때에 적이 당포에서 몹시 어수선하였으므로 서로 날짜를 정하여 일제히 거병(擧兵)하기로 약속하고 공의 군병이 먼저 갔었는데 적의 무리가 크게 밀어 닥쳤다.

공이 기운을 가다듬고 홀로 적을 대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내가 죽을

곳을 얻었도다"하고 힘써 싸워 적을 죽임이 심히 많았으나 화살이 떨어졌다. 적이 이를 알고 물러나지 않는다. 병사들은 모두 맨주먹으로 칼을 대항하였으나 공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입(岦)은 손으로 아버지의 시신(屍身)을 안고 크게 적을 꾸짖다가 또한 해(害)를 입었다.

봉사공(奉事公)이 때 맞추어 이르러 닥치는 대로 쳐서 적을 무찌르고는 공의 시신을 어루만지며 이르기를 "내 언제나 적을 가벼이 보지 말것을 경계하였거늘 기어이 이에 이르렀구나!"하였다. 진주(晋州) 양전리(良田里) 금강산(金剛山) 아래 축좌원(丑坐原)에 반장(返葬)하고 입(岦)도 또한 그 계하(階下)에 장사지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짐에 특별히 공에게는 도감중군(都監中軍)①을 추증(追贈)하고 입(岦)에게는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에 올렸으며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훈(錄勳)하였다. 그 후 바로 다섯 회갑(回甲)②되는 해에 또한 유생들의 상소로 병조판서(兵曹判書)를 더하여 추증하고 입(岦)에게도 좌승지(左承旨)를 추증하였으며 나란히 그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우게 하니 조정의 지극한 보답이 이에 이르러 유감됨이 없었다.

公의 자는 오원(五元)이며 관향은 초계(草溪)이니 고려의 시중(侍中) 문열공(文烈公) 정실(庭實)로서 시조(始祖)로 삼는다. 七世를 거쳐서 평리사(評理事) 빈(贇)은 고려가 망함을 보고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신자(臣子)된 절의를 다하였다. 조선조에 들어 진사(進士) 대손(大孫)에 이르니 이가 공의 증조부이고, 조부는 국수(國秀)이니 또한 진사이고 아버지는 죽(竹)이요 어머니는 진양강씨(晋陽姜氏) 희적(熙績)의 따님이다.

공은 가정(嘉靖) 무술(戊戌 1538년)에 출생하였다. 젊어서 기개(氣槪)와 절조(節操)가 있었으며 학문은 의리를 밝히고 무예는 활쏘기와 말달

리기가 남에게 뛰어났다. 깊이 이충무공(李忠武公)과 아는 바였고 무(武)로써 과거에 올랐으나 벼슬에 나아갈 뜻이 없어 벼슬을 쉬고 집에 있었는데 장흥(長興)에서 진주(晋州) 양전(良田)으로 옮겨 살았다.

임진왜란에 분연히 일어나 몸을 돌보지 않았으며 눈물을 흘리며 대중을 타이르기를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숨기면 비록 온전함을 얻을지언정 어찌 사람들 사이에 끼일 수 있으랴. 여러분과 더불어 맹세하여 의(義)를 받들어 전쟁에 나아가되 적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바라지 않노라" 하였다. 당초에 마음을 작정함이 한 때의 강개(慷慨)로써 죽음에 나아가는 자와 견주어서는 아니 된다.

공의 배위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세환(世煥)의 따님으로 심히 부덕(婦德)이 있었는데 공에 앞서 세상을 떠났으며 장례는 공자가례(孔子嘉禮)에 의하였다. 입(岦)을 낳으니 태도와 품성(稟性)이 매우 뛰어났으며 그의 처 안동김씨(安東金氏) 또한 행동거지(行動擧止)가 아름다웠다. 그 지아비를 장사지내고는 수장(水醬)을 입에 들이지 않고 끝내 남편의 뒤를 좇았다. 대저 공의 의로움은 주는 바가 있어서 삼강(三綱)의 중요로움을 세우기 위하여 쉬지 않았음이리라. 입(岦)의 아들에 흥종(興宗)이니 찰방(察訪)이며, 증손(曾孫) 현손(玄孫)은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공의 묘소에는 옛날 비석이 있었는데 찢기고 떨어져 나가고 하여 잃어 버렸다. 후손들이 이를 슬퍼하고 가까운 밭둑과 산언덕을 두루 살펴 찾아 냈으나 그것마저 글자가 이즈러져 읽을 수가 없으매 다시 꾀하여 돌을 새로이 쪼개어 내고 후손들이 서로 다듬고 서로 빛을 내어서 나에게 명(銘)을 청하였다.

생각건대 옛날 변성양(卞成陽) 부자는 충(忠)과 효(孝)에 함께 죽었으니 공의 집안 일과 서로 같고 성(姓)도 역시 꼭 맞으나 열(烈)은 성양

(成陽)에게는 없는 바이다.

일가(一家)의 忠·孝·烈 삼절(三節)은 앞으로 백성의 떳떳함을 도와 무궁하리라. 변씨가문(卞氏家門)의 고금(古今)의 뛰어난 행실은 어찌 그렇게도 성(盛)하다는 말인가! 이제 이하(夷夏)[3]가 뒤섞인 곳을 보건대 오륜(五倫)이 무너지고 끊기어 바로 차가운 겨울과 같아서 광명한 길(陽道)이 실오라기처럼 아득한지라 公이 세운 바와 같은 것을 더욱 들어내지 않으면 아니 되기에 대략을 서술하고 명(銘)하여 이르니라.

금강(金剛)언덕에 큰 무덤있으니 누구 묘이던가.
크게 뛰어난 변공(卞公)일세
몸을 잊고 나라 위해 죽으니 인의(仁義)를 이루었네
평소의 교양없으면 어찌 그 뜻 이룰 것인가
효(孝)와 열(烈)로 이으니 공이 모범됨이로다
능히 천륜(天倫)을 도우니 더할 것없이 아름다워라
조정에서 높이 포상하니 삼절(三節) 더욱 빛나네
그 이름 불멸(不滅)하니 산처럼 높고 물처럼 길어라
나를 불러 명(銘)을 짓게 하니 일방(一方)을 밝힐 뿐이로다.

역주(譯註)

① **도감중군(都監中軍)** : 조선조 때 무관 벼슬. 종이품직(從二品職) 아장(亞將)의 하나에 든다.

② **다섯 회갑** : 300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부터 300년 후인1892년을 말함. 즉 1갑자(60년)×5회=300년이 됨

③ **이하(夷夏)** : 이(夷)는 도덕이 미개한 나라 또는 그 민족. 하(夏)는 개명한 나라 또는 그 민족을 말함.

三綱閭上樑文

삼 강 려 상 량 문

후 손 응 수(應洙)

뛰어난 업적을 현창(顯彰)하고 천명(闡明)하는 장법(章法)이 결함이 오래어서 유림(儒林)이 한탄했고 성대(盛代)에 덕(德)을 숭상하고 공(功)에 보답하는 은전(恩典)이 드러나 밝으니 정문(旌門)에 빛을 더하였고 양세(兩世) 문려(門閭)를 정표(旌表)하니 일시 이목(耳目)이 새롭구나.

공손히 생각건대 우리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증 판서공(贈 判書公)과 선무원종공신 증 승지공(贈 承旨公)은 평리선생(評理先生)의 후예(後裔)이며 좌익공신(左翊功臣)[1]의 후손이다. 대대(代代)로 충효(忠孝)로 집안의 성예(聲譽)가 돈독하니 순강(純剛)한 기개(氣槪)는 단청(丹靑)으로 꾸밀 수 없고, 일찍이 춘추대의(春秋大義)를 강론(講論)하니 정사(正邪)의 분별은 흑백(黑白)같이 분명할 뿐만 아니다. 취할 바의 의리(義理)에 분명하여 깊이 충무공(忠武公)의 지기(知己)의 교분(交分)에 의탁했고, 여사(餘事)로 궁마(弓馬)를 익혔으니 훈련원(訓鍊院) 주부(主簿)의 벼슬에 잠시 머물었다. 임진년에 왜구(倭寇)가 침범하여 천지가 미증유(未曾有)의 변고(變故)를 당하자 어가(御駕)가 의주(義州)로 몽진(蒙塵)하였음을 놀래 듣고 외로운 충심(忠心) 근왕(勤王)하지 못함을 통곡했고, 흉적(兇賊)이 동국(東國)에 횡행(橫行)함을 차마 보고도 격분(激憤)한 의사(義士) 하나 없음을 크게 탄식했다. 적(賊)과 더불어 하늘을 함께 일 수 없으니 구학(溝壑)에서 목숨 바칠 마음 잊지 않았고, 누가

임금에게 보답할 굳은 정성 없으랴 마는 마땅히 강산(江山)을 지켜 장애가 없도록 보전하려는 뜻을 지켰다.

이에 아들과 더불어 나라에 죽기로 마음 다졌고 또한 의병(義兵)으로 하여금 몸을 던져 종군(從軍)하게 하였다. 눈물 흘리며 병사(兵士)들과 명세하니 병사들은 칼날을 무릅쓰고 다투어 옥포(玉浦)로 달려가 큰 적선을 박멸(撲滅)했고, 몸을 날려 적을 향해 활을 쏘니 적이 화살에 맞고 쓰러져 영등(永嶝)에서 여러 차례 큰 공(功)을 세웠다. 후원(後援)을 요청하니 재종숙(再從叔) 제공(諸公)이 합심하여 장흥(長興) 바다 밖에서 성세(聲勢)를 북돋았다. 백성의 여망(輿望)을 좇아 원수(元帥)[2]가 재임(再任)하여 회강(會講)하자 천안(天安) 노중(路中)에서 계책(計策)을 논의했다. 휘하의 사기(士氣)가 충천(衝天)하니 바야흐로 적들이 접근하지 못함을 보겠고 해변(海邊)의 백성들 의지함이 무거우니 모두가 군중(軍中)에 인재(人材)있음을 칭송했다. 완악(頑惡)한 무리가 당포(唐浦)에 침입하던 날 비록 적(敵)은 많고 아군(我軍)은 적었으나 대공(大功)을 장차 거두려 하였더니 원병(援兵)이 함께 일어날 시기를 놓침에 돌진(突進)하여 후퇴없이 맨주먹으로 대적(對敵)했다.

아아! 어찌 하늘이 도우지 않았는가. 출사하여 아직 이기지 못한 때에 장성(將星)이 갑자기 떨어졌다.

참되도다. 그 아들이 충절(忠節)을 본받아 적을 꾸짖으며 굴하지 않으니 열일(烈日)처럼 광채(光彩)가 빛났다. 다행히도 봉사공(奉事公)[3]이 달려와 적(敵)은 드디어 크게 꺾였고 절도사(節度使)가 아뢰어 공적(功績)이 이에 밝게 드러났다. 이등공훈(二等功勳) 공신록(功臣錄)은 후인(後人)에게 족히 사실(史實)을 알게 하니 실로 만고(萬古)에 죽지 않음이요, 일곱 고을 백성들의 상여(喪輿) 노래[4] 지금 귀에 들리는 듯 선연

하니 모두가 구천(九泉)에서 깨어나기 바라는 듯.

성조(聖朝)의 특별한 은혜 입어 아장(亞將)[5]과 통정(通政)에 올랐고 주상(主上)의 남다른 생각 미쳐 상서(尙書)와 승선(承宣)을 더하였다.

훌륭하도다. 군친(君親)을 섬겨 두 가지를 온전히 한 아름다움이여! 하물며 고금(古今) 떨쳐 들어보기 어려운 행적(行蹟)임에랴! 아아, 첨앙(瞻仰)할 자리 없어도 많은 선비들 소망 이미 깊었고 더욱이 삭망(朔望)에는 때가 있어 자손들 추모(追慕) 더욱 간절하다. 높은 충절(忠節)은 참으로 세교(世敎)에 유익(有益)하고 여론이 구름 밀치듯 대궐에 호소하니 크나큰 공열(功烈)이 어찌 가히 인멸하랴! 옥음(玉音)이 풍교(風敎)를 세워 정표(旌表)를 받들었다.

저 송전(松田) 기슭을 돌아보니 실로 선묘(先墓) 가까운 곳이로다. 남쪽으로 적석(積石) 세 봉우리는 솟아 하늘에 닿았으니 신백(申伯)이 강신한 자취 짐작되고, 동쪽으로 백천(百川) 흘러 바다로 돌아가니 자미(子美)가 임금 받들던 충성을 알겠다.

한 산등성이의 묘소(墓所)를 뒤에 하니 정령(精靈)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삼면(三面)의 촌락(村落)이 에워싸니 자손들 그 가운데 거처한다. 경영(經營)은 농한기(農閑期)에 하였고 이에 치장은 알맞음을 얻었다. 서쪽에 두 정표(旌表) 게양하니 오히려 비석(碑石) 세울 자리가 남았고 동편에 한 간(間)을 남겼으니 다만 열부(烈婦) 표할 은전을 기다린다. 열성(列聖)의 두터운 은택(恩澤)이 찬연히 새롭고 여러 고을의 선비들 일제히 기뻐한다.

너희 목수들 도끼질 멈추고 나의 축하 노래 들어라!

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던져라. 바다 자고 하늘 개여 물결은 고요하다. 충용(忠勇)함은 다만 나라 위한 계책이라 지금은 옛날 공로(功勞)

서로 전해 애기한다.

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던져라. 겹으로 쌓인 적석봉(積石峯) 하늘과 나란하다. 우뚝 높고 정직(正直)함이 응당 저와 같으니 생각건대 당시의 기상(氣象)을 알겠구나.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던져라. 어느 곳 명량(鳴梁)에 날은 이미 저물었네. 제부(諸父) 실로 온전함은 하늘의 도움이라. 호남(湖南)의 야사(野史)에서 후인들은 상고(詳考)하리!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던져라. 아득한 북두성(北斗星)이 천극(天極)을 떠받쳤다. 한 마음의 근심 사랑 물결같이 유유하니 그윽한 난초(蘭草) 향기 몰라준다 근심하랴!

어영차 들보를 위로 던져라. 백일(白日) 청천(青天)이 밝고도 광활하다. 천 년토록 영령(英靈)이 저와 같이 계시나니 때때로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 다시 처창(悽愴)하여 진다.

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던져라. 효열(孝烈) 더욱 새롭게 석면(石面)에 새겼다. 이로부터 삼강(三綱)이 일문(一門)에 함께 하니 백세(百世)토록 들을 이 많음을 알겠네.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上樑)한 뒤로는 풍속(風俗)이 돈후(敦厚)하고 후손(後孫)들 번창하리! 조선(祖先)을 따르고 일신(一身)을 닦아라. 편액(扁額)을 쳐다보며 추모(追慕)의 뜻 부쳐라!

임금에게 충성(忠誠)하고 부모에게 효도(孝道)하며 가풍(家風)을 계승하여 삼강오륜(三綱五倫) 힘쓸지고!

역주(譯註)

① **좌익공신(左翊功臣)** : 이름은 효경(孝敬) 세종 때 문과에 올라 문종 때 병조참판 단종 때 영흥대도호부사

② **원수(元帥)** : 이순신 장군을 말함

③ **봉사공(奉事公)** : 이름은 홍적(弘迪). 정유재란에 형제 3인이 한 날에 순의(殉義)했다.

④ **상여(喪輿)노래** : 의병장 연수공(延壽公)과 아들 입공(岦公)의 전사한 시신을 충신을 숭앙하는 뜻으로 거제(巨濟)에서 고향 양전(良田)까지 일곱 고을 백성들이 교체해 가며 운구했다.

⑤ **아장(亞將)** : 조선조 때 포도대장(捕盜大將), 용호별장(龍虎別將), 도감중군(都監中軍), 금위중군(禁衛中軍), 어영중군(御營中軍), 병조참판(兵曹參判)의 총칭. 종이품직(從二品職)

三綱閭記
삼 강 려 기

최 익 현 (崔益鉉)

하늘이 인륜을 베푸니 그 근본은 셋이다.

신하가 임금을 위함을 충(忠)이라 하고, 자식이 아비를 위함을 효(孝)라 하고, 아내가 지아비를 위함을 열(烈)이라 하니 곧 천지의 떳떳한 법이며 古今을 통하여 사람이 지켜야 할 변함없는 도리로 이에 따르고 거역함에서 일신(一身)의 길흉선악(吉凶善惡)과 집안, 국가, 천하의 성쇠치란(盛衰治亂)에 관련된다. 이는 옛날의 어진 왕들이 항상 조심하고 공경하여 풍습을 교화시키고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까닭이라 할 것이다.

今上② 임진년(壬辰年)은 왜란(倭亂)에서 三百주년이 되는 해로 당시 죽은 사람의 일로 여러 신하들이 각기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있었고 또한 진주(晋州)의 유생 하상호(河尙鎬) 등의 상소함으로 인하여 추증(追贈)하기를 충신 변연수(卞延壽)는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삼고 효자 변입(卞岦)은 좌승지(左承旨)로 삼아 거듭 명(命)하여 붉은 문을 세우게 하고 승지의 배위(配位) 열부(烈婦) 김씨(金氏)도 차례로 은혜가 미치게 하였다. 한 마을에 세 정문(旌門)이라 향리에 빛이 더하였다.

생각하건대 임진왜란에 있어서 임금이 몽진하고 종묘와 사직을 지키지 못하여 안위존망(安危存亡)이 호흡하는 사이에 박두하였는데 이러한 때를 당하여 비록 공경(公卿)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가로이 도의(道義)

나 이야기하고 군국(軍國)의 대임(大任)을 맡은 자라 자처하는 무리는 이해를 살피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교묘하였으며 나라의 화란(禍亂)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가 줄을 잇고 있었다.

변공(卞公)은 홀로 초야의 무인(武人)으로서 능히 의병을 일으켜 거느리고 이충무공(李忠武公)의 관하에 속하여 영등(永嶝), 당포(唐浦)의 싸움에서 여러 번 큰 공을 세웠는데 끝내 많은 적을 만나 중과부적(衆寡不敵)이요 사린무원(四隣無援)하여 몸을 간교(奸巧)한 무리들의 칼날과 화살에 맡겨 죽음에 이르러도 후회함이 없으니 그 일은 참으로 위대하였다. 하물며 발 아래서 아들은 적을 꾸짖으며 목숨을 다하였고, 며느리는 곡기(穀氣)를 끊고 지아비를 따라 죽으니 모두가 조정에 알려야 한다고 하였고 이미 이를 논의하였으니 대저 어찌 위하는 바 있어서 하였으리요.

특히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의 큰 법도와 대의는 홀로 타고난 자질(資質)의 많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사사로운 재주나 조그만 꾀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군시대(聖君時代)의 법도를 좋아하는 군자는 세상을 자세히 살펴서 옛날의 인격, 언어 등을 논하는 것이니 장차 소학(小學) 삼강록을 읽고 엮을 제 그 무궁함을 드리울 것이니 또한 장하지 아니하랴!

정려(旌閭)는 진주(晋州) 양전리(良田里)에 있는데 그 사실과 전말을 송연재(宋淵齋)[3]가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에 자세히 실려 있으므로 이에 거듭 펴지 아니하고 특히 그 중에서 느낀 것을 적어 본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을 청한 이는 후손 희수(羲洙), 상숙(相璹)이다.

역주(譯註)

① **최익현(崔益鉉)** : (1833~1906) 조선조 말의 문신, 학자, 의병장, 호는 면암(勉菴)이며 경주최씨(慶州崔氏)이다.

1855년 문과에 급제. 고종 5년(1868) 장령(掌令)으로서 흥성대원군의 실정(失政)을 상소하여 대원군의 노여움을 샀다.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단발령이 내리자 이를 반대하여 투옥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켜 순창(淳昌)에서 400여 명의 의병으로 일본군과 싸웠으나 패전으로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 지급되는 일체의 음식물을 거절하고 굶어 죽었다.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이 수여되었다.

② **금상(今上)** : 현재의 임금. 여기서는 고종을 말함.

③ **송연재(宋淵齋)** : (1836~1905) 조선조 고종 때의 학자, 문신. 이름은 병준(秉埈)이고 호는 연재(淵齋)로 송시열(宋時烈)의 9대손이다.

학행으로 제주(祭酒)에 기용된 뒤 서연관(書筵官) 대사헌을 지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오적(五賊)[4]을 참(斬)할 것을 상소하려다 경무사(警務使)에게 속아 일본헌병에 의해 고향으로 강제로 이송되자 음독 자결하였다. 건국공로훈장 국민장이 수여되었다.

④ **을사조약(乙巳條約) 오적(五賊)** : 을사조약을 찬성한 다섯 명의 대신인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을 을사오적이라고 함.

三綱閭柱聯詩

삼 강 려 주 련 시

군신(君臣)의 두터운 의(義)는 춘추(春秋)에서 밝혔거니
부자(父子)의 은혜는 천지(天地)와 함께 길이 있으리
동시에 굳은 절개 천고(千古)에 빛나거니
이 세상 삼강오륜(三綱五倫)이 한 집안에 다 모였네

跋
발

기강(紀綱)[1]은 사람에 있어서의 두뇌다.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의 의(義)는 천지의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바 없으며 천지가 없고 천지가 있고 간에 하루도 폐(廢)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 명백하다. 이 이치가 밝지 아니하면 나라가 나라로 될 수 없고, 집안이 집안으로 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으로 될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지금은 시대도 다르고 세상도 변하여 삼강오륜(三綱五倫)이 무너지고 허물어져 사람의 무리는 금수(禽獸)로 화(化)하니 신하는 그 임금을 알지 못하고, 자식은 그 아비를 알지 못하고, 지어미는 그 지아비를 알지 못하게 되어 모두가 삼강오륜에 죄를 얻는 것이라. 어찌 두렵지 아니하랴!

아아, 이러한 때를 당하여 능히 이 길을 밝히고 삼강오륜을 바로 심어 세울 자는 천하에 무릇 몇 사람이더냐!

고려 말의 평리(評理) 변선생(卞先生)은 행실이 두텁고 뜻이 굳세어 권세나 부귀에 굴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나의 임금을 알고 남의 임금을 몰랐다. 고려의 사직이 기울어짐에 이르러 벼슬을 버리고 폐양자(蔽陽子)[2]를 쓰고 두문동(杜門洞)에 숨어 스스로 지조를 지키니 그 곧은 충성과 높은 절의(節義)는 여러 가지 역사의 문서를 상고(詳考)하여도 또한 그 짝이 드물다.

十世孫에 이르러 연수(延壽)는 임진왜란을 당하매 의병을 일으켜 칼과 화살 아래에서 절의에 죽었고 그 아들 입(岦)은 또한 아버지를 위하여 죽었으며 그 며느리 김씨(金氏)도 지아비를 따라 죽으니 한 집에 충·효·열(忠 孝 烈)의 삼절(三節)이라 또한 이는 公의 집안이 代代로 전하고 물러 받은 마음의 법으로 신하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의 며느리로서의 도리에 부끄러움이 없고 百世를 내려가도 미혹함이 없음이라 성대(盛大)하지 아니한가!

그 사실과 내력은 연재(淵齋), 면암(勉庵) 두 선생이 갖추어 기술하였고 공경(公卿)과 유생(儒生)들이 자상하게 기록하기를 다하였으니 어찌 썩어 빠진 너저분한 말에 기대리랴!

내 비록 글이 신통한 바 아니나 성품(性品)은 떳떳한 사람이라 공의 실적(實蹟)을 보고는 문득 스스로 옛을 생각하고 이제를 상심(傷心)하는 슬픔을 깨닫고 대략 몇 줄의 글을 덧붙이니 앞으로 천하에 임금도 모르고, 아비도 모르고, 지아비도 모르는 사람들아, 변씨문중(卞氏門中)에 죄인이 되지 말지어다.

계해(癸亥 1923) 복월 하순

덕 은 송 철 헌(宋哲憲) 삼가 지음

역주(譯註)

① **기강(紀綱)** : 나라를 다스리는 법

② **폐양자(蔽陽子)** : 패랭이. 해를 가리기 위하여 쓰는 폐립(蔽笠)

附　記

부　기

27世 龜 淵
세 구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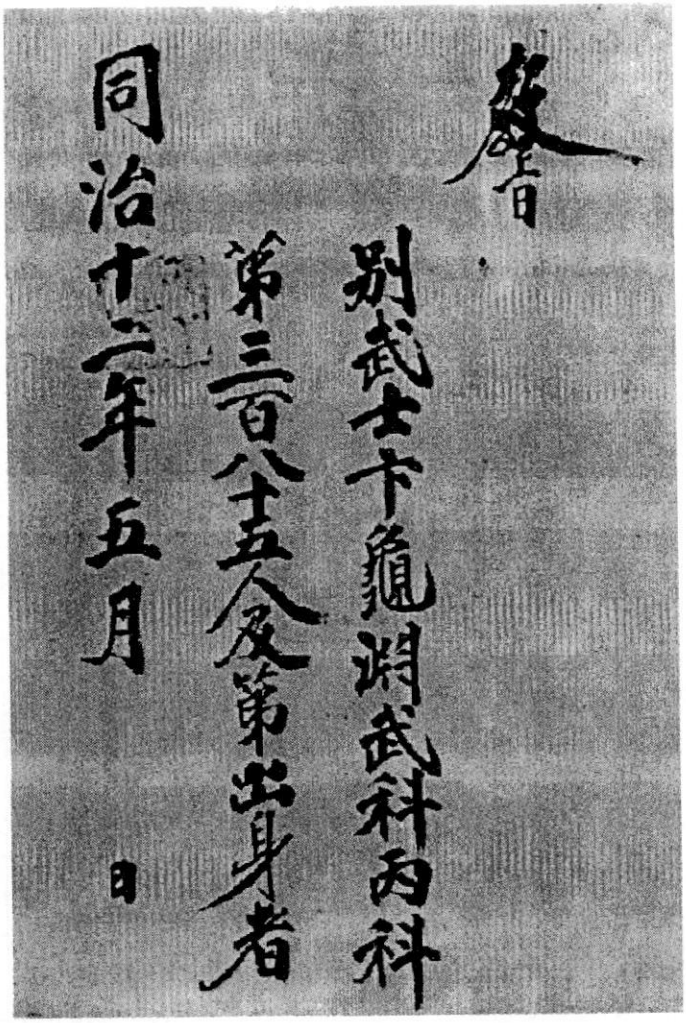
초계변씨 27세손으로 조선 순조 33년(1833) 3월 17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암리(옛 진주군 양전면)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문서이다.

임진왜란 선무공신 증 병조판서 변연수의 9세손으로 무예와 활쏘기에 능하여 고종 10년(1873) 무과에 급제하여 무과사과에 등과하였다.

양전 향리에서 등과의 효시로서 13세 연하의 종제인 응수의 등과 입신을 위한 격려와 양전변문의 충절정신을 계승 선양하는데 기반을 이루었다.

고종 14년(1877) 6월 19일 애석하게도 종제 응수의 문과 급제 3년 전에 등과를 보지 못하고 향년 44로 별세하였다.

참고문헌으로 교지, 초계밀양변씨 족보, 이조참판공파선적지 등이다.



교 지

별무사 변구연 무과병과급제

27世 應洙
세 응 수

초계변씨 27세손으로 조선 헌종(憲宗) 12년(1846) 1월 15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鎭田面 日岩里 (옛 晋州郡 良田面)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여계(汝溪), 호는 지재(志齋)이다. 이 호는 지조(志操)가 고상하고 청렴하다 하여 당시의 영의정 심순택(沈舜澤)이 지어 준 것이다.

9세 때 소학(小學)에 능통하였고 14세에 경서(經書)와 사기(史記)에 통달하였으며 학문은 안회(顔回)와 이윤(伊尹)의 뜻을 따랐고 대유(大儒)인 정호(程顥)와 성리학(性理學)을 이룬 주자(朱子)를 표본 삼아 학문에 힘썼다.

고종(高宗) 17년(1880) 증광시 문과(增廣試 文科) 7위로 급제하였다. 이는 향리에서 종형(從兄)인 구연(龜淵)이 무과사과(武科司果)에 등과하고 4년만에 작고한 3년 후 문중에서 두 번째의 등과이다.

고종(高宗) 18년(1881)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를 시작으로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이조정랑(吏曹正郎), 황산찰방(黃山察訪), 금교찰방(金郊察訪),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병조좌랑(兵曹佐郎),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등 현직(顯職)을 두루 역임하였다.

고종(高宗) 29년(1892) 유림(儒林)의 정기석(鄭杞錫), 하상호(河尙鎬) 등과 함께 선대(先代)인 임진왜란 선무공신(宣武功臣) 변연수(卞延壽)와 아들 변입(卞岦)과 자부(子婦) 안동김씨(安東金氏)의 일가 충효열(忠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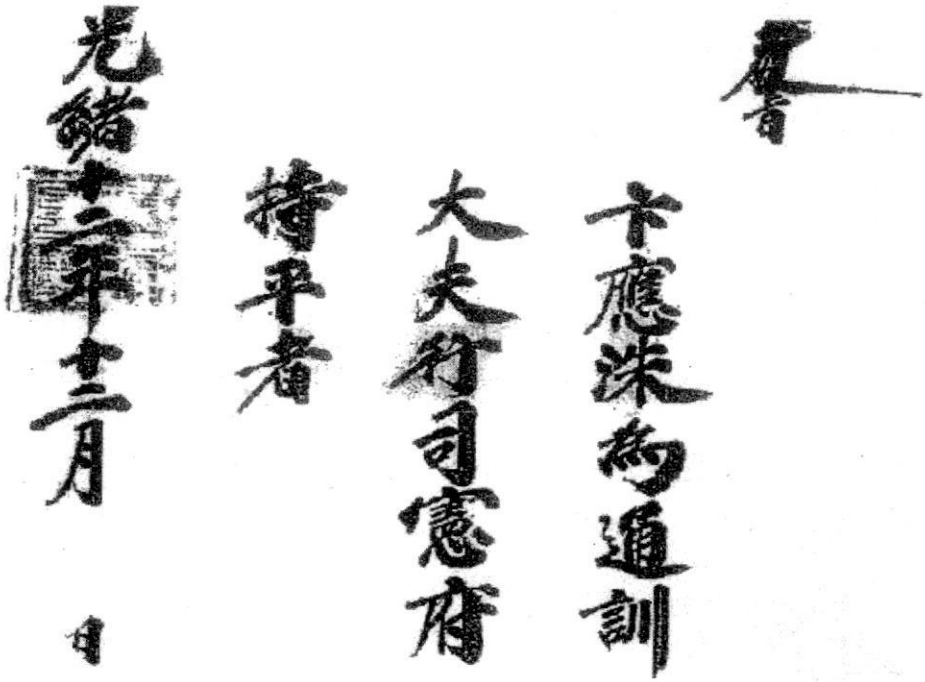
烈) 삼절(三節)의 정표(旌表)를 상소하여 고종(高宗) 31년(1894)에 조정으로부터 명정(銘旌)의 은전을 입어 삼강려(三綱閭)를 세우게 되었다.

조정에서 물러난 후에는 향리로 돌아와서 삼강려(三綱閭)와 성구사(誠久祠)와 서원(書院)을 창건하였다. 그리하여 양전변문(良田卞門)의 명문가 위상을 드높이고 선조의 삼절정신(三節精神) 계승과 위적선양(偉蹟宣揚)과 후학지도에 정성을 쏟았다.

국운이 날로 기울자 나라에 대한 근심을 풀지 못하고 1905년에는 조정에 글을 올려 일진회(一進會)의 매국(賣國)을 공박하기도 하였다.

1921년(辛酉) 10월 22일 향년 76세로 별세하였다.

문헌(文獻)으로는 교지(敎旨), 초계 · 밀양변씨족보(草溪密陽卞氏族譜), 이조참판공파선적지(吏曹參判公派先蹟誌), 지재문집(志齋文集)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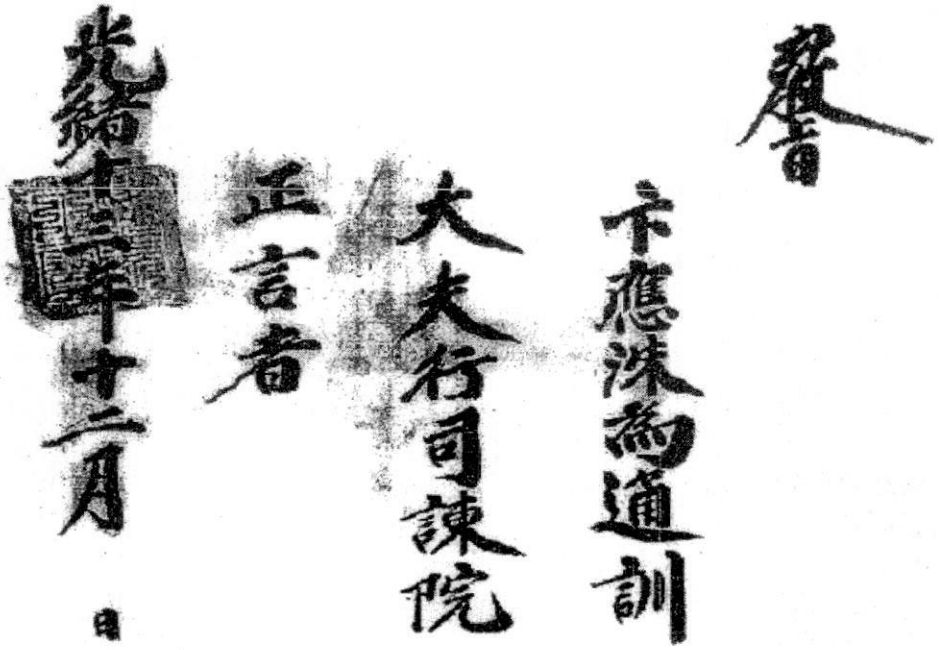
교 지

변응수 위 통훈대부 행 사헌부지평



교 지

변응수 위 통훈대부 행 이조정랑



교 지

변응수 위 통훈대부 행 사간원정언

三綱閭 重修記

삼 강 려 중 수 기

두류산(頭流山, 지리산) 일록(一麓)이 완연동행(蜿蜒東行)하여 금라(金羅, 함안)에 이르러 절벽으로 우뚝 솟아 여항산(艅航山)이 되었으니 이는 주(州)의 진산(鎭山)으로 다시 남쪽으로 뻗은 한줄기 아래에 동산(東山, 양촌)이란 천석(泉石)이 맑고 수림(樹林)이 울창(鬱蒼)한 마을이 있다. 그 어귀에 빛나는 홍살문(紅箭門)이 있으니 바로 양전(良田) 초계변문(草溪卞門)의 忠·孝·烈(충 효 열) 삼강려(三綱閭)이다. 한 고을에서 단 한 명의 충신, 효자 또는 열녀가 배출되기 어려운 법인데 하물며 일가(一家)에서 충·효·열이 나오기는 고금(古今)에 드문 일이다.

증 병조판서(贈 兵曹判書) 변연수(卞延壽) 장군은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모아 훈련시켜 충무공(忠武公) 휘하로 들어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리고 정유재란 때 그의 아들 증 좌승지(贈 左承旨) 변립(卞岦)은 부명(父命)에 따라 당항포(唐項浦) 해전에 참전했다가 아버지와 함께 장렬히 순절(殉節)하였다. 변립(卞岦)의 처 안동김씨(安東金氏)는 이 소식을 듣고 또한 단식(斷食)으로 순절(殉節)하였다.

이들의 忠·孝·烈 삼강(三綱)을 기리기 위해 고종 30년(1893) 조정에서 정려(旌閭)의 은전(恩典)을 내렸다. 사실과 전말은 연재 송병준(淵

齋 宋秉埈)이 찬(撰)한 신도비명에 실려 있으므로 중복을 피한다.

또한 기미년(1919년) 4·3삼진독립운동(三鎭獨立運動)이 후손들을 주축으로 맞은편 적석산하(積石山下) 성구사(誠久祠)를 산실로 태동되었으니 양전(良田) 초계변문(草溪卞門)의 애국 충절은 우리나라 구국운동사상(救國運動史上) 귀감이자 후손들의 맥박 속에서 힘차게 고동치며 원면(遠綿)히 빛날 것이다. 길손들과 후학(後學)들은 성구사(誠久祠)를 방문하여 이 분들의 의적(懿蹟)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정려(旌閭)의 은전을 받은 지 어언 100여 년 오랜 풍상에 건물이 훼폐(毁弊)하여 중건(重建)이 불가피하여 문중(門中)에서 숙의(熟議) 끝에 여각(閭閣)을 다시 중수하기로 결의하고 무자년(戊子年) 12月 22日에 상량(上樑)하게 되었다.

끝으로 여각(閭閣)을 중수하기가 창건하기 보다 쉽지 않는지라 시종역사(役事)를 위해 애쓴 이는 초계변씨 31세손 규석(奎錫)이다.

戊子年(2008) 12月 22日

외람되게 安東後人 권 오 윤(權五潤) 삼가 記하다

三鎭義擧史

삼 진 의 거 사

제 982호

도문화재지정서

지정번호　제 244호

명　　칭　4 · 3. 三鎭義擧 發祥地 誠久祠 一圓

수　　량　902m²

위 문화재를 경상남도 문화재(기념물)로 지정함.

2002년 12월 27일

경 상 남 도 지 사

三鎭義擧 槪要
삼 진 의 거　개 요

삼진의거는 1919년 선진적(先進的) 애국사상(愛國思想)을 가진 주동 인물들이 진전(鎭田), 진북(鎭北), 진동(鎭東) 등 3개면 연해(沿海) 농민들을 반일(反日) 기치 하에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규합(糾合), 동원하여 완강히 저항의지(抵抗意志)를 발휘케 한 항일연합 대의거(抗日聯合大義擧)이다.

또 삼진의거는 기미년(己未年)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에 있어 농어촌 지역의 연합시위로는 대표적 독립운동 중 하나이다.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이 인근지역민과 연계를 통해 계획적, 연속적으로 전개한 민중적 민족운동(民族運動)으로 경기도 우정면의거, 안성군 원곡면 양성면의거, 천안 아우내장터의거, 합천의거, 평북 정주의거, 의주 주상면의거, 평안도 선천읍의거, 황해도 수안의거 등과 함께 3.1운동사상 대표적 시위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만세항쟁(萬歲抗爭)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구나 3월 28일 고현시장의거(古縣市場義擧) 때,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도 굴(屈)하지 않고 다시 주도 면밀한 계획 하에 4월 3일 더욱 더 대규모로 2차 삼진의거를 일으켜 청사(靑史)에 빛나는 불멸(不滅)의 항쟁사(抗爭史)를 남겼다.

1차 삼진의거(고현시장의거)

의거 준비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 결사단체인 대동청년회(大同靑年會, 조선국권회복단일 가능성이 큼)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변상태(卞相泰)는 기미년 2월 말 상경하여 3.1만세운동에 참가하고, 3월 5일 독립만세 시위를 확산시키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향인 이 곳 진전으로 내려와서 권영대, 권영조, 권태용, 변상섭, 변상헌, 백승학 등 삼진면에 속해 있는 동지들과 함께 만세의거 준비에 구체적으로 착수한다. 이들은 거사일을 고현 장날인 3월 28일로 잡고 거사장소를 고현시장으로 정하였다.

당시 전국적인 시위 흐름과 마찬가지로 변상태 등이 중심이 되어 있던 의거는 비폭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평화적인 시위를 준비하였다. 준비는 주로 이 곳 성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준비하던 사람은 백승학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제작하고 판각기술이 뛰어났던 권태선이 중심이 되어 격문으로 사용할 목판제작에 나섰다.

격문내용은 '曰我同胞有進無退' 즉 '가로되 우리동포는 나아감은 있으되 물러섬은 없다'였다. 그리고 독립선언서 1,000여 매를 준비하고 각 면을 돌아다니면서 고현시장에서의 만세시위를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였다.

1차 고현시장의거

드디어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된 3월 28일이 되어 시위 주동자들은 고현시장으로 갔다. 장날인 이 날 중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던 오후 1시가 되자 많은 장꾼들과 거사에 동원된 인원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백승학이 먼저 시장 중앙에 설치된 단상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써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이 날 낭독된 독립선언서는 3월 1일 서울에서 낭독된 것과 같은 것으로 변상태가 서울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뒤이어 등단한 권영대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되었다.

점차 군중도 이에 호응 만세의 함성이 온 장터에 울려 퍼졌다. 이때 시장 이곳저곳 장꾼 속에 섞여 있던 주동자들은 만세를 외치며 선언서와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나눠 주고 하여 삽시간에 온 시장은 태극기와 격문이 춤추고 만세소리로 장터가 떠나갈 듯하였다. 600여 군중은 행렬을 지어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장을 몇 바퀴 돌면서 기세를 올린 다음에 진동으로 향하였다.

진동에는 일인(日人)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일본 헌병주재소가 위치해 있었으므로, 일제에 항거하기 위한 장소로 적합하였다. 시위대열이 진동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일본측에서도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갖춘 상태였다. 일본 헌병주재소에서는 급보를 띄워 마산 일본군 중포병대대의 병력과 진해요항부(鎭海要港部) 소속 경비대원의 병력을 지원받아 시위진압에 나서게 되었다.

일본측은 비무장 평화시위대에 대하여 총검으로 위협하며 난타하는

등 잔혹한 방법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맨주먹 시위군중이 야수처럼 덤비는 그들에게 대적할 수 없었다. 통분을 삼키고 시위대는 물러나 해산하였다. 일본헌병은 해산하는 군중 속에서 주모자 11명을 검거 체포하여 연행하였다. 이때가 오후 5시경이었다.

변상태, 권영대, 권태용 등은 그들의 추적을 뿌리치고 후일을 도모하며 종적을 감추었다. 체포된 11명은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며 권영조는 그들의 잔혹한 고문으로 손가락이 잘리는 참형을 당했고,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옥고를 치루거나 혹은 태형을 받았다.

그 판결내용과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권영조(權寧祚)** 징역 1년 마산감옥 (당시 36세)
· **권오규(權五圭)** 징역 6월 〃 (당시 20세)
· **권태선(權泰璿)** 징역 6월 〃 (당시 34세)
· **백승학(白承鶴)** 징역 1년 〃 (당시 20세)
· **백운태(白雲台)** 징역 1년 〃
· **노수환(盧秀煥)** 징역 6월 〃
· **박순조(朴淳祚)** (형량미상) 1년 집행유예
· **이교영(李敎暎)** 태형90대 헌 병 대
· **권오성(權五成)** 태형90대 〃
· **김종호(金鍾灝)** 태형90대 〃
· **이봉우(李鳳友)** 미결 3개월 구류 후 나이가 어려 면소 방면됨

2차 삼진의거(4 · 3삼진의거)

준 비

3월 28일 고현시장 의거에서 재기를 약속하고 종적을 감추었던 변상태, 권영대, 권태용, 변상헌 등은 또다시 거사를 계획하였다. 그들은 거사일자를 4월 3일(이 날은 음력 3월 삼짇날)로 정하고 비밀리에 핵심 주동인물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많은 군중을 동원하기 위하여 모든 연락망을 철저히 점검하고 조직적인 준비를 진행하였다.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 등 대규모 단체의 조직원이었던 변상태의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김수동을 중심으로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삼진의거 이전에 일제의 수탈에 의한 반일감정의 표출로 인한 충돌이 이미 있었고 김수동을 위시한 일련의 인사들이 일제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미 삼진지역에서 일고 있던 반일저항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운동을 변상태는 전국적인 삼일만세운동과 삼진지역의 반일감정을 접목시켜 2차 삼진의거는 더욱더 대규모로 발전할 수 있었다.

변상태는 고현시장의거의 주동자인 권영대, 권태용, 변상헌과 김수동을 위시한 변상섭, 황태익, 김영종, 구수서, 변상술, 변우범, 변종열, 변상복 등 지역유지인 이들과 4월 1일 성구사(誠久祠)에서 의거준비를 위한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의 참석자 면면을 살펴보면, 4 · 3의거에서 순국하거나 중심역할을 한 인사들이 상당수 집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거를 준비한 성구사는 경내에 사당이 위치해 있고 매년 제향(祭享)이 올려지던 재실(齋室)이었던 만큼 일본경찰로서도 함부로 다

를 수 없는 장소였고, 또한 이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의거를 준비하기 위한 장소로서는 적격이었다.

4월 1일 주동자들은 각자 자기가 속한 이, 동, 면(里洞面)에서 태극기와 격문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동원 군중에게 미리 배포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4월 3일 의거는 독립만세 시위뿐만 아니라 고현시장에서의 시위 때 체포당한 인사들을 구출하기 위한 목표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고현시장의거가 미흡하다고 보고 대규모로 군중을 동원하기 위해 창호지(한지)에 통지서를 제작하여 각 지역과 문중으로 돌렸다. 내용은, '독립 제2회의 건'으로 대략 6, 7개의 조항이 담겨 있었는데, 여기서 '제2회의 건'이란 고현의거를 제1회로 간주한 표현이었다. 그 속에는 '4월 3일 아침 양촌리 앞에 집결할 것' '독립운동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가옥을 파괴할 것' '점심을 싸가지고 올 것' '태극기를 가지고 한 집에 한 사람 이상 나올 것' 등이었다.

4월 2일 정오경. 진전면 양촌리 토지 개간장에는 약 100여 명의 농민들이 개간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변상태는 농민들에게,

"민족독립의 횃불을 들 때가 왔다. 우리가 독립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개, 돼지의 처지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씻지 못할 후환(後患)을 끼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항일독립전선을 펴고 궐기할 때이다"라고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열변을 토로(吐露)하니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치게 하는 통한과 울분을 금치 못하게 하고 독립시위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다.

권태용은 이 날 김영진을 찾아가 의거 때 동원될 민중의 뒷바라지와

태극기를 많이 만들어 미리 이것을 나누어 주도록 당부하고, 애국인사의 대거 참가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한편, 변상헌, 황치순, 변상섭, 변상술도 그 날 아침 진전면 봉암리 구장 구수서를 찾아가 내일의 거사에 많은 참가를 부탁하였다. 이렇게 하여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나고 거사(擧事)의 날이 밝았다.

4 · 3의거

4 · 3의거가 일어난 4월 3일은 삼짇날(음력 3월 3일)이었다. 당일 오전, 진전면 양촌리 일암부락 앞에 있는 시냇가에 사람들이 운집하기 시작하였다. 오전 9시가 되자 대형태극기가 나부끼고 드디어 의거가 시작되었다. 오전 9시에 시위대열을 형성한 사람의 수가 이미 2천여 명이 넘는 대군중이 되어 있었다.

변상섭이 대형태극기 밑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변상태의 선창에 따라 참여자들이 만세를 부름으로써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윽고 시위군중은 김수동을 위시한 주동인물들이 앞장서서 질서 정연하게 대열을 지어 일본 헌병주재소가 있는 진동을 향해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임곡삼거리에 이르자 월안리, 곡안리, 오서리, 도산리, 임곡리, 근곡리, 암하 등에서 집단적으로 참여한 부락민과 또 연도(沿道)에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여 시위군중이 진북 지산교에 이를 무렵에는 이미 7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시위대열이 황교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2시경이었다.

그 곳에서 진동까지는 불과 5리(2km), 주동자들은 대열을 정비하고

만세와 함성을 지르며 단숨에 진동으로 쇄도할 채비를 차렸다. 선두에는 대형태극기를 잡은 김수동이 앞장서고 힘센 장정들이 좌우에서 옹위하여 지산교 입구에 이르렀다.

한편, 이러한 정보에 혼비백산한 진동 일본군 헌병주재소는 급히 마산주재 중포병대대에 병력지원을 요청하고 우선 헌병보조원과 일본인 재향군인 등 30여 명을 급히 모아 손에 총검과 일본도(日本刀)로 무장하고 황급히 출동하여 사동리 다리에서 저지태세를 갖추었다. 이 곳과 진동 중심가의 거리는 1km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일본군 경으로서는 이 황교가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볼 수 있었다.

시위대열의 선두가 황교에 도착할 무렵에 황교 건너편에 일본측의 저지선에는 일본헌병 및 헌병보조원 8명과 현지의 일본 재향군인 30여 명이 포진하고 있었다. 시위대는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고 일본측은 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위대가 일본헌병에게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시위대열의 선두에 서있던 인사들은 독립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른 한편 진북 부평 지역에서 약 20리를 내려오며 의거군중을 규합하여 진동으로 온 백승학 지휘하의 진북 군중은 삼월 삼짇날의 놀이를 가장하여 무사히 진동으로 들어왔고, 진동 의거민과 합세하여 은밀히 진동성터 뒤로 집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정오 경에 진동 쪽의 백승학은 예정대로 대중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선창하니 대중도 이에 따라 대한독립만세를 연달아 외치고 또 외치니 군중의 사기는 충천하고 함성은 진동고을을 뒤흔들었다. 백승학은 선두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시위대를 지휘하여 시가행진을 전개하였다. 행렬은 남문을 지나 진동장터를 한 바퀴 돌고 사동리로 가

려다 진전에서 오는 의거 군중과 합류하기 위하여 향교 동쪽에 머물면서 만세와 함성으로 시위를 계속하였다. 헌병주재소 헌병들이 전원 진전면 시위군중 진압으로 출동한 뒤라 이 곳의 시위는 아무런 저지가 없었다.

한편, 지산교를 지나 사동교(일명 봉교)에 도착한 진전, 진북 시위군중 7,000여 명은 다리 건너편에 진을 치고 대기 중인 일본헌병과 대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무장한 일본군과 맨주먹뿐인 백의(白衣)의 시위군중간에 피비린내나는 혈전(血戰)이 벌어지고 말았다.

다리 건너편에서 총을 들고 길을 막아 선 일본군을 본 선두의 김수동은 열화같이 치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태극대기(太極大旗)를 휘두르며 군중을 독려했으나 무장한 일본군을 뚫고 나가기가 어렵다고 본 군중들은 일단 주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수동은 혈로(血路)를 뚫어 밀고 나갈 것을 굳게 결심하고 돌진할 자세를 취하니 피아(彼我)의 시선이 모두 김수동에게 집중됐다. 김수동은 성난 사자처럼 다리 위를 질주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헌병이 앞을 가로막자 김수동은 "너희가 우리나라를 빼앗고 우리국민의 정혈(精血)을 빨아 먹으니 불공대천지수(不共戴天之讐)다"라고 외치면서 한 손으로 태극대기를 잡고, 또 한 손으로 일병(日兵)의 목덜미를 잡아 다리 아래로 던졌다.

총을 잡은 채 다리 아래로 처박힌 일본헌병은 몸을 일으킴과 동시에 김수동을 향해 총을 발사하니 김수동은 태극기를 잡은 채 가슴에 붉은 선혈을 뿜어 백의를 붉게 물들이며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김수동이 쓰러지자 김수동을 뒤따르던 변갑섭은 쓰러진 김수동의 손에서 태극대기 장대를 집어 들었다. 그도 이미 生과 死는 안중에도 없

었다. 왜적에 대한 불같은 증오심으로 적의 무리를 향해 맹호처럼 돌진하여 일본헌병 오장인 천상청태랑(川上淸太郞)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 기세에 놀란 그는 장도(長刀)를 휘둘러 태극대기를 잡은 변갑섭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쳤다. 그의 팔이 잡았던 태극대기와 함께 땅에 떨어졌다. 그래도 그는 왼손으로 떨어진 태극대기를 주워 들고 앞을 막는 일본헌병에게 대들었다. 일본헌병은 잔혹하게도 다시 장도를 휘둘러 그의 왼팔마저 내리치니 분수처럼 피를 뿜으며 두 팔을 잘린 변갑섭은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장렬(壯烈)하고 처절을 극한 죽음이었다.

시위대열의 선두에 있던 이 두 사람이 쓰러진 다음에 시위대와 일본측 사이에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었다. 분노한 시위군중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다. 닥치는 대로 주변의 돌을 주워 투석전으로 맞섰으나 이미 광폭한 야수로 변한 일본헌병들의 총구 앞에 무엇으로 대적하랴! 이때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왜놈들의 주구(走狗)인 헌병보조원들이었다. 이들은 앞장서서 동족의 가슴에 총탄을 퍼부었다. 주동자 김영환은 총탄에 쓰러지면서 "나를 죽인 놈은 심의진이다. 이 원수를 꼭 갚아 달라"하며 숨을 거두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유언(遺言)인가!

오후 3시경. 왜경의 야만적인 무차별 총탄세례에 시위군중은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의거군중이 흩어진 자리에는 선혈에 물든 의사(義士)들의 시신과 신음하는 부상자들로 처참한 광경만이 남아 있었다. 이때 마산에서 일본군 야포대대의 지원병력이 급파되어 왔다. 만일 그들의 도착이 조금이라도 빨랐다면 우리 동포의 희생은 훨씬 많았을 것이다. 헌병들은 지원병력과 합세하여 미쳐 그 곳을 떠나지 못한 군중을 닥치는 대로 검거 난타(亂打)하여 다시 한 번 아비규환의 수라장을 만들었다. 이때 그들의 흉탄에 쓰러져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순사자(殉死

者)가 여덟 분이고 부상자도 지금까지 알려진 분이 22명이다.

한편, 백승학이 이끌던 진동 시위대는 양촌리에서 출발한 시위대와 합류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면(面) 경계에 있던 황교에서 대규모 유혈충돌이 일어남으로써 두 시위대는 합류하지 못하고 진동 쪽의 시위대도 해산하고 말았다.

당시 황교 충돌현장에서 쓰러진 희생자들은 시위대가 해산 당한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었다. 왜병들은 부상자 구호보다는 시위대를 추격하여 체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방치되어 있던 순국자들의 시신은 어스름이 내린 후에야 친지들과 지인들이 달구지 등을 갖고 와서 수습한 다음에 양촌초등학교 뒷산에 임시로 매장하였으며, 2~3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장례를 치루었다.

순국한 8분들의 인적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김수동(金守東)** 1877. 8. 26.생 (당시 42세)
주소 : 진전면 동산리

· **변갑섭(卞甲燮)** 생년월일 미상 (당시 24세, 변재유 씨 증언)
주소 : 진전면 양촌리 384

· **변상복(卞相福)** 생년월일 미상 (당시 미혼)
주소 : 진전면 일암리

· **김영환(金永煥)** 생년월일 미상 (당시 미혼)
주소 : 진전면 동산리

· **고묘주(高昴住)** 생년월일 미상 (당시 미혼)
주소 : 진전면 일암리

· 이기봉(李基鳳) 생년월일 미상 (당시 미혼)

주소 : 진전면 봉곡리

· 김호현(金浩鉉)(혹은 洪錄) 생년월일 미상 (당시 미혼, 26세)

주소 : 진전면 곡안리

· 홍두익(洪斗益) 생년월일 미상 (당시 17~18로 추정)

주소 : 진전면 오서리

부상(負傷)당한 22분

변 현(卞 炫) · 박종숙(朴鍾淑) · 고재록(高在彔) · 고운석(高云錫)
황성봉(黃性鳳) · 김동이(金銅伊) · 변상준(卞相俊) · 김대업(金大業)
권태문(權泰文) · 권영달(權寧達) · 이몽재(李夢宰) · 권영민(權寧民)
박금용(朴錦用) · 조용옥(趙鏞玉) · 문재수(文再壽) · 변용섭(卞龍燮)
손삼용(孫三龍) · 구말서(具末書) · 홍성오(洪性五) · 박용한(朴龍漢)
김봉조(金鳳祚) · 변정섭(卞貞燮)

이 부상자 명단 가운데 포함된 22명은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서 경상(輕傷)까지 포함한다면 4월 3일에 다친 사람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후환이 두려워 부상을 입고도 숨기거나 이주한 사람이 부지기수였고, 어린아이도 5명이 그 자리에서 피살되었다고 한다.

(한국독립운동사 · 1956년 洪水道 편집에서)

경상자들은 집에서 스스로 치료하였고, 중상자들은 일본측이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마산 삼성병원(三省病院)과 진주 배돈병

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삼진의거 후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기록상으로는 변상태(卞相泰) 외 9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중 주모자인 변상태, 권영대, 권태용, 황익태 등은 요행히 일제의 추적을 뿌리치고 몸을 피하여 당시 실제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변상섭, 변상술, 구수서, 변상헌, 김영종, 변우범 등 6명이다.

4·3의거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확정판결은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1920년 10월 30일 서울 복심법원 형사부에 의하여 내려졌다. 체포되지 않고 궐석재판을 받은 변상태 등 4명은 징역 2년, 변상섭, 변상술, 구수서, 변상헌, 김영종, 변우범은 징역 1년을 언도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태익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확정판결을 받은 분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변상태(卞相泰)** 당시 30세,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 **권영대(權寧大)** 당시 34세, 창원군 진전면 오서리
- **권태용(權泰容)** 당시 34세, 창원군 진전면 오서리
- **변상섭(卞相燮)** 당시 39세, 창원군 진전면 일암리
- **변상술(卞相述)** 당시 22세,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 **구수서(具守書)** 당시 26세, 창원군 진전면 봉암리
- **변상헌(卞相憲)** 당시 23세,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 **김영종(金永鍾)** 당시 30세, 창원군 진전면 근곡리
- **변우범(卞又範)** 당시 22세, 창원군 진전면 일암리
- **황태익(黃泰益)** 당시 43세, 창원군 진전면 일암리

삼진의거가 일어난 지 약 2여 년이 경과한 후 권태용, 권영대도 체포되고 변상태도 1922년 7월에 체포되어 49일 동안 잔혹한 고문을 받은 다음, 미결수 신분으로 6개월, 서대문 감옥에서 6개월, 함흥감옥에서 2년 등 도합 3년의 수감생활을 하였다.

성구사(誠久祠)는 고려말 충신 변빈(卞贇) 선생과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변연수(卞延壽), 변립(卞岦) 부자(父子)를 모신 사당이 있어 유적(遺蹟)의 역사성(歷史性)도 있고, 1, 2차 삼진의거에서 변상태를 비롯한 주모자들이 성구사 경내에서 거사(擧事)를 모의하고 태극기와 태극대기, 독립선언서, 지침서 등을 제작하였으며 격문을 판각하여 찍어 내는 등 제반준비가 이 곳 성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삼진의거의 발원지(發源地)라는 데 큰 의의(意義)를 부여할 수 있다.

삼진의거는 이와 같은 치밀한 계획과 삼개 면(面)을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미년 독립만세운동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28世 相泰
세 상 태

초계변씨 28세손으로 양전문중(良田門中) 출신(1889~1963).
삼진의거 주역으로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이자 한학자(漢學者)로 호는 석당(石塘)이다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정명교(鄭明敎), 황병기(黃炳基) 문재룡(文再龍) 등과 의병운동을 전개하였고, 1910년 부산상업학교 3학년 재학 중에 한일합방이 되자 최기택(崔基澤), 성학년(成學年) 등 동지 6인과 더불어 대붕회(大鵬會)를 조직하고 졸업을 앞두고 자퇴하여 독립운동의 길로 뛰어 들었다.

1915년 7월 부산 대신동에서 일본인이 한국 어린이에게 욕을 보인 사건이 발생하자 동지인 윤봉래(尹鳳來)와 상의하여 부산의 부두노동자 200여 명을 동원하여 그 일인(日人) 가옥을 습격하여 파괴했다.

1917년 항일투쟁 결사단체인 대동청년회(大同靑年會)에 가맹(加盟)하여 모험부장(冒險部長)에 피선되었고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에 가맹하였다.

1919년 3·1만세운동 때는 서울에서 참가한 후, 서부경남 일원의 의거 지도를 맡아 귀향하여 3월 20일 함안 군북의거, 3월 28일 진동 고

현의거, 4월 3일 삼진의거를 주동하였다가 체포되어 2년간 복역했다.

1921년 의령(宜寧)에서 불심검문(不審檢問)하는 순사를 살해하고, 일본 천황(天皇) 및 일본정부 고관(高官)을 암살하기 위해 도일(渡日)하다가 체포되어 다시 3년간 복역했다.

출옥 후 1944년 진주에서 이주현(李周賢), 구여순(具汝淳) 등 11인의 동지와 고려구국동맹회(高麗救國同盟會)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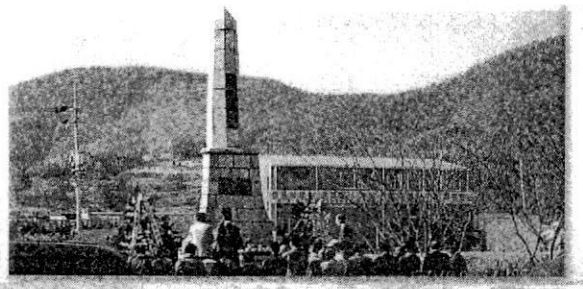
1983년 석당 선생 기적비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양촌리 팔의사 묘역 앞에 석당기적비(石塘紀蹟碑)와 묘비(墓碑)를 건립하였다.

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1990년 건국훈장(建國勳章) 애족(愛族章)이 추서(追敍)되었다

4.3삼진의거발생지
사적지정계획서에서
(일부 발췌)

4.3 삼진의거 발생지 사적 지정 계획

2002년 2월





마 산 시

제 출 문

마산시장 귀하

이 보고서를 마산시가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에 의뢰한 「**4·3 삼진의거 발생지 사적 지정계획**」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2년 2월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원 장 김 정 부

연 구 진

이 과업에 참여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책임

이 종 흡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공동 연구

요 장 근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김 붕 렬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조 호 연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이 상 길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연구 보조

김 상 민	경남대학교 기록물관리위원회 연구원
채 경 미	경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이 지 은	경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이 은 영	경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정 민 규	경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목 차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 목적과 목표 4

3. 연구 방법 7

1) 기록학과 역사학의 결합 7

2) 비교연구 9

3) 사적 지정 방안과 관련된 방법 10

4. 연구추진과정 12

1) 연구 내용과 연구 담당자 및 집필자 12

2) 자문회의와 중간발표 회의 13

5. 자료 평석 15

1) 2차 자료에서 해석된 내용들 15

2) 삼진사건에 대한 당시의 신문 보도와 재판 기록 32

3) 해방 이후 추모비 및 묘역 관련 자료 43

4) 1990년대의 관민 합동 삼진의거 재현 행사 57

5) 삼진사건 관련자의 구술 자료 60

6. '삼진의거'의 사실적 재구성 70

1) 배경과 원인 70

2) 의거의 준비 72

3) 고현시장 의거 74

4) 4·3 삼진의거 준비 77

5) 4·3 의거 84

6) 의거와 관련된 재판 92

7. 비교연구 96

1) 3·1운동의 발발 96

2) 3·1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민중의 역할 99

3) 일제의 탄압과 민중의 항쟁 108

4) 전국 각지의 대표적 만세운동 116

5) 마산 삼진의거의 경과 126

6) 마산 삼진의거의 민족운동사적 의의 133

8. 사적 지정과 '삼진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방안 141

1) 사적 지정 사례 비교 연구 141

2) 사적 지정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 145

3) '삼진의거' 관련 유적의 사적 지정심사 신청을 위한 전략 152

4) '삼진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방안 157

9. 연구성과 요약 161

1) 수집된 자료 및 자료에 대한 평석 161

2) 삼진의거의 사실적 재구성 163

3) 비교 연구 165

4) 사적 지정과 '삼진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방안 169

참고자료

표목차

〈표 1〉 3·1운동의 도별 시위 발생 횟수의 통계 102
〈표 2〉 도별 운동상황 106
〈표 3〉 도별 경찰관서 및 직원수 110
〈표 4〉 도별 헌병대 및 헌병 인원 110
〈표 5〉 일제 관헌의 도별 피해상황 112
〈표 6〉 도별 피해 상황 115
〈표 7〉 3·1운동시 중요 만세시위비교 139
〈표 8〉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 위원 및 전문위원 전공별 분포 146
〈표 9〉 문화재위원회 사적심의 절차 및 내용 147
〈표10〉 사적 지정단계 및 단계별 사업내용 157

그림목차

〈그림 1〉 고현시장의거 대열 진행도 75
〈그림 2〉 4·3 삼진의거 대열 진행도 83
〈그림 3〉 4·3삼진의거 충돌현장 상세도 90

6. '삼진의거'의 사실적 재구성

1) 배경과 원인

"삼진의거"란 1919년에 일제에 대항하여 삼진지역(진동면, 진전면, 진북면)에서 발생된 일련의 독립만세운동을 말한다. 이 만세운동은 고종의 승하(昇遐)라는 국내적인 배경과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전세계적으로 부각된 민족주의라는 국제적인 배경에 따라 일어난 전국적인 만세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 하지만 삼진의거는 1919년 당시에 발생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 행위 및 지속적인 경제적 착취에 대항하여 이 지역에서 잠재되어 있던 반일저항 역량의 표출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삼진의거가 1919년에 우연적으로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이 의거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 석당(石塘) 변상태 선생의 행적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변상태는 이미 일제의 침략 의도가 노골화된 을사보호조약 체결 직후인 청소년 시절부터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엽총 5정으로 무장 봉기를 준비하는 등 누구보다도 투철한 반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는 부산상업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1910년에 국권을 찬탈 당하자, 학교를 중퇴하고 최기택, 성학영 등과 함께 대붕회(大鵬會)를 조직하여 반일저항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또한 그는 1915년 7월에는 부산에서 어떤 한인 어린이에게 일본인이 가한 가혹행위에 분개하여 노무자 200여 명을 동원하여 해당 일본인의 집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른 변상태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하고자, 손병희, 최린 등 민족지도자를 방문하여 조언을 구하게 되었다. 여기서 변상태는 국외독립운동보다는 국내에 머물면서 독립 운동에 헌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손병희 선생의 조언에 따라 국내독립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1917년에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약을 펼치게 되었다. 조선국권회복단은 대구지역 청년들의 비밀 정치모임인 달성 친목회를 바탕으로 하여 윤상태, 서상일, 이시영 등을

중심으로 1913년에 대구에서 결성되어 1919년까지 활동했던 비밀결사였다. 이 단체는 1910년대 중반에 군자금모집 사건을 벌이고 삼일운동 당시에는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그 이후에는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친 바 있던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였다.(강영심, "조선국권회복단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0, pp. 8-29.) 대구에 중심을 두고 있던 조선국권회복단은 마산 지역에도 지부를 설치한 바 있었는데, 지부설치 시기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일부 연구자들은 마산지부의 설치시기가 1913년 하반기라고 보고 있고, 다른 연구자들은 마산지부장인 안확(安廓)이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서 마산창신학교로 복직한 다음인 1916년 이후라고 보고 있다.(강영심, p. 12) 1919년 이전에 조선국권회복단의 마산지부장인 안확과 변상태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다.

변상태는 조선국권회복단에서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영남지역 청년 민족주의자들의 비밀 결사체인 대동청년단(大東靑年團)의 모험부장으로 있기도 하였다. 대동청년단은 백산 안희제(安熙濟)가 1909년 10월에 서상일, 남형우 등과 함께 결성한 조직으로서 1945년에 해방이 될 때까지 인재양성 및 군자금 조달 등의 활약을 한 독립운동단체인데, 부분적으로는 조선국권회복단과 조직이 중복되기도 하였다.(강대민, "白山 安熙濟의 大東靑年團運動,"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 18집 2권, 1997, pp. 71-86.) 하지만 대동청년단은 독립운동에 매진한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활동 전 시기에 걸쳐 노출되지 않은 채 활동했으므로 변상태도 이 단체에서 비밀리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삼진의거의 배경으로서 조선국권회복단 등 대규모 단체의 조직원이었던 변상태의 활동뿐만 아니라, 삼진지역 내에서 고조되고 있던 반일감정도 고려에 넣지 않을 수 없다. 그 예를 대변하는 인물로 김수동을 들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4·3의거 당시에 황교에서 장렬하게 순국한 분으로서, 당시의 연령이 만 42세로서 삼진의거 가담자들 중에서 비교적 연장자에 속하였다. 그는 "삼진장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삼진의거가 있기 전에 이미 독자적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손의 증언에 따르자면, 그

의 집안은 비교적 든든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삼진의거 이전에 김수동은 가산(家産)을 관리하는 일보다 오히려 독립운동을 위하여 진주 등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1974년 『부산경제신문』에 연재된 바 있는 "三鎭義士 金守東 先生 彰義記"를 보면, 김수동은 삼일운동보다 앞선 2월 25일 경에 삼진 지역의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체포 사실 여부는 자료가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비교적 짧은 삼진의거 준비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 삼진의거 전에 이미 김수동을 위시한 삼진 지역의 일련의 인사들이 일제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만은 사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삼진의거의 원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국내외적인 대사건을,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삼진 지역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 있듯이, 국내외적인 대사건이란 고종의 승하와 민족주의 흐름의 강화였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아 삼진의거의 원인은 삼진 지역 내에서 일고 있던 반일저항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 변상태였다. 즉 변상태는 전국적인 삼일만세운동과 삼진 지역을 연결시켜준 고리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삼진 지역민들의 저항의지가 일본의 수탈에서 유래되었음은 재판 기록에서 나타나는 독립열망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이것은 세부적인 사회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학술적인 접근을 해야할 필요를 지닌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거의 준비

삼진의거에 대한 논의는 전국적인 삼일운동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삼일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2월 하순경에 변상태는 서울(당시 명칭은 경성부)로 올라오라는 긴급 전보를 받게 되었다. 『경남독립운동소사』의 저자인 변지섭은 이 전보를 친 사람이 대동청년단 동지였다고 적고 있다.(변지섭, 『경남독립운동소사』, 삼협인쇄사, 1966, p. 3.) 그렇지만 변상태가 대동청년단으로부터 받았다는 연

락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는 발송자가 대동청년단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변상태는 김관제(金觀濟) 및 이시영(李始榮)과 함께 서울로 갔는데, 이 중 김관제는 변상태와 함께 조선국권회복단의 조직원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삼진의거 이후에 진행된 재판에서 변상태와 조선국권회복단의 관계가 집요하게 추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자면, 전보를 친 조직은 조선국권회복단이었을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대동청년단 혹은 조선국권회복단이 변상태에게 서울로 올라오라고 연락한 이유는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고종 인산일의 시위와 관련되어 있었다. 고종의 국장에 때맞추어 독립만세 시위를 벌이기 위하여 전국 각지로부터 애국 인사들이 서울로 모여들었는데, 변상태도 그 흐름에 동참하였던 것이다. 변상태 및 그와 동행한 두 사람은 3월 1일에 벌어진 만세운동에 참가한 이후에 조선국권회복단 혹은 대동청년단으로부터 임무를 각각 부여받았다. 그에 따르자면, 변상태는 서부 경남 일원에서, 김관제는 동부 경남 일원에서 의거를 일으키도록 되어 있었다. 김관제는 김해에서 경영하던 약방을 대구로 이전한 바 있었으므로, 동부 경남 일원에 대한 연고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었다. 변상태와 함께 서울로 같이 간 이시영은 연락 업무를 부여받아 만주로 간 것으로 보아 당시 변상태가 속한 조직의 활동 범위는 상당히 넓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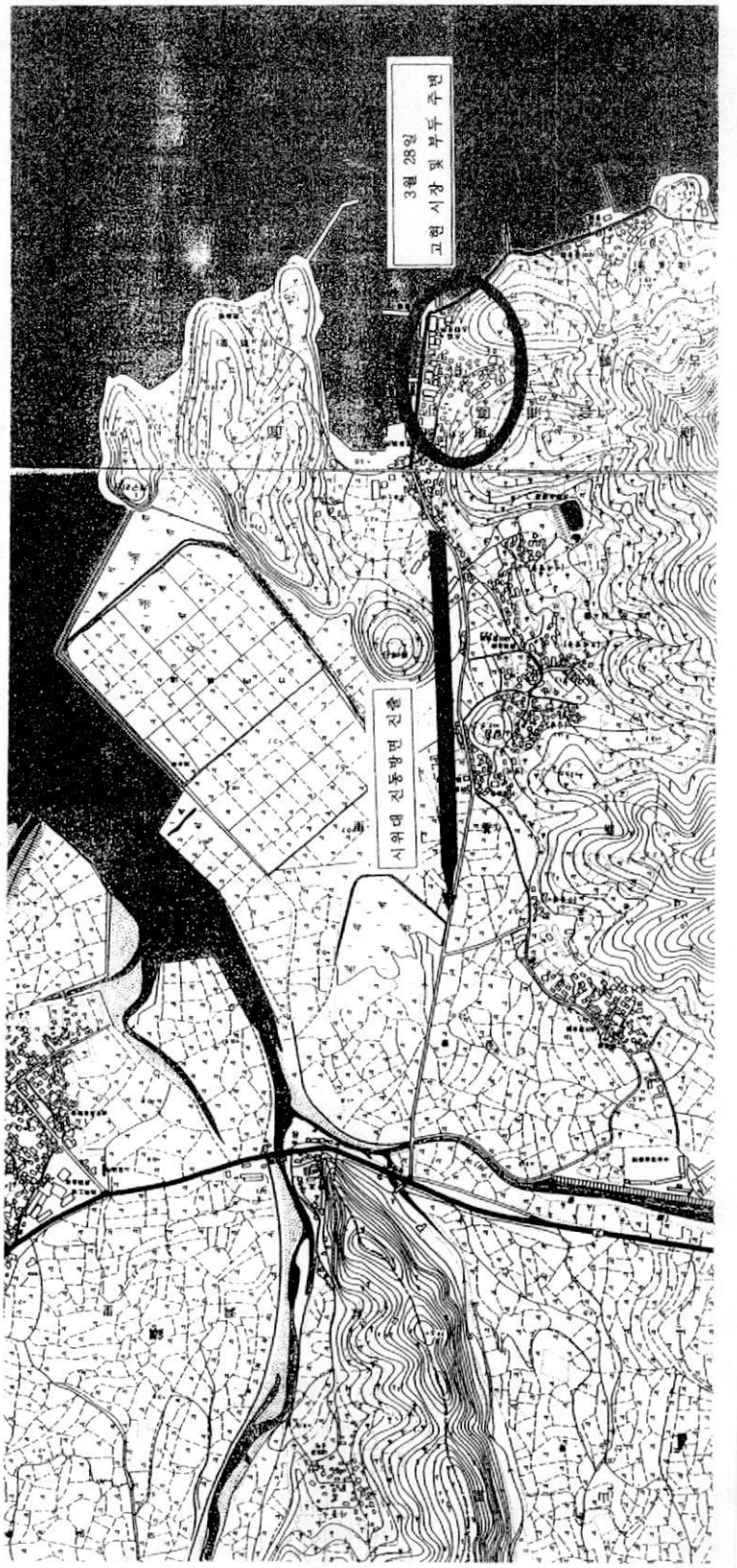
3월 5일에 고향으로 돌아온 변상태는 독립만세시위를 확산하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다. 귀향 직후 그는 서부 경남 일원에서의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중심이 되어 소집된 모임에는 이수룡, 권태용, 권영조, 권영대, 변상섭, 변상헌 등 삼진면이 속해있는 창원에 살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희석, 조태식, 이경형(혹은 이재형) 등 함안 사람들과 황태익처럼 고성에 연고를 지닌 사람도 참석하였다. 이 모임에서 변상태는 서울에서의 만세 시위 전말에 대해 설명하고, 서부 경남 일원에서의 만세 시위를 논의하였다.(변지섭, 『경남독립운동소사』, 1966, p. 3.)

이처럼 변상태는 서부 경남 일원에서의 만세운동을 독려하는 동시에 자기 고향인 삼진에서의 만세 의거 준비에도 구체적으로 착수하였다. 이 준비 작업에는 변상태만이 아니라, 권영조, 권영대, 변상섭, 권태용, 변상헌, 백승학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의거일을 3월 28일로 잡고, 거사 장소는 고현 시장으로 결정하였다. 당시에 전국적인 만세 시위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변상태 등이 중심이 되어 준비되고 있던 의거는 비폭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평화적인 시위 준비를 하였다. 의거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백승학이 중심이 되어 태극기를 제작하고, 판각 기술을 가지고 있던 권태선이 중심이 되어 격문으로 사용할 목판 제작에 나섰다. 격문의 내용은 "曰我同胞 有進無退", 즉 "가로되 우리 동포는 나아감이 있으되 물러섬은 없다."였다.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당시 만세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통하여 일제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위 준비자들은 각 면을 돌아다니면서 고현 시장에서의 만세 시위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유하였다.

3) 고현시장 의거

변상태 등이 3월 28일(금요일)에 고현 시장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한 이유를 추측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음력 2월 27일이었던 이 날은 고현 시장의 장날이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운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된 3월 28일이 되어 시위 주동자들은 고현 시장으로 갔다. 장날인 이날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던 정오 경에 백승학이 먼저 장터 한가운데 위치한 단상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써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날 낭독된 독립선언서는 3월 1일에 서울에서 낭독된 것과 같은 것으로 변상태가 서울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뒤이어 권영대의 선창으로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되었다. 만세 시위를 준비한 사람들은 장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언서와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나누어주는 등 시위 대열을 정비해 나갔다. 우리는 이날 고현 시장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자료에 따르자면, 당시의 참여인원은 적게는 4백 명 정도에서 많게는 5~6백 명 정도였


3월 28일
고원 시장 및 부두 주변
시위대 진출 방향

다고 한다. 당시에 시위가 시작되었던 고현 시장은 오늘날 "장터마당"으로 불리고 있다. 1919년 이후로 장터마당을 둘러싸고 많은 건물이 새로 들어선 형편이기 때문에 당시에 장이 서던 장소는 오늘날의 장터마당보다 넓었고, 상행위가 벌어진 장소는 부두까지 연결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날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수를 5백 명 전후로 보는 데에는 별로 무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시위 대열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기세를 올린 다음에 진동으로 향하였다. 진동에는 일본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고 일본군의 헌병 주재소가 위치해 있었으므로, 일제에 항거하기 위한 장소로 적합하였다. 시위대열이 진동에 도착한 무렵에는 이미 일본측으로서도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갖춘 상태였다. 일본 헌병주재소 측은 고현 시장에서 시위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중포병 대대로부터 병력을 지원 받아 시위 진압에 나서게 되었다. 일본측은 비무장 평화 시위대에 대하여 총검으로 위협하며 난타하는 등 잔혹한 방법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그 결과 아무런 무장을 갖추지 못한 시위대는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경에 강제 해산 당하고 말았다.

일본 헌병들은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위를 주동하였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에 나섰다. 그리하여 권영조, 백운태, 백승학, 권오규, 권태선, 노수환, 박순조, 이교형, 권오성, 김종호, 이봉우 등 11명이 시차를 두고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중에 권영조는 일본경찰의 고문으로 손가락이 잘리는 고통을 당하였는데, 이 사실로 보아 고현 시장에서의 시위와 관련하여 체포된 사람들에게 가혹한 심문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고현 시장 시위 관련자들은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 형 확정자들은 마산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는데, 그 판결 내용과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권영조 : 징역 1년, 당시 36세
백승학 : 징역 1년, 당시 20세
백운태 : 징역 1년
권오규 : 징역 6개월, 당시 24세

권태선 : 징역 6개월, 당시 34세

노수환 : 징역 6개월

박순조 : 집행유예 1년

이교형 : 태형 90대

권오성 : 태형 90대

김종호 : 태형 90대

이봉우 : 연소자인 관계로 3개월 구류 후 방면

4) 4·3 삼진의거 준비

고현 시장에서의 시위가 일본헌병에 의하여 잔인하게 진압 당하기는 했지만, 시위 주동자들 중에 중심 인물들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고현 시장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당시의 살벌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또 다른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다. 3월 28일의 고현 시장 시위에서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던 권영대는 체포를 면하고 그 날로 진전면 동산리에 와서 이민들 30여명에게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할 정도로 대단한 기개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4월 1일에는 의거를 위한 여러 차례의 준비 모임이 있었다. 이 날에는 애초에 이 지역의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던 변상태와 고현 시장에서의 시위에서 선두에 섰던 권영대 뿐만 아니라, 권태용과 변상섭, 변상기 등이 성구사(誠久祀)에서 모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변우범의 집에서는 변상태와 황태익이 참석한 가운데 의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변상태와 권태용, 권영대, 변상헌, 변상섭, 변갑섭, 김수동, 김영종, 변종열, 변상복 등도 별도의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의 참석자 면면을 살펴보면, 이제 4·3의거에서 순국하였거나 중심 역할을 한 인사들이 상당수 집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모임 중 변상태, 권영대, 권태용, 변상섭, 변상기 등이 모임을 가졌던 성구사는 고려 말의 충신인 변빈 선생과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변연수(卞延壽) 장

군 및 그의 아들인 변입(卞岦) 선생의 충절을 기리던 사당이 있는 곳으로서, 경내에 일신재(日新齋)와 존양재(存養齋), 도산서원(道山書院) 등의 부속건물이 있어서 당시에 인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성구사 안내문) 그런 만큼 4·3의거가 준비되던 성구사는 인근 지역에 대하여 항일운동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성구사는 경내에 사당이 위치해있으며 매년 제향(祭享)이 올려지던 재실(齋室)이었던 만큼 일본 경찰로서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의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격이었다. 그러므로 의거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성구사 내의 일신재 등지에서 의거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변규석 씨 증언)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우리는 성구사 등 4월 1일에 개최된 몇몇 모임에서 4월 3일의 의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3월 28일의 고현 시장 의거 이전에는 4·3의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현 시장에서의 만세 시위 이전에 4·3의거가 계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4월 1일의 모임에서 4·3의거를 알리는 통지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 시점 이후에 4·3의거가 계획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4월 1일의 모임에서부터 4·3의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4·3의거는 비록 이틀 전에 추진되기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준비 과정에서부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전국적인 독립만세 운동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은 4·3의거와 고현 시장에서의 의거가 지닌 근본적인 공통점이었다. 또한 만세 시위의 방법이 주로 평화적이었다는 점도 이 두 의거가 지닌 중요한 공통점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현 시장 의거와 4·3의거 사이의 차이점을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이 두 의거의 근본적인 성격은 독립만세 시위였지만 참여자들의 성격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고현 시장 의거는 소수의 중심 인물들이 장날에 상행위를 위하여 운집한 군중을 대상으로 하여 독립만세 시위를 선동한 사건이었다. 반면에 4·3의거에 참여한 인물들 중 상당수는 애초부터 만세 시위를 목적으로 하여 모인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만큼 4·3의거의 참여자들은 만세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4·3의거는 독립 만세 시위만이 아니라, 고현 시장에서의 시위 때 체포당한 인사들을 구출하기 위한 목표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의거 준비인물들은 진동헌병주재소로 가서 그곳에 구금되어 있던 권영조 등을 구출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4·3의거를 준비한 사람들은 고현 시장 의거가 미흡했다고 보고 그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만세 시위를 구상하면서, 조직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였다. 의거 전날인 4월 2일 오후 다섯 시경에 권태용은 김순삼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고현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했을 때 근곡리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가담하지 않았던 것은 대단히 잘못이다. 조선을 위하여 하는 일에 조선인으로서 어떻게 참가하지 않는가? 내일 3일 절일(節日)에 다시 독립운동을 할 것이니 참가하라. 만약 참가하지 않는다면 근곡리에 들어와서 근곡리의 가옥을 파괴하겠다."라고 하였다. 고현 시장 의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본측이 보인 살벌한 분위기로 보아 만세 시위 운동은 움츠러들 수도 있었으나, 이처럼 대규모 시위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당시 4·3의거를 준비한 인사들이 지닌 확고부동한 독립 의지와 이 지역 주민들이 지닌 투철한 항일정신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4월 1일에 연쇄적으로 개최된 모임들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기록이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후의 사정을 보아 이 모임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략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4·3의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아울러 준비 작업에 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의거를 준비하던 인사들은 고현 시장 의거 때와 마찬가지로 4·3의거를 위해서도 태극기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 당시에 사용된 태극기가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재판 기록을 보자면 태극기는 대형과 소형 등으로 제작되었다. 대형 태극기는 시위대열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소형 태극기는 참여자들이 손에 들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시위 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태극기는 성구사에 속한 관리사(管理舍)에서 주로 제작되었고, 변상헌 등 중심 인물들의 자택에서 태극기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태극기 제작이 이루어진 성구사의 관리사는 현재 개축된 상태이고, 당시의 건축 재료인 목재와 기왓장이 일부 남아 있다. 태극기 제작 작업에는 변우

범, 김영진, 황태익, 변우섭 등의 인사들이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4월 1일에 개최된 모임에서는 고현 시장에서의 시위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의거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중심 인물들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시위 준비자들은 주로 성씨별로 모여 살고 있던 당시의 삼진 지역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각 동리의 지도자들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변상헌, 황치순, 변상섭, 변상술 등은 4월 2일 아침에 진전면 봉암리의 구장(區長)으로 있던 구수서를 음식점을 경영하던 박영섭의 집에서 만나 인근 주민들을 만세 시위에 동참시키도록 부탁하였다. 일부 재판 기록에서는 구수서의 부친이 구장이었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 구수서는 사실상 구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태용은 진전면 율치리의 김순삼의 집에서 근곡리의 구장이던 김영종에게 의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김영종은 한소사의 집에서 김한봉, 김원종과 참가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날 의거에 적극 참여하였다. 당시에 삼진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있던 주요 성씨는 양촌리의 초계 변씨, 동산리의 안동 김씨, 오서리의 안동 권씨, 봉암리의 구씨, 대정부락의 김해 김씨, 일암리의 장흥 고씨, 대정부락의 남평 문씨, 봉곡의 성주 이씨, 그리고 달성 서씨, 밀양 박씨 등이었는데, 각 성씨의 지도자급 인사들에 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주요 이유는 이틀이라는 단기간에 많은 인원이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떤 증언에 따르자면, 당시 일암에 살고 있던 고씨 가문의 사람들은 "변씨가 주동이 되어 의거를 준비하니 같이 의거에 참여하자."고 권유하여 의거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심인물들은 의거에 대한 사실을 통지서를 통하여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지서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재판 기록을 통하여 통지서에 대한 몇몇 정보를 알 수 있다. 그에 따르자면, 통지서는 조선종이 "보통 반지(半紙)" 정도의 크기였고, 그 제목은 "독립 제2회의 건"이었다. 여기서 제2회라고 한 것은 물론 고현 시장에서의 의거를 제1회로 간주한 표현이었다. 이 통지서에는 대략 6, 7개의 조항이 담겨 있었는데, 그 속에는 "4월 3일 아침 양촌리 앞에 집합할 것", "독립 운동에 나오

지 않는 사람은 가옥을 파괴할 것", "점심을 싸 가지고 올 것", "태극기를 가지고 한 집에 한 사람 이상 나올 것" 등이었다.(고등법원 구수서 심문조서 제1회) 일경의 심문 기록을 보자면, 의거를 준비하던 인물들은 통지서를 읽어주면서, 만약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가옥을 파괴할 뿐 아니라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런 강제성에 대한 언급은 재판을 받을 때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홍인석 씨 증언) 또한 일부 자료에 의하면, 만세 시위에 적극 참여한 인물들은 의거 당일에 "십인장(十人長)", "이십인장(二十人長)" 등이라고 쓴 삼베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여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봉암리의 구장으로 있던 구수서는 의거 당일에 수십 명(재판 기록으로는 약 10명)의 시위대를 이끌고 왔고, 근곡리의 구장으로 있던 김영종은 백여 명(재판 기록으로는 3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왔음을 볼 때, 우리는 인원 동원 작업이 집성촌별로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의거를 위한 인원 동원이 오직 집성촌별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중심 인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가서도 의거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예로서 우리는 변상태 등이 양촌리 개간장에 간 사실을 들 수 있다. 의거 하루 전인 4월 2일에는 마침 양촌리의 개간장에서 70-80명의 사람들이 개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날 정오 경에 변상태와 변상섭이 이 장소로 와서 다음날 있게 될 의거를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였다. 여기서 변상태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민족 독립의 횃불을 들 때는 왔다. 우리가 독립하지 못하면 영원히 개·돼지의 처지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후손들에게 말못할 후환을 끼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항일 독립의 전선으로 궐기할 때이다.

우리는 변상태의 연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의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변상태 등이 얼마나 절박하게 의

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는지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의거에 대한 이야기는 지인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범 례 >
시위대의 이동경로
이동 도중 호응한 마을들
0
1
2
3km
축척 1 : 50,000
4월 3일 오후 2시
4월 3일 오전 9시

5) 4 · 3 의거

4·3의거가 일어난 4월 3일은 삼짇날(음력 3월 3일)이었다. 이 날은 강남에 간 제비가 돌아와 추녀 밑에 집을 짓는다는 때로서 이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기에 용이하였다. 의거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거사일을 정하였다. 드디어 4월 3일 오전에 진전면 양촌리 일암 부락 앞에 있는 시냇가에 사람들이 운집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이곳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형편이지만, 당시에는 이곳에 넓은 공터가 위치해 있었으므로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이날 오전에 최초의 시위대열을 형성한 사람들의 수는 2천 명 내지 1천 5백 명 정도라고 언급되어 왔다. 현재로서는 그 정확한 숫자를 알 길이 없지만, 농촌 지역에서 유례가 드물 정도로 많은 인원이 의거의 출발지점에 운집한 사실만은 틀림없다.

예정 시각인 오전 9시가 되자 대형 태극기가 나부끼고 드디어 의거가 시작되었다. 영남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인 조선국권회복단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서울의 만세 시위에 참여한 바 있던 변상태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였다.

오늘부터 우리는 자유 민족이며 자유국의 국민이다. 일본의 관여는 추호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한다.

이어 변상섭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변상태의 선창에 따라 참여자들이 만세를 부름으로써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시위 행렬은 진동으로 가기 위하여 서서히 임곡 삼거리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변상태는 연설을 마친 후 시위대열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성구사에 거주하던 이수룡과 함께 진양군 문산으로 출발하였다. 우리는 이처럼 삼진의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변상태가 시위 대열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서부 경남의 만세운동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만큼 신속히 다른 지역의 만세 시위를 위하여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4월 3일 당일에 독립만세시위를 논의하기 위해 대구의 서

상일, 김관제, 정신일, 거창의 진종수, 마산의 김광제, 창원의 이수용 등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또한 그는 유림의 거두였던 전양제, 곽만우, 장혜당, 이시암, 조서천, 오석농 등과 만나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전해진다. 변상태가 이처럼 현장을 떠난 것은 다른 지역의 만세 시위를 추진하기 위함이었음에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날의 4·3의거에 대한 그의 전망의 일단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그는 그 날의 만세시위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의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그 날의 시위 목적 중 하나가 비록 고현 시장 의거 관련자들을 구출하기 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평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방증 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일부 증언에 따르자면, 그 날의 시위를 위해 사람들이 몇 정의 죽창을 준비했다고 하지만(변만섭 씨 증언), 본격적인 무장 투쟁이 계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촌리의 시냇가를 출발한 시위 대열은 장대(약 두 간 길이, 즉 약 86㎝)에 매단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방천 둑을 따라 내려가다가 임곡 삼거리를 거쳐 진동을 향하여 이동하였다. 장대에 매단 대형 태극기는 부락 혹은 동네별로 준비하였는데,(홍인석 씨 증언, 변만섭 씨 증언) 그 수가 약 15본 가량이었으므로(고등법원 변상술 심문조서 1회), 이 의거에 집단적으로 참여한 부락의 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월안리(月安里), 곡안리(谷安里), 오서리(五西里), 봉암리(鳳岩里), 도산리(道山里), 임곡리(林谷里), 근곡리(斤谷里), 암하(岩下) 등 시위대열이 이동하는 연도에는 길목마다 막걸리동이가 비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었고,(홍인석 씨 증언) 독립만세 소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 대열에 합류하였다. 애초에 출발 인원이 대규모인 데다가 도중에 다른 사람들도 시위 대열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대열의 행진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았다. 오전 9시에 의거가 시작되었지만, 일경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황교(凰橋)에 시위 대열이 도착한 시각은 오후 2시경이었다.

시위대가 황교에 도착했을 때의 시위대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아주 다양한 수치가 나온다. 『경남독립운동소사』를 쓴 변지섭은 그 수가 8천 명, 『삼일운동사』(1971년 간행)를 쓴 김의환은 5천 명, 시위진압 현장에 있었던 삽곡칠차(澁谷七

次)는 3천 명으로 보고 있다. 물론 우리가 당시의 시위대 숫자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삼진의거가 일어나던 1919년 당시에 마산부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총 12,054명, 창원군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총 11,500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진동의 조선인 인구는 1,987명이었다는 점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남부희, "마산 창원 지역의 3·1운동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5, 1997, p. 181.) 또한 당시의 재판 기록에 따르자면, 대열의 길이가 5리(2km) 혹은 10리(4km)였으며 지산리 부락 일대는 시위참가자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 물론 당시의 도로는 오늘날보다 협소했음을 감안하여 1m 간격으로 서너 명씩 행진하여 2km의 대열을 이루었다면 그 수가 3~4천 명, 그리고 4km라면 6~8천 명이었을 것이다. 8천 명이든 3~4천 명이든 도시 지역과는 달리 인구가 비교적 적은 농촌 지역에서 이 정도의 인원이 동원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사건이었다.

대규모 시위 행렬이 진동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군경도 나름대로 시위 대열에 대항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일본군경은 재향군인들을 소집하여 시위 대열이 접근하고 있는 사동리 쪽으로 보내어 일차적으로 시위 대열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이들 재향 군인들은 지산리 도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위대를 막고자 시도하였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시위대의 선두가 당시의 황교, 즉 오늘날에는 마산-고성 방면 국도에 위치한 지산교 바로 옆의 다리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곳과 진동 중심가의 거리는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15정(町) 정도, 즉 1km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일본군경으로서는 이 황교가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진동면과 진북면의 경계인 이곳 바로 옆에는 최근에 긴 다리가 놓여 있지만, 지형상 덕곡천(혹은 사동천)이 흐르고 있어서 소수의 인원으로 대규모 시위 대열을 막기에 적합하였다.

시위 대열의 선두가 황교에 도착한 무렵에, 황교 건너편의 일본측의 저지선에는 일본 헌병 및 헌병 보조원 8명과 현지의 일본 재향군인 30여명이 포진하고 있었다. 시위대는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고 일본측은 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위대가 일본헌병들에게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시위 대열의 선두에 서 있던 인사들은 독립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

황이었다. 처음에는 양측 사이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헌병의 모자 끈과 단추와 견장이 떨어져 나갔다. 몸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헌병의 지휘관이었던 천상청태랑(川上淸太郞) 헌병 오장(伍長)은 시위대가 계속 전진한다면 발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 때 삼진장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김수동이 황교 위에서 장대에 매단 대형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독려하다가 그를 제지하는 일본 헌병 보조원을 다리 아래로 내동댕이쳤다. 이에 흥분한 일본 헌병 보조원이 그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이것이 명중하여 김수동은 다리 위에 쓰러졌다. 일부 증언에 따르자면, 이 때 총을 쏜 헌병 보조원은 한국인이었던 심의중(沈宜中 혹은 沈宜震)이었다. 김수동은 피격된 후 즉사하지는 않았고, "나를 죽이는 놈은 심의중이다. 이 원수를 갚아라!"라고 하였다고 한다.(김재복 씨 증언)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은 김수동과 같이 진전면 동산리 출신으로서 그 날 순국한 김영환(金永煥)이라고 하는데,(변지섭, 『경남독립운동소사』, 1966, p. 6.) 현재로서는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의거 대열을 제지하던 일본측 가운데 헌병 보조원으로 한국인이 있었다는 점만은 사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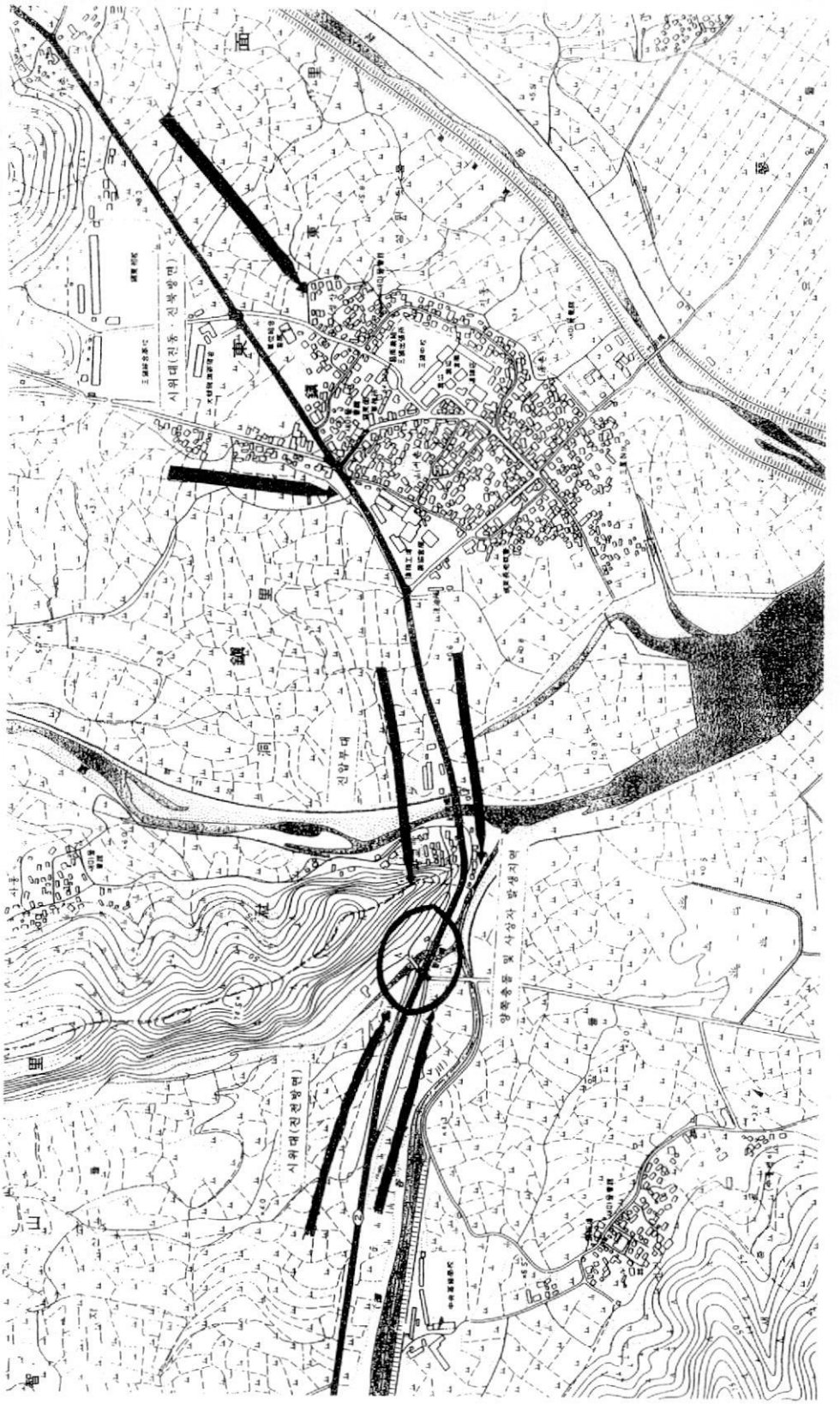
김수동이 쓰러지자 그와 함께 시위 대열의 선두에 서 있던 변갑섭은 김수동이 들고 있던 대형 태극기 장대를 들고 일본 헌병을 향하여 달려가 일본 헌병 오장인 천상청태랑(川上淸太郞)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기세에 놀란 천상청태랑(川上淸太郞)은 태극기를 들고 있던 변갑섭의 오른쪽 어깨를 군도로 내리쳤는데, 이로써 변갑섭의 오른쪽 어깨가 절단되었다. 변갑섭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남아있는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돌진하였다. 일본 헌병은 잔혹하게도 그의 왼팔마저 군도로 내리쳐 결국 변갑섭도 황교 위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시위 대열의 선두에 있던 이 두 사람이 쓰러진 다음에 시위대와 일본측 사이에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었다. 일본측은 시위 진압을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는데, 일부 증언에 따르자면 시위대는 맨 처음에 이것이 단지 위협 사격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측의 발포와 함께 수적으로 월등히 많았던 시위대가 일본 헌병과 재향군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짐으로써 양측에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기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던 시위대열에서 더욱 많은 희생자가 났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일본측의 실탄 사격에 놀란 시위 참여자들

이 사방으로 흩어져 해산한 시각은 오후 3시 무렵이었다. 이보다 앞서 일본측은 시위대의 규모에 놀란 나머지 진동의 일본헌병과 재향군인으로서는 시위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마산에 주둔하고 있던 야포대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였다. 야포대대가 도착한 시점은 시위대가 해산한 다음이었는데, 당시의 분위기로 보아 야포대대의 도착 시각이 좀더 빨랐다면 시위대 측의 피해가 훨씬 컸으리라고 짐작된다.

양촌리에서 출발한 시위대와는 달리, 진동면과 진북면에 살던 사람들이 중심이 된 또 다른 시위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이 두 시위대는 물론 사전에 서로 교감을 가진 상태로서 일정한 시점에 서로 세력을 합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진동은 삼진지역 전체를 통틀어 일본 세력의 거점이었던 만큼, 시위대는 신중하게 행동하였다. 시위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진북면 사람들은 마치 삼짇날에 나들이를 가는 것처럼 몇 명씩 진동시장에 모인 다음에, 진동면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진동성터 뒤편에 집결하였다. 양촌리의 시위대가 진동에 다가올 무렵인 정오 경에 진동성터 뒤에 집결한 시위대 앞에서 백승학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이 후에 시위대는 진동 성터 뒤편으로부터 남문을 거쳐 진동장터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양촌리에서 출발한 시위대와 합류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진전면과 진동면 경계에 있던 황교 부근에서 대규모 유혈 충돌이 일어남으로써 두 시위대는 합류하지 못하고, 진동 쪽의 시위대도 해산하고 말았다.

일본측이 집계한 바로는 황교 충돌 현장에서 즉사한 시위대의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총 11명이었다. 그리고 일본측에서도 왼쪽 허리를 다친 심의중 헌병보조원을 포함하여 오른쪽 후두부를 다친 천상청태랑(川上淸太郎) 오장(伍長)과 바른쪽 앞 무릎 부분을 다친 삽곡칠차(澁谷七次) 상등원 등 부상자가 3명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우리 나라에서 1965년에 간행된 독립운동사 저술을 보면,(김승학 편저, 『한국독립사』, 통일문제연구소, 1965, p. 191.) 추가적으로 5명의 아동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당일에 사망한 순국자는 총 8명이었다. 아동 5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은 김형윤이 쓴 "삼진기행"에 처음 등장하는데, 다른 자료에는 아동 5명의 추가 사망 사실이 언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본측이 집계한 사망자 5인이 김형윤에 의해 아동 5인 추가 사망이라고 오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본측은 8명이 아니라 5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하였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물론 일본측이 의도적으로 피해 규모를 축소한 데 기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수라장이 되었을 법한 당시의 충돌 상황에서 희생자 집계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데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황교 충돌 현장에서 쓰러진 희생자들은 시위대가 해산 당한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놓여있었다. 일본 헌병과 마산에서 온 야포대대의 관심은 부상자 구호보다는 시위대를 추격하여 체포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일부 순국자들의 경우에는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생명을 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황교 위에 방치되어 있던 순국자들의 시신은 어스름이 내린 이후에야 친지들과 지인들이 달구지 등을 갖고 와서 수습한 다음에 희생자들이 살던 마을 인근에 가매장한 형편이었다.(변재유 씨, 변만섭 씨 증언) 이처럼 일본군경은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로부터 대형 태극기 6본과 소형 태극기 44본 등을 압수하였다.



여기서 4·3의거 당시에 순국한 분들의 인적 사항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수동(金守東) : 1877년 8월 26일 생, 당시 42세. 주소 : 진전면 동산리

변갑섭(卞甲燮) : 생년월일 미상(당시 24세, 변재유 씨 증언). 주소 : 진전면 양촌리 384번지

변상복(卞相福) : 생년월일 미상(당시 미혼). 주소 : 진전면 일암리

김영환(金永煥) : 생년월일 미상(당시 미혼). 주소 : 진전면 동산리

고묘주(高昴住) : 생년월일 미상(당시 미혼). 주소 : 진전면 일암리

이기봉(李基鳳) : 생년월일 미상(당시 미혼). 주소 : 진전면 봉곡리

김호현(金浩鉉 혹은 홍록(洪錄), 당시 미혼) : 1893년 12월 25일 생, 당시 26세. 주소 : 진전면 곡안리

홍두익(洪斗益) : 생년월일 미상(17~8세로 추정). 주소 : 진전면 오서리(혹은 양촌리)

또한 부상당한 22명의 명단을 열거해보면, 변현, 박종숙, 고재록, 고운석, 황성봉, 김동이, 변상준, 김대업, 권태문, 권영달, 이몽재, 권영민, 박금용, 조용옥, 문재수, 변용섭, 손삼룡, 구말서, 홍성오, 박용한, 김봉조, 변정섭 등이다. 이 부상자 명단 가운데 포함된 22명은 비교적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서 경상까지 포함한다면 4월 3일에 다친 사람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경상자들은 집에서 스스로 치료하였고, 중상자들은 일본측이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 받기를 거부하고 마산의 삼성 병원

(三省 病院)과 진주의 배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삼성 병원은 당시에 마산에서 조선인이 운영하던 유일한 병원이었는데, 이곳에서 일하던 김형철(金炯轍)은 일본의 강산의전(岡山醫專)을 졸업한 유능한 청년 의사였다. 그는 삼진의거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인 1918년 11월에 그의 동생인 형달(炯達)과 함께 나중에 대광예식장이 선 자리에서 개원한 바 있었다. 김형철은 4·3의거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무료로 성심껏 진료해 주어 훗날에 마산 지역에서 널리 알려졌다.(김형윤, 『마산야화』, 경남, 1996. pp. 121-122.) 의거의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또 다른 곳인 진주의 배돈 병원(培敦 病院)은 1913년에 호주선교회가 설립한 치료기관이었다. 이 병원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 선교의 방편으로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식 의료 기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었는데, 삼진의거의 부상자들도 이런 까닭으로 멀리 진주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삼진 의거의 또 다른 의미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일경의 철저한 수색이 이루어지던 살벌한 분위기에서도 부상자를 위한 모금 운동이 삼진 지역 전역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데 있었다. 부상자를 위한 치료비 모금 운동에는 당시에 진전면장으로 있던 권오봉이 앞장섰다. 그는 진북면 및 진동면 면장들과 협의하여 자기들의 관할 지역에 치료비 모금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지문은 "이번의 부상자들은 모두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된 자들이므로 이들의 치료비는 우리들이 갹출해야 한다."라는 요지를 담고 있었다. 그 결과 일정액의 성금이 모아졌는데, 진동면에서는 233원 40전, 진북면에서는 94원 45전이 모금되었다. 진전면에서 모금된 액수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다수의 희생자들이 진전면 출신인 것을 감안하면 진전면에서도 적극적인 모금 운동이 전개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6) 의거와 관련된 재판

4·3의거와 관련하여 체포된 사람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심 인물들인 변상태와 권영대, 권태용, 황태익은 체포되지 않고 몸을 피하는 데 성공하였다. 체포된 사람들

중 일부는 석방되었으나, 변상태를 비롯한 10명은 재판에 계류되었다. 4·3의거는 다수의 희생자를 낸 사건이었던 만큼 일경으로서도 간단히 취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더구나 최초의 심리를 맡았던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재판장 : 八橋容, 판사 : 小松博美, 朴志永, 奥田畯)은 4·3의거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조선국권회복단과 연계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재판장인 팔교용은 비교적 연장자인 변상섭에게 변상태와 조선국권회복단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변상섭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렇지만 변상태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은 변상태와 조선국권회복단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마산지청의 재판장인 팔교용은 1919년 11월 6일에 4·3의거를 형법 제77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내란죄로 규정하고, 주동자인 변상태와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을 고등 법원 관할로 이송하였다.

사건을 이송 받은 고등법원도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심문을 통하여 변상태 및 그가 속한 조선국권회복단이 삼진의거의 배후인지 면밀히 조사하였다. 그렇지만 고등법원은 변상태 등이 조선국권회복단과 연계하여 독립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중앙총부로부터 명령을 받아 폭동을 일으켰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고등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 渡邊暢, 판사 石川正, 横田波夫, 水野正之丞, 原正藏)는 1920년 3월 22일에 형사소송법 제 315조 제 2항에 의하여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첩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현장에서 체포를 면한 네 사람 중 황태익을 제외한 변상태와 권태용, 권영대는 도피 중에 있었다.

그렇지만 사건을 이관 받은 서울지방법원 형사 1부의 재판장인 조선총독부 판사 입천이랑(立川二郎)은 그 해 8월 7일에 "서울지방법원을 피고 등에 대한 피고사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한다고 했을 뿐 사건을 동 법원에 송치한다는 뜻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본건은 아직 원심에 계속되고 있음이 아니다."고 하며 이 사건에 대한 공소수리 불가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4·3의거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확정 판결은 사건이 발생된 지 무려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1920년 10월 30일에 서울복심법원 형사부(재판장 : 塚原友太郎, 판사 : 新井胖, 杉浦武雄)에 의하여 내려졌다. 여기에 따르자면, 관련자들은 조선형사령 제 42조가 형명(刑名)이 변경

된 보안법 제 7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언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직 체포되지 않고 궐석 상태로 재판을 받은 변상태, 권영대, 권태용은 징역 2년, 변상섭, 변상술, 구수서, 변상헌, 김영종, 변우범은 징역 1년을 언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태익은 운동에 대한 참가 권유 및 태극기 작성 권유 사실에 대한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확정 판결을 받은 분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변상태(卞相泰 혹은 敬宰) : 당시 30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권영대(權寧大 혹은 寧震) : : 당시 34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권태용(權泰容) : 당시 34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변상섭(卞相燮) : 당시 39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일암리 796번지

변상술(卞相述) : 당시 22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30번지

구수서(具守書) : 당시 26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봉암리 226번지

변상헌(卞相憲) : 당시 23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383번지

김영종(金永種) : 당시 30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근곡리 319번지

변우범(卞又範) : 당시 22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일암리 662번지

황태익(黃泰益) : 당시 43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일암리 333번지

그렇지만 앞서 말한 바 있듯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삼진 의거의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던 변상태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따라서 일본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진동헌병대와 마산헌병대 및 경찰서가 변상태의 집을 빈번히 수색한 것은 물론이고, 서울의 종로경찰서에서 25회, 경남 제3부에서 무려 105회나 그의 체포와 관련하여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변상태는 도피 생활 중에서도 합천군 초계의 거유인 이직현을 방문하고 그의 근친인 이원화와 초계 의거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서부 경남에서 만세 시위를 조직하고자 분주히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는 1920년 2월에는 만주로 건너가서 박광, 김정식 등과 함께 만주에 한국회관을 건립하고자 노력하였고, 곽인협, 김상집 등과는 아사동맹회(餓死同盟會)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그는 또한 1921년 1월에는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본에 가기도 했으며, 1922년 5월에는 1년 간의 일본 체류에서 돌아와 전남 송정리의 호남물산 사장으로 있던 종제(從弟) 변상구에게서 받은 독립 자금 3천 원을 의열단 단원인 이종암에게 전달하여 이종암이 1923년 3월 18일(28일?)에 상해 황포탄에서 오성륜, 김익상과 더불어 일본 육군 대장 전중의일(田中義一)을 저격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변상태는 결국 1922년 7월에 이웃 친지의 밀고로 체포되어 49일 동안 잔혹한 고문을 받은 다음, 미결수 신분으로 6개월, 서대문 감옥에서 6개월, 함흥감옥에서 2년 등 도합 3년의 수감 생활을 하였다. 또한 고현 시장에서의 의거와 관련하여 1년의 징역형을 산 백승학은 1920년대 초반에 삼진청년회와 삼진 농민조합, 삼진 소비조합을 조직하여 일본인들과 친일파 지주에 대해 소작료 납부거부, 세금 납부거부 운동 등을 전개하고, 군수 등 관리들에게 경고문 발송하다가 다시 체포되기도 하였다. 또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황태익은 1920년 3월에 진주에서 경남 결사대를 조직하여 임시정부와 연결된 독립운동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삼진독립운동사에서

(일부 발췌)

三鎮獨立運動史

監　修：光復會 慶南・蔚山 聯合支部長
林 基 烈
文學博士　鄭 允 凡

三鎮獨立運動史編纂委員

제1장 獨立運動史와 義兵 ……19

제1절 의병전쟁의 시기 ……20
1. 제1차 의병전쟁 ……20
2. 제2차 의병전쟁 ……21
3. 제3차 의병전쟁 ……22
4. 경상도의 의병 ……22
제2절 일본군의 대토벌작전 ……23

제2장 3·1獨立運動 ……26

제1절 3·1獨立運動의 배경 ……26
제2절 3·1獨立運動의 추진 ……29
제3절 3·1獨立運動의 전개 ……38

제3장 三鎭抗日獨立運動 ……44

특 색
제1절 진동면 고현시장의거 ……48
제2절 三鎭(鎭田, 鎭北, 鎭東)義擧 ……51
제3절 三鎭의 八義士 ……55
제4절 三鎭 義擧의 落穗 ……57
제5절 三鎭 抗日義擧 主動者재판기록(번역일부) ……60
제6절 咸安 抗日義擧 主動者재판기록(번역일부) ……65

제4장 三鎭 및 咸安抗日愛國志士個人略傳
(三鎭面出身) ……70

愛國志士一覽表
제1절 三鎭面 抗日愛國志士 ……74
제2절 咸安 抗日義擧에 가담한 愛國志士 ……123
제3절 그 외 愛國志士 ……131

제5장 三鎭 및 咸安抗日義擧 主動者
재판기록원본(三鎭面出身) ……134

· 조선총독부 형집행원부:조계승 ……135

· 서대문 형무소 수형자 명부 ……136
구수서 외 4명
·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판결문……141
(大正 8년 11월 6일) 권영대 외 9명
(大正 8년) 조병대 외 3명
· 경성지방법원……154
(大正 9년 8월 7일) 변상태 외 9명
· 대구복심법원……195
항소심(大正 8년 8월 20일) 조계승
(大正 13년 11월 7일) 백운동 외 2명
(昭和 3년 4월 7일) 백승학
· 경성고등법원……215
(大正 9년 3월 22일) 변상태 외 9명
· 경성복심법원 ……234
(大正 9년 10월 30일) 변상태 외 9명
(大正 10년 2월 23일) 권영대
(大正 10년 2월 28일) 권태용
· 면비치 범죄인 명부 이교재 외 19명 ……252

제6장 기타 ……272

· 1920년 7월 25일자 동아일보 ……272
변상태 외 9명(고등법원)
· 1934년 6월 28일자 동아일보 ……273
김기찬, 황보현 교육노조 결성하여 反日교육주도
· 소화 11년 일본 내무성 경보국 특고 ……274
경찰 통첩, 박헌행(일명 朴鏞德)선생이
가담한 조선독립을 위한 노조결성사건
· 이교재 열사 묘소 金九선생 참배……275
· 현존하는 三鎭義擧 주동자 근황 ……276
권영민, 이몽출 義士(마산일보 1959년?)
· 殉義한 李敎載 先生과 八先烈 분묘……277
개축사업 발기회
· 八義士 合同 묘역준공……280
· 八義士 묘역 정화사업 추진 위원회 취지문 …281
· 八義士 彰義塔 碑文……282
· 八義士 墓 碑文……283
· 三鎭獨立義擧記念碑文……284
· 창의탑 건립시 박정희 대통령이 보내온 축전 …285

· 맺음말……286
· 발행처……287

제5장 三鎭 및 咸安獨立運動 主動者 裁判記錄(大正1年 : 서기 1912 / 昭和1年 : 서기 1926)

1. 조선총독부 형 집행원부 : 曺啓承

2. 서대문 형무소 수형자 명부 : 구수서, 변상술, 변상섭, 변상헌, 변우범

3.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판결문

• (大正8년 11월 6일) : 權寧大, 權泰容, 卞相泰, 黃泰益, 卞相攝, 卞相述, 具守書, 卞相憲, 金永鍾, 卞又範

• (大正8년) : 曺秉大, 南秉熙, 金祥集, 朴魯一

4. 경성지방법원

• (大正9년 8월 7일) : 卞相泰, 權寧大, 權泰容, 黃泰益, 卞相攝, 卞相述, 具守書, 卞相憲, 金永鍾, 卞又範

5. 대구복심법원 : • 항소심(大正8년 8월 20일) : 曺啓承

• 형사2부(大正13년 11월 7일) : 白雲洞, 徐正奎, 金載龜

• (昭和3년 4월 7일) : 白承鶴

6. 경성고등법원

• (大正9년 3월 22일) : 卞相泰, 權寧大, 權泰容, 黃泰益, 卞相攝, 卞相述, 具守書, 卞相憲, 金永鍾, 卞又範

7. 경성복심법원

• (大正9년 10월 30일 형사부) : 卞相泰, 權寧大, 權泰容, 黃泰益, 卞相攝, 卞相述, 具守書, 卞相憲, 金永鍾, 卞又範

• (大正10년 2월 23일 형사부) : 權寧大

• (大正10년 2월 28일 형사부) : 權泰容

8. 읍·면 비치 범죄인명부

李敎載, 權寧祚, 權五圭, 權泰璿, 權寧大, 權五成, 卞相攝

卞相述, 具守書, 卞相憲, 金永鍾, 卞又範, 黃普鉉,

金奇贊, 金奎鉉, 李炳秀, 朴魯一, 金祥集, 曺啓承, 曺秉大

서대문 형무소 수형인 명부 : 구 수 서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職業

受刑事項							前科犯	備考
罪名	刑名	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言渡裁判所	執行監獄	出獄年月日及其事由	
保安法違反	禁錮 懲役	年 月	大正 年 月 日	大正 年 月 日	法院	西大門監獄	大正 年 月 日 滿期 假出獄	

78180

氏名	年齢	年月日生	指紋番號
具守書	身長	尺寸分	
	特徵		





서대문 형무소 수형인 명부 : 변 상 술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受刑事項						出獄年月日及其事由
				罪名	刑名	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言渡裁判所	執行監獄	
				保安法違	禁錮	年 月	癸 年 月 日	癸 年 月 日	法院	西大門監獄	癸 年 月 日滿期 假出獄
			職業	前科			備考				
				犯							

氏名	年齢	年月日生	指紋番號
卞相述	身長	尺寸分	No.
	特徴		





서대문 형무소 수형인 명부 : 변 상 섭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罪名	刑名	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言渡裁判所	執行監獄	出獄年月日及其事由
保安法違	禁錮	年	大正 年	大正 年		西大門監獄	大正 年
	懲役	月	月 日	月 日	法院		月 日 假出獄

職業

前科	備考
犯	

氏名	年齢	年月日生	指紋番號
卞相燮	身長	尺寸分	No.
6765	特徵		





서대문 형무소 수형인 명부 : 변 상 헌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刑受			刑事上ノ処分				
				罪名	刑名 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官署裁判所	執行監獄	出獄年月日及其事由	
			職業	保安法違反	禁錮 年 月 懲役	壹年 月 日	壹年 月 日	法院	西大門監獄	壹年 月 日 満期 假出獄	
犯罪前科				備考							

氏名	年齢	生年月日	指紋番號
卞相憲	身長	尺 寸 分	No.
	特徴	一九一二	





서대문 형무소 수형인 명부 : 변 우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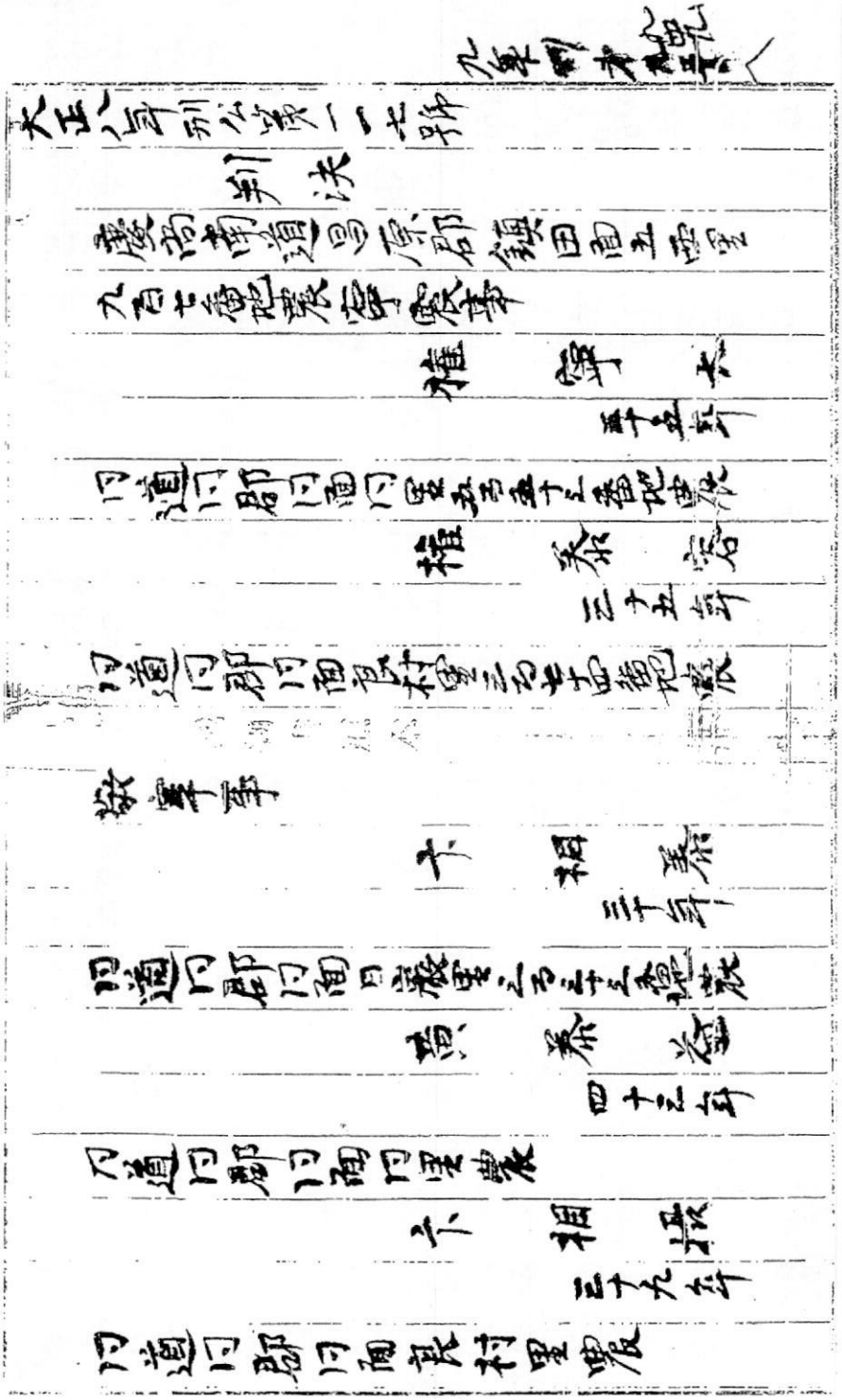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受刑事項							職業
罪名	刑名	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言渡裁判所	執行監獄	出獄年月日及其事由
保安法	懲役	禁錮 年 月	大正 年 月 日	大正 年 月 日	法院	京城監獄	大正 年 月 日滿期 假出獄
前科		備考					
犯							

氏名	年齡	年月日生	指紋番號
卞又節	身長	尺 寸 分	
	特徵		







下相速
二十二年

同道同郡同面鳳山石里農
具守書
二十六年

同道同郡同面良村里農
下相憲忠
二十三年

同道同郡同面斤谷里農
金永鐘
二十年

同道同郡同面白巖里農
下又範
二十二年

右騒擾被告事件ニ付朝鮮總督府檢事奥田暁立會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本件ニ關スル公訴ハ之ヲ棄却ス

被告下相振下相述具守書下相憲金永鐘下又範ニ對シ發シタル

ル勾留状ハ之ヲ存ス

理由

本件起訴ノ事實ヲ審案スルニ被告権藤震一郎ハ権藤寧大権藤容平ノ親等ニ在リ容平ハ相摸ニ於テ相摸藻ハ相摸益ハ共謀ノ上大正八年四月三日ノ旧節句ノ朝ヲ期シ朝鮮獨立運動ヲ為サンコトヲ企テ慶尚南道昌原郡鎮田面鎮北面里ノ各区長ヲ勧誘シ多衆集團シテ騒擾ヲ惹起シ権寧等ヲ鎮東憲兵駐在所ニ引致セラレタル後鮮ヲ無行セントノ意味ヲ以テ同駐在所等ヲ襲撃セントヲ為被告権寧大ハ相摸ニ相摸ハ同月二日正午頃鎮田面良村里土地開墾場ニ於テ約七八十名ノ群衆ニ対シ独立運動ニ参加セサルモノハ鮮人ニアラス狗子ナリ後難アルベシトテ煽動勧誘シ被告権藻容ハ同日午前同面栗峙里金之順ノ方ニ於テ被告金永鎭ニ対シ前同様同運動ニ参加スベキコトヲ勧誘シ因被

告ハ直ニ之ニ賛同シ被告権蕃宗谷ノ意ヲ承ケ同月三日朝自宅ニ於テ旧幹部ヲ旗ヲ作成シ金鳳祚外二十九名ヲ引率シテ同運動ニ参加シ下相撰下相憲下相述ハ同月二日朝同面鳳岩里朴永愛方ニ於テ同區長呉守書ニ対シ同里民ニシテ独立運動ニ参加セサル者ハ其ノ家屋ヲ破壊シテ殺害スヘキ旨ヲ以テ脅迫又ハ煽動勧誘セシメ被告呉守書ハ其ノ煽動ニヨリ同月三日里民約十名ト共ニ同運動ニ参加シ被告黄、蕃益下相憲ハ同月一日被告下卜又範方ニ到リ独立運動ニ参加シ尚旧幹部ヲ各々旗ヲ作成スヘキ旨勧誘シ下又範ハ之ニ應シ居村書堂ニ於テ同國旗ヲ作リテ里民ニ配布シ被告黄、蕃益ハ下又範等ニ同國旗ヲ作成スヘキコトヲ勧誘シテ同人等ト共ニ之ヲ作リテ里民ニ配布シ而シテ被告相撰相述守書相憲永鐘又範ハ孰レモ同月三日約千五百名

ノ群衆ト共ニ同門ニ於テ朝鮮独立
萬歳ヲ高唱シツヽ鎮衆憲兵駐在所ニ
押寄セントシ救石其ノ他暴行ノ為ニ
警察官同駐在所詰憲兵伍長川上
清太郎、後頭部其ノ他四上等兵洪沢
七次ノ右前腕部同補助員池宜泰
ノ腰部右側ヲ負傷セシメタルヲ始メ
警察官ニ対シ暴行ヲ加ヘ
成員ハ止ムヲ得ス発砲シ暴民中死
傷者ヲ生ゼシムルニ至リ解散シタルモノ
ナリトス而シテ右ハ被告十相義カ
慶尚北道大邱ニ於ケル尹相義外数名
ノ組織ニ係ル帝國領土ノ一部タル朝鮮
ヲシテ帝國ノ統治ヨリ分離セシメ旧韓
國ト同一ノ独立國ヲ建設セントスル陰
謀団ノ中央統部ノ命ヲ受ケ其ノ陰
謀ノ目的ヲ達スル手段トシテ暴動ヲ
為シタルモノニシテ本件記録ニ徴シテ明
瞭ナリトス
以上ノ事実ニ刑法第七十七條ノ該當スル
犯罪ニシテ朝鮮総督府裁判所令第三條

裁判所構成法第五十條ニ依リ高等法院ノ
特別管轄ニ屬スル事件ナルヲ以テ當支
廳ノ管轄ニ屬セス仍テ各被告ニ對シテハ
管轄違ノ言渡ヲ爲スベク尚被告永相攝
永相述具守書永相憲金永鍾ニ
又範ニ對シテハ旬留ヲ要スルモノト認ムルヲ以
テ刑事訴訟法第二百二十六條第二百
十二條ニ則リ主文ノ如ク判決ス

大正八年十一月六日

釜山地方法院馬山支廳

裁判長朝鮮總督府判事　八木宇吉

朝鮮總督府判事　中村榮孝

朝鮮總督府判事　朴吉永

朝鮮總督府書記　山脇勝之介

원본대조필
용도 재판용
정부기록보존소 보존의 문서원본에서 직접 인쇄한
광디스크로부터 복사되었음을 증명함
1999. 11. 9
(용도외 사용을 금함)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무신자

大正九年 刑控 第三六六號

判決

慶尚南道昌原郡鎭田面
良田里五番地 農業 不詳

卞 相 泰

明治三十五年十月二日生

同道同郡同面同里五番地
農業

權 寧 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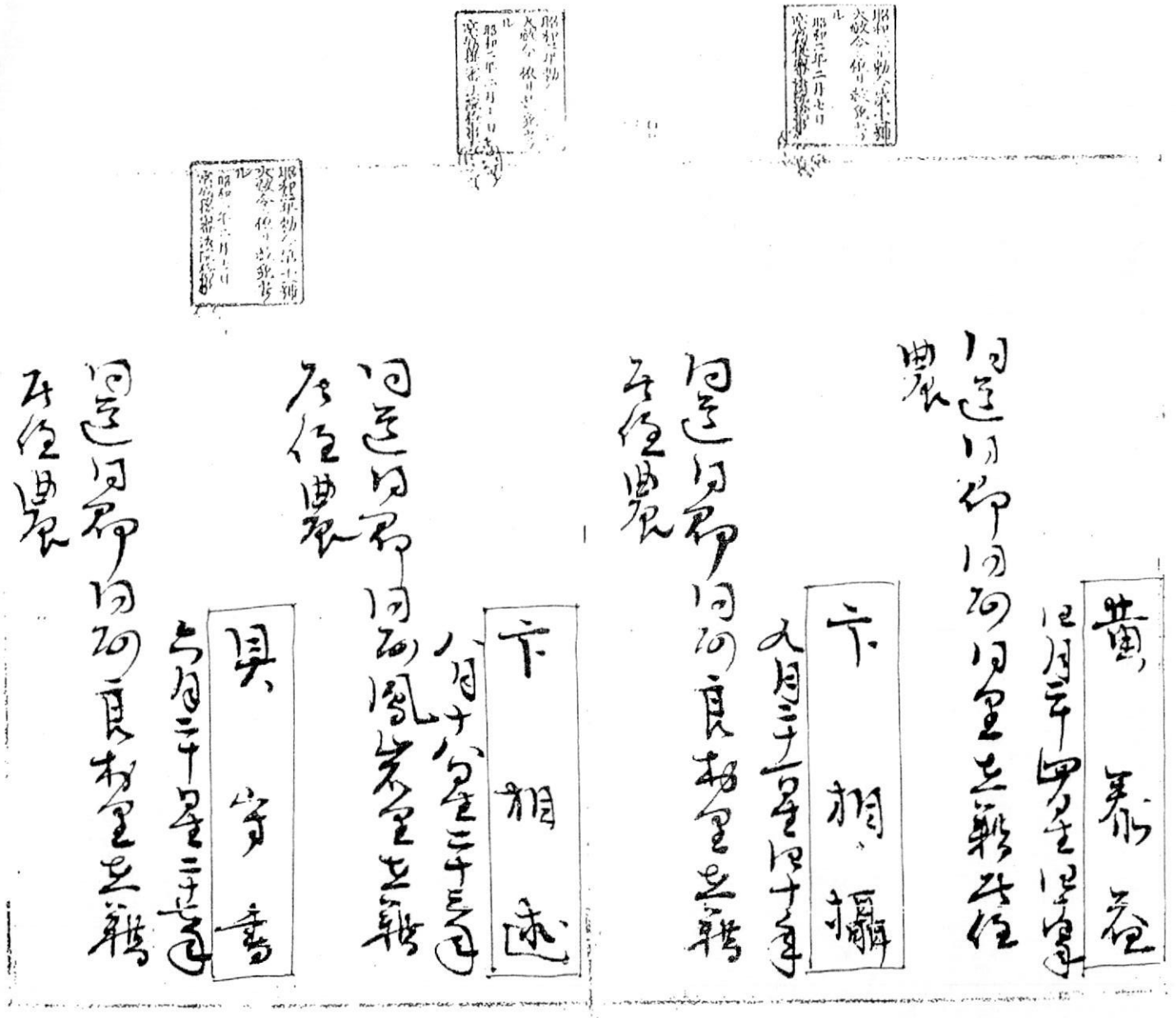
明治十六年八月十七日生

同道同郡同面同里五番地
農業

權 泰 奭

明治十八年十月八日生

同道同郡同面同里五番地
農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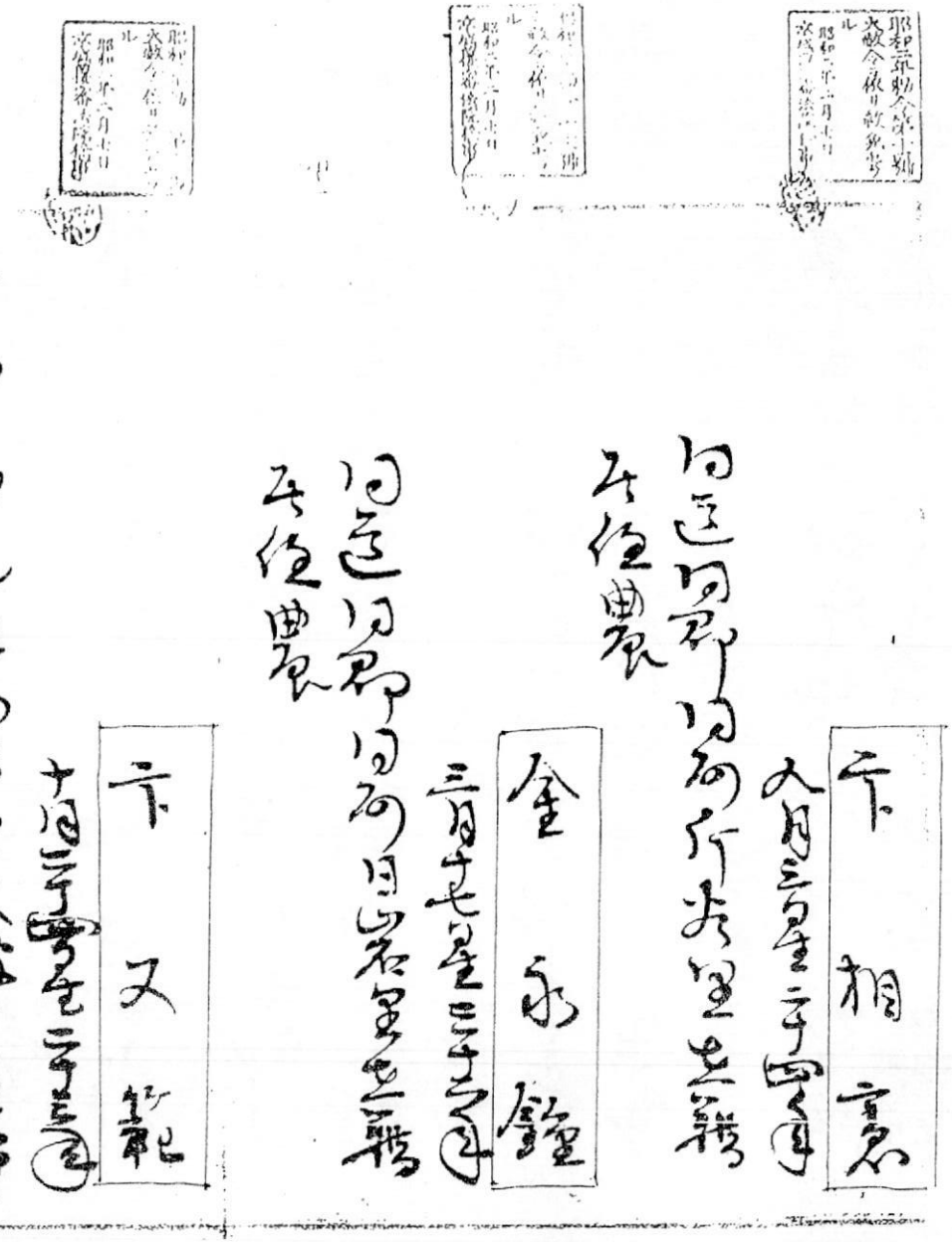


黄幕在
旧月三十四年三月
旧正月卯月旧卯月旧正朝廷ニ仕
奉

下相摂
八月三十二年旧十年
旧正月卯月旧卯月旧良相公ニ朝廷ニ
仕奉

下相述
八月十分三十三年
旧正月卯月旧卯月旧風雲公ニ朝廷ニ
仕奉

吳宇喜
六月三十年三年
旧正月卯月旧卯月旧良相公ニ朝廷ニ
仕奉


下相高
八月三日
同日高行光里之報
告仰聞
金永鐘
三月十七日
同日高行光里之報
告仰聞
下又範
十月二日

但し此事件ノ運動ヲ欠ケ又ハ事件
終ラサルニ於テハ土居アリタルトキハ
其日ヨリ三ヶ月間ヲ限リ其儘ノ
事ニ為スコトヲ得

第四條

裁判所ハ事件ヲ取扱等裁判
ノ執行ニ付キ必要ト認ムルトキハ
何時ニテモ職権ヲ以テ又ハ検事
ノ請求ニ依リ証人ヲ訊問シ又ハ
鑑定ヲ命スルコトヲ得

第五條

裁判所ハ事件ヲ取扱ヒ裁判
ノ執行ニ付キ必要ト認ムルトキハ
何時ニテモ職権ヲ以テ又ハ検事
ノ請求ニ依リ証人ヲ訊問シ又ハ
鑑定ヲ命スルコトヲ得

日本基督公會全體之力ニ於テ我カ
全國傳道ニ關シ特別ノ祈禱ヲ爲ス
ノ必要アルヲ以テ茲ニ本月ヨリ來ル
四月マテノ間ヲ以テ祈禱週間ト定メ
各地ニ於テ之ヲ實行セラレンコトヲ
望ム
一、祈禱會ハ各地ノ都合ニ從ヒ晝夜
何レノ時ニテモ可ナリトス
一、祈禱會ニハ成ルヘク多數ノ信徒
ノ參會ヲ望ム
一、祈禱會ニハ各地ノ都合ニ從ヒ一
回又ハ數回ヲ開クヘシ
一、祈禱會ニハ各地ノ都合ニ從ヒ一
日又ハ數日ヲ開クヘシ

지 않는 사람은 가옥을 파괴할 것", "점심을 싸 가지고 올 것", "태극기를 가지고 한 집에 한 사람 이상 나올 것" 등이었다.(고등법원 구수서 심문조서 제1회) 일경의 심문 기록을 보자면, 의거를 준비하던 인물들은 통지서를 읽어주면서, 만약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가옥을 파괴할 뿐 아니라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런 강제성에 대한 언급은 재판을 받을 때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홍인석 씨 증언) 또한 일부 자료에 의하면, 만세 시위에 적극 참여한 인물들은 의거 당일에 "십인장(十人長)", "이십인장(二十人長)" 등이라고 쓴 삼베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여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봉암리의 구장으로 있던 구수서는 의거 당일에 수십 명(재판 기록으로는 약 10명)의 시위대를 이끌고 왔고, 근곡리의 구장으로 있던 김영종은 백여 명(재판 기록으로는 3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왔음을 볼 때, 우리는 인원 동원 작업이 집성촌별로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의거를 위한 인원 동원이 오직 집성촌별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중심 인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가서도 의거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예로서 우리는 변상태 등이 양촌리 개간장에 간 사실을 들 수 있다. 의거 하루 전인 4월 2일에는 마침 양촌리의 개간장에서 70-80명의 사람들이 개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날 정오 경에 변상태와 변상섭이 이 장소로 와서 다음날 있게 될 의거를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였다. 여기서 변상태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민족 독립의 횃불을 들 때는 왔다. 우리가 독립하지 못하면 영원히 개·돼지의 처지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후손들에게 말못할 후환을 끼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항일 독립의 전선으로 궐기할 때이다.

우리는 변상태의 연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의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변상태 등이 얼마나 절박하게 의

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는지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의거에 대한 이야기는 지인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범 례 >
시위대의 이동경로
이동 도중 호응한 마을들
0
1
2
3km
축척 1 : 50,000
4월 3일 오후 2시
4월 3일 오전 9시

5) 4 · 3 의거

4·3의거가 일어난 4월 3일은 삼짇날(음력 3월 3일)이었다. 이 날은 강남에 간 제비가 돌아와 추녀 밑에 집을 짓는다는 때로서 이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기에 용이하였다. 의거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거사일을 정하였다. 드디어 4월 3일 오전에 진전면 양촌리 일암 부락 앞에 있는 시냇가에 사람들이 운집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이곳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형편이지만, 당시에는 이곳에 넓은 공터가 위치해 있었으므로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이날 오전에 최초의 시위대열을 형성한 사람들의 수는 2천 명 내지 1천 5백 명 정도라고 언급되어 왔다. 현재로서는 그 정확한 숫자를 알 길이 없지만, 농촌 지역에서 유례가 드물 정도로 많은 인원이 의거의 출발지점에 운집한 사실만은 틀림없다.

예정 시각인 오전 9시가 되자 대형 태극기가 나부끼고 드디어 의거가 시작되었다. 영남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인 조선국권회복단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서울의 만세 시위에 참여한 바 있던 변상태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였다.

오늘부터 우리는 자유 민족이며 자유국의 국민이다. 일본의 관여는 추호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한다.

이어 변상섭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변상태의 선창에 따라 참여자들이 만세를 부름으로써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시위 행렬은 진동으로 가기 위하여 서서히 임곡 삼거리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변상태는 연설을 마친 후 시위대열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성구사에 거주하던 이수룡과 함께 진양군 문산으로 출발하였다. 우리는 이처럼 삼진의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변상태가 시위 대열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서부 경남의 만세운동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만큼 신속히 다른 지역의 만세 시위를 위하여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4월 3일 당일에 독립만세시위를 논의하기 위해 대구의 서

상일, 김관제, 정신일, 거창의 진종수, 마산의 김광제, 창원의 이수용 등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또한 그는 유림의 거두였던 전양제, 곽만우, 장혜당, 이시암, 조서천, 오석농 등과 만나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전해진다. 변상태가 이처럼 현장을 떠난 것은 다른 지역의 만세 시위를 추진하기 위함이었음에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날의 4·3의거에 대한 그의 전망의 일단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그는 그 날의 만세시위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의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그 날의 시위 목적 중 하나가 비록 고현 시장 의거 관련자들을 구출하기 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평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방증 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일부 증언에 따르자면, 그 날의 시위를 위해 사람들이 몇 정의 죽창을 준비했다고 하지만(변만섭 씨 증언), 본격적인 무장 투쟁이 계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촌리의 시냇가를 출발한 시위 대열은 장대(약 두 간 길이, 즉 약 86㎝)에 매단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방천 둑을 따라 내려가다가 임곡 삼거리를 거쳐 진동을 향하여 이동하였다. 장대에 매단 대형 태극기는 부락 혹은 동네별로 준비하였는데,(홍인석 씨 증언, 변만섭 씨 증언) 그 수가 약 15본 가량이었으므로(고등법원 변상술 심문조서 1회), 이 의거에 집단적으로 참여한 부락의 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월안리(月安里), 곡안리(谷安里), 오서리(五西里), 봉암리(鳳岩里), 도산리(道山里), 임곡리(林谷里), 근곡리(斤谷里), 암하(岩下) 등 시위대열이 이동하는 연도에는 길목마다 막걸리동이가 비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었고,(홍인석 씨 증언) 독립만세 소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 대열에 합류하였다. 애초에 출발 인원이 대규모인 데다가 도중에 다른 사람들도 시위 대열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대열의 행진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았다. 오전 9시에 의거가 시작되었지만, 일경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황교(凰橋)에 시위 대열이 도착한 시각은 오후 2시경이었다.

시위대가 황교에 도착했을 때의 시위대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아주 다양한 수치가 나온다. 『경남독립운동소사』를 쓴 변지섭은 그 수가 8천 명, 『삼일운동사』(1971년 간행)를 쓴 김의환은 5천 명, 시위진압 현장에 있었던 삽곡칠차(澁谷七

次)는 3천 명으로 보고 있다. 물론 우리가 당시의 시위대 숫자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삼진의거가 일어나던 1919년 당시에 마산부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총 12,054명, 창원군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총 11,500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진동의 조선인 인구는 1,987명이었다는 점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남부희, "마산 창원 지역의 3·1운동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5, 1997, p. 181.) 또한 당시의 재판 기록에 따르자면, 대열의 길이가 5리(2km) 혹은 10리(4km)였으며 지산리 부락 일대는 시위참가자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 물론 당시의 도로는 오늘날보다 협소했음을 감안하여 1m 간격으로 서너 명씩 행진하여 2km의 대열을 이루었다면 그 수가 3~4천 명, 그리고 4km라면 6~8천 명이었을 것이다. 8천 명이든 3~4천 명이든 도시 지역과는 달리 인구가 비교적 적은 농촌 지역에서 이 정도의 인원이 동원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사건이었다.

대규모 시위 행렬이 진동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군경도 나름대로 시위 대열에 대항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일본군경은 재향군인들을 소집하여 시위 대열이 접근하고 있는 사동리 쪽으로 보내어 일차적으로 시위 대열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이들 재향 군인들은 지산리 도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위대를 막고자 시도하였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시위대의 선두가 당시의 황교, 즉 오늘날에는 마산-고성 방면 국도에 위치한 지산교 바로 옆의 다리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곳과 진동 중심가의 거리는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15정(町) 정도, 즉 1km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일본군경으로서는 이 황교가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진동면과 진북면의 경계인 이곳 바로 옆에는 최근에 긴 다리가 놓여 있지만, 지형상 덕곡천(혹은 사동천)이 흐르고 있어서 소수의 인원으로 대규모 시위 대열을 막기에 적합하였다.

시위 대열의 선두가 황교에 도착한 무렵에, 황교 건너편의 일본측의 저지선에는 일본 헌병 및 헌병 보조원 8명과 현지의 일본 재향군인 30여명이 포진하고 있었다. 시위대는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고 일본측은 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위대가 일본헌병들에게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시위 대열의 선두에 서 있던 인사들은 독립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

황이었다. 처음에는 양측 사이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헌병의 모자 끈과 단추와 견장이 떨어져 나갔다. 몸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헌병의 지휘관이었던 천상청태랑(川上淸太郞) 헌병 오장(伍長)은 시위대가 계속 전진한다면 발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 때 삼진장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김수동이 황교 위에서 장대에 매단 대형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독려하다가 그를 제지하는 일본 헌병 보조원을 다리 아래로 내동댕이쳤다. 이에 흥분한 일본 헌병 보조원이 그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이것이 명중하여 김수동은 다리 위에 쓰러졌다. 일부 증언에 따르자면, 이 때 총을 쏜 헌병 보조원은 한국인이었던 심의중(沈宜中 혹은 沈宜震)이었다. 김수동은 피격된 후 즉사하지는 않았고, "나를 죽이는 놈은 심의중이다. 이 원수를 갚아라!"라고 하였다고 한다.(김재복 씨 증언)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은 김수동과 같이 진전면 동산리 출신으로서 그 날 순국한 김영환(金永煥)이라고 하는데,(변지섭, 『경남독립운동소사』, 1966, p. 6.) 현재로서는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의거 대열을 제지하던 일본측 가운데 헌병 보조원으로 한국인이 있었다는 점만은 사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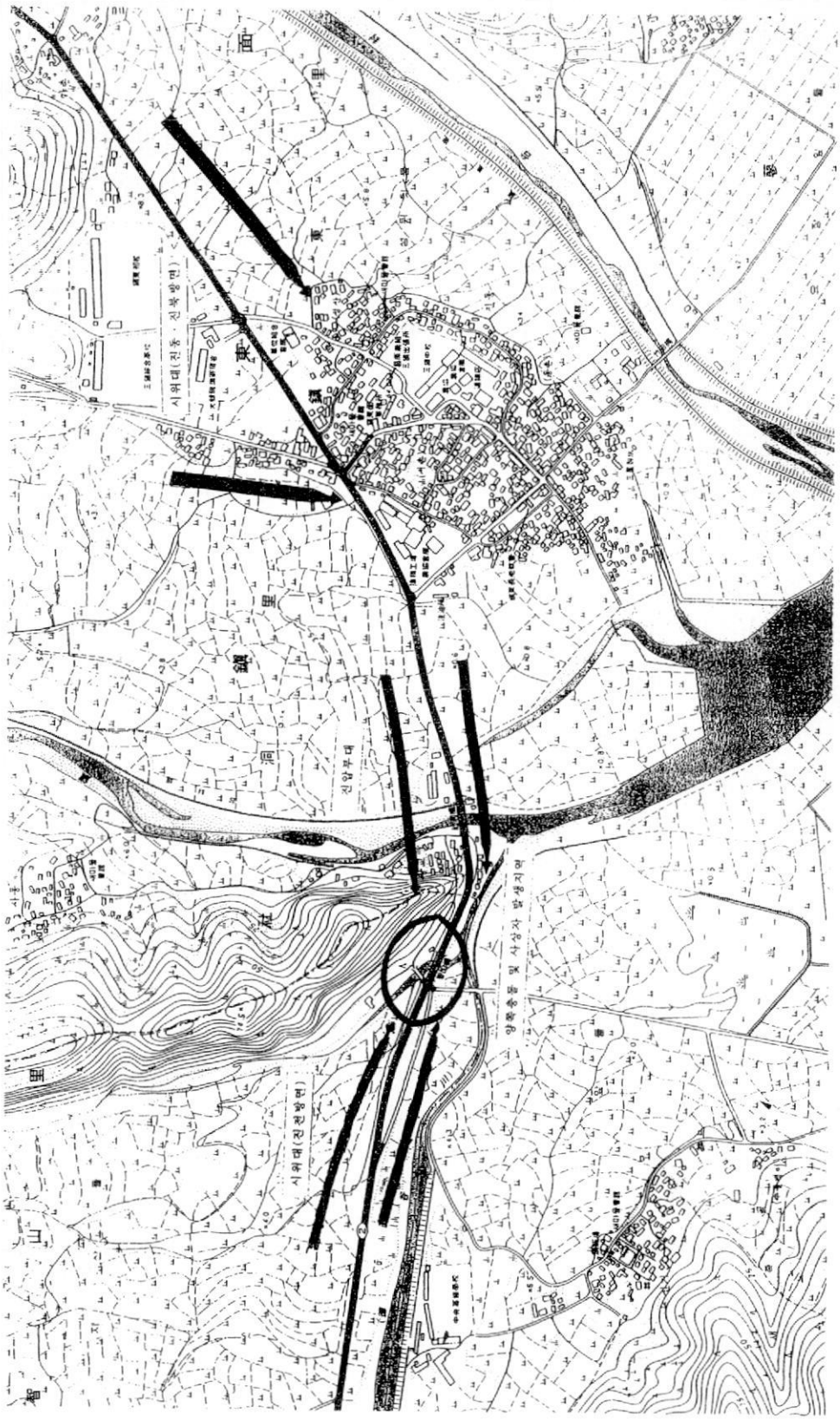
김수동이 쓰러지자 그와 함께 시위 대열의 선두에 서 있던 변갑섭은 김수동이 들고 있던 대형 태극기 장대를 들고 일본 헌병을 향하여 달려가 일본 헌병 오장인 천상청태랑(川上淸太郞)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기세에 놀란 천상청태랑(川上淸太郞)은 태극기를 들고 있던 변갑섭의 오른쪽 어깨를 군도로 내리쳤는데, 이로써 변갑섭의 오른쪽 어깨가 절단되었다. 변갑섭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남아있는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돌진하였다. 일본 헌병은 잔혹하게도 그의 왼팔마저 군도로 내리쳐 결국 변갑섭도 황교 위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시위 대열의 선두에 있던 이 두 사람이 쓰러진 다음에 시위대와 일본측 사이에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었다. 일본측은 시위 진압을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는데, 일부 증언에 따르자면 시위대는 맨 처음에 이것이 단지 위협 사격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측의 발포와 함께 수적으로 월등히 많았던 시위대가 일본 헌병과 재향군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짐으로써 양측에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기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던 시위대열에서 더욱 많은 희생자가 났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일본측의 실탄 사격에 놀란 시위 참여자들

이 사방으로 흩어져 해산한 시각은 오후 3시 무렵이었다. 이보다 앞서 일본측은 시위대의 규모에 놀란 나머지 진동의 일본헌병과 재향군인으로서는 시위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마산에 주둔하고 있던 야포대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였다. 야포대대가 도착한 시점은 시위대가 해산한 다음이었는데, 당시의 분위기로 보아 야포대대의 도착 시각이 좀더 빨랐다면 시위대 측의 피해가 훨씬 컸으리라고 짐작된다.

양촌리에서 출발한 시위대와는 달리, 진동면과 진북면에 살던 사람들이 중심이 된 또 다른 시위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이 두 시위대는 물론 사전에 서로 교감을 가진 상태로서 일정한 시점에 서로 세력을 합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진동은 삼진지역 전체를 통틀어 일본 세력의 거점이었던 만큼, 시위대는 신중하게 행동하였다. 시위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진북면 사람들은 마치 삼짇날에 나들이를 가는 것처럼 몇 명씩 진동시장에 모인 다음에, 진동면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진동성터 뒤편에 집결하였다. 양촌리의 시위대가 진동에 다가올 무렵인 정오 경에 진동성터 뒤에 집결한 시위대 앞에서 백승학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이 후에 시위대는 진동 성터 뒤편으로부터 남문을 거쳐 진동장터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양촌리에서 출발한 시위대와 합류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진전면과 진동면 경계에 있던 황교 부근에서 대규모 유혈 충돌이 일어남으로써 두 시위대는 합류하지 못하고, 진동 쪽의 시위대도 해산하고 말았다.

일본측이 집계한 바로는 황교 충돌 현장에서 즉사한 시위대의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총 11명이었다. 그리고 일본측에서도 왼쪽 허리를 다친 심의중 헌병보조원을 포함하여 오른쪽 후두부를 다친 천상청태랑(川上淸太郎) 오장(伍長)과 바른쪽 앞 무릎 부분을 다친 삽곡칠차(澁谷七次) 상등원 등 부상자가 3명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우리 나라에서 1965년에 간행된 독립운동사 저술을 보면,(김승학 편저, 『한국독립사』, 통일문제연구소, 1965, p. 191.) 추가적으로 5명의 아동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당일에 사망한 순국자는 총 8명이었다. 아동 5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은 김형윤이 쓴 "삼진기행"에 처음 등장하는데, 다른 자료에는 아동 5명의 추가 사망 사실이 언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본측이 집계한 사망자 5인이 김형윤에 의해 아동 5인 추가 사망이라고 오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본측은 8명이 아니라 5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하였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물론 일본측이 의도적으로 피해 규모를 축소한 데 기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수라장이 되었을 법한 당시의 충돌 상황에서 희생자 집계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데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황교 충돌 현장에서 쓰러진 희생자들은 시위대가 해산 당한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놓여있었다. 일본 헌병과 마산에서 온 야포대대의 관심은 부상자 구호보다는 시위대를 추격하여 체포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일부 순국자들의 경우에는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생명을 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황교 위에 방치되어 있던 순국자들의 시신은 어스름이 내린 이후에야 친지들과 지인들이 달구지 등을 갖고 와서 수습한 다음에 희생자들이 살던 마을 인근에 가매장한 형편이었다.(변재유 씨, 변만섭 씨 증언) 이처럼 일본군경은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로부터 대형 태극기 6본과 소형 태극기 44본 등을 압수하였다.



여기서 4·3의거 당시에 순국한 분들의 인적 사항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수동(金守東) : 1877년 8월 26일 생, 당시 42세. 주소 : 진전면 동산리

변갑섭(卞甲燮) : 생년월일 미상(당시 24세, 변재유 씨 증언). 주소 : 진전면 양촌리 384번지

변상복(卞相福) : 생년월일 미상(당시 미혼). 주소 : 진전면 일암리

김영환(金永煥) : 생년월일 미상(당시 미혼). 주소 : 진전면 동산리

고묘주(高昴住) : 생년월일 미상(당시 미혼). 주소 : 진전면 일암리

이기봉(李基鳳) : 생년월일 미상(당시 미혼). 주소 : 진전면 봉곡리

김호현(金浩鉉 혹은 홍록(洪錄), 당시 미혼) : 1893년 12월 25일 생, 당시 26세. 주소 : 진전면 곡안리

홍두익(洪斗益) : 생년월일 미상(17~8세로 추정). 주소 : 진전면 오서리(혹은 양촌리)

또한 부상당한 22명의 명단을 열거해보면, 변현, 박종숙, 고재록, 고운석, 황성봉, 김동이, 변상준, 김대업, 권태문, 권영달, 이몽재, 권영민, 박금용, 조용옥, 문재수, 변용섭, 손삼룡, 구말서, 홍성오, 박용한, 김봉조, 변정섭 등이다. 이 부상자 명단 가운데 포함된 22명은 비교적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서 경상까지 포함한다면 4월 3일에 다친 사람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경상자들은 집에서 스스로 치료하였고, 중상자들은 일본측이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 받기를 거부하고 마산의 삼성 병원

(三省 病院)과 진주의 배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삼성 병원은 당시에 마산에서 조선인이 운영하던 유일한 병원이었는데, 이곳에서 일하던 김형철(金炯轍)은 일본의 강산의전(岡山醫專)을 졸업한 유능한 청년 의사였다. 그는 삼진의거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인 1918년 11월에 그의 동생인 형달(炯達)과 함께 나중에 대광예식장이 선 자리에서 개원한 바 있었다. 김형철은 4·3의거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무료로 성심껏 진료해 주어 훗날에 마산 지역에서 널리 알려졌다.(김형윤, 『마산야화』, 경남, 1996. pp. 121-122.) 의거의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또 다른 곳인 진주의 배돈 병원(培敦 病院)은 1913년에 호주선교회가 설립한 치료기관이었다. 이 병원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 선교의 방편으로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식 의료 기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었는데, 삼진의거의 부상자들도 이런 까닭으로 멀리 진주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삼진 의거의 또 다른 의미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일경의 철저한 수색이 이루어지던 살벌한 분위기에서도 부상자를 위한 모금 운동이 삼진 지역 전역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데 있었다. 부상자를 위한 치료비 모금 운동에는 당시에 진전면장으로 있던 권오봉이 앞장섰다. 그는 진북면 및 진동면 면장들과 협의하여 자기들의 관할 지역에 치료비 모금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지문은 "이번의 부상자들은 모두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된 자들이므로 이들의 치료비는 우리들이 갹출해야 한다."라는 요지를 담고 있었다. 그 결과 일정액의 성금이 모아졌는데, 진동면에서는 233원 40전, 진북면에서는 94원 45전이 모금되었다. 진전면에서 모금된 액수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다수의 희생자들이 진전면 출신인 것을 감안하면 진전면에서도 적극적인 모금 운동이 전개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6) 의거와 관련된 재판

4·3의거와 관련하여 체포된 사람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심 인물들인 변상태와 권영대, 권태용, 황태익은 체포되지 않고 몸을 피하는 데 성공하였다. 체포된 사람들

중 일부는 석방되었으나, 변상태를 비롯한 10명은 재판에 계류되었다. 4·3의거는 다수의 희생자를 낸 사건이었던 만큼 일경으로서도 간단히 취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더구나 최초의 심리를 맡았던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재판장 : 八橋容, 판사 : 小松博美, 朴志永, 奥田畯)은 4·3의거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조선국권회복단과 연계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재판장인 팔교용은 비교적 연장자인 변상섭에게 변상태와 조선국권회복단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변상섭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렇지만 변상태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은 변상태와 조선국권회복단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마산지청의 재판장인 팔교용은 1919년 11월 6일에 4·3의거를 형법 제77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내란죄로 규정하고, 주동자인 변상태와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을 고등 법원 관할로 이송하였다.

사건을 이송 받은 고등법원도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심문을 통하여 변상태 및 그가 속한 조선국권회복단이 삼진의거의 배후인지 면밀히 조사하였다. 그렇지만 고등법원은 변상태 등이 조선국권회복단과 연계하여 독립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중앙총부로부터 명령을 받아 폭동을 일으켰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고등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 渡邊暢, 판사 石川正, 横田波夫, 水野正之丞, 原正藏)는 1920년 3월 22일에 형사소송법 제 315조 제 2항에 의하여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첩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현장에서 체포를 면한 네 사람 중 황태익을 제외한 변상태와 권태용, 권영대는 도피 중에 있었다.

그렇지만 사건을 이관 받은 서울지방법원 형사 1부의 재판장인 조선총독부 판사 입천이랑(立川二郎)은 그 해 8월 7일에 "서울지방법원을 피고 등에 대한 피고사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한다고 했을 뿐 사건을 동 법원에 송치한다는 뜻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본건은 아직 원심에 계속되고 있음이 아니다."고 하며 이 사건에 대한 공소수리 불가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4·3의거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확정 판결은 사건이 발생된 지 무려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1920년 10월 30일에 서울복심법원 형사부(재판장 : 塚原友太郎, 판사 : 新井胖, 杉浦武雄)에 의하여 내려졌다. 여기에 따르자면, 관련자들은 조선형사령 제 42조가 형명(刑名)이 변경

된 보안법 제 7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언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직 체포되지 않고 궐석 상태로 재판을 받은 변상태, 권영대, 권태용은 징역 2년, 변상섭, 변상술, 구수서, 변상헌, 김영종, 변우범은 징역 1년을 언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태익은 운동에 대한 참가 권유 및 태극기 작성 권유 사실에 대한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확정 판결을 받은 분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변상태(卞相泰 혹은 敬宰) : 당시 30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권영대(權寧大 혹은 寧震) : : 당시 34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권태용(權泰容) : 당시 34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변상섭(卞相燮) : 당시 39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일암리 796번지

변상술(卞相述) : 당시 22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30번지

구수서(具守書) : 당시 26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봉암리 226번지

변상헌(卞相憲) : 당시 23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383번지

김영종(金永種) : 당시 30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근곡리 319번지

변우범(卞又範) : 당시 22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일암리 662번지

황태익(黃泰益) : 당시 43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일암리 333번지

그렇지만 앞서 말한 바 있듯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삼진 의거의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던 변상태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따라서 일본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진동헌병대와 마산헌병대 및 경찰서가 변상태의 집을 빈번히 수색한 것은 물론이고, 서울의 종로경찰서에서 25회, 경남 제3부에서 무려 105회나 그의 체포와 관련하여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변상태는 도피 생활 중에서도 합천군 초계의 거유인 이직현을 방문하고 그의 근친인 이원화와 초계 의거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서부 경남에서 만세 시위를 조직하고자 분주히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는 1920년 2월에는 만주로 건너가서 박광, 김정식 등과 함께 만주에 한국회관을 건립하고자 노력하였고, 곽인협, 김상집 등과는 아사동맹회(餓死同盟會)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그는 또한 1921년 1월에는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본에 가기도 했으며, 1922년 5월에는 1년 간의 일본 체류에서 돌아와 전남 송정리의 호남물산 사장으로 있던 종제(從弟) 변상구에게서 받은 독립 자금 3천 원을 의열단 단원인 이종암에게 전달하여 이종암이 1923년 3월 18일(28일?)에 상해 황포탄에서 오성륜, 김익상과 더불어 일본 육군 대장 전중의일(田中義一)을 저격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변상태는 결국 1922년 7월에 이웃 친지의 밀고로 체포되어 49일 동안 잔혹한 고문을 받은 다음, 미결수 신분으로 6개월, 서대문 감옥에서 6개월, 함흥감옥에서 2년 등 도합 3년의 수감 생활을 하였다. 또한 고현 시장에서의 의거와 관련하여 1년의 징역형을 산 백승학은 1920년대 초반에 삼진청년회와 삼진 농민조합, 삼진 소비조합을 조직하여 일본인들과 친일파 지주에 대해 소작료 납부거부, 세금 납부거부 운동 등을 전개하고, 군수 등 관리들에게 경고문 발송하다가 다시 체포되기도 하였다. 또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황태익은 1920년 3월에 진주에서 경남 결사대를 조직하여 임시정부와 연결된 독립운동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삼진독립운동사에서

(일부 발췌)

三鎮獨立運動史

監　修：光復會 慶南・蔚山 聯合支部長
林 基 烈
文學博士　鄭 允 凡

三鎮獨立運動史編纂委員

제1장 獨立運動史와 義兵 ……19

제1절 의병전쟁의 시기 ……20
1. 제1차 의병전쟁 ……20
2. 제2차 의병전쟁 ……21
3. 제3차 의병전쟁 ……22
4. 경상도의 의병 ……22
제2절 일본군의 대토벌작전 ……23

제2장 3·1獨立運動 ……26

제1절 3·1獨立運動의 배경 ……26
제2절 3·1獨立運動의 추진 ……29
제3절 3·1獨立運動의 전개 ……38

제3장 三鎭抗日獨立運動 ……44

특 색
제1절 진동면 고현시장의거 ……48
제2절 三鎭(鎭田, 鎭北, 鎭東)義擧 ……51
제3절 三鎭의 八義士 ……55
제4절 三鎭 義擧의 落穗 ……57
제5절 三鎭 抗日義擧 主動者재판기록(번역일부) ……60
제6절 咸安 抗日義擧 主動者재판기록(번역일부) ……65

제4장 三鎭 및 咸安抗日愛國志士個人略傳
(三鎭面出身) ……70

愛國志士一覽表
제1절 三鎭面 抗日愛國志士 ……74
제2절 咸安 抗日義擧에 가담한 愛國志士 ……123
제3절 그 외 愛國志士 ……131

제5장 三鎭 및 咸安抗日義擧 主動者
재판기록원본(三鎭面出身) ……134

· 조선총독부 형집행원부:조계승 ……135

· 서대문 형무소 수형자 명부 ……136
구수서 외 4명
·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판결문……141
(大正 8년 11월 6일) 권영대 외 9명
(大正 8년) 조병대 외 3명
· 경성지방법원……154
(大正 9년 8월 7일) 변상태 외 9명
· 대구복심법원……195
항소심(大正 8년 8월 20일) 조계승
(大正 13년 11월 7일) 백운동 외 2명
(昭和 3년 4월 7일) 백승학
· 경성고등법원……215
(大正 9년 3월 22일) 변상태 외 9명
· 경성복심법원 ……234
(大正 9년 10월 30일) 변상태 외 9명
(大正 10년 2월 23일) 권영대
(大正 10년 2월 28일) 권태용
· 면비치 범죄인 명부 이교재 외 19명 ……252

제6장 기타 ……272

· 1920년 7월 25일자 동아일보 ……272
변상태 외 9명(고등법원)
· 1934년 6월 28일자 동아일보 ……273
김기찬, 황보현 교육노조 결성하여 反日교육주도
· 소화 11년 일본 내무성 경보국 특고 ……274
경찰 통첩, 박헌행(일명 朴鏞德)선생이
가담한 조선독립을 위한 노조결성사건
· 이교재 열사 묘소 金九선생 참배……275
· 현존하는 三鎭義擧 주동자 근황 ……276
권영민, 이몽출 義士(마산일보 1959년?)
· 殉義한 李敎載 先生과 八先烈 분묘……277
개축사업 발기회
· 八義士 合同 묘역준공……280
· 八義士 묘역 정화사업 추진 위원회 취지문 …281
· 八義士 彰義塔 碑文……282
· 八義士 墓 碑文……283
· 三鎭獨立義擧記念碑文……284
· 창의탑 건립시 박정희 대통령이 보내온 축전 …285

· 맺음말……286
· 발행처……287

제5장 三鎭 및 咸安獨立運動 主動者 裁判記錄(大正1年 : 서기 1912 / 昭和1年 : 서기 1926)

1. 조선총독부 형 집행원부 : 曺啓承

2. 서대문 형무소 수형자 명부 : 구수서, 변상술, 변상섭, 변상헌, 변우범

3.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판결문

• (大正8년 11월 6일) : 權寧大, 權泰容, 卞相泰, 黃泰益, 卞相攝, 卞相述, 具守書, 卞相憲, 金永鍾, 卞又範

• (大正8년) : 曺秉大, 南秉熙, 金祥集, 朴魯一

4. 경성지방법원

• (大正9년 8월 7일) : 卞相泰, 權寧大, 權泰容, 黃泰益, 卞相攝, 卞相述, 具守書, 卞相憲, 金永鍾, 卞又範

5. 대구복심법원 : • 항소심(大正8년 8월 20일) : 曺啓承

• 형사2부(大正13년 11월 7일) : 白雲洞, 徐正奎, 金載龜

• (昭和3년 4월 7일) : 白承鶴

6. 경성고등법원

• (大正9년 3월 22일) : 卞相泰, 權寧大, 權泰容, 黃泰益, 卞相攝, 卞相述, 具守書, 卞相憲, 金永鍾, 卞又範

7. 경성복심법원

• (大正9년 10월 30일 형사부) : 卞相泰, 權寧大, 權泰容, 黃泰益, 卞相攝, 卞相述, 具守書, 卞相憲, 金永鍾, 卞又範

• (大正10년 2월 23일 형사부) : 權寧大

• (大正10년 2월 28일 형사부) : 權泰容

8. 읍·면 비치 범죄인명부

李敎載, 權寧祚, 權五圭, 權泰璿, 權寧大, 權五成, 卞相攝

卞相述, 具守書, 卞相憲, 金永鍾, 卞又範, 黃普鉉,

金奇贊, 金奎鉉, 李炳秀, 朴魯一, 金祥集, 曺啓承, 曺秉大

서대문 형무소 수형인 명부 : 구 수 서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職業

受刑事項							前科犯	備考
罪名	刑名	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言渡裁判所	執行監獄	出獄年月日及其事由	
保安法違反	禁錮 懲役	年 月	大正 年 月 日	大正 年 月 日	法院	西大門監獄	大正 年 月 日 滿期 假出獄	

78180

氏名	年齢	年月日生	指紋番號
具守書	身長	尺寸分	
	特徵		





서대문 형무소 수형인 명부 : 변 상 술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受刑事項						出獄年月日及其事由
				罪名	刑名	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言渡裁判所	執行監獄	
				保安法違	禁錮	年 月	癸 年 月 日	癸 年 月 日	法院	西大門監獄	癸 年 月 日滿期 假出獄
			職業	前科			備考				
				犯							

氏名	年齢	年月日生	指紋番號
卞相述	身長	尺寸分	No.
	特徴		





서대문 형무소 수형인 명부 : 변 상 섭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罪名	刑名	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言渡裁判所	執行監獄	出獄年月日及其事由
保安法違	禁錮	年	大正 年	大正 年		西大門監獄	大正 年
	懲役	月	月 日	月 日	法院		月 日 假出獄

職業

前科	備考
犯	

氏名	年齢	年月日生	指紋番號
卞相燮	身長	尺寸分	No.
6765	特徵		





서대문 형무소 수형인 명부 : 변 상 헌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刑受			刑事上ノ処分				
				罪名	刑名 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官署裁判所	執行監獄	出獄年月日及其事由	
			職業	保安法違反	禁錮 年 月 懲役	壹年 月 日	壹年 月 日	法院	西大門監獄	壹年 月 日 満期 假出獄	
犯罪前科				備考							

氏名	年齢	生年月日	指紋番號
卞相憲	身長	尺 寸 分	No.
	特徴	一九一二	





서대문 형무소 수형인 명부 : 변 우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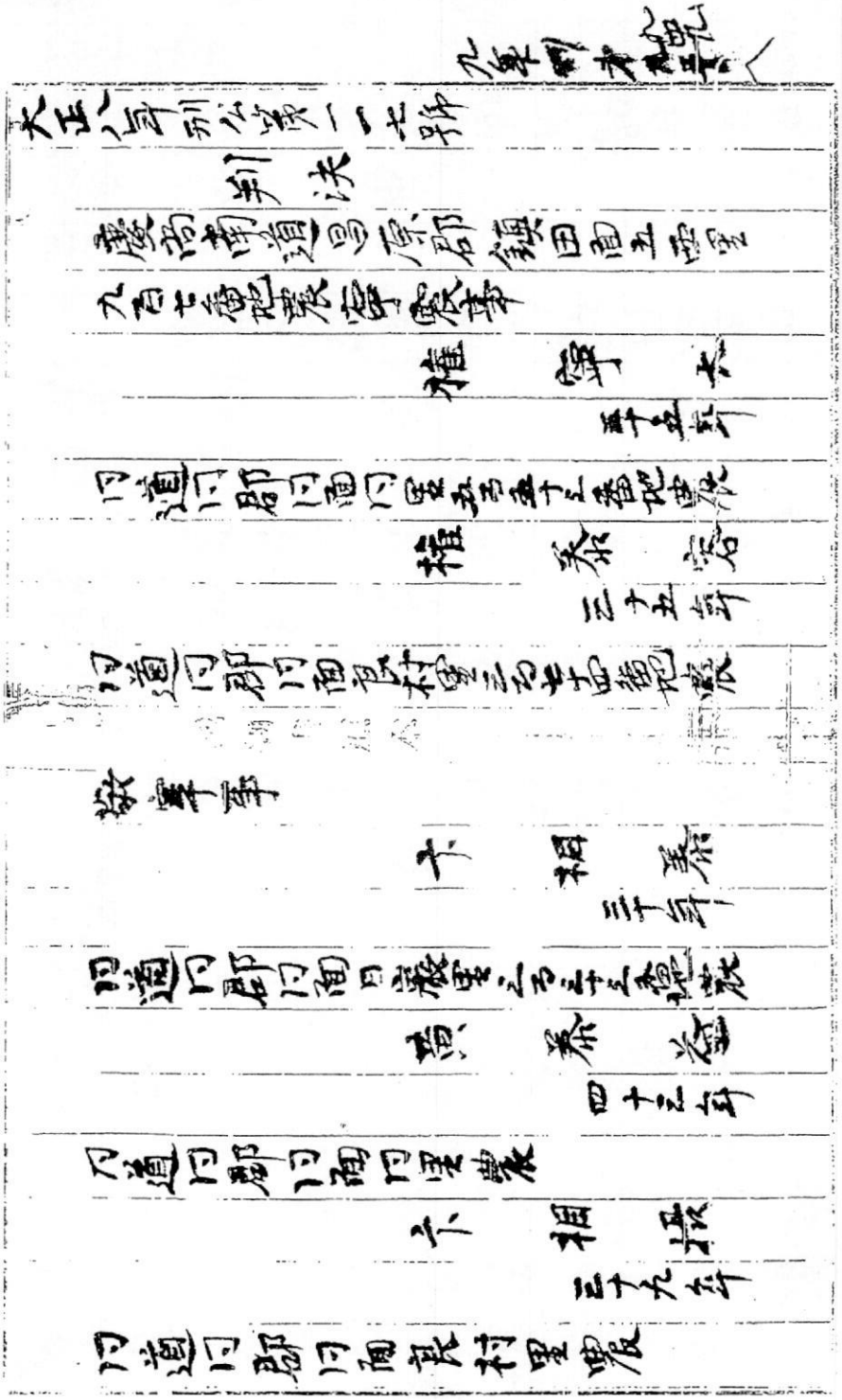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受刑事項							職業
罪名	刑名	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言渡裁判所	執行監獄	出獄年月日及其事由
保安法	懲役	禁錮 年 月	大正 年 月 日	大正 年 月 日	法院	京城監獄	大正 年 月 日滿期 假出獄
前科		備考					
犯							

氏名	年齡	年月日生	指紋番號
卞又節	身長	尺 寸 分	
	特徵		







下相速
二十二年

同道同郡同面鳳山石里農
具守書
二十六年

同道同郡同面良村里農
下相憲忠
二十三年

同道同郡同面斤谷里農
金永鐘
二十年

同道同郡同面白巖里農
下又範
二十二年

右騒擾被告事件ニ付朝鮮總督府檢事奥田暁立會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本件ニ關スル公訴ハ之ヲ棄却ス

被告下相振下相述具守書下相憲金永鐘下又範ニ對シ發シタル

ル勾留状ハ之ヲ存ス

理由

本件起訴ノ事實ヲ審案スルニ被告権藤震一郎ハ権藤寧大権藤容平ノ親等ニ在リ容平ハ相摸ニ於テ相摸藻ハ相摸益ハ共謀ノ上大正八年四月三日ノ旧節句ノ朝ヲ期シ朝鮮獨立運動ヲ為サンコトヲ企テ慶尚南道昌原郡鎮田面鎮北面里ノ各区長ヲ勧誘シ多衆集團シテ騒擾ヲ惹起シ権寧等ヲ鎮東憲兵駐在所ニ引致セラレタル後鮮ヲ無行セントノ意味ヲ以テ同駐在所等ヲ襲撃セントヲ為被告権寧大ハ相摸ニ相摸ハ同月二日正午頃鎮田面良村里土地開墾場ニ於テ約七八十名ノ群衆ニ対シ独立運動ニ参加セサルモノハ鮮人ニアラス狗子ナリ後難アルベシトテ煽動勧誘シ被告権藻容ハ同日午前同面栗峙里金之順ノ方ニ於テ被告金永鎭ニ対シ前同様同運動ニ参加スベキコトヲ勧誘シ因被

告ハ直ニ之ニ賛同シ被告権蕃宗谷ノ意ヲ承ケ同月三日朝自宅ニ於テ旧幹部ヲ旗ヲ作成シ金鳳祚外二十九名ヲ引率シテ同運動ニ参加シ下相撰下相憲下相述ハ同月二日朝同面鳳岩里朴永愛方ニ於テ同區長呉守書ニ対シ同里民ニシテ独立運動ニ参加セサル者ハ其ノ家屋ヲ破壊シテ殺害スヘキ旨ヲ以テ脅迫又ハ煽動勧誘セシメ被告呉守書ハ其ノ煽動ニヨリ同月三日里民約十名ト共ニ同運動ニ参加シ被告黄、蕃益下相憲ハ同月一日被告下卜又範方ニ到リ独立運動ニ参加シ尚旧幹部ヲ各々旗ヲ作成スヘキ旨勧誘シ下又範ハ之ニ應シ居村書堂ニ於テ同國旗ヲ作リテ里民ニ配布シ被告黄、蕃益ハ下又範等ニ同國旗ヲ作成スヘキコトヲ勧誘シテ同人等ト共ニ之ヲ作リテ里民ニ配布シ而シテ被告相撰相述守書相憲永鐘又範ハ孰レモ同月三日約千五百名

ノ群衆ト共ニ同門ニ於テ朝鮮独立
萬歳ヲ高唱シツヽ鎮衆憲兵駐在所ニ
押寄セントシ救石其ノ他暴行ノ為ニ
警察官同駐在所詰憲兵伍長川上
清太郎、後頭部其ノ他四上等兵洪沢
七次ノ右前腕部同補助員池宜泰
ノ腰部右側ヲ負傷セシメタルヲ始メ
警察官ニ対シ暴行ヲ加ヘ
成員ハ止ムヲ得ス発砲シ暴民中死
傷者ヲ生ゼシムルニ至リ解散シタルモノ
ナリトス而シテ右ハ被告十相義カ
慶尚北道大邱ニ於ケル尹相義外数名
ノ組織ニ係ル帝國領土ノ一部タル朝鮮
ヲシテ帝國ノ統治ヨリ分離セシメ旧韓
國ト同一ノ独立國ヲ建設セントスル陰
謀団ノ中央統部ノ命ヲ受ケ其ノ陰
謀ノ目的ヲ達スル手段トシテ暴動ヲ
為シタルモノニシテ本件記録ニ徴シテ明
瞭ナリトス
以上ノ事実ニ刑法第七十七條ノ該當スル
犯罪ニシテ朝鮮総督府裁判所令第三條

裁判所構成法第五十條ニ依リ高等法院ノ
特別管轄ニ屬スル事件ナルヲ以テ當支
廳ノ管轄ニ屬セス仍テ各被告ニ對シテハ
管轄違ノ言渡ヲ爲スベク尚被告永相攝
永相述具守書永相憲金永鍾ニ
又範ニ對シテハ旬留ヲ要スルモノト認ムルヲ以
テ刑事訴訟法第二百二十六條第二百
十二條ニ則リ主文ノ如ク判決ス

大正八年十一月六日

釜山地方法院馬山支廳

裁判長朝鮮總督府判事　八木宇吉

朝鮮總督府判事　中村榮孝

朝鮮總督府判事　朴吉永

朝鮮總督府書記　山脇勝之介

원본대조필
용도 재판용
정부기록보존소 보존의 문서원본에서 직접 인쇄한
광디스크로부터 복사되었음을 증명함
1999. 11. 9
(용도외 사용을 금함)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무신자

大正九年 刑控 第三六六號

判決

慶尚南道昌原郡鎭田面
良田里五番地 農業 不詳

卞 相 泰

明治三十五年十月二日生

同道同郡同面同里五番地
農業

權 寧 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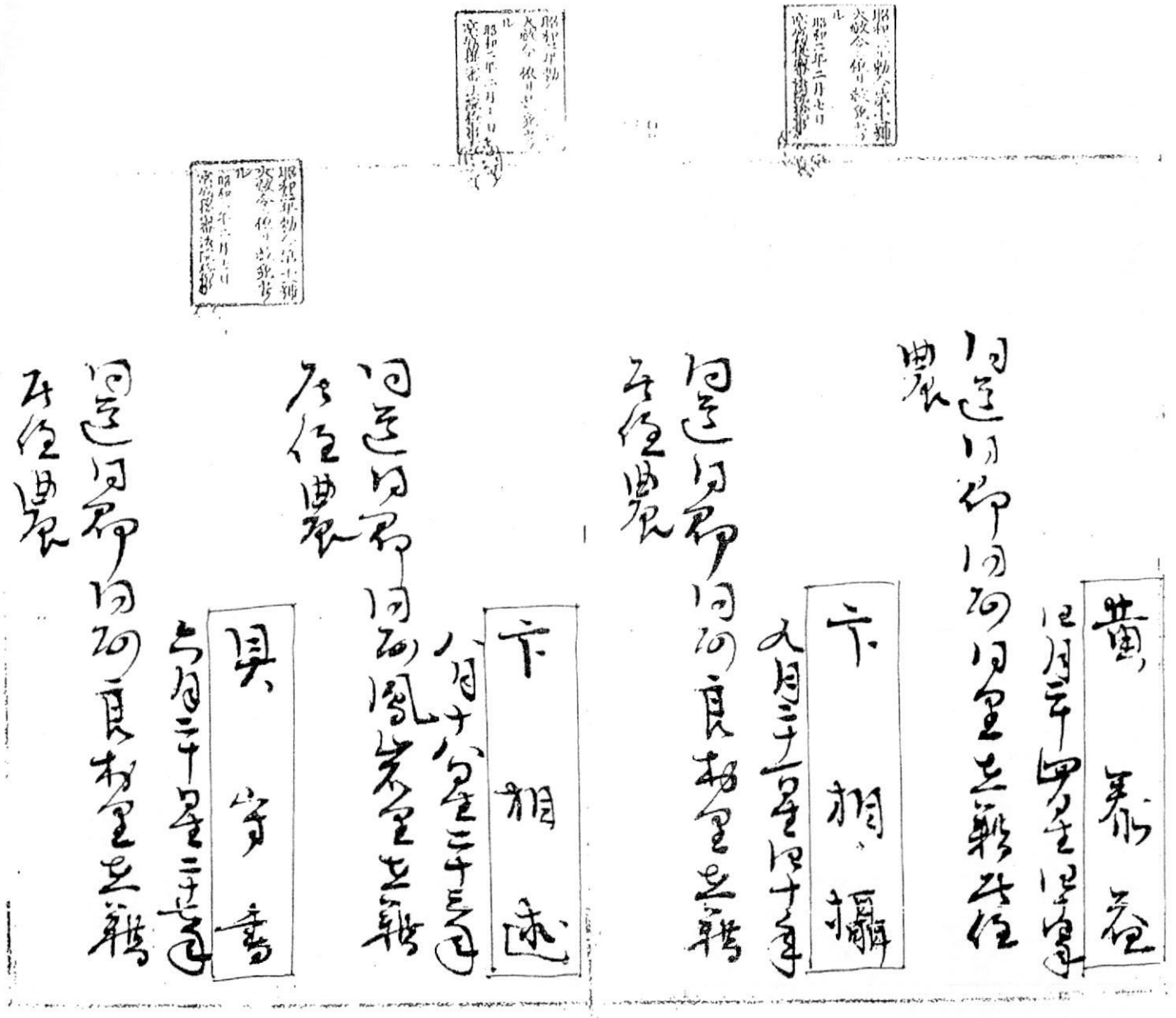
明治十六年八月十七日生

同道同郡同面同里五番地
農業

權 泰 奭

明治十八年十月八日生

同道同郡同面同里五番地
農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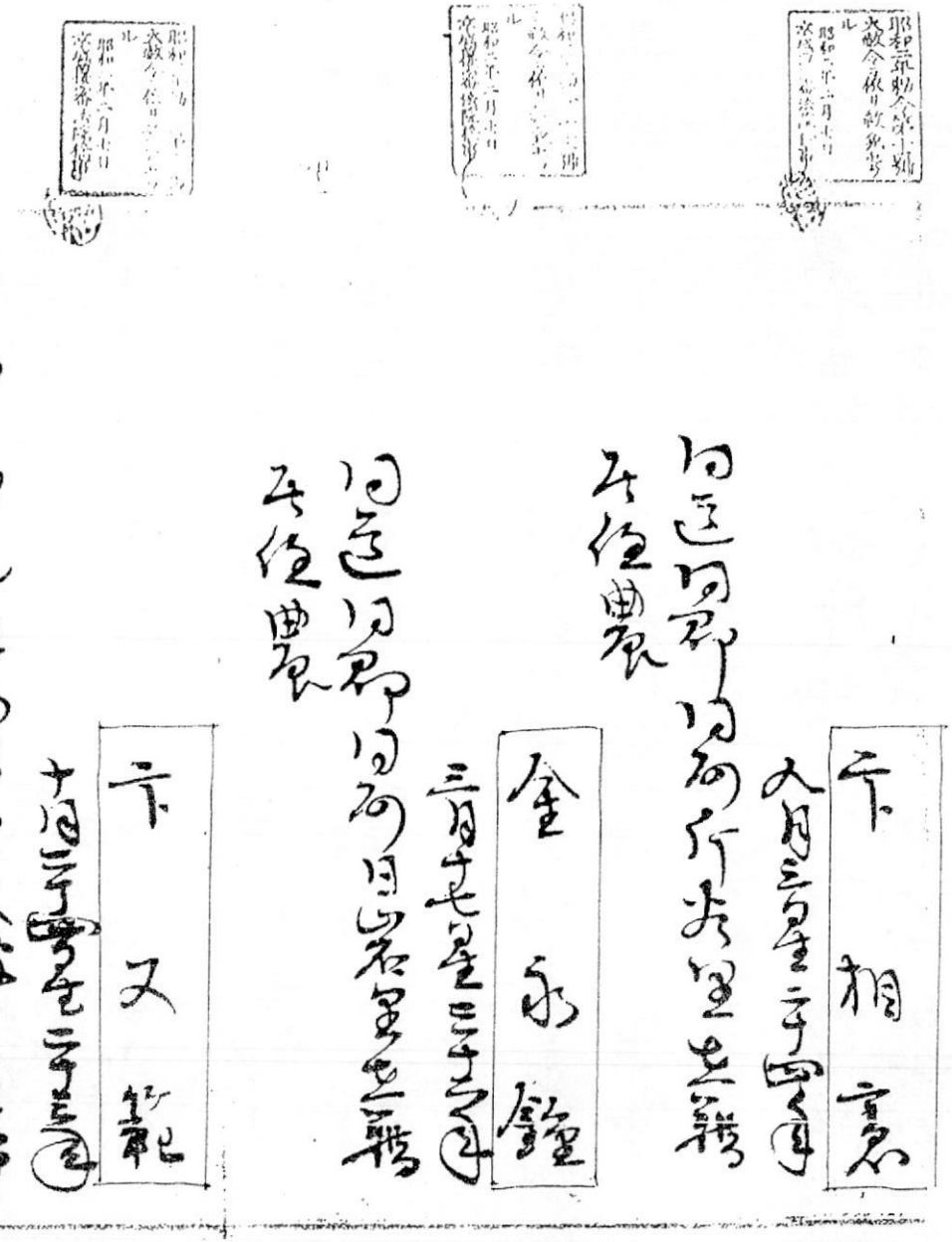


黄幕在
旧月三十四年三月
旧正月卯月旧卯月旧正朝廷ニ仕
奉

下相摂
八月三十二年旧十年
旧正月卯月旧卯月旧良相公ニ朝廷ニ
仕奉

下相述
八月十分三十三年
旧正月卯月旧卯月旧風雲公ニ朝廷ニ
仕奉

吳宇喜
六月三十年三年
旧正月卯月旧卯月旧良相公ニ朝廷ニ
仕奉


下相高
八月三日
同日高行光里之報
告仰聞
金永鐘
三月十七日
同日高行光里之報
告仰聞
下又範
十月二日

但し此事件ノ運動ヲ欠ケ又ハ事件
終ラサルニ於テハ土居アリタルトキハ
其日ヨリ三ヶ月間ヲ限リ其儘ノ
事ニ為スコトヲ得

第四條

裁判所ハ事件ヲ取扱等裁判
ノ執行ニ付キ必要ト認ムルトキハ
何時ニテモ職権ヲ以テ又ハ検事
ノ請求ニ依リ証人ヲ訊問シ又ハ
鑑定ヲ命スルコトヲ得

第五條

裁判所ハ事件ヲ取扱ヒ裁判
ノ執行ニ付キ必要ト認ムルトキハ
何時ニテモ職権ヲ以テ又ハ検事
ノ請求ニ依リ証人ヲ訊問シ又ハ
鑑定ヲ命スルコトヲ得

日本基督公會全體之力ニ於テ我カ
全國傳道ニ關シ特別ノ祈禱ヲ爲ス
ノ必要アルヲ以テ茲ニ本月ヨリ來ル
四月マテノ間ヲ以テ祈禱週間ト定メ
各地ニ於テ之ヲ實行セラレンコトヲ
望ム
一、祈禱會ハ各地ノ都合ニ從ヒ晝夜
何レノ時ニテモ可ナリトス
一、祈禱會ニハ成ルヘク多數ノ信徒
ノ參會ヲ望ム
一、祈禱會ニハ各地ノ都合ニ從ヒ一
回又ハ數回ヲ開クヘシ
一、祈禱會ニハ各地ノ都合ニ從ヒ一
日又ハ數日ヲ開クヘシ

지 않는 사람은 가옥을 파괴할 것", "점심을 싸 가지고 올 것", "태극기를 가지고 한 집에 한 사람 이상 나올 것" 등이었다.(고등법원 구수서 심문조서 제1회) 일경의 심문 기록을 보자면, 의거를 준비하던 인물들은 통지서를 읽어주면서, 만약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가옥을 파괴할 뿐 아니라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런 강제성에 대한 언급은 재판을 받을 때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홍인석 씨 증언) 또한 일부 자료에 의하면, 만세 시위에 적극 참여한 인물들은 의거 당일에 "십인장(十人長)", "이십인장(二十人長)" 등이라고 쓴 삼베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여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봉암리의 구장으로 있던 구수서는 의거 당일에 수십 명(재판 기록으로는 약 10명)의 시위대를 이끌고 왔고, 근곡리의 구장으로 있던 김영종은 백여 명(재판 기록으로는 3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왔음을 볼 때, 우리는 인원 동원 작업이 집성촌별로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의거를 위한 인원 동원이 오직 집성촌별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중심 인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가서도 의거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예로서 우리는 변상태 등이 양촌리 개간장에 간 사실을 들 수 있다. 의거 하루 전인 4월 2일에는 마침 양촌리의 개간장에서 70-80명의 사람들이 개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날 정오 경에 변상태와 변상섭이 이 장소로 와서 다음날 있게 될 의거를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였다. 여기서 변상태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민족 독립의 횃불을 들 때는 왔다. 우리가 독립하지 못하면 영원히 개·돼지의 처지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후손들에게 말못할 후환을 끼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항일 독립의 전선으로 궐기할 때이다.

우리는 변상태의 연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의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변상태 등이 얼마나 절박하게 의

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는지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의거에 대한 이야기는 지인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범 례 >
시위대의 이동경로
이동 도중 호응한 마을들
0
1
2
3km
축척 1 : 50,000
4월 3일 오후 2시
4월 3일 오전 9시

5) 4 · 3 의거

4·3의거가 일어난 4월 3일은 삼짇날(음력 3월 3일)이었다. 이 날은 강남에 간 제비가 돌아와 추녀 밑에 집을 짓는다는 때로서 이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기에 용이하였다. 의거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거사일을 정하였다. 드디어 4월 3일 오전에 진전면 양촌리 일암 부락 앞에 있는 시냇가에 사람들이 운집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이곳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형편이지만, 당시에는 이곳에 넓은 공터가 위치해 있었으므로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이날 오전에 최초의 시위대열을 형성한 사람들의 수는 2천 명 내지 1천 5백 명 정도라고 언급되어 왔다. 현재로서는 그 정확한 숫자를 알 길이 없지만, 농촌 지역에서 유례가 드물 정도로 많은 인원이 의거의 출발지점에 운집한 사실만은 틀림없다.

예정 시각인 오전 9시가 되자 대형 태극기가 나부끼고 드디어 의거가 시작되었다. 영남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인 조선국권회복단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서울의 만세 시위에 참여한 바 있던 변상태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였다.

오늘부터 우리는 자유 민족이며 자유국의 국민이다. 일본의 관여는 추호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한다.

이어 변상섭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변상태의 선창에 따라 참여자들이 만세를 부름으로써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시위 행렬은 진동으로 가기 위하여 서서히 임곡 삼거리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변상태는 연설을 마친 후 시위대열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성구사에 거주하던 이수룡과 함께 진양군 문산으로 출발하였다. 우리는 이처럼 삼진의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변상태가 시위 대열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서부 경남의 만세운동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만큼 신속히 다른 지역의 만세 시위를 위하여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4월 3일 당일에 독립만세시위를 논의하기 위해 대구의 서

상일, 김관제, 정신일, 거창의 진종수, 마산의 김광제, 창원의 이수용 등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또한 그는 유림의 거두였던 전양제, 곽만우, 장혜당, 이시암, 조서천, 오석농 등과 만나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전해진다. 변상태가 이처럼 현장을 떠난 것은 다른 지역의 만세 시위를 추진하기 위함이었음에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날의 4·3의거에 대한 그의 전망의 일단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그는 그 날의 만세시위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의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그 날의 시위 목적 중 하나가 비록 고현 시장 의거 관련자들을 구출하기 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평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방증 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일부 증언에 따르자면, 그 날의 시위를 위해 사람들이 몇 정의 죽창을 준비했다고 하지만(변만섭 씨 증언), 본격적인 무장 투쟁이 계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촌리의 시냇가를 출발한 시위 대열은 장대(약 두 간 길이, 즉 약 86㎝)에 매단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방천 둑을 따라 내려가다가 임곡 삼거리를 거쳐 진동을 향하여 이동하였다. 장대에 매단 대형 태극기는 부락 혹은 동네별로 준비하였는데,(홍인석 씨 증언, 변만섭 씨 증언) 그 수가 약 15본 가량이었으므로(고등법원 변상술 심문조서 1회), 이 의거에 집단적으로 참여한 부락의 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월안리(月安里), 곡안리(谷安里), 오서리(五西里), 봉암리(鳳岩里), 도산리(道山里), 임곡리(林谷里), 근곡리(斤谷里), 암하(岩下) 등 시위대열이 이동하는 연도에는 길목마다 막걸리동이가 비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었고,(홍인석 씨 증언) 독립만세 소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 대열에 합류하였다. 애초에 출발 인원이 대규모인 데다가 도중에 다른 사람들도 시위 대열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대열의 행진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았다. 오전 9시에 의거가 시작되었지만, 일경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황교(凰橋)에 시위 대열이 도착한 시각은 오후 2시경이었다.

시위대가 황교에 도착했을 때의 시위대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아주 다양한 수치가 나온다. 『경남독립운동소사』를 쓴 변지섭은 그 수가 8천 명, 『삼일운동사』(1971년 간행)를 쓴 김의환은 5천 명, 시위진압 현장에 있었던 삽곡칠차(澁谷七

次)는 3천 명으로 보고 있다. 물론 우리가 당시의 시위대 숫자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삼진의거가 일어나던 1919년 당시에 마산부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총 12,054명, 창원군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총 11,500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진동의 조선인 인구는 1,987명이었다는 점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남부희, "마산 창원 지역의 3·1운동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5, 1997, p. 181.) 또한 당시의 재판 기록에 따르자면, 대열의 길이가 5리(2km) 혹은 10리(4km)였으며 지산리 부락 일대는 시위참가자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 물론 당시의 도로는 오늘날보다 협소했음을 감안하여 1m 간격으로 서너 명씩 행진하여 2km의 대열을 이루었다면 그 수가 3~4천 명, 그리고 4km라면 6~8천 명이었을 것이다. 8천 명이든 3~4천 명이든 도시 지역과는 달리 인구가 비교적 적은 농촌 지역에서 이 정도의 인원이 동원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사건이었다.

대규모 시위 행렬이 진동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군경도 나름대로 시위 대열에 대항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일본군경은 재향군인들을 소집하여 시위 대열이 접근하고 있는 사동리 쪽으로 보내어 일차적으로 시위 대열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이들 재향 군인들은 지산리 도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위대를 막고자 시도하였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시위대의 선두가 당시의 황교, 즉 오늘날에는 마산-고성 방면 국도에 위치한 지산교 바로 옆의 다리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곳과 진동 중심가의 거리는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15정(町) 정도, 즉 1km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일본군경으로서는 이 황교가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진동면과 진북면의 경계인 이곳 바로 옆에는 최근에 긴 다리가 놓여 있지만, 지형상 덕곡천(혹은 사동천)이 흐르고 있어서 소수의 인원으로 대규모 시위 대열을 막기에 적합하였다.

시위 대열의 선두가 황교에 도착한 무렵에, 황교 건너편의 일본측의 저지선에는 일본 헌병 및 헌병 보조원 8명과 현지의 일본 재향군인 30여명이 포진하고 있었다. 시위대는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고 일본측은 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위대가 일본헌병들에게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시위 대열의 선두에 서 있던 인사들은 독립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

황이었다. 처음에는 양측 사이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헌병의 모자 끈과 단추와 견장이 떨어져 나갔다. 몸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헌병의 지휘관이었던 천상청태랑(川上淸太郞) 헌병 오장(伍長)은 시위대가 계속 전진한다면 발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 때 삼진장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김수동이 황교 위에서 장대에 매단 대형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독려하다가 그를 제지하는 일본 헌병 보조원을 다리 아래로 내동댕이쳤다. 이에 흥분한 일본 헌병 보조원이 그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이것이 명중하여 김수동은 다리 위에 쓰러졌다. 일부 증언에 따르자면, 이 때 총을 쏜 헌병 보조원은 한국인이었던 심의중(沈宜中 혹은 沈宜震)이었다. 김수동은 피격된 후 즉사하지는 않았고, "나를 죽이는 놈은 심의중이다. 이 원수를 갚아라!"라고 하였다고 한다.(김재복 씨 증언)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은 김수동과 같이 진전면 동산리 출신으로서 그 날 순국한 김영환(金永煥)이라고 하는데,(변지섭, 『경남독립운동소사』, 1966, p. 6.) 현재로서는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의거 대열을 제지하던 일본측 가운데 헌병 보조원으로 한국인이 있었다는 점만은 사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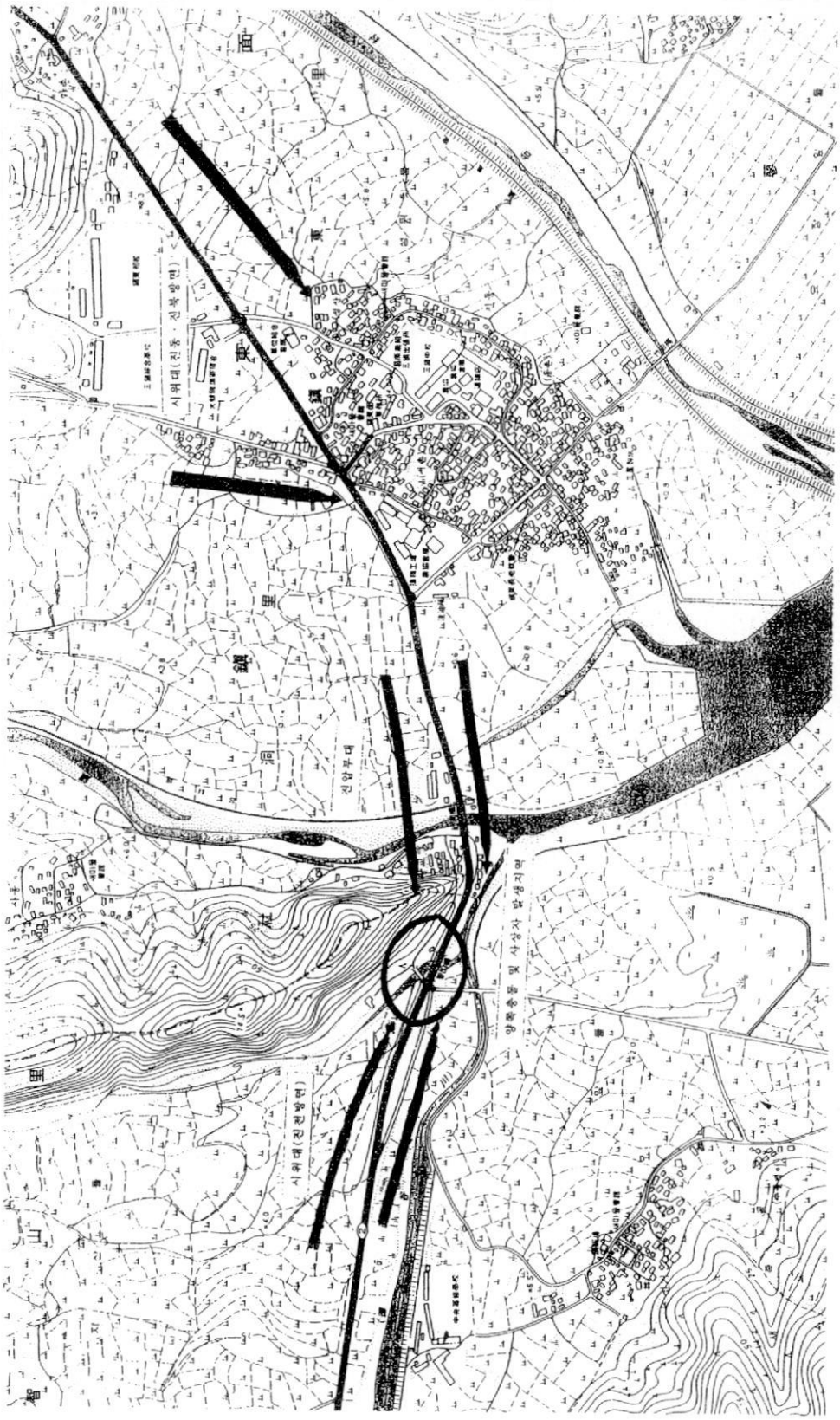
김수동이 쓰러지자 그와 함께 시위 대열의 선두에 서 있던 변갑섭은 김수동이 들고 있던 대형 태극기 장대를 들고 일본 헌병을 향하여 달려가 일본 헌병 오장인 천상청태랑(川上淸太郞)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기세에 놀란 천상청태랑(川上淸太郞)은 태극기를 들고 있던 변갑섭의 오른쪽 어깨를 군도로 내리쳤는데, 이로써 변갑섭의 오른쪽 어깨가 절단되었다. 변갑섭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남아있는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돌진하였다. 일본 헌병은 잔혹하게도 그의 왼팔마저 군도로 내리쳐 결국 변갑섭도 황교 위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시위 대열의 선두에 있던 이 두 사람이 쓰러진 다음에 시위대와 일본측 사이에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었다. 일본측은 시위 진압을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는데, 일부 증언에 따르자면 시위대는 맨 처음에 이것이 단지 위협 사격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측의 발포와 함께 수적으로 월등히 많았던 시위대가 일본 헌병과 재향군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짐으로써 양측에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기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던 시위대열에서 더욱 많은 희생자가 났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일본측의 실탄 사격에 놀란 시위 참여자들

이 사방으로 흩어져 해산한 시각은 오후 3시 무렵이었다. 이보다 앞서 일본측은 시위대의 규모에 놀란 나머지 진동의 일본헌병과 재향군인으로서는 시위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마산에 주둔하고 있던 야포대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였다. 야포대대가 도착한 시점은 시위대가 해산한 다음이었는데, 당시의 분위기로 보아 야포대대의 도착 시각이 좀더 빨랐다면 시위대 측의 피해가 훨씬 컸으리라고 짐작된다.

양촌리에서 출발한 시위대와는 달리, 진동면과 진북면에 살던 사람들이 중심이 된 또 다른 시위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이 두 시위대는 물론 사전에 서로 교감을 가진 상태로서 일정한 시점에 서로 세력을 합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진동은 삼진지역 전체를 통틀어 일본 세력의 거점이었던 만큼, 시위대는 신중하게 행동하였다. 시위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진북면 사람들은 마치 삼짇날에 나들이를 가는 것처럼 몇 명씩 진동시장에 모인 다음에, 진동면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진동성터 뒤편에 집결하였다. 양촌리의 시위대가 진동에 다가올 무렵인 정오 경에 진동성터 뒤에 집결한 시위대 앞에서 백승학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이 후에 시위대는 진동 성터 뒤편으로부터 남문을 거쳐 진동장터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양촌리에서 출발한 시위대와 합류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진전면과 진동면 경계에 있던 황교 부근에서 대규모 유혈 충돌이 일어남으로써 두 시위대는 합류하지 못하고, 진동 쪽의 시위대도 해산하고 말았다.

일본측이 집계한 바로는 황교 충돌 현장에서 즉사한 시위대의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총 11명이었다. 그리고 일본측에서도 왼쪽 허리를 다친 심의중 헌병보조원을 포함하여 오른쪽 후두부를 다친 천상청태랑(川上淸太郎) 오장(伍長)과 바른쪽 앞 무릎 부분을 다친 삽곡칠차(澁谷七次) 상등원 등 부상자가 3명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우리 나라에서 1965년에 간행된 독립운동사 저술을 보면,(김승학 편저, 『한국독립사』, 통일문제연구소, 1965, p. 191.) 추가적으로 5명의 아동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당일에 사망한 순국자는 총 8명이었다. 아동 5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은 김형윤이 쓴 "삼진기행"에 처음 등장하는데, 다른 자료에는 아동 5명의 추가 사망 사실이 언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본측이 집계한 사망자 5인이 김형윤에 의해 아동 5인 추가 사망이라고 오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본측은 8명이 아니라 5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하였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물론 일본측이 의도적으로 피해 규모를 축소한 데 기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수라장이 되었을 법한 당시의 충돌 상황에서 희생자 집계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데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황교 충돌 현장에서 쓰러진 희생자들은 시위대가 해산 당한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놓여있었다. 일본 헌병과 마산에서 온 야포대대의 관심은 부상자 구호보다는 시위대를 추격하여 체포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일부 순국자들의 경우에는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생명을 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황교 위에 방치되어 있던 순국자들의 시신은 어스름이 내린 이후에야 친지들과 지인들이 달구지 등을 갖고 와서 수습한 다음에 희생자들이 살던 마을 인근에 가매장한 형편이었다.(변재유 씨, 변만섭 씨 증언) 이처럼 일본군경은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로부터 대형 태극기 6본과 소형 태극기 44본 등을 압수하였다.



여기서 4·3의거 당시에 순국한 분들의 인적 사항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수동(金守東) : 1877년 8월 26일 생, 당시 42세. 주소 : 진전면 동산리

변갑섭(卞甲燮) : 생년월일 미상(당시 24세, 변재유 씨 증언). 주소 : 진전면 양촌리 384번지

변상복(卞相福) : 생년월일 미상(당시 미혼). 주소 : 진전면 일암리

김영환(金永煥) : 생년월일 미상(당시 미혼). 주소 : 진전면 동산리

고묘주(高昴住) : 생년월일 미상(당시 미혼). 주소 : 진전면 일암리

이기봉(李基鳳) : 생년월일 미상(당시 미혼). 주소 : 진전면 봉곡리

김호현(金浩鉉 혹은 홍록(洪錄), 당시 미혼) : 1893년 12월 25일 생, 당시 26세. 주소 : 진전면 곡안리

홍두익(洪斗益) : 생년월일 미상(17~8세로 추정). 주소 : 진전면 오서리(혹은 양촌리)

또한 부상당한 22명의 명단을 열거해보면, 변현, 박종숙, 고재록, 고운석, 황성봉, 김동이, 변상준, 김대업, 권태문, 권영달, 이몽재, 권영민, 박금용, 조용옥, 문재수, 변용섭, 손삼룡, 구말서, 홍성오, 박용한, 김봉조, 변정섭 등이다. 이 부상자 명단 가운데 포함된 22명은 비교적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서 경상까지 포함한다면 4월 3일에 다친 사람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경상자들은 집에서 스스로 치료하였고, 중상자들은 일본측이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 받기를 거부하고 마산의 삼성 병원

(三省 病院)과 진주의 배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삼성 병원은 당시에 마산에서 조선인이 운영하던 유일한 병원이었는데, 이곳에서 일하던 김형철(金炯轍)은 일본의 강산의전(岡山醫專)을 졸업한 유능한 청년 의사였다. 그는 삼진의거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인 1918년 11월에 그의 동생인 형달(炯達)과 함께 나중에 대광예식장이 선 자리에서 개원한 바 있었다. 김형철은 4·3의거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무료로 성심껏 진료해 주어 훗날에 마산 지역에서 널리 알려졌다.(김형윤, 『마산야화』, 경남, 1996. pp. 121-122.) 의거의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또 다른 곳인 진주의 배돈 병원(培敦 病院)은 1913년에 호주선교회가 설립한 치료기관이었다. 이 병원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 선교의 방편으로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식 의료 기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었는데, 삼진의거의 부상자들도 이런 까닭으로 멀리 진주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삼진 의거의 또 다른 의미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일경의 철저한 수색이 이루어지던 살벌한 분위기에서도 부상자를 위한 모금 운동이 삼진 지역 전역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데 있었다. 부상자를 위한 치료비 모금 운동에는 당시에 진전면장으로 있던 권오봉이 앞장섰다. 그는 진북면 및 진동면 면장들과 협의하여 자기들의 관할 지역에 치료비 모금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지문은 "이번의 부상자들은 모두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된 자들이므로 이들의 치료비는 우리들이 갹출해야 한다."라는 요지를 담고 있었다. 그 결과 일정액의 성금이 모아졌는데, 진동면에서는 233원 40전, 진북면에서는 94원 45전이 모금되었다. 진전면에서 모금된 액수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다수의 희생자들이 진전면 출신인 것을 감안하면 진전면에서도 적극적인 모금 운동이 전개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6) 의거와 관련된 재판

4·3의거와 관련하여 체포된 사람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심 인물들인 변상태와 권영대, 권태용, 황태익은 체포되지 않고 몸을 피하는 데 성공하였다. 체포된 사람들

중 일부는 석방되었으나, 변상태를 비롯한 10명은 재판에 계류되었다. 4·3의거는 다수의 희생자를 낸 사건이었던 만큼 일경으로서도 간단히 취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더구나 최초의 심리를 맡았던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재판장 : 八橋容, 판사 : 小松博美, 朴志永, 奥田畯)은 4·3의거가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조선국권회복단과 연계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재판장인 팔교용은 비교적 연장자인 변상섭에게 변상태와 조선국권회복단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변상섭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렇지만 변상태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은 변상태와 조선국권회복단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마산지청의 재판장인 팔교용은 1919년 11월 6일에 4·3의거를 형법 제77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내란죄로 규정하고, 주동자인 변상태와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을 고등 법원 관할로 이송하였다.

사건을 이송 받은 고등법원도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심문을 통하여 변상태 및 그가 속한 조선국권회복단이 삼진의거의 배후인지 면밀히 조사하였다. 그렇지만 고등법원은 변상태 등이 조선국권회복단과 연계하여 독립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중앙총부로부터 명령을 받아 폭동을 일으켰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고등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 渡邊暢, 판사 石川正, 横田波夫, 水野正之丞, 原正藏)는 1920년 3월 22일에 형사소송법 제 315조 제 2항에 의하여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첩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현장에서 체포를 면한 네 사람 중 황태익을 제외한 변상태와 권태용, 권영대는 도피 중에 있었다.

그렇지만 사건을 이관 받은 서울지방법원 형사 1부의 재판장인 조선총독부 판사 입천이랑(立川二郎)은 그 해 8월 7일에 "서울지방법원을 피고 등에 대한 피고사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한다고 했을 뿐 사건을 동 법원에 송치한다는 뜻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본건은 아직 원심에 계속되고 있음이 아니다."고 하며 이 사건에 대한 공소수리 불가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4·3의거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확정 판결은 사건이 발생된 지 무려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1920년 10월 30일에 서울복심법원 형사부(재판장 : 塚原友太郎, 판사 : 新井胖, 杉浦武雄)에 의하여 내려졌다. 여기에 따르자면, 관련자들은 조선형사령 제 42조가 형명(刑名)이 변경

된 보안법 제 7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언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직 체포되지 않고 궐석 상태로 재판을 받은 변상태, 권영대, 권태용은 징역 2년, 변상섭, 변상술, 구수서, 변상헌, 김영종, 변우범은 징역 1년을 언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태익은 운동에 대한 참가 권유 및 태극기 작성 권유 사실에 대한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확정 판결을 받은 분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변상태(卞相泰 혹은 敬宰) : 당시 30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권영대(權寧大 혹은 寧震) : : 당시 34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권태용(權泰容) : 당시 34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변상섭(卞相燮) : 당시 39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일암리 796번지

변상술(卞相述) : 당시 22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30번지

구수서(具守書) : 당시 26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봉암리 226번지

변상헌(卞相憲) : 당시 23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양촌리 383번지

김영종(金永種) : 당시 30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근곡리 319번지

변우범(卞又範) : 당시 22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일암리 662번지

황태익(黃泰益) : 당시 43세, 주소 : 창원군 진전면 일암리 333번지

그렇지만 앞서 말한 바 있듯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삼진 의거의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던 변상태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따라서 일본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진동헌병대와 마산헌병대 및 경찰서가 변상태의 집을 빈번히 수색한 것은 물론이고, 서울의 종로경찰서에서 25회, 경남 제3부에서 무려 105회나 그의 체포와 관련하여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변상태는 도피 생활 중에서도 합천군 초계의 거유인 이직현을 방문하고 그의 근친인 이원화와 초계 의거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서부 경남에서 만세 시위를 조직하고자 분주히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는 1920년 2월에는 만주로 건너가서 박광, 김정식 등과 함께 만주에 한국회관을 건립하고자 노력하였고, 곽인협, 김상집 등과는 아사동맹회(餓死同盟會)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그는 또한 1921년 1월에는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본에 가기도 했으며, 1922년 5월에는 1년 간의 일본 체류에서 돌아와 전남 송정리의 호남물산 사장으로 있던 종제(從弟) 변상구에게서 받은 독립 자금 3천 원을 의열단 단원인 이종암에게 전달하여 이종암이 1923년 3월 18일(28일?)에 상해 황포탄에서 오성륜, 김익상과 더불어 일본 육군 대장 전중의일(田中義一)을 저격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변상태는 결국 1922년 7월에 이웃 친지의 밀고로 체포되어 49일 동안 잔혹한 고문을 받은 다음, 미결수 신분으로 6개월, 서대문 감옥에서 6개월, 함흥감옥에서 2년 등 도합 3년의 수감 생활을 하였다. 또한 고현 시장에서의 의거와 관련하여 1년의 징역형을 산 백승학은 1920년대 초반에 삼진청년회와 삼진 농민조합, 삼진 소비조합을 조직하여 일본인들과 친일파 지주에 대해 소작료 납부거부, 세금 납부거부 운동 등을 전개하고, 군수 등 관리들에게 경고문 발송하다가 다시 체포되기도 하였다. 또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황태익은 1920년 3월에 진주에서 경남 결사대를 조직하여 임시정부와 연결된 독립운동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삼진독립운동사에서

(일부 발췌)

三鎮獨立運動史

監　修：光復會 慶南・蔚山 聯合支部長
林 基 烈
文學博士　鄭 允 凡

三鎮獨立運動史編纂委員

제1장 獨立運動史와 義兵 ……19

제1절 의병전쟁의 시기 ……20
1. 제1차 의병전쟁 ……20
2. 제2차 의병전쟁 ……21
3. 제3차 의병전쟁 ……22
4. 경상도의 의병 ……22
제2절 일본군의 대토벌작전 ……23

제2장 3·1獨立運動 ……26

제1절 3·1獨立運動의 배경 ……26
제2절 3·1獨立運動의 추진 ……29
제3절 3·1獨立運動의 전개 ……38

제3장 三鎭抗日獨立運動 ……44

특 색
제1절 진동면 고현시장의거 ……48
제2절 三鎭(鎭田, 鎭北, 鎭東)義擧 ……51
제3절 三鎭의 八義士 ……55
제4절 三鎭 義擧의 落穗 ……57
제5절 三鎭 抗日義擧 主動者재판기록(번역일부) ……60
제6절 咸安 抗日義擧 主動者재판기록(번역일부) ……65

제4장 三鎭 및 咸安抗日愛國志士個人略傳
(三鎭面出身) ……70

愛國志士一覽表
제1절 三鎭面 抗日愛國志士 ……74
제2절 咸安 抗日義擧에 가담한 愛國志士 ……123
제3절 그 외 愛國志士 ……131

제5장 三鎭 및 咸安抗日義擧 主動者
재판기록원본(三鎭面出身) ……134

· 조선총독부 형집행원부:조계승 ……135

· 서대문 형무소 수형자 명부 ……136
구수서 외 4명
·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판결문……141
(大正 8년 11월 6일) 권영대 외 9명
(大正 8년) 조병대 외 3명
· 경성지방법원……154
(大正 9년 8월 7일) 변상태 외 9명
· 대구복심법원……195
항소심(大正 8년 8월 20일) 조계승
(大正 13년 11월 7일) 백운동 외 2명
(昭和 3년 4월 7일) 백승학
· 경성고등법원……215
(大正 9년 3월 22일) 변상태 외 9명
· 경성복심법원 ……234
(大正 9년 10월 30일) 변상태 외 9명
(大正 10년 2월 23일) 권영대
(大正 10년 2월 28일) 권태용
· 면비치 범죄인 명부 이교재 외 19명 ……252

제6장 기타 ……272

· 1920년 7월 25일자 동아일보 ……272
변상태 외 9명(고등법원)
· 1934년 6월 28일자 동아일보 ……273
김기찬, 황보현 교육노조 결성하여 反日교육주도
· 소화 11년 일본 내무성 경보국 특고 ……274
경찰 통첩, 박헌행(일명 朴鏞德)선생이
가담한 조선독립을 위한 노조결성사건
· 이교재 열사 묘소 金九선생 참배……275
· 현존하는 三鎭義擧 주동자 근황 ……276
권영민, 이몽출 義士(마산일보 1959년?)
· 殉義한 李敎載 先生과 八先烈 분묘……277
개축사업 발기회
· 八義士 合同 묘역준공……280
· 八義士 묘역 정화사업 추진 위원회 취지문 …281
· 八義士 彰義塔 碑文……282
· 八義士 墓 碑文……283
· 三鎭獨立義擧記念碑文……284
· 창의탑 건립시 박정희 대통령이 보내온 축전 …285

· 맺음말……286
· 발행처……287

제5장 三鎭 및 咸安獨立運動 主動者 裁判記錄(大正1年 : 서기 1912 / 昭和1年 : 서기 1926)

1. 조선총독부 형 집행원부 : 曺啓承

2. 서대문 형무소 수형자 명부 : 구수서, 변상술, 변상섭, 변상헌, 변우범

3.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판결문

• (大正8년 11월 6일) : 權寧大, 權泰容, 卞相泰, 黃泰益, 卞相攝, 卞相述, 具守書, 卞相憲, 金永鍾, 卞又範

• (大正8년) : 曺秉大, 南秉熙, 金祥集, 朴魯一

4. 경성지방법원

• (大正9년 8월 7일) : 卞相泰, 權寧大, 權泰容, 黃泰益, 卞相攝, 卞相述, 具守書, 卞相憲, 金永鍾, 卞又範

5. 대구복심법원 : • 항소심(大正8년 8월 20일) : 曺啓承

• 형사2부(大正13년 11월 7일) : 白雲洞, 徐正奎, 金載龜

• (昭和3년 4월 7일) : 白承鶴

6. 경성고등법원

• (大正9년 3월 22일) : 卞相泰, 權寧大, 權泰容, 黃泰益, 卞相攝, 卞相述, 具守書, 卞相憲, 金永鍾, 卞又範

7. 경성복심법원

• (大正9년 10월 30일 형사부) : 卞相泰, 權寧大, 權泰容, 黃泰益, 卞相攝, 卞相述, 具守書, 卞相憲, 金永鍾, 卞又範

• (大正10년 2월 23일 형사부) : 權寧大

• (大正10년 2월 28일 형사부) : 權泰容

8. 읍·면 비치 범죄인명부

李敎載, 權寧祚, 權五圭, 權泰璿, 權寧大, 權五成, 卞相攝

卞相述, 具守書, 卞相憲, 金永鍾, 卞又範, 黃普鉉,

金奇贊, 金奎鉉, 李炳秀, 朴魯一, 金祥集, 曺啓承, 曺秉大

서대문 형무소 수형인 명부 : 구 수 서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職業

受刑事項							前科犯	備考
罪名	刑名	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言渡裁判所	執行監獄	出獄年月日及其事由	
保安法違反	禁錮 懲役	年 月	大正 年 月 日	大正 年 月 日	法院	西大門監獄	大正 年 月 日 滿期 假出獄	

78180

氏名	年齢	年月日生	指紋番號
具守書	身長	尺寸分	
	特徵		





서대문 형무소 수형인 명부 : 변 상 술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受刑事項						出獄年月日及其事由
				罪名	刑名	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言渡裁判所	執行監獄	
				保安法違	禁錮	年 月	癸 年 月 日	癸 年 月 日	法院	西大門監獄	癸 年 月 日滿期 假出獄
			職業	前科			備考				
				犯							

氏名	年齢	年月日生	指紋番號
卞相述	身長	尺寸分	No.
	特徴		





서대문 형무소 수형인 명부 : 변 상 섭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罪名	刑名	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言渡裁判所	執行監獄	出獄年月日及其事由
保安法違	禁錮	年	大正 年	大正 年		西大門監獄	大正 年
	懲役	月	月 日	月 日	法院		月 日 假出獄

職業

前科	備考
犯	

氏名	年齢	年月日生	指紋番號
卞相燮	身長	尺寸分	No.
6765	特徵		





서대문 형무소 수형인 명부 : 변 상 헌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刑受			刑事上ノ処分				
				罪名	刑名 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官署裁判所	執行監獄	出獄年月日及其事由	
			職業	保安法違反	禁錮 年 月 懲役	壹年 月 日	壹年 月 日	法院	西大門監獄	壹年 月 日 満期 假出獄	
犯罪前科				備考							

氏名	年齢	生年月日	指紋番號
卞相憲	身長	尺 寸 分	No.
	特徴	一九一二	





서대문 형무소 수형인 명부 : 변 우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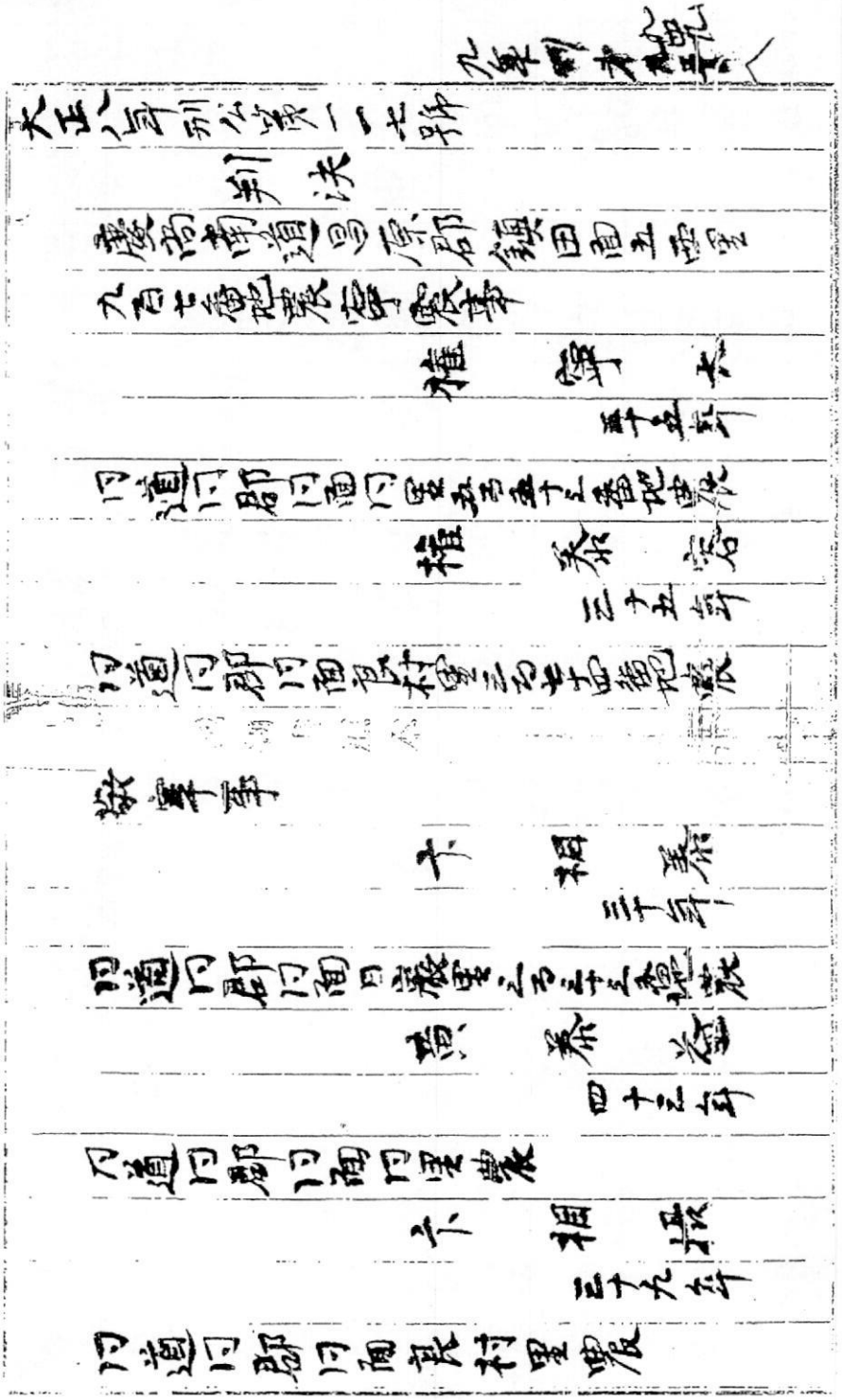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受刑事項							職業
罪名	刑名	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言渡裁判所	執行監獄	出獄年月日及其事由
保安法	懲役	禁錮 年 月	大正 年 月 日	大正 年 月 日	法院	京城監獄	大正 年 月 日滿期 假出獄
前科		備考					
犯							

氏名	年齡	年月日生	指紋番號
卞又節	身長	尺 寸 分	
	特徵		







下相速
二十二年

同道同郡同面鳳山石里農
具守書
二十六年

同道同郡同面良村里農
下相憲忠
二十三年

同道同郡同面斤谷里農
金永鐘
二十年

同道同郡同面白巖里農
下又範
二十二年

右騒擾被告事件ニ付朝鮮總督府檢事奥田暁立會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本件ニ關スル公訴ハ之ヲ棄却ス

被告下相振下相述具守書下相憲金永鐘下又範ニ對シ發シタル

ル勾留状ハ之ヲ存ス

理由

本件起訴ノ事實ヲ審案スルニ被告権藤震一郎ハ権藤寧大権藤容平ノ親等ニ在リ容平ハ相摸ニ於テ相摸藻ハ相摸益ハ共謀ノ上大正八年四月三日ノ旧節句ノ朝ヲ期シ朝鮮獨立運動ヲ為サンコトヲ企テ慶尚南道昌原郡鎮田面鎮北面里ノ各区長ヲ勧誘シ多衆集團シテ騒擾ヲ惹起シ権寧等ヲ鎮東憲兵駐在所ニ引致セラレタル後鮮ヲ無行セントノ意味ヲ以テ同駐在所等ヲ襲撃セントヲ為被告権寧大ハ相摸ニ相摸ハ同月二日正午頃鎮田面良村里土地開墾場ニ於テ約七八十名ノ群衆ニ対シ独立運動ニ参加セサルモノハ鮮人ニアラス狗子ナリ後難アルベシトテ煽動勧誘シ被告権藻容ハ同日午前同面栗峙里金之順ノ方ニ於テ被告金永鎭ニ対シ前同様同運動ニ参加スベキコトヲ勧誘シ因被

告ハ直ニ之ニ賛同シ被告権蕃宗谷ノ意ヲ承ケ同月三日朝自宅ニ於テ旧幹部ヲ旗ヲ作成シ金鳳祚外二十九名ヲ引率シテ同運動ニ参加シ下相撰下相憲下相述ハ同月二日朝同面鳳岩里朴永愛方ニ於テ同區長呉守書ニ対シ同里民ニシテ独立運動ニ参加セサル者ハ其ノ家屋ヲ破壊シテ殺害スヘキ旨ヲ以テ脅迫又ハ煽動勧誘セシメ被告呉守書ハ其ノ煽動ニヨリ同月三日里民約十名ト共ニ同運動ニ参加シ被告黄、蕃益下相憲ハ同月一日被告下卜又範方ニ到リ独立運動ニ参加シ尚旧幹部ヲ各々旗ヲ作成スヘキ旨勧誘シ下又範ハ之ニ應シ居村書堂ニ於テ同國旗ヲ作リテ里民ニ配布シ被告黄、蕃益ハ下又範等ニ同國旗ヲ作成スヘキコトヲ勧誘シテ同人等ト共ニ之ヲ作リテ里民ニ配布シ而シテ被告相撰相述守書相憲永鐘又範ハ孰レモ同月三日約千五百名

ノ群衆ト共ニ同門ニ於テ朝鮮独立
萬歳ヲ高唱シツヽ鎮衆憲兵駐在所ニ
押寄セントシ救石其ノ他暴行ノ為ニ
警察官同駐在所詰憲兵伍長川上
清太郎、後頭部其ノ他四上等兵洪沢
七次ノ右前腕部同補助員池宜泰
ノ腰部右側ヲ負傷セシメタルヲ始メ
警察官ニ対シ暴行ヲ加ヘ
成員ハ止ムヲ得ス発砲シ暴民中死
傷者ヲ生ゼシムルニ至リ解散シタルモノ
ナリトス而シテ右ハ被告十相義カ
慶尚北道大邱ニ於ケル尹相義外数名
ノ組織ニ係ル帝國領土ノ一部タル朝鮮
ヲシテ帝國ノ統治ヨリ分離セシメ旧韓
國ト同一ノ独立國ヲ建設セントスル陰
謀団ノ中央統部ノ命ヲ受ケ其ノ陰
謀ノ目的ヲ達スル手段トシテ暴動ヲ
為シタルモノニシテ本件記録ニ徴シテ明
瞭ナリトス
以上ノ事実ニ刑法第七十七條ノ該當スル
犯罪ニシテ朝鮮総督府裁判所令第三條

裁判所構成法第五十條ニ依リ高等法院ノ
特別管轄ニ屬スル事件ナルヲ以テ當支
廳ノ管轄ニ屬セス仍テ各被告ニ對シテハ
管轄違ノ言渡ヲ爲スベク尚被告永相攝
永相述具守書永相憲金永鍾ニ
又範ニ對シテハ旬留ヲ要スルモノト認ムルヲ以
テ刑事訴訟法第二百二十六條第二百
十二條ニ則リ主文ノ如ク判決ス

大正八年十一月六日

釜山地方法院馬山支廳

裁判長朝鮮總督府判事　八木宇吉

朝鮮總督府判事　中村榮孝

朝鮮總督府判事　朴吉永

朝鮮總督府書記　山脇勝之介

원본대조필
용도 재판용
정부기록보존소 보존의 문서원본에서 직접 인쇄한
광디스크로부터 복사되었음을 증명함
1999. 11. 9
(용도외 사용을 금함)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무신자

大正九年 刑控 第三六六號

判決

慶尚南道昌原郡鎭田面
良田里五番地 農業 不詳

卞 相 泰

明治三十五年十月二日生

同道同郡同面同里五番地
農業

權 寧 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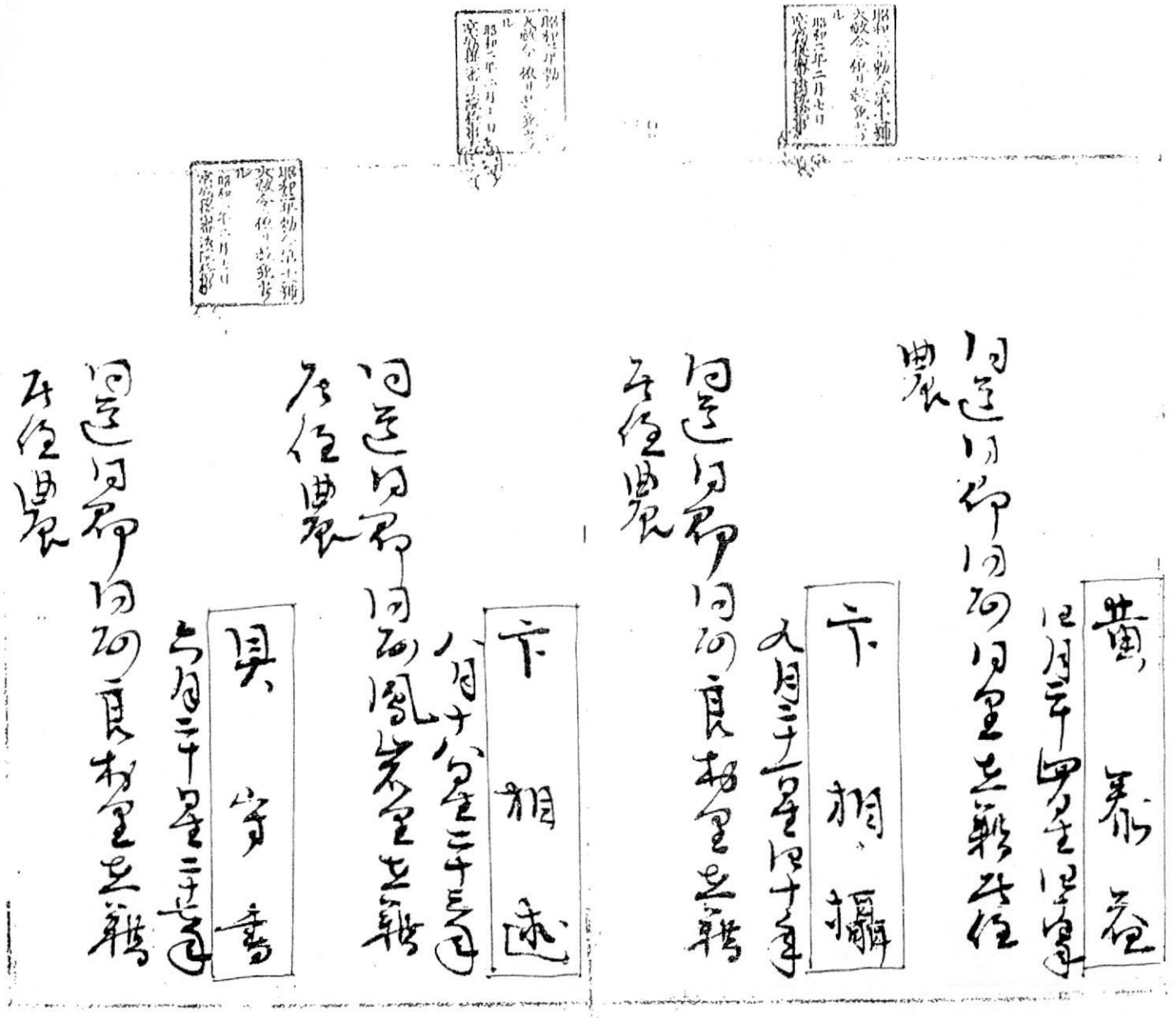
明治十六年八月十七日生

同道同郡同面同里五番地
農業

權 泰 奭

明治十八年十月八日生

同道同郡同面同里五番地
農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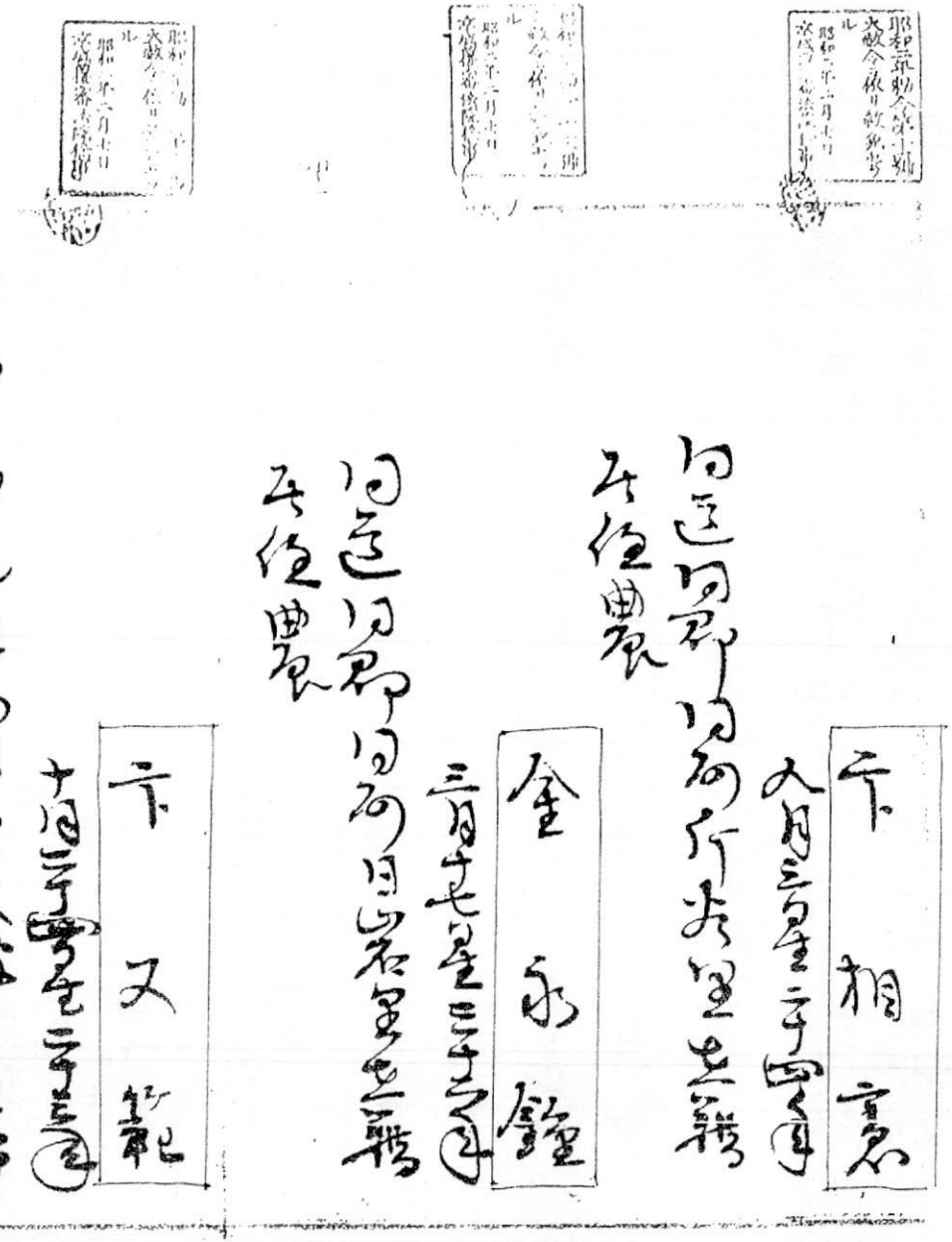


黄幕在
旧月三十四年三月
旧正月卯月旧卯月旧正朝廷ニ仕
奉

下相摂
八月三十二年旧十年
旧正月卯月旧卯月旧良相公ニ朝廷ニ
仕奉

下相述
八月十分三十三年
旧正月卯月旧卯月旧風雲公ニ朝廷ニ
仕奉

吳宇喜
六月三十年三年
旧正月卯月旧卯月旧良相公ニ朝廷ニ
仕奉


下相高
八月三日
同日高行光里之報
告仰聞
金永鐘
三月十七日
同日高行光里之報
告仰聞
下又範
十月二日

但し此事件ノ運動ヲ欠ケ又ハ事件
終ラサルニ於テハ土居アリタルトキハ
其日ヨリ三ヶ月間ヲ限リ其儘ノ
事ニ為スコトヲ得

第四條

裁判所ハ事件ヲ取扱等裁判
ノ執行ニ付キ必要ト認ムルトキハ
何時ニテモ職権ヲ以テ又ハ検事
ノ請求ニ依リ証人ヲ訊問シ又ハ
鑑定ヲ命スルコトヲ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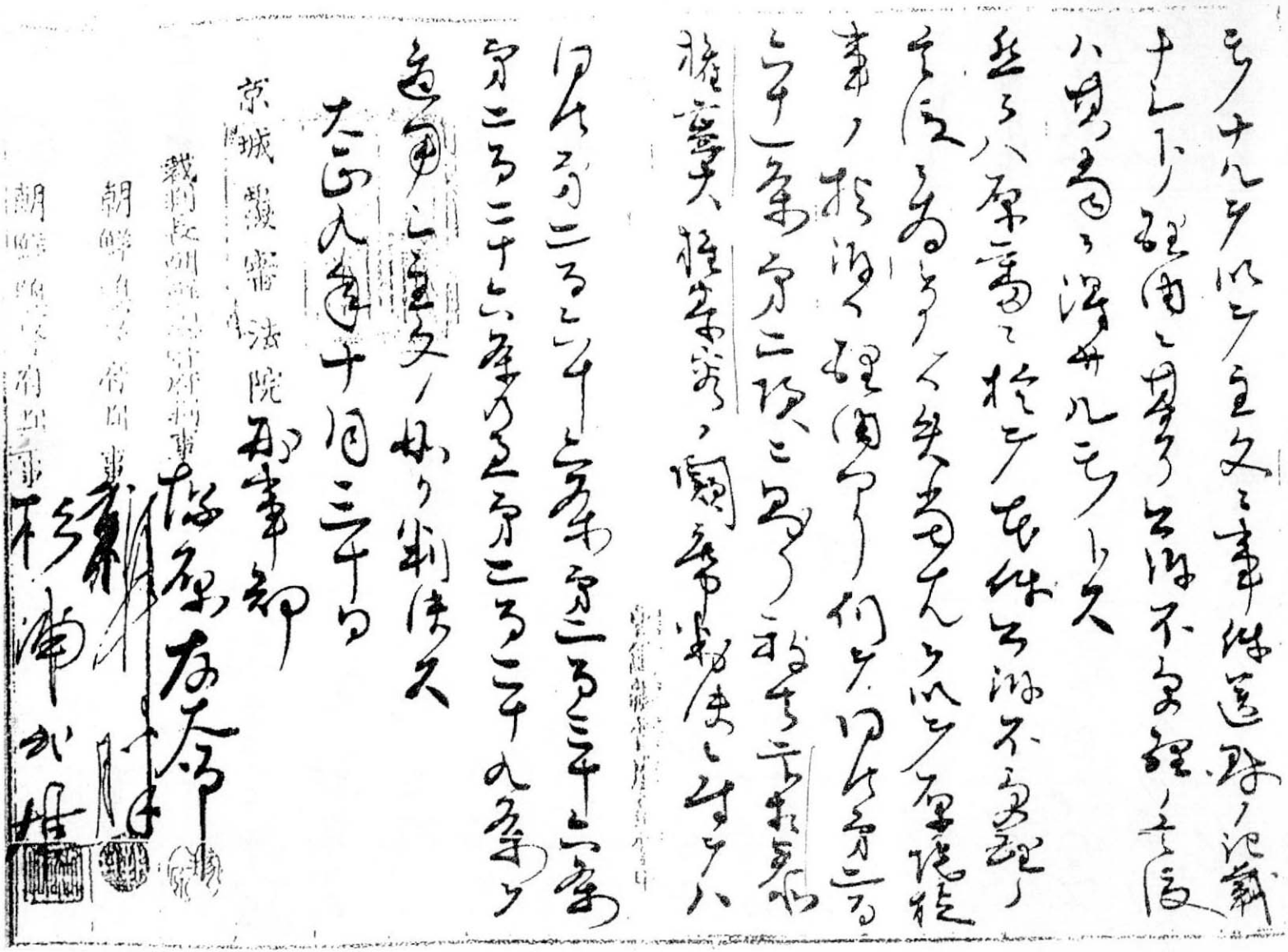
第五條

裁判所ハ事件ヲ取扱ヒ裁判
ノ執行ニ付キ必要ト認ムルトキハ
何時ニテモ職権ヲ以テ又ハ検事
ノ請求ニ依リ証人ヲ訊問シ又ハ
鑑定ヲ命スルコトヲ得

日本基督公會全體之力ニ於テ我カ
全國傳道ニ關シ特別ノ祈禱ヲ爲ス
ノ必要アルヲ以テ茲ニ本月ヨリ來ル
四月マテノ間ヲ以テ祈禱週間ト定メ
各地ニ於テ之ヲ實行セラレンコトヲ
望ム
一、祈禱會ハ各地ノ都合ニ從ヒ晝夜
何レノ時ニテモ可ナリトス
一、祈禱會ニハ成ルヘク多數ノ信徒
ノ參會ヲ望ム
一、祈禱會ニハ各地ノ都合ニ從ヒ一
回又ハ數回ヲ開クヘシ
一、祈禱會ニハ各地ノ都合ニ從ヒ一
日又ハ數日ヲ開クヘシ

北の方山里社の内橋、西岸鎮座
の地にて大鳥の頭と本と鳥の
頭尾とを以て酒ム
鶴尾とをもて赤き掩子を
作りて赤き土を塗
て赤き玉を造り
玉又龍のなり
妻子ともに

記録に依ると文久二酉ノ歳十月改メ
候由ニ而元文七年ニ者無之事ニ
候ハヽ自然と元禄十酉年ニ
ハ不相成事ニ候ハヽ元禄十年ニ
ハ不相成事ニ候ハヽ元禄十年ニ
ハ不相成事ニ候ハヽ元禄十年ニ
地ニ而ハ元ノ通ニ而ハ無之
御改メ之節ハ十年ニ一度ニ
ハ不相成事ニ候ハヽ元禄十年ニ
ハ不相成事ニ候ハヽ元禄十年ニ
ハ不相成事ニ候ハヽ元禄十年



大正九刑控第五二六號

判決

慶尚南道昌原郡鎭田面五西里在
籍居住農
寄寓事 權寧大
八月十六日生三十七年

右ニ對スル保安法違反及被告事件ニ付大正九年八月七日京城地方法院ノ言渡シタル判決ニ對シ同院檢事ヨリ控訴ノ申立アリタルヲ以テ當院ハ朝鮮總督 檢

朝鮮總督府檢事局所

事平山正祥干與審理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原判決ヲ取消

被告權寧大ヲ懲役一年ニ處ス

押收物件中第一號ノ大韓國旗六本第二號ノ小韓國旗四十四本ハ之ヲ沒收シ其餘ハ總テ所有者ニ還付ス

理由

被告權寧大ハ被告下相基ト共ニ朝鮮

ヲ獨立セシムル目的ヲ以テ多衆ヲ聚合シ朝鮮獨立ノ歳ヲ鳴呼シ示威運動ヲ爲サムコトヲ企テ大正八年四月參日慶尚南道昌原郡鎭田面彦村里川邊ニ於テノ被告卞相璇ニ對シ多衆聚合シ朝鮮獨立ノ文ヲ唱フルトキハ朝鮮ハ獨立國ト爲リ得ヘキヲ以テ同運動ヲ爲スヘキ旨煽動シタルニ同人等ハ之ニ同意シタルヲ以テ茲ニ被告權寧大ハ前示卞相璇等及押收第一二號ノ韓國旗ヲ携帶シ立ヲ打振リ行列ヲ爲シ因テ治安ヲ妨害シタリ

右ノ事實ハ大正九年十月十日付當裁判所ニ於ケル被告卞相璇ノ判示朝鮮獨立ノ文ノ高唱シ前示良村里ヲ同郡鎭海面鎭東邑ニ向ケ行進ヲ爲シ因テ治安ヲ妨害シタリ

右ノ事實ハ大正九年十月十日付當裁判所ニ於ケル被告卞相璇ノ判示朝鮮獨立ノ文ノ高唱シ前示良村里ヲ同郡鎭海面鎭東邑ニ向ケ行進ヲ爲シ因テ治安ヲ妨害シタリ

朝鮮總督府覆審法院

右ノ事實ハ大正九年十月十日付當裁判所ニ於ケル被告卞相璇ノ判示朝鮮獨立ノ文ノ高唱シ前示良村里ヲ同郡鎭海面鎭東邑ニ向ケ行進ヲ爲シ因テ治安ヲ妨害シタリ

唱ヘ場ヲ在様ニスレハ朝鮮ノ獨立出来ルト
ノ事ニテ同様ノコトヲヤラムトノ相談ヲ受ケ
而シテ同人等ハ多衆聚合シ朝鮮獨立萬
才ヲ唱ヘ居ル那鎮東面鎮東里邑内ニ行
クト言フ場ニ臨シ自ラハ直ニ之ニ賛成シタリ
畢竟同人等カ自ラヲ勧誘シタルナリ尚ホ
ハ之ニ賛成シ上千余名ノ郡衆ト共ニ良
村里ヲ鎮東面ニ向ヒ練リ行キ共ニ
朝鮮獨立萬才ヲ唱ヘ同面ヲ距ル約
五町手前ナル鎮北面社洞里社洞里ニ橋

朝鮮總督府檢事局

附近迄行キタルコトアル旨
同被告ハ相違ノ旨ヲ以テ同日朝良村里ノ
川辺ニ於テ權寧大ハ相等ヨリ多衆聚合シ
朝鮮獨立萬才ヲ唱ヘ、オケハ朝鮮ハ独立スル
ヲ以テ参加セヨトノ勧誘ヲ受ケ直ニ之ニ賛成
シ参加シ同日午余人ノ群衆ト共ニ良村里ヨリ
鎮北面ヲ経テ鎮東面ヲ進行シ隊伍ヲ
組ミ朝鮮獨立萬才ヲ唱ヘツヽ自ラモ權寧
大ハ相等カ独立萬才ヲ唱ヘ騒ケハ朝鮮ノ
独立カ来ルト言ヒシ故賛成シ仲間ハカリル

旨

高等法院檢審判事ノ職ニ在リ相模丈相逃ニ對スル訊問調書中判示運動ノ際ノ旨趣ハ權寧大丈相等ニ於テ為シタル旨ノ各供述記載

被告當法廷ニ於ケル自矢ハ判示日時京城府里鎮東邑ノ間ニ於テ相收第一、二歸ノ韓國旗ヲ打振リ振リタル群衆ト共ニ韓鮮獨立萬歲ヲ唱ヘタル旨ノ供述ヲ綜合シ之ヲ認ム

法ニ照スニ被告權寧大ノ所為ハ犯罪後ノ法令ニ因リ刑ノ變更アリタルモノナルヲ以テ刑法第六條ニ依リ新旧二法ノ刑ヲ比較シ其輕キモノヲ適用スヘキ依テ更ニ判法ニ照スニ其所為ハ大正八年制令第七號第一條第一項ニ該當シ旧法ニ照スニ其所為朝鮮刑事令第四十三条ヲ以テ刑名ヲ變更シタル保安法第七條ニ該當シ刑法第九條ニ依リ更ニ對照スルニ旧法ノ刑輕キヲ以テ前示旧法ニ照スルニ法條ヲ適用シ所定刑中二年以下ノ懲役刑ヲ選択シ其刑ノ範圍内

朝鮮總督府檢事局

ニ於テ懲役一年ニ処スヘシ

押収物件中第一号ノ大韓國旗ハ本犯第二号ノ韓國旗四十四本ハ判示犯罪ノ用ニ供シタル犯人以外ノ者ニ属セサルモノト認ムヲ以テ刑法第十九條第一項第二号第二項ニ則リ之ヲ没収スヘク其余ハ没収ニ係ラサルヲ以テ刑事訴訟法第二百二條ニ依リ所有者ニ還付スヘキモノトス

事実ニ於テハ本件被告ニ対スル高等法院特別部ノ判決ニ記載セラレタルノミニシテ本件ノ罪トナルヘキ事実ニ関スル証拠ノ記載ナキヲ以テ本件ハ未タ事実審ニ繋属スルニ至ラサルモノトシ公訴不受理ノ言渡ヲ為シタルハ刑事訴訟法第三百十五條第二項ノ規定ハ地方法院ノ公訴ノ受理ニ関シ同法第二百七十二條第二百七十五條ノ特例ヲ為ス場合ナルヲ以テ上告趣意ハ理由アリ原判決ハ破毀ヲ免レサル事件ニ対シ高等法院ニ於テ地方法院ノ権限ニ属スルモノト認メ管轄裁判所ノ指定ヲ為シタルハ其事件ノ誤認ニシテ

朝鮮總督府裁判所

指定ヲ

事件ノ管轄裁判所ハ記載シタルノミニシテ

キ旨ノ記載ナキモ事件ハ當然其指定ヲ受ケタル裁判所ニ繫屬シ同裁判所ハ之ヲ受理審判スヘキモノニシテ公訴不受理等ノ問題ヲ生スヘキモノニアラス假ニ管轄裁判所ヲ指定シ因テ其事件ヲ送致スヘキ旨ノ記載ヲ要スルモノトスルモ同法ニ於ケル決定ハ判決ト異ニシテ主文ト理由ヲ截然区別シ記載スヘキ旨ノ想定ナリ本決定ノ準則トナルヘキ同法第百六十九條ニハ豫審終結ノ決定ニ事實及法律ニ亘リ其理由ヲ付スヘシ公判ニ於スル言渡ヲ

ナスニハ犯罪ノ性質模様證憑ノ十分ナルヲ以テ又其罪ヲ罰スヘキ法律ノ正條ヲ明示スヘシト想定セルノミナルヲ以テ本件決定ノ全趣旨ニ於テ前示要件及刑事訴訟法第三百十五條想定ノ要件ヲ具備シアルモノト認メラルヽニ於テハ事件ハ遠藤ニ移送セラレタル裁判所ニ繫屬スヘキモノトス依テ本決定人ノ通贊ラルヽニ先ツ被告人ノ氏名ヲ列記シ次ヲ其犯罪事實ヲ詳記シ其事實ハ一件記錄ニ依リ之ヲ認メ得ヘキ旨竝示シ保安法第

七條、朝鮮刑事令第四十二條、大正八年制令第七號第一條、第二項、刑法第八條、第六條、第十條ヲ適用處斷スヘキ犯罪ナルヲ以テ被告事件ハ地方法院ノ權限ニ屬スルモノトス

刑事訴訟法第三百十五條第二項ニヨリ主文ト記載シタル如ク以テ主文ト題スル旨ヲ京城地方法院ヲ本件管轄裁判所ト指定スト記載アルヲ理由ト題スル部分ト相俟テ本件ハ地方法院ノ管轄ニ屬スルモノナリ依テ其管轄裁判所ヲ京城地方法院ト指

朝鮮總督府裁判所

定シ事件ハ同法院ニ送致スヘトノ趣旨ナルコトヲ認メ得ヘシ從テ前示要件ヲ具備シ事件ハ適法ニ本審ニ繫屬セルモノナルヲ以テ主文ニ事件送致ノ記載ナキトノ理由ニ基ク公訴不受理ノ言渡ハ其當ヲ得サルモノトス

然ラハ本審ニ於テ本件公訴不受理ノ言渡ヲ爲シタルハ失當ニシテ事件ヲ檢事ノ控訴ハ理由アリ仍テ同法第三百六十一條第二項ニ則リ主文ノ如ク判決ス

大正十年二月二十三日

京城控訴法院刑事部

裁判長朝鮮總督府判事 塚原友太郎

朝鮮 判事 堀田彌

朝鮮 判事 杉浦武雄

朝鮮總督府法務部長兼 岡忠孝

右謄本也

大正十年三月十五日

京城控訴法院檢事局

朝鮮總督府檢事 古田

朝鮮總督府裁判所

大正九年抗字第三二號

判決

本籍 慶尚南道 [illegible]

住所 [illegible]

[illegible]

昭和二十五年十一月一日
大統令 第二號 第二條
ニ依リ 左ノ通リ 改正セラル
昭和二十二年一月一日
改正後ノ 法律第 事

權 [illegible] 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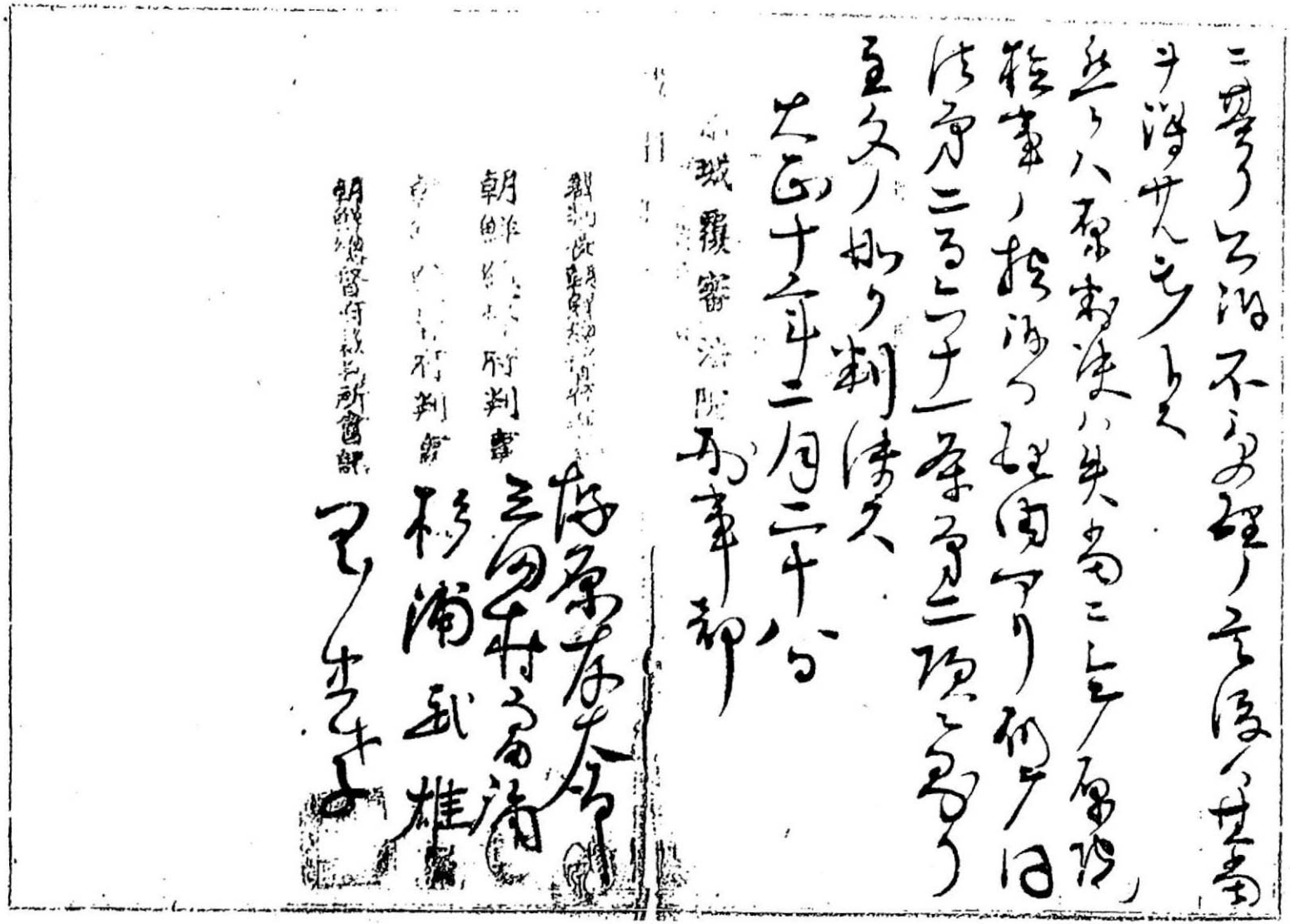
右ノ者ニ對スル [illegible] 事件ニ付キ當裁判所ハ檢事 [illegible] 出席ノ上審理ヲ遂ケ次ノ如ク判決ス

主文

原判決ヲ破棄ス

被告人權 [illegible] ヲ懲役一年ニ處ス

押收物件ハ [illegible]



뿌리

발행일 2016년 12월 10일
발행처 초계변씨 양정문중(서륜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암1길157
편 저 초계변씨 31세손 규 석
(010-5656-9339)
인쇄인 진우인쇄출판사 승만석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4길 26
(055-242-1177, 010-4545-1178)
출판등록 제2003호-100011호